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학박사학위논문

중국 산둥성 위해시 이주노인이
경험하는 가족관계와 가족 돌봄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ZHENG LING

중국 산둥성 위해시 이주노인이 경험하는 가족관계와 가족 돌봄

지도교수 박 경 숙

이 논문을 사회학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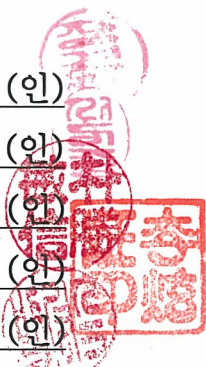
사 회 학 과

ZHENG LING

정령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1월

위 원 장	장 영 생	(인)
부 위 원 장	서 이 중	(인)
위 원	박 승 민	(인)
위 원	이 현 정	(인)
위 원	박 경 숙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국사회의 도시화 과정에서 분산되었던 이주가족이 노인이 주를 통해 재결합을 이룬 이후 어떤 가족관계를 만들어 가는지, 노인에 대한 가족 돌봄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중국의 도시화 구도에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자리하여 있는 동시에, 먼저 이주해온 자녀세대를 중심으로 노인이주를 통한 가족재결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위해시(威海市, Weihai)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위해시에 상주하고 있는 이주노인 30명을 표집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직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고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이론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는 분야들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근거이론적 접근방식(Strauss & Corbin, 1990)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면담자료를 개방코딩과 축 코딩, 선택코딩을 통해 분석한 결과 60개 개념, 23개 하위 범주, 9개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주노인이 이주한 이후에 경험하는 가족관계와 돌봄 양상을 개괄해줄 수 있는 핵심범주는 ‘자녀세대 중심의 거주방식, 상호지원관계, 돌봄 규범의 형성으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자녀 중심적 가족관계가 만들어지고, 노인이 부모의 책임을 다했을 때에는 점차 주변화 되는 과정’으로 도출되었다.

도시화로 분산되었다가 다시 재결합을 이룬 이주가족의 이주 후 가족관계의 구성 과정을 이야기 윤곽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전통적 산업도시와 농촌 지역을 떠나 전전하다가 위해시에서 정착하게 된 이주자들은 세대 간의 상호 돌봄을 위해 다시 위해시에 모이게 되었다. 이들은 가족이 보유한 자원, 가족 내의 돌봄 수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거주방식, 상호지원관계, 돌봄 규범을 구성하고 조정하였는데 결국 가족관계

는 자녀가 중심이 되고 노인이 소외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거주 방식에 있어서 세대갈등, 주택문제, 자녀의 재이주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노인은 점차 다세대 동거가족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분거하게 된 노인들은 돌봄이 필요하게 되어도 다시 자녀와 동거하기 어려웠다. 세대 간의 상호지원 관계에 있어서는 세대 간 분업을 통해 자녀가 생산 영역을 차지하고 노인은 주로 돌봄 영역을 맡게 됨으로써 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이 형성되고 있었다. 또 노인이 독립능력을 가질 때에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 가사 지원, 육아 지원 등 폭 넓은 지원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자녀에게 의존하게 될 때에는 자녀의 맞벌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한된 도움밖에 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상호지원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돌봄 규범에 있어서는 노인이 독립 능력을 가질 때에는 부모의 책임을 강조 받아 자녀에게 최대의 도움을 제공하도록 요구 받고 있으나, 자녀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자녀에게 미치는 민폐를 최소화하도록 요구 받고 있었다. 한편 자녀는 노인으로부터 폭 넓은 지원을 받는 시기에는 노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강하게 느낄 지라도, 노인이 자신에게 의존하게 될 때에는 맞벌이 등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노인이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족 내 상황과 취한 가족전략에 따라 이주 가족 안에는 다양한 유형의 자녀 중심의 가족관계가 만들어졌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자녀중심의 가족관계는 노인이 자녀와 같은 지붕아래에 생활하면서 경제관리도 함께하는 동거형 가족관계, 노인이 자녀와 같은 지붕아래에 생활하지만 경제는 분리 되어 있는 동거 부동재(同居不同財)형 가족관계, 노인과 자녀가 근거리에 거주하면서 밀접한 상호지원 관계를 맺는 근거리 분거형 가족관계, 노인과 자녀가 근거리에 분거하여 생활하지만 매일 함께 식사하는 근거리 분거 동조(分居同灶)형 가족관계, 노인이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양로원에 입소해 있는 근거리 입소형 가족관계, 노인과 자녀가 서로 다른 도시에 분리되어 있는 원거리 분리형 가족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근거이론적 분석 방식을 통해 중국 이주노인이 경험하는 가족재결합이후의 가족관계와 돌봄 양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미니이론을 개발해 봄으로써, 이주노인이 도시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족관계와 가족 돌봄을 이해하고 이론화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기되는 중국 사회의 새로운 가족재결합 전략을 관찰해 봄으로써, 비교학적 관점에서 도시화로 인해 날로 악화되는 동아시아 사회의 가족 돌봄 문제에 대한 이론적 지평을 넓혀줄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가족관계, 가족 돌봄, 가족 재결합, 도시화, 노인이주, 중국

학번: 2011-31257

<목 차>

1. 서 론	1
1.1. 문제제기	1
1.2. 문헌고찰	7
1.2.1. 중국 도시화의 시·공간적 특성	7
1.2.1.1. 중국 도시화의 발전 단계	7
1.2.1.2. 중국 도시화의 공간적 전개과정	13
1.2.1.3. 중국 도시화 과정에서의 인구이동	16
1.2.2. 도시화 과정에서의 가족적 대응과 세대관계	19
1.2.2.1. 도시화 과정에서의 가족전략: 가족 구성원의 단계적 이주	19
1.2.2.2. 이주 단계 별 가족기능의 공간적 배분과 역할 재 분업	22
1.3. 연구방법	31
1.3.1. 분석틀	31
1.3.2. 용어 정의	32
1.3.3. 연구방법	35
1.3.3.1. 근거 이론적 접근	35
1.3.3.2. 연구 참여자 선정	36
1.3.3.3. 연구자료 수집과 분석	42
1.3.3.4.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	49
1.3.3.5. 연구대상 배려와 연구과정에서의 윤리적 고민	50
1.3.4. 면접 사례 소개	53
1.3.5. 논문의 구성	76
 2. 위해시의 도시화	 78
2.1. 중국 도시화 구도에서 위해시의 위치와 역할	78
2.2. 위해시의 도시화 과정	81

2.2.1. 1990년대 위해시의 도시화	82
2.2.2. 2000년대 위해시의 도시화	85
2.2.3. 2010년대 위해시의 도시화	89
3. 노인 이주의 맥락	92
3.1. 가족의 분산	93
3.1.1. 전통적 산업 도시의 쇠퇴로 인한 이주	93
3.1.1.1. 국유기업 민영화로 인한 동북 3성 출신 실업자들의 이주	93
3.1.1.2. 취업기회 감소로 인한 자원형 도시 거주자들의 이주	100
3.1.1.3.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중공업 도시 거주자들의 이주	102
3.1.2. 농촌의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이주	103
3.2. 노인이주를 통한 가족의 재결합	106
3.2.1. 가족구성원의 흡인	106
3.2.1.1. 자녀 세대의 일 가정 양립난	106
3.2.1.2. 노인세대의 돌봄 부재 상황	109
3.2.1.3. 근거리 거주에 대한 욕구	112
3.2.2. 기후환경의 흡인	114
3.2.3. 호구제도의 흡인	115
4. 이주 후의 거주 방식	116
4.1. 이주 초기 거주방식의 선택	117
4.1.1. 상호 의존을 위한 동거	117
4.1.2. 독립 유지를 위한 근거리 거주	123
4.1.3. 동거 조건 부재로 인한 근거리 거주 및 입소	125
4.2. 이주 후기 거주방식의 조정	129
4.2.1. 세대 간 격차로 인한 분거 및 입소	129
4.2.2. 와상 노인 돌봄을 위한 분거 및 입소	133

4.2.3. 주택 협소로 인한 분거 및 입소	135
4.2.4. 독거 탈피를 위한 근거리 입소	137
4.2.5. 정착 실패로 인한 자녀의 재이주	138
4.2.6. 가족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타 가족구성원의 후속이주	140
5. 이주 후의 상호 지원관계	146
5.1. 의존 상황 발생 전 자녀에 대한 지원	147
5.1.1. 육아와 가사 보조	147
5.1.2.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153
5.1.3. 와상 배우자 수발 전담	156
5.1.4. 자녀의 사업에 대한 노동력 지원	161
5.1.5. 가게를 위한 노후 노동	162
5.2. 의존 상황 발생 후 부모에 대한 지원	164
5.2.1. 소득원이 없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164
5.2.2. 분거 및 입소한 부모에 대한 정서적 돌봄	168
5.2.3. 비상 상황에 처한 부모에 대한 일시적 돌봄	171
6. 이주 후의 돌봄 규범	174
6.1. 노인의 돌봄 규범	174
6.1.1. 의존 상황 발생 전 자녀에 대한 지원 강조	174
6.1.1.1.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강조	174
6.1.1.2. 노인의 헌신을 통한 가족 결속력 강화	182
6.1.2. 의존 상황 발생 후 자녀에 대한 민폐 최소화 강조	185
6.1.2.1. 자녀의 돌봄 행위에 대한 사양	185
6.1.2.2. 자녀의 돌봄 부재에 대한 관대한 태도	187
6.1.2.3. 양로원에 대한 수용	191
6.2. 자녀의 돌봄 규범	197

6.2.1. 의존 상황 발생 이전 자녀의 높은 부양 책임감	197
6.2.2. 의존 상황 발생 이후 부모 돌봄에 대한 현실적 한계	198
6.2.2.1. 부모의 민폐 최소화 노력에 대한 거리두기	198
6.2.2.2. 부모의 돌봄에 대한 아들의 역할 감소	201
6.2.2.3. 부모의 돌봄에 대한 딸의 역할 강화	207
 7. 다양한 유형의 자녀 중심적 가족관계의 형성	209
7.1. 동거형 가족관계	210
7.2. 동거 부동재(同居不同財)형 가족관계	212
7.3. 근거리 분거형 가족관계	213
7.4. 근거리 분거 동조(分居同灶)형 가족관계	215
7.5. 근거리 입소형 가족관계	216
7.6. 원거리 분리형 가족관계	217
 8. 결론 및 논의	218
8.1. 연구결과 요약	218
8.2. 이론적 함의	220
8.3. 정책적 함의	224
8.4.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224
 [참고문헌]	226
 Abstract	235

〈표 목차〉

표 1 <국가신형도시화계획(2014-2020년)>의 주요 목표	12
표 2 2010년 중국의 인구이동 상황	18
표 3 65세 이상 노인의 가족 구조	21
표 4 인터뷰 질문 리스트	43
표 5 개방코딩	45
표 6 과정 분석 결과	47
표 7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정보	53
표 8 논문의 구성	78
표 9 1990년대 위해시의 도시발전	84
표 10 2000년대 위해시의 도시발전	86
표 11 2010년대 위해시의 도시발전	90
표 12 국유기업의 민영화로 인해 피해 받은 사례	99
표 13 노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한 돌봄	149
표 14 노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	154
표 15 자녀가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	165
표 16 가족 간의 결속력	183
표 17 가족 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방식	184
표 18 돌봄에 대한 자녀의 책임 강조	188
표 19 돌봄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관용	188
표 20 독립생활 능력을 상실했을 때의 계획: 입소	192
표 21 독립생활 능력을 상실 했을 때의 계획: 자녀 돌봄	202
표 22 이주노인의 주 돌봄자	207

<그림 목차>

그림 1 중국 도시화율	8
그림 2 중국 도시화 발전축과 도시군	15
그림 3 2010년 중국 여러 성(省)의 인구 총 유출과 총 유입 상황	17
그림 4 분석틀	32
그림 5 위해시 지도	79
그림 6 산둥반도 도시군	80
그림 7 1990년대-2010년대 중점 개발 지역	82
그림 8 위해시 외성인구(外省人口)의 출신지	88
그림 9 김영훈의 가족 네트워크	144
그림 10 진항홍의 가족 네트워크	144
그림 11 사회영의 가족 네트워크	145
그림 12 이기애의 가족 네트워크	145

1. 서 론

1.1. 문제제기

최근 중국에서는 도시화로 인해 크게 약화된 세대 간의 돌봄 관계를 노인이주를 통한 세대 재결합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가족 전략이 등장하면서 이주노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는 60세 이상의 이주노인이 약 1582만 명에 달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이다(중국 국가 통계국, 2010).

중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주로 미혼자나 결혼 무자녀 성인이 이주의 주체였지만 2000년 전후 인구이동에 참여하는 기혼자와 기혼 유자녀 성인들이 날로 증가하게 되었는데(楊菊華·何焰華, 2014:43) 이주자에 대한 호구제도, 사회보장, 노동시장, 주택시장 등의 배제로 인해 이주자들의 정착이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직계가족은 물론이고 핵가족조차도 함께 이주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약 80%의 이주자가 가족구성원과 분리한 형태로 이주하였다(國家統計局農村社會經濟調查司, 2007). 가족의 물리적 파편화를 대가로 한 도시화는 가족에게 더욱 많은 소득을 가져다주었으나 노인과 아동의 돌봄 문제를 야기 시켰다. 도시에서의 아동 공교육의 배제로 인해 이주자가 아동을 노부모에게 맡기고 도시로 진출할 경우 노부모는 육아, 농사, 가사 노동 3중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 공교육의 배제를 무시하고 아동을 도시에서 양육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부모만 돌봄 부재의 상태로 농촌에 남을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맞벌이를 하는 성인자녀는 일과 아동양육의 양립난을 겪는다.

이에 외지인에 대한 제도적 배제가 날로 완화되고 이주자의 정착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는 2010년대에는 노인으로부터 육아 도움을 받는 동시에 가까이에서 노인을 돌보고자 노인을 도시로 모셔오는 것이 새로운 가족전략으로 등장하였다. 이주가족은 노인이주를 통해 도시에서 세대 재결합을 이루고 세대 간 상호 돌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를 따라 이주한 노인들은 노후에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고

낮선 지역의 기후, 언어, 사회적 네트워크 등에 적응해야 하며 이주지에서 아랫세대에 종속된 삶을 살아야 한다. 동시에 이주지의 높은 소비를 감당해야 하고 의료보장 없이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며, 자녀가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주 할 경우에는 이주지에 방치되거나 따라서 재이주를 하거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한편 이주해온 노인의 돌봄을 책임 질 성인자녀는 이주자에 대한 제반 배제를 극복하고 이주지에 정착해야 하고, 금융위기로 인한 불안한 노동시장, 과도한 자녀의 양육부담, 급상승하는 소비와 주택비 등 다양한 사회적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해온 노부모까지 돌봐야 하므로 재결합한 가족 안에는 많은 긴장과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노인이주를 통해 재결합한 이주가족이 어떤 가족관계를 구성하는지, 노인돌봄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찰하고자 한다.

현재 중국이 ‘사람의 도시화(人的都市化)’를 핵심으로 하는 신형도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으로¹⁾ 이주자들의 도시정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노인이주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향후 가족 재결합의 보편화 정도에 따라 더욱 일반적인 논의가 될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가족 재결합을 이루는 이주가족에 제한된 좁은 영역의 연구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도시화 과정에서 날로 어려워지는 노인 돌봄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새로운 전략-가족 재결합에 대해 탐색해 봄으로써 노인 돌봄 연구에 기여할 수 있고, 도시화 과정 속에서 갈등하면서 적응하고 있는 가족관계 변화상의 일각을 보여 줄 수 있으며,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1)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의 개체수와 도시 면적은 크게 확대되어 ‘토지의 도시화(土地的都市化)’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이주자들의 신분전환과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람의 도시화(人的都市化)’가 지체 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중국 정부는 2014년에 ‘사람의 도시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신형도시화계획 2014-2020년(國家新型城市化規劃 2014-2020年)>을 발표하였다. <국가신형도시화계획 2014-2020년(國家新型城市化規劃 2014-2020年)>에서 제기한 목표는 2020년에 상주인구 도시화율을 60%로 달성하는 동시에 도시 호적인구(戶籍人口) 비율을 45%로 상승시키는 것이다(中國國務院, 2014).

있는 이주노인 집단의 노인 돌봄 문제에 대해 탐색해볼 수 있어 매우 필요하다.

기존 중국 이주노인의 가족재결합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동노인에 대한 인구학 연구와 수천노인, 노표족에 대한 사회학 연구가 있었다. 2000년대에 소수의 인구학 연구가 이주노인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중국 노인의 이주목적은 주로 가족과의 재결합이라는 것을 제기하였다(周皓, 2002; 孟向京·薑向群·宋健·萬紅霞·陳豔·韓中華·何雲燕, 2004; 張伊娜·周雙海, 2013). 2010년에는 노인이주가 사회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이주노인 집단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사회학 연구주제로 등장하였다. 그 후 현재까지 짧은 기간 동안 노인이 이주한 후에 봉착하게 되는 제반 어려움에 대한 기술적 논의가 상당히 풍부하게 이루어 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이주 노인이 겪는 생활방식의 적응문제, 지역사회의 적응문제, 사회보장의 적응문제, 가족관계의 적응 문제 등을 자세하게 기술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기존연구들은 노인은 이주함과 동시에 가까운 이웃들과 활발히 교제하던 농촌마을의 ‘숙인사회(熟人社會)’에서 낯선 사람들로 구성된 도시 주거단지의 ‘낯선 사람 사회(陌生人社會)’으로 진입하면서 적응의 어려움을 느낀다고 지적한다(詹洪波, 2012; 易丹, 2014). 특히 이주노인은 이주지에서 원래의 사회적 관계를 잃고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매일 집에 갇혀서 생활하며 심리적 고독감이 크다고 한다(何惠亭, 2014; 陳盛淦, 2014; 張紅濤·席絹, 2015). 이주노인들은 언어적 장벽과 지역 간의 문화, 오락 방식의 차이로 지역 사회안의 복지시설(노인활동중심, 노인대학 등)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도시 노인들의 커뮤니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趙婕, 2013; 張紅濤·席絹, 2015). 보다 후진 곳에서 더 발달한 지역으로 이주한 결과 이주노인들은 이주지의 복잡한 교통망과 기계화된 생활수단에 익숙하지 못하여 자아존중감이 하락하고 무력감을 느낀다고 보고되기도 한다(劉曉雪, 2012; 何惠亭, 2014). 그 밖에 중국의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제반 사회보장혜택이 호적지에서만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어(何惠亭,

2014:160) 이주노인들은 이주지에서 교통할인, 관광지, 박물관 등 문화시설할인과 고령자 수당, 의료보장 등 측면에서 제도적 차별을 받고 있고 보고된다(郭南南, 2012; 何惠亭, 2014; 張紅濤·席絹, 2015).

가족재결합 이후 노인의 가족관계에 대한 논의도 노인들이 봉착하는 어려움의 일부로 논의 되고 있다. 기존 논의에서는 이주 후 이주노인의 가족관계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삶의 중심이 자녀와 손자(녀)에게로 이전 되고 가족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며 가족 내 지위가 하락한다. 또 세대 간의 모순과 고부갈등이 발생하고 자녀의 맞벌이로 인한 정서적 돌봄의 부재, 배우자와의 이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보고 한다(詹洪波, 2012; 郭南南, 2012; 趙婕, 2013; 陳盛淦, 2014; 何惠亭, 2014; 張紅濤·席絹, 2015; 鄭佳然, 2016). 이러한 연구들은 재결합 이후의 가족관계에 있어서 노인이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위치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부족하다.

또 호구, 소득, 건강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이주노인들은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기에 그들의 가족관계와 돌봄 상황도 매우 다양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연구에서는 이주노인의 가족관계의 특징을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가 매우 미흡했다. 현재 이주노인의 다양성을 이론화한 연구로는 李珊(2010)의 연구와 蘆恒·鄭超月(2016)의 연구가 있는데 李珊은 대련시의 4개 구(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대도시로 이주한 이주노인의 유형을 이주의 목적에 따라 자녀 의지형(投靠子女型), 자녀 지원형(支援子女型), 생활품질 추구형(追求生活品質型), 고향 귀환형(葉落歸根)으로 나누었다. 이 연구는 이주노인이 지원을 제공하는 입장인지, 지원을 받는 입장인지에 따라 경험하는 가족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李珊, 2010). 蘆恒·鄭超月는 2015년에 장춘시, 상해시, 정주시의 노표족 200명을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인터뷰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자녀의 현지 호구 획득여부’와 ‘육아 지원 참여여부’를 기준으로 이주노인을 쌍표형 노표족(雙漂型老漂), 보모형 노표족(保姆型老漂), 민공형 노표족(民工型老漂), 피부양형 노표족(受養型老漂)으로 유형화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노인의 호구유형과 육아 지원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가족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蘆恒·鄭超月, 2016). 이러한 연구들은 이주노인의 이질성에 기초하여 이주노인들을 유형화하는데 기여하였지만 가족관계의 특징을 기준으로 이주노인을 유형화한 것이 아니기에 가족관계의 다양성을 설명하는데 매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화 과정에서 가족 돌봄이 약화되는 과정과 이주노인의 이질성에 주목하여, 이주노인이 재결합 이후에 경험하는 가족관계와 가족 돌봄 상황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 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의해 본 연구는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거주하는 이주노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근거이론적 분석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중국의 도시화 구도 속에서 연구지역이 되는 중국 산둥성 위해시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1988년) 연해개방도시로 지정된 도시로서, 1990년대부터 중국 도시화에서 엔진역할을 한 동남연해 축의 중요한 거점도시이자, 2000년대부터 세 번째 도시화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한 환발해만지역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2010년대부터 점차 형성되고 있는 산둥반도 도시군에 속하는 중점도시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

위해시는 1990년대에 개방도시의 특혜정책을 이용하여 근교에 2개의 경제개발구를 설치하고 한, 일 등 외국자본과 기술을 흡인하여 공업위주의 산업구조를 조성하였다. 2000년대에는 원교와 현금시에 2개의 개발구를 추가 설치하고 외국인 투자와 수출입 무역을 유지하면서, 제3차 산업과 부동산개발로 지속적인 도시화 동력을 얻었다. 2010년대에 와서 위해시는 국가급 발전전략인 남색경제 개발구 건설 프로젝트를 계기로 기존의 공업발전을 기초로 새로이 해양 제조 산업과 해양 관광 산업을 대거 발전시키고 해변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개발구 7개를 신설하였다. 위해시는 새로운 개발구에 외자의 투입을 적극 유인하고 관광업을 중심으로 제3차 산업을 적극발전 시켜 2016년에는 처음으로 3차 사업이 2차 산업 총액을 능가하는 경제구조를 조성하였다. 이와 같은 30년간의 발전으로 위해시의 도시화 수준은 1987년의 19.2%에서 2016년의 65.0%로 급상승하였다(위해시 통계국, 2017). 30년 동안 위해시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대량

의 일자리 창출, 한국 기업 흡인과 한국인 사회 조성, 지속적인 생태보호를 통한 생태도시와 양로도시 건설, 부동산의 대량건설·판매, 이주자에 대한 선별적 수용정책, 최근에 실행하고 있는 이주자 정착화 정책들로 하북성, 하남성, 강소성 등 인근 지역으로부터 오는 노동력뿐만 아니라 동북 3성 출신의 도시 이주자, 고령 이주자, 조선족 이주자들도 대량으로 흡인했다. 현재 위해시에서는 1990년대, 2000년대에 이주해온 자녀세대들의 흡인, 우월한 생태환경의 흡인, 호구제도의 흡인으로 이주해 오는 노인들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주자들의 가족재결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위해시 통계국, 2017).

본 연구는 바로 산동성 위해시 도시화의 이러한 구체적 맥락 속에서, 도시화 과정에서 분산된 이주가족이 노인이주를 통해 재결합을 이룬 이후 어떻게 가족관계를 구성하고 어떻게 노인돌봄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연구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①이주노인은 어떤 도시화 과정을 경험했는가? 즉 가족의 분리와 가족 재결합은 어떤 사회적·가족적 맥락 안에서 일어났는가? ②가족 재결합 이후 가족 관계(가족구조, 가족 간의 상호지원, 가족 간의 돌봄 규범)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③가족 재결합 이후 노인 돌봄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

본 연구는 관련 주제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논의가 부재한 점에 기인하여,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직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고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구체화되지 않았을 경우, 이론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는 분야들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근거이론적 접근방식(Strauss & Corbin, 1990)을 통해, 도시화 속에서 노인이 경험하는 가족관계와 가족돌봄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근거이론적 분석 방식을 통해 중국 이주노인이 경험하는 가족재결합이후의 가족관계와 돌봄 양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미니이론을 개발해 봄으로써, 이주노인이 도시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족관계와 가족 돌봄을 이해하고 이론화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또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기되는 중국 사회의 새로운 가족전략(가족재결합)을 관찰해 봄으로써, 비교학적 관점에서 도시화로 인해 날로 악화되는 동아시아 사회의 가족 돌봄 문제에 대한 이론적 지평을 넓혀줄 수 있을 것이다.

1.2. 문헌고찰

1.2.1. 중국 도시화의 시·공간적 특성

1.2.1.1. 중국 도시화 발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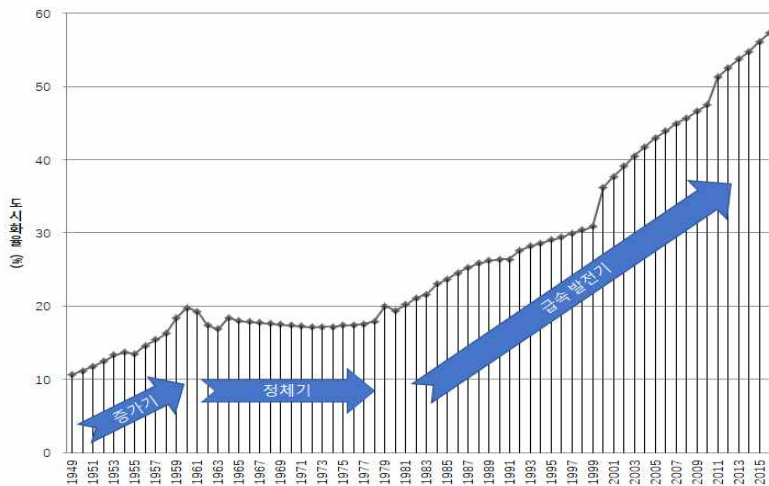
오늘날의 도시화에 대한 분석적 시각은 전통적 입장인 시카고학파의 생태학적 견해와 맑시즘에 기초한 정치경제학적 견해가 주류를 이루는데 시카고학파의 생태학적 접근에서는 도시화를 인구의 도시집중 과정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정치경제학적 접근에서는 기업과 자본, 그리고 산업시설의 도시집중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도시화란 인구의 도시화와 도시성의 확산으로 볼 수 있다(강대기, 1992:79).

인구도시화는 주로 한 지역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는 주로 인구가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또한 현재까지 농촌으로 분류되던 지역이 인구규모가 일정수준에 도달하여 도시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일어날 수도 있다.

도시성의 확산은 도시의 영향이나 확장으로 농촌지역이나 교외지역이 도시적인 요소가 증가하여 점차 도시적 성격을 가진 지역으로 변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현상은 어떤 농촌지역의 경제적 구성에서 소비성 산업과 서비스 산업 등 도시적 성격의 경제요소가 점차 증가해도 사회적 구성에서 전통적 관습과 문화가 바뀌고 순박한 농촌사회에서 이해타산을 앞세우는 사회로 변질되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른 한편 도시지역의 외연적 확대도 나타나기도 한다. 도시 외곽부에 위치하여 농촌적 사회·경제를 바탕으로 생활해 오던 지역에 개발과도와 함께 도시적 요소가 침투하여 내부적인 도시화뿐 아니라 외형적 모습도 도시적으로 변모하는 경우이다. 도시화의 진행과정은 도시의 역사적·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집중적 도시화, 분산적 도시화, 역도시화의 3 단계를 거치게 된다(한국국토·도시계획학회, 2010:38-39).

도시화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도시화율(도시인구의 비중)로 측정한다. 중국의 도시화율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 할 때의 10.64%(1949년)에서 2016년에는 57.35%로 상승하였는데, 도시화 과정은 크게 1949년부터 1960년까지의 증가기, 1961년부터 1978년까지의 정체기, 1979년 이후의 급속 발전기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중국의 도시화율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저자 정리

1949년부터 1960년까지 도시화율은 10.64%에서 19.75%로 빠르게 상승하였다. 이 시기의 도시화 동력은 국민경제 회복기(1949년-1952년)와 1차 5개년 계획(1953년-1958년)의 실행 과정에서 대·중형 공업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한 공업화이다. 또한 1950년 중반부터 과격한 공업화를 추구하는 대약진 운동이 날로 뜨거워지면서 도시인구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것과 연관이 있다.

대약진 운동이 초래한 경제난과 기근, 이어지는 문화대혁명으로 중국의 도시화는 1961년부터 1978년까지 정체해 있었다. 이 시기 도시화가

장기간 정체된 이유들은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전국적인 양식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1958년 이후에 국가가 주도하여 대약진 시기 도시로 올라온 2600만 명의 농민을 다시 농촌으로 돌려보냈고, 문화대혁명의 악영향으로 국민경제 발전이 정체되고 도시 관리 행정부서들이 마비된 것이 원인이 된다. 또 계획경제시기에 시장원리가 경시되고 행정이 경제를 주도한 것, 국유 중공업과 중공업 도시를 집중발전하고 개인 공공업과 서비스업을 ‘자본주의’로 인식하여 엄격하게 통제 한 것, 국방과 균형발전을 위해 생산시설과 도시 건설을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분산하는 3선 건설 전략을 실행한 것, ‘상산하향(上山下鄉)’운동에 의해 1750만 명의 도시 지식청년들이 농촌으로 보내진 것, 엄격한 호구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을 엄격하게 통제한 것, ‘선 생산 후 생활(先生產後生活)’의 원칙아래 도시의 주택 등 생활역영의 개선이 경시 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도시화의 정체를 유발했다(박인성, 2010:5; 박인성, 2016:80)

1978년의 개혁개방 정책을 계기로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압축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어 1979년에는 도시화율이 19.99%였던 것이 2016년에는 57.35%를 달성하였다(中國國家統計局, 2017). 1980년대에 중국의 도시화는 주로 농업을 떠나되 농촌을 떠나지 않는 ‘이토불이향(離土不離鄉)’의 농촌 공업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 중국의 개혁 중심은 주로 농촌지역에 있었고 도시지역의 개혁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농촌에서는 인민공사가 해체되고 가정별 토지도급제가 실시되면서 농업생산이 지속적으로 증산하였고 대량의 노동력이 인민공사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로 인해 농촌의 잉여 노동력 문제가 표출되고 잉여자금이 만들어지자 농촌집체를 중심으로 대량의 향진기업(鄉鎮企業)들이 생성되었다. 이 시기 대량의 농민들이 농업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떠나 현재의 향진기업에 취직하였는데 1992년에는 향진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1억 명을 돌파하여 농촌 노동력의 22%를 차지하였다. 이 시기 도시화의 가장 큰 특징은 노동력이 대량으로 농업에서 공업부문으로 이전 되었지만 농촌 노동력의 도시 이전은 없었다는 점이다.

1990년대부터 중국의 도시화는 농촌 노동력의 도시 이주를 통해 탈 농업, 탈 농촌을 이루는 ‘이토이향(離土離鄉)’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990년대부터 개방도시를 중심으로 대량의 외국자본이 유입하면서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와 연해도시 지역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노동력 수요가 확대하면서 대량의 농촌 노동력이 연해지대로 이동했다. 그러나 이 시기 인구의 이동은 정책적으로 명확한 규제는 받지 않았지만 장려되지도 않았고 제도적으로 도시로 이동한 농촌인구들의 호구 이전은 허용되지 않았다.

2000년대부터 중, 소도시의 호구 이전이 허락됨에 따라 도시화는 도시에서의 정착을 도모하는 ‘진성낙호(進城落戶)’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호구전출입은 2001년이 되어서야 절강성(浙江省), 하북성(河北省)을 시작으로 서서히 중, 소도시에서 허용되기 시작하였지만 이동인구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대도시, 특대도시로의 호구 전이는 아직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안산평, 2007). 따라서 현재 이주자의 정착화추세가 보이기는 하지만 중국에는 호적지와 현재 상주지가 일치하지 않은 이동인구가 대량으로 존재하는데 2012년 기준으로 그 규모가 2.6억 명에 달한다. 이들 중 87.7%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였으나 신분의 전환을 이루지 못한 농민공이다(中國國家統計局, 2013). 이동인구의 신분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 도시화’적 성격(王春光, 2009) 때문에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의 상주인구 도시화율은 52.6%에 달하지만 호적인구 도시화율은 35.3%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中國國務院, 2014).

이처럼 2000년대까지의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도시 면적이 크게 확대되어 ‘토지의 도시화(土地的城市化)’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사람의 도시화(人的城市化)’는 지체되어 있었던 것이다(中國國務院, 2014, <國家新型城市化規劃>에서 인용). ‘반 도시화’ 문제 이외에도 도시병의 문제, 농촌 발전의 지연문제, 농민에 대한 토지권리 침해에 따른 사회의 불안정 문제, 노동집약형 생산방식에 기초한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방식의 한계 등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었다(張占斌, 2013; 中國國務院, 2014; 백우열, 2014; 박장재, 2015). 이에 2014년 3

월 16일에 중국 국무원은 <국가신형도시화계획2014-2020년(國家新型城市化規劃2014-2020年)>을 발표하여 2010년대에는 ‘사람의 도시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형도시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신형도시화의 함의에 대한 정부와 학계의 대표적인 인식은 아래와 같은 논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李克強(중국 국무원 총리)는 2013년 1월 15일 국가식량국과학연구원(國家糧食局科學研究院)의 연설에서 ‘도시화 추진핵심은 사람의 도시화이며 관건은 도시화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고 목적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농민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다. 집약·에너지절감·생태의 새로운 길을 통해 내재적 수용능력 제고에 힘쓰고 인위적인 도시건설을 진행해서는 안되며 산업발전과 도시건설을 융합하여 농민공들이 점차 도시에 융화되도록 해야 한다. 농업 현대화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시장을 제공하여 신형도시화와 농업현대화의 상부상조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박장재, 2015:74에서 재인용). 張占斌(2013)은 ‘新型城鎮化的戰略意義和改革難題’에서 신형도시화의 함의와 특징을 ‘첫째, 신형도시화는 공업화·정보화·도시화·농업현대화가 조화롭게 상호작용하는 도시화이다. 둘째, 신형도시화는 인구·경제·자원·환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집약·스마트·녹색·저탄소가 선도하는 도시화이다. 셋째, 지역경제발전과 산업배치가 긴밀하게 연계된 도시구조를 구축하고 도시군을 주축으로 대·중·소도시와 소성진(小城鎮)’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도시화이다. 넷째, 사람의 전면적 발전을 실현하고 포용과 화해의 도시를 건설하여 농업이전 인구의 질서 있는 시민화와 공공서비스의 조화발전을 구현하는 도시화이다’로 정리하고 있다(박장재, 2015:72에서 재인용). <국가신형도시화계획 2014-2020년>에 의하면 중국정부는 도시 개체수와 규모의 확대와 같은 양적 확대만이 아닌 농민공의 신분전환, 기본공공서비스 개선, 기초시설 건설, 자원 환경 보호 등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지표들을 2010년대의 도시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표 1> 참고). 2020년까지 중국의 도시화의 핵심 목표는 2012년 기준으로 52.6%인 상주인구 도시화율을 2020년에 60%로 올리는 동시에 도시호구 인구비중을 35.3%를 45%로 상승시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향후 도시화 과정에서 호구제도

개혁과 농민공의 도시민화, 농촌 토지 제도의 개혁과 토지보상 강화, 도시 인프라 건설과 도시군(城市群)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박장재, 2015).

<표 1> <국가신형도시화계획(2014-2020년)>의 주요 목표

주요지표	2012년	2020년
도시화수준		
상주인구 도시화율(%)	52.6	60내외
호적인구 도시화율(%)	35.3	45내외
기본공공서비스		
농민공 자녀 의무교육 비율(%)		≥99
도시 실업자, 농민공, 신 성장 노동력의 무상 기초직업 능력 육성비율(%)		≥95
도시 상주인구 기본양로보험 수령율(%)	66.9	≥90
도시 상주인구 기본의료보험 수령율(%)	95	98
도시 상주인구 보장성주택 공급율(%)	12.5	≥23
기초시설		
100만 이상 인구도시 대중교통 기계화율(%)	45*	60
도시 공공급수 배급율(%)	81.7	90
도시 생활쓰레기 무공해 처리율(%)	87.3	95
도시 가정 광대역 전송속도(Mbps)	84.8	95
도시 지역종합서비스 시설 구축율(%)	4	≥50
도시 지역 종합서비스 시설 구축율(%)	72.5	100
자원환경		
1인당 도시건설용지(m ²)		≤100
도시 재생 가능한 에너지소비 비중(%)	8.7	13
도시 신축건설 중 녹색 건축 비중(%)	2	50
도시 녹지율(%)	35.7	38.9
지급이상 도시 대기오염의 국가기준 달성율(%)	40.9	60

주: 1) (*)은 2011년 수치를 기준으로 함

2) 도시 상주인구의 기본 양로보험 수령률 지표는 16세 이하 인구와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하지 않음

3) 도시 보장성주택은 공공임대주택(저 소득 임대주택), 정책성 상품주택, 판자촌

지역의 재개발 주택을 포함함

4) 1인당 도시 건설용지는 중국의 <도시용지분류와 건설용지규획기준>에 따르면 1인당 도시건설용지 기준을 65.0-115.0m², 신도시는 85.1-105.0m²로 규정함

5) 도시 대기오염 국가기준은 1996년 기준을 기초로 함

자료: 中國國務院, 2014, <국가신형도시화계획2014-2020년> 박장재, 2015:68에서 재인용

1.2.1.2. 중국 도시화의 공간적 전개과정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은 도시의 공간적 배치에 있어서 동, 서부 균형 발전 전략과 국방 중심의 배치원칙을 따랐다. 1953년 제1차 5년 계획시기 소련의 원조 하에 추진된 156항의 중점 건설프로젝트는 원료와 연료산지 및 간선 교통도로 등 교통중심지에 접근하기 쉽게 배치하고, 기존 도시의 생활 및 생산 기반을 적극 이용하며 소수민족 지역과 낙후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하는 원칙하에 중서부 내륙 지역을 배치중심으로 정하였다. 65%의 건설프로젝트가 북경(北京)-광주(廣州) 철도선 서쪽에 위치한 45개 도시와 61개의 공업진(鎭)에 배치되었고 35%의 항목이 북경-광주 철도 축 동쪽과 동북쪽에 위치의 46개 도시와 55개 공업진(鎭)에 배치되었다(王凱, 2006). 1964년 이후 중국과 미국,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악화되고 국제형세가 긴장해지자 국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삼선(三線)지역²⁾으로 대규모의 공업 이전을 실시하였다. 삼선지역건설 과정에 연해지역의 380개 프로젝트, 14만 5천 명의 직원과 3만 8천여대의 설비가 해당지구로 이전되었고(박인성, 2010:4), 1964년부터 1980년까지 16년 동안 중국 정부는 전국기본건설투자의 39.1%를 삼선지역으로 집중하였고 400만 명의 노동자, 간부, 지식인, 군인을 동원하여 1100개의 대 중형 건설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陳東林, 2003). 결과 서녕(西寧), 란주(蘭州), 성도(成都), 보계(寶鷄), 한중(漢中), 십언(十堰) 등 중서부 내륙 지구의 도시가 크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박인성, 2016:81).

2) 미국·소련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전쟁 위협을 고려하여 전국을 1선 지역, 2선 지역, 3선 지역으로 나누었다. 1선 지역은 전쟁발생 시의 최전방 지역으로 주로 연해지역, 동북지역, 신강 등 지역을 포함한다. 3선 지역은 주로 최후방인 중, 서부 내륙지역을 말한다.

이처럼 개혁개방 이전에는 균형발전과 국방 중심으로 도시건설을 추진하였다면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 정부는 선부론(先富論)과 공동부유론(共同富裕論)을 이론적 근거로 먼저 일부 지역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발전한 지역의 파급효과로 주변지역의 공동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을 취하였다(박종기, 2014:172). 따라서 개혁개방 이후 도시의 공간적 구조 변화는 ‘점-선-면’의 발전형태로, 연해지역의 경제특별구와 연해개방도시 등 개별도시가 발전하던 것으로부터 점차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발축과 도시군이 형성되고 있다(<그림 2> 참조).

이러한 도시 발전은 대규모 농민의 도시 유입을 초래하였고 이에 대비하여 1980년대 중국은 대도시 성장을 상대적으로 늦추고 소도시를 발전시켜 농민의 도시유입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이수행·정상은, 2011:229-230). 이와 동시에 경제특별구를 시작으로 연해도시의 개방을 적극 추진하였다. 중국 정부는 1979년부터 1988년까지 선후로 5개의 경제특구³⁾를 설치하였고 1984년에 북쪽의 대련으로부터 남쪽의 북해까지 14개 연해 도시⁴⁾를 개방하였고 1985년에 영구시(營口市), 1988년에 위해시(威海市)를 추가 개방함으로써 동남 연해의 거점 도시를 형성하였다. 또한 1985년에는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민남삼각주지역(閩南三角洲)을 연해경제개방구역로 지정하였고, 1988년에는 요녕반도(遼寧半島), 산둥반도(山東半島), 발해만 지역(渤海灣地區)에 위치한 일부 시(市)와 현(縣)들로 연해경제개방구역으로 확대하였다. 1980년대에는 심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강삼각주와 연해개방도시의 발전이 중국 도시화의 원동력으로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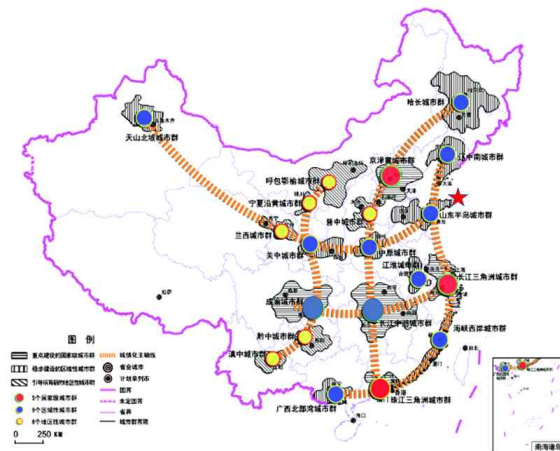
1990년대부터는 상해 포동(上海浦東)지역 개발의 영향으로 장강삼각주 지역이 크게 발전하였고 1992년에는 장강 연강지역의 5개 도시와 동북, 서북, 서남에 위치한 13개 변경지역과 11개 내륙지역의 성회(省會)도시를 개방하였다. 이러한 특별구, 개방도시, 개방구역들은 정책적 특혜, 외

3) 5개 경제특구에는 광둥성 심천(深圳)경제특구, 주해(珠海)경제특구, 복건성 하문(廈門)경제특구, 광둥성 산두(汕頭)경제특구, 해남성 해남(海南)경제특구가 포함된다.

4) 14개 연해 개방도시로는 天津、上海、大連、秦皇島、烟台、青島、連云港、南通、宁波、溫州、福州、广州、湛江、北海가 있다.

자 유입 등에 힘을 입어 지역 경제발전을 선도하며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는 상해시를 핵심으로 한 장강삼각주 지역의 발전이 또 하나의 도시화 엔진이 되었다.

2000년대 이후 북경의 중관촌(中關村)과 천진의 빈해신구(天津濱海新區)를 중심으로 환발해만(環渤海灣)지역이 부상하였다. 또한 거점 지역과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간의 내재적 교류가 강화되면서 중국 내부에서는 3개의 발전 핵심, 5개의 도시 발전 축과 광역 도시군⁵⁾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그림 2> 참조). 3개의 핵심은 광주와 심천(深圳)을 중심으로 한 주강삼각주지역, 상해시를 중심으로 한 장강삼각주지역과 북경, 천진을 중심으로 하는 환발해만 지역이다. 이와 같은 ‘3핵 2중’의 5개 도시 발전축은 주로 해상운수, 철도, 고속도로 등 교통축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선형(線形)지대로 대련-북해(大連-北海) 남북 연해축, 할빈-북경-광주(哈爾濱-北京-廣州) 남북 철도축, 연운항-란주-오로목제(連雲港-蘭州-烏魯木齊) 철도축, 상해-성도(上海-成都) 연강축, 포두-곤명(包頭-昆明) 남북 고속도로축을 포함하고 있다(박인성, 2009:314; 方創琳, 2014:1140).



<그림 2> 중국의 도시화 발전축과 도시군

자료 출처: 方創琳, 2014(8):1140

5) 도시군(城市群)이란 1개 이상의 특대도시(特大城市) 및 3개 이상의 대도시(大城市)로 구성된 지역으로 교통, 통신, 인터넷 등 인프라 상호연결을 바탕으로 경제적, 사회적 일체화를 실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로 한다.

2014년에 신형도시화를 국가전략으로 제기한 중국 정부는 도시군 건설을 목적으로 20개 도시군 건설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20개 도시군은 5개 국가급 도시군, 9개 광역도시군, 6개 지역 도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 국가급 도시군은 경진기(京津冀)도시군, 장강삼각주 도시군, 주강삼각주 도시군, 장강중유(長江中游) 도시군, 성투(成渝) 도시군이 포함된다. 9개 광역도시군은 할빈-장춘 도시군(哈長城市群), 요중남(遼中南) 도시군, 해협서안(海峽西岸) 도시군, 관중(關中) 도시군, 중원(中原) 도시군, 강회(江淮) 도시군, 북부만(北部灣) 도시군(北部灣), 천산북파(天山北坡) 도시군이 포함된다. 6개 지역도시군은 호포악유(呼包鄂榆) 도시군, 진중(晉中) 도시군, 녕하연황하(寧夏沿黃河) 도시군, 란서(蘭西) 도시군, 진중(滇中)도시군, 검중(黔中)도시군이 포함된다(中國 國務院, 2010⁶); 박인성, 2009; 박인성, 2010; 박인성, 2016; 方創琳, 2014). 20개 도시군은 2000년대 이후 동서부의 지역격차 해소를 목표로 진행되었던 ‘서부 대개발’, ‘동북 진흥’, ‘중부 쉼기’ 정책들이 실시되었던 서북, 동북, 중부지역들을 포함하여 중국 전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1.2.1.3. 중국 도시화 과정에서의 인구이동

개혁개방 이후 급격한 경제 발전과 함께 중국 국내에는 인구이동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2010년 기준으로 2억 2103.11 만 명의 인구가 이동인구로 집계되었다(중국 통계국, 2010).

성 정부 소재지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20개 도시군이 형성됨에 따라 지역 내 핵심 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인적, 물적 교류를 강화함과 동시에 대량의 근거리 성내 이주자들이 만들어냈다. 2010년 기준으로 성내이동 이주자는 총 1억 3515.48 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하북(河北), 강소(江蘇), 절강(浙江), 복건(福建), 산둥(山東), 하남(河南), 호북(湖北), 호남

6) 中國國務院은 도시군 발전에 관하여 2010년 12월 21일에 <國務院關於印發全國主體功能區規劃的通知>를 반포하였다.

(湖南), 광둥(廣東), 사천(四川) 등 성에서는 5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성내 이동을 진행하였다(중국 통계국, 2010).

개혁개방이후 도시로의 자원 집중, 특히 동남연해지역과 3대 경제 핵심도시군⁷⁾의 경제 중심이 확립되면서 대량의 동북, 서북, 중부의 인구가 동남연해와 3대 경제 도시군으로 이동하였다(<그림 3> 참조).



<그림 3> 2010년 중국 여러 성(省)의 인구 총 유출과 총 유입 상황

자료출처: 王貴新·潘澤瀚, 2013(3):6

결과 2010년에 하북(河北), 흑룡강(黑龍江), 강서(江西), 호북(湖北), 중경(重慶), 귀주(貴州) 등 내륙 지역에서는 순 유출 인구가 20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었고 안휘(安徽), 광서(廣西), 하남(河南), 호남(湖南), 사천(四川) 등 지역에서는 순 유출 인구가 50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천진(天津), 강소(江蘇), 복건(福建) 등 지역에서는 순 유입인구가 2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었고 북경, 상해, 절강(浙江) 등 지역에서는 순 유입 인구가 5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되었으며 광둥성(廣東)은 순 유입

7) 3대 경제핵심 도시군은 20개 도시군에서 가장 성숙된 도시군으로 북경, 천진을 핵심으로 한 징진지 도시군, 상해를 중심으로 한 장강삼각주 도시군, 광둥, 복건을 중심으로 한 주강삼각주 도시군을 말한다.

인구가 2000만 명 이상에 달하였다(중국 통계국, 2010; 王貴新·潘澤瀚, 2013)(<표 2> 참조).

<표 2> 2010년 중국의 인구가동 상황

성	총 유입	총 유출	성내 이동 생내이동= 성내유출- 성내유입	성외이주		
	성내이동+ 성외유입	성내이동+ 성외유출		유입	유출	순 유입 유입-유출
합계	22103.11	22103.11	13515.48	8587.63	8587.63	0.00
북경	775.98	98.97	71.53	704.45	27.44	677.01
천진	343.93	72.09	44.78	299.15	27.31	271.84
하북	667.50	876.86	527.03	140.47	349.83	-209.36
산서	552.01	567.17	458.84	93.17	108.33	-15.16
내몽골	612.87	575.21	468.45	144.42	106.76	37.66
요녕	633.26	556.01	454.61	178.65	101.40	77.25
길림	315.01	406.65	269.36	45.65	137.29	-91.64
흑룡강	421.48	626.20	370.84	50.64	255.36	-204.72
상해	961.43	88.76	63.73	897.70	25.03	872.67
강소	1566.63	1134.59	828.70	737.93	305.89	432.04
절강	1861.87	864.86	679.47	1182.40	185.39	997.01
안휘	567.09	1457.60	495.34	71.75	962.26	-890.51
복건	1024.41	759.78	593.05	431.36	166.73	264.63
강서	447.03	965.78	387.04	59.99	578.74	-518.75
산둥	1133.64	1231.65	922.08	211.56	309.57	-98.01
하남	803.80	1607.21	744.59	59.21	862.62	-803.41
호북	732.63	1220.25	631.27	101.36	588.98	-487.62
호남	686.09	1336.48	613.59	72.50	722.89	-650.39
광둥	3431.93	1370.21	1282.15	2149.78	88.06	2061.72
광서	556.84	891.12	472.66	84.18	418.46	-334.28
해남	166.35	135.08	107.50	58.85	27.58	31.27
중경	424.27	680.44	329.75	94.52	350.69	-256.17
사천	1038.74	1816.39	925.88	112.86	890.51	-777.65
귀주	414.71	743.24	338.38	76.33	404.86	-328.53
운남	556.00	580.59	432.35	123.65	148.24	-24.59
서장	26.19	15.17	9.65	16.54	5.52	11.02
섬서	493.97	592.59	396.53	97.44	196.06	-98.62

감속	259.85	375.90	216.57	43.28	159.33	-116.05
청해	99.29	91.66	67.45	31.84	24.21	7.63
녕하	129.28	115.01	92.43	36.85	22.58	14.27
신강	399.02	249.59	219.86	179.16	29.73	149.43

자료출처: 王貴新·潘澤瀚, 2013(3):7

1.2.2. 도시화 과정에서의 가족적 대응과 세대관계

1.2.2.1. 도시화 과정에서의 가족전략: 가족 구성원의 단계적 이주

중국의 도시화 과정을 살펴보면 198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는 미혼 자녀 결혼 무자녀 성인이 인구이동의 주체였지만 2000년 이후에는 이동 인구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결혼한 자와 결혼 유자녀 성인들이 인구이동의 주체가 되었다(楊菊華·何焰華, 2014). 그런데 중국의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된 경제구조와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직계가족은 물론이고 핵가족조차도 한 번에 함께 이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약 80%의 이주자가 가족구성원과 분리한 형태로 이주하였고(國家統計局農村社會經濟調查司, 2007) 이산된 가족은 가족구성원의 계단식 이주 전략을 통해 도시에서 다시 가족결합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 이주가족은 가족 중의 1인(대부분 남성)이 먼저 탐색적으로 이주하게 한 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의 배우자, 아동, 노인 등 가족 구성원이 차례대로 도시로 이주시키는 ‘단계적 이주’ 전략을 취하였다(侯佳偉, 2009; 楊菊華·陳傳波, 2013).

가족의 단계적 이주 패턴은 이주자의 정착정도에 따라 1인 이주 단계에서 부부이주 단계와 핵가족이주 단계를 경유하여 직계가족이주 단계로 발전하는 방식이다.⁸⁾ 따라서 이주자들이 현주지에서 거주한 시간이 길어

8) 계단식 이주는 중국 이주자의 79.85%를 차지하는 농촌 출신 이주자들의 이주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로서 특징 상 일찍이 도시화에 참여한 가족일수록(특히 1980년대~1990년대), 개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이와 같은 표준화된 방식에 더욱 가까운

집에 따라 이주자들의 가족규모는 커진다. 2015년의 기준으로 이주자가 현거주지에서 거주한 시간이 3년 미만의 경우 평균 가족 규모는 2.29명이고, 3년~4년일 경우에는 평균 가족규모가 2.70명으로 상승하였으며, 5년 이상일 경우에는 평균 가족규모가 2.95명이었다. 최근에는 초기에 홀몸으로 이주했던 많은 이주자들의 가족이 이와 같은 단계적 이주를 통해 가족 재결합을 이루면서 이주자의 가족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주자의 평균 가족 규모는 2011년의 2.5인으로부터 2015년의 2.61명으로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노인의 이주를 통한 가족 재결합이 증가하여 2015년에는 이주노인의 수가 이주자 총량의 7.2%를 차지하였는데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中國國家人口與計劃生育委員會流動人口服務管理司, 2016).

이처럼 가족단위의 이주를 크게 제약하는 도농 이원화된 사회구조 안에서 중국의 가족은 부득이하게 계단식 이주 전략을 취하였고 계단식 이주패턴에 따라 점차 가족 재결합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이주자의 평균 가족 규모가 2.61명인만큼 아직은 3인 핵가족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에 처해 있다. 노인의 가족재결합은 날로 증가되고 있지만 아직은 소수 조건이 구비된 가족에 한해서 시도되고 있을 뿐이기에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도시화 과정을 봤을 때 도시화는 가족구조에 있어서 노인과 자녀세대의 분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한 것을 보인다.

인구센서스 자료를 관찰해보면 이촌향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1990년에 비해 도시화가 상당히 진척된 2010년에는 성인자녀와 직계가족을 이루어 사는 노인비중은 크게 감소한 한편 독거가족이나 핵가족(노인부부로 구성된 핵가족과 노인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에

이주방식을 취하고 늦게 도시화에 참여할수록(2000년대 이후), 개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러 단계를 압축한 형태의 이주방식을 취한다. 최근에 올수록 일부 지역의 호구개혁과 이동아동의 공교육배제 완화 등 다양한 제도적 원인으로 계단식 이주의 여러 단계를 압축하여 이주를 진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 이주자의 21.15%를 차지하는 도시 간 이주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도시 간 이주자의 의료보장문제에 한해서만 소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문헌고찰을 통해 도시 간 이주 중에 나타나는 가족변화에 대해서 파악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 생활하는 노인이 크게 증가하였다. 노인이 직계가족 안에서 생활하는 비중은 1990년의 59.02%에서 2010년에는 49.85%로 감소되었고 노인이 독거하는 비중은 1990년의 9.88%로부터 2010년의 12.46%로 증가였으며, 노인이 핵가족에서 생활하는 비중은 1990년의 29.13%에서 2010년의 35.87%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2010년대에 이르러 과반수의 중국 노인은 기혼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있다(王躍生, 2014:22)(<표 3> 참조).

<표 3> 65세 이상 노인의 가족 구조(단위, %)

구분	가족구조	1990	2000	2010
도시화	도시화율	26.41	36.22	47.50
가족구조	독거가족	9.88	9.61	12.46
	핵가족	29.13	33.16	35.87
	직계가족	59.02	56.06	49.85
	확대가족	1.63	0.84	0.79
	기타	0.34	0.33	1.03
	합계	100	100	100

자료 출처: 인구 센서스 자료를 王躍生이 정리함, 王躍生, 2014(1):22.

도시화 과정에서의 가족구조 변화 특징에 있어서는 노인과 자녀의 세대 간 분리 이외에 가족구조의 유연성, 가족형태의 다양성 특징이 나타났으며 계단식 이주의 과정에서 중국의 가족은 가족 구성원이 이주 할 때 마다 가족 간의 역할 재분업을 통해 다른 가족 구성원이 그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기타 가까운 친족이 가족의 경계를 넘어 가족 안으로 유입하여 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족은 매우 신속하게 가족 구성원의 이탈로 인한 가족기능의 빈자리를 보완하였다(呂靑, 2014). 도시화 과정에서 중국의 도시에서는 성인 부부 중의 1인이 구성한 가족(대부분 남성), 부부로 구성된 핵가족,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3세대 직계가족, 자녀의 주거지 근처에 사는 노인 독거 가족과 노인 부부 가족, 자녀의 주거지 근처에서 손자(녀)와 함께 사는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형성하였을 뿐더러 다른 한편 농촌에 남겨진 가족들 또한 더욱 다양한 구

조의 유수가족을 구성했다. 그 예로는 유수노인, 성인부부 중의 1인(대부분 여성), 유수아동으로 구성된 3세대 유수가족; 부부 중의 1인(대부분 여성)과 유수아동으로 구성된 편부모 유수가족; 조부모(혹은 외조부모)와 유수아동으로 구성된 조손형 유수가족; 유수 노인으로 구성된 빈둥지 유수가족; 유수 아동으로만 구성된 고아형 유수가족; 유수노인과 부부 중의 1인으로 구성된 2세대 유수가족; 남성 형제가 도시로 진출하고 그들의 배우자들로 구성된 동서형 유수가족 등 이다(唐鈞, 2008:98).

그러나 가족형태와 구조는 외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가족구성원들이 같은 공간에 머물지 않아도 서로 가족으로 인정하는 한 가족행위에 참여하거나 가족결정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도시화 시기의 중국 가족을 이해하는 데는 다변성을 가진 가족구조를 넘어서서 가족 간의 실질적인 지원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2.2. 이주 단계 별 가족기능의 공간적 배분과 역할 재 분업

도시화 과정에서 중국의 이주가족은 대부분 계단식 이주를 통해 분산된 가족이 이주지에서 다시 재결합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의 이주가족은 가족의 물리적 파편화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는 한편 공간을 넘어서는 가족 간의 역할 재분배와 상호지원을 통해 가족기능을 수행하고 긴밀히 연결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1) 1인 이주단계의 가족관계

이주의 시작점이 되는 1인 이주는 일반적으로 도농 이원화된 사회구조 하에 개혁개방 이후 교육, 의료, 주택, 결혼, 생활 등 비용이 대대적으로 상승한 반면 토지 생산수익의 상승은 매우 완만한 상황에서 소득 창출을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도시에서의 삶은 비용이 매우 높은데다가 호구제도로 인해 제반 사회보장적 지지를 향유할 수 없기 때문에 농민의 도시 진출은 큰 위험성이 따른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을 도시로 진출시키는 동시에, 도시화가 실패했을 때 가족의 기본적 생존을 보장할 수 있도록 농촌의 자원(토지, 주택건설용 토지⁹⁾)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창출할 인력을 배치해야 했다. 더불어 아동의 호구 중심적 공교육제도로 인해 아동과 아동 돌봄자(여성 혹은 노인)도 농촌에 남아야 했다.

결국 대부분 농촌 가족은 도시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가족 구성원으로 가족 내에서 교육수준이 가장 높고 체력이 강한 1인(대부분 남성)을 홀몸으로 도시로 진출 시켰다. 1980년대 이와 같은 1인 이주는 농한기에만 근처의 도시로 가 비농업 부분에 종사하는 형태로 관찰되고 1990년대 이후에는 가족 중의 1인이 농업을 완전히 이탈하여 다른 성(省)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중국 국가 통계국 농촌 사회 경제 조사사(國家統計局農村社會經濟調查司, 2007)의 조사에 의하면 2006년 약 80%의 노동력이 이와 같이 가족구성원과 분리한 형식으로 외출 취업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써 외향적 수출가공업에 의존하여 경제적 성장을 이룩한 데에는 낮은 생산비용이 핵심적 요인이었는데, 낮은 생산비용의 이면에는 제조업 노동자들의 장기 저임금과 복지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제조업 노동자의 주체가 되는 농민공들은 빠른 시간 내에 가족을 도시로 이주시키지 못하여 장기간 가족과의 분리를 경험해야 했고 농촌가족은 성인 남성이 빠진 상태에서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자 재빨리 가족 내의 역할분담을 조절했다.

이주가 발생하기 전의 농촌 가족은 하나의 농업생산 단위으로써 남성이 생산을 주도하고 여성이 보조역할과 가사 노동을 하는 ‘남주외 여주내(男主外 女主內: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안에서 살림한다)’의 방식으로 역할을 나뉘었다. 그러나 1인 이주시기에 남성은 공업부문에 종사하여 가구 소득을 최대화하는데 주력하였고, 인적 자본으로서 가치가 떨어

9) 주택건설용 토지(宅基地): 토지관리법에 따라 농촌 호구를 보유한 농민이 집체토지의 범위 안에서 한 가구당 한 곳에 주택 건설용 토지를 보유할 수 있다. 토지의 사용권은 농민에게 있으나 소유권은 집체에게 있어 같은 집체 내부에서만 양도가 가능하다. 농민에게 있어서 주택건설용 토지는 도급 말은 토지와 함께 매우 중요한 재산이다.

한 가족 구성원(여성과 특히 노인)은 농업과 돌봄 영역에 종사하도록 배분되었다. 즉 ‘남공여경(男工女耕)’의 분업방식을 취하였다. 결과 남성이 떠나간 후 여성의 역할은 ‘집안 살림’의 범위를 벗어나 원래 남성의 역할이었던 농업생산, 지역사회의 활동, 사회왕래 등 ‘바깥 일’까지 감당하게 되었다(呂靑, 2014). 2005년에 중국에는 남편이 도시로 진출하고 홀로 농촌에 남은 유수여성(留守女性)이 약 4700만 명에 달하였다(北京青年報, 2007).

이 시기 농촌 가정은 유수여성을 주요 노동력으로 농업생산과 가정생활을 조직하였는데 여성이 홀몸으로 안팎을 돌보기 어렵기 때문에 3세대 동거가족은 물론, 분가한 가족 안에서도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며느리를 도왔고 여성들은 스스로 삶의 어려움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친가 부모와 형제에게도 많이 의존하였다. 중국에서 노동력 외출이 가장 많은 5개성(안휘성, 하남성, 호남성, 강서성, 사천성)의 10개 행정촌(行政村)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26.8%의 유수여성이 농사가 바쁠 때 시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시부모는 적극적으로 농사를 도왔고 건강상의 이유로 농사를 돕지 못하는 시부모는 가사 도움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없는 며느리와 시부모 사이의 관계는 아들의 부재로 인해 약화된 것이 아니라 서로 실질적인 상호지원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 더욱 긴밀해졌다(吳慧芳·繞靜, 2010). 한편 남편의 부재는 유수여성들로 하여금 친가 부모와 친가 형제들과의 접촉 빈도 증가로 이어졌다. 같은 조사에서 65.3%의 유수여성이 남편이 부재한 동안에 친가 측으로부터 노동지원과 심리적 위안을 받았고 60.0%의 유수여성이 남편이 외출한 후 친가로부터 받는 도움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한다. 유수여성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남편의 외출로 인해 ‘시집’으로부터 ‘친가’로 이전되기 시작하였고 노인들도 아들들이 대량으로 외출하였기에 가까운 거리에 출가한 딸들의 돌봄에 더욱 의존하였다(吳慧芳·繞靜, 2010).

이처럼 1인 이주 시기에는 도시화로 인해 새로운 성역할 분업이 일어났고 세대 간 연결고리의 중심은 아들로부터 며느리에게 옮겨졌다. 세대 관계는 성인자녀부부가 노인을 돌보던 것으로부터 노인이 성인자녀의 핵

가족을 보조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고 양계화의 추세가 나타났다.

2) 부부 이주단계의 가족관계

부부 이주 단계에서는 성인부부가 아동과 노인을 고향에 두고 농업을 완전히 떠나 도시로 진출한다. 1인 이주를 통한 탐색을 거쳐 도시에서의 소득창출이 검정 받은 상황에서 더 많은 소득, 부부관계의 유지, 가족의 도시 이전 계획 등을 위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성도 배우자를 따라 이주에 나서게 된다. 1990년과 2000년의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1990년에는 이주자 중 7.4%가 배우자와 함께 이주하였으나 2000년에는 46.1%가 배우자와 함께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于學軍, 2005).

1인 이주 단계에서 가족의 중심이 농촌에 있었다면 부부 이주 단계부터 가족의 중심은 도시로 옮겨지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성인부부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지역 이전과 농업에서 비농업으로의 직업 전환을 실현하였지만 호구는 쉽게 도시로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신분과 지위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또한 부모의 신분전환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 역시 도시에서 공교육 자원을 향유할 수 없다. 게다가 높은 교육비와 소비가격, 이주한 성인부부의 맞벌이, 잦은 이동 등 원인으로 성인부부가 아동을 데리고 함께 이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許召元·高穎·任婧玲, 2008; 陶然·孔德華·曹廣忠, 2011). 段成榮·楊軻(2008)가 <2005년 인구 1% 샘플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에 73%의 이주가족이 아동을 농촌에 남겨놓고 이주하였고 呂利丹·王宗萍·段成榮(2013)이 2010년의 인구센서스 자료에 근거하여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에 68%의 이주가족이 아동을 농촌에 남겨놓고 이주하였다. 2010년에는 유수아동의 규모가 약 6102.55 만 명에 달한다(新華網, 2013).

부부 이주 시기 가족관계의 특징은 생산과 재생산을 세대 간, 지역 간 배분을 하는 것이다. 성인자녀가 도시의 비농업 부문에 종사하여 가족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촌에 남은 유수노인이 자기 명의로 도급 맡은 농토뿐

만 아니라 자녀의 농토도 맡아서 경작을 하는 것이다. 노인은 농촌에서의 가족의 생산자원과 삶을 유지하는 동시에 유수아동의 양육을 부양한다. 이 시기 유수노인은 생산노동 가사노동 및 손(자)녀 양육의 3중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王全勝, 2007; 鄒曉娟 외, 2011). 그 근거로 國家人口和計劃生育委員會流動人口服務管理司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73.1%의 유수노인들은 농업생산노동에 종사하고 있는데 1년에 평균 165일 생산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노인들은 식사준비(83.8%), 빨래(72.3%), 야채농사(79.8%), 가축사육(50.9%) 등 가사를 담당하고 있고, 64.7%의 유수노인이 손자(녀)를 돌보고 있다(國家人口和計劃生育委員會流動人口服務管理司, 2012). 자녀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농업에 종사하여 자기부양을 하는 것도 노인들의 몫이다. 이를 보상으로 노인들은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는데 하남성, 강서성, 사천성의 유수노인에 대한 노인조사에 의하면 유수노인들은 매년 도시로 취업하러 간 자녀로부터 약 2000~5000위안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中國國家人口與計劃生育委員會流動人口服務管理司, 2012). 이러한 자녀의 경제적 지원은 가족의 전반적 생활수준을 제고하는데 뚜렷한 효과가 있다(杜鵬·李一男·王澎湖·林偉, 2007).

성인부부가 노인의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단계로서 부부이주 단계에서의 세대관계는 아동부양을 중심으로 긴밀히 연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손자(녀) 대리양육은 노인의 신체적 부담증가, 경제적 부담 증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증가 시키고 아동의 교육 문제, 성격발달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周宗奎·孫曉軍·劉亞·周東明, 2007; 宋衛芳,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대리양육은 도시화로 파괴된 가족의 양육기능을 보완하는 중요한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대리양육으로 인해 아동 양육에 있어서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경우 대리양육은 세대관계를 긴밀히 연결하는 효과가 있었다. 노인이 손자(녀) 양육을 맡았을 경우 자녀로부터 더 많은 전이성 소득(轉移性收入)을 획득하고 자녀와의 교류도 더욱 빈번하다(中國國家人口與計劃生育委員會流動人口服務管理司, 2012). 더욱 중요한 것은 대리양육은 노인이

자녀의 핵가족, 특히 며느리에 대한 ‘감정과 노동 투자’ 행위로서 향후 며느리의 봉양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세대 간 상대적 평등한 관계와 약한 가부장제의 구속력으로 며느리와 노인의 관계는 대부분 호혜적 교환, 평등 협상 관계이며, 노인 돌봄에 있어서 며느리가 아들보다 더욱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張愛華, 2015). 따라서 노인들은 대리양육을 해줌으로써 며느리의 맞벌이를 지원해주고 핵가족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노후에 돌봄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 이 시기의 세대관계는 자녀에 대한 노인의 지원이 주요한 내용이 된다.

3) 핵가족 이주단계의 가족관계

핵가족 이주 단계에서는 성인부부가 도시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후 아동을 도시로 데려가고 농촌 고향에는 노인과 농토만 남게 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 아동이 이주가 증가하고 있는데 段成榮·楊舸(2008)가 <2005년 인구 1% 샘플 조사> 자료에 근거한 추산에 의하면 2005년에 27%의 이주가족이 아동을 데리고 이주하여 이동 아동(0-14세)의 수는 약 1834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 후 呂利丹·王宗萍·段成榮(2013)이 2010년의 인구센서스 자료에 근거한 추산에 의하면 2010년에는 32%의 이주가족이 아동을 데리고 이주하여 아동 이주율이 5년간 약 5% 정도 급상승하였다. 아동의 주요 돌봄자였던 여성들이 대거 이주하고 조부모 대리양육 과정에서 우수 아동의 학습 성적, 성격발달 등 부정적 측면들이 부각되며 정책적 측면에서도 변화를 보였는데 2004년에 국무원에서 <關於進一步做好進城務工就業農民子女義務教育工作的意見>을 반포 하면서 도시로 이주한 이주아동에게도 공교육 자원이 배분되었다. 또한 이주기간의 증가에 따라 가족의 경제적 환경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성인부부의 직업적 안정성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이주 가족은 아동을 도시로 이주시켰다(楊舸·段成榮·王宗萍, 2011).

핵가족 이주 시기 가족관계의 특징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노인세대와 성인부부 사이를 긴밀히 연결해주던 대리양육이 끝나면서 세대간의 연결이 약화되고 세대 간의 공간적·사회적 분리의 영향이 부각된다

는 것이다. 2008년 호남사범대학 인구연구소에서 호남지역의 유수노인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46.0%의 유수노인은 한 가지 이상의 중병을 가지고 있는데 52.4%의 노인이 투병기간에 자녀의 수발을 받지 못했다(陳鐵錚, 2009). 유수노인들은 자녀의 보호가 없기에 사기와 강탈에 더 많이 노출되고 안전 또한 보장이 없다(王全勝, 2007). 또한 정서적인 측면에서 자녀가 외출 취업한 후 노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교류는 주로 자녀의 귀가와 전화통화를 통해 이뤄지는데, 외출한 자녀의 귀가는 대부분 설 연휴에만 가능하다. 통화의 경우 비싼 장거리 통화요금과 상호 간 통화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등 문제로 인해 대부분 자녀가 노부모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수노인들은 자녀와의 자유로운 정서적 소통이 어려워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杜鵬 외, 2004; 王全勝, 2007; 葉敬忠외, 2009; 方菲, 2009). 이 시기는 대리양육의 종료로 인해 노인에 대한 성인 부부의 의존도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세대 간 독립된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는 연로한 노부모에 대한 방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4) 직계가족 이주 단계의 가족관계

이주의 마지막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이주 가정은 육아 도움을 받기 위해 혹은 노부모를 가까이에서 돌보기 위해 노인을 이주지로 이주 시키는 것을 고려한다(中國國家人口與計劃生育委員會流動人口服務管理司, 2012). 대부분 도시로 이주한 성인부부는 도시의 높은 생활비용, 교육비 등의 압력으로 맞벌이를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맞벌이를 할 경우 불가피하게 육아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 때 고용비용이 거의 이주자 1인의 소득에 맞먹는 도우미를 구해 아이를 돌보기보다는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노인을 도시로 이주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른 한편 대부분 중국 농촌 유수노인들은 생존자녀가 있기에 사회구제 대상자인 “5보호(五保戶)”에 속하지 않고 농촌지역의 사회적 돌봄수준이 극히 낮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녀밖에 없다(王全勝, 2007).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의 이탈은 노인의 자기 돌봄을 강요한다. 따라서 현

재 중국의 대부분 노인들은 실질적으로 신체적 상황이 허락할 때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부양을 한다. 그러나 농촌에 남아 자녀의 도시화 과정을 아낌없이 지원해주던 노인들이 연로해짐에 따라 돌봄의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부 이주가족은 노인을 가까이에서 돌보고자 도시로 모신다.

이 시기 가족관계의 핵심은 노인의 도시 적응을 전제로 도시에서 자녀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들이 이주지에서 겪는 어려움들, 예컨대 방언에 의한 언어적 장벽¹⁰⁾(張紅濤·席絹, 2015), 농촌의 ‘숙인사회(熟人社會)’에서 도시의 ‘낯선 사람 사회(陌生人社會)’로의 전환의 고통(詹洪波, 2012; 易丹, 2014), 현대화된 생활양식에 대한 부적응(詹洪波, 2012), 사회복지에서의 차별(張紅濤·席絹, 2015)은 노인의 부적응을 유발하고 이는 가족의 돌봄 부담 부담을 증가 시킨다.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가족관계는 재구성되고 이주노인의 생활중심은 예전의 노부부 중심에서 자녀와 손자(녀) 중심으로 옮겨진다. 대부분 이주노인들은 이주하기 전에는 고향의 노인들과 함께 생산 활동을 하거나 오락을 즐기면서 살았지만 이주 후에는 맞벌이로 바쁜 성인자녀를 도와 가사를 하거나 손자(녀)를 돌보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된다(詹洪波, 2012; 郭南南, 2012; 趙婕, 2013; 陳盛淦, 2014). 결과 이주노인들은 매일 집-시장-손자(녀)의 유치원이나 학교를 중심으로 생활하게 된다. 특히 손자(녀)와 가사를 거의 전담하는 맞벌이 성인자녀의 노부모일 경우 가사와 손자(녀) 양육부담이 매우 높아 이주지에서의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매우 힘들어 삶 자체가 전적으로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이주노인의 주된 과제가 가사와 손자(녀) 돌봄으로 전이하게 되면서 개인의 시간과 공간을 상실하고 가족에 매달리는 삶을 살게 되고, 이주 한 후 이주지의 언어, 교통, 생활습관 등에 낯설기 때문에 많은 것들은 자녀세대로부터 배워야 하고 자녀가 없이는 스스로 완성할 수

10) 중국에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방언을 쓰고 있고 지역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방언의 차이가 심하여 많은 경우 타 지역의 방언은 거의 외국어 수준으로 알아듣기 힘들다. 중국에는 통용하는 표준어가 있지만 표준어는 주로 젊은 층에게 보급된 것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표준어가 서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역 출신의 노인들은 서로 소통하기가 매우 어렵다.

없다. 따라서 고향에서 독립적이던 노인들도 이주한 후에는 자녀세대와 가족에 매우 의존적이게 된다(郭南南, 2012; 鄭佳然, 2016).

또 이주노인은 이주 후에 대부분 성인자녀와 동거하게 되는데 이때 이미 형성된 성인자녀의 핵가족 질서에 끼어드는 것이기에(陳盛淦, 2014) 대부분 이주노인들은 기존 핵가족의 생활습관, 기존 핵가족에서 성인자녀와 그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의사결정의 권리, 경제적 권리 등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詹洪波, 2012; 何惠亭, 2014; 張紅濤·席絹, 2015; 鄭佳然, 2016). 이때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남성노인과 전통적 고부관계에 대한 이해를 가진 여성 노인은 성인자녀와 심한 가족 갈등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갈등은 심각한 세대 차이 때문에 더욱 강화될 수 있는데 동거 이후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의 소비관념, 위생습관, 식습관, 문화생활, 생활 패턴, 성역할에 대한 인식 등 많은 생활습관과 인식의 차이가 표출된다(趙婕, 2013; 鄭佳然, 2016). 특히 농촌 생활에 익숙한 노인과 도시 생활에 익숙한 며느리일 경우 그 차이가 더욱 크다. 많은 경우 가족 갈등은 신세대 며느리와 여성 노인의 육아에서 격화된다. 대부분의 경우 가족의 화목을 위해 두 세대가 서로 양보하고 맞추면서 조정 되지만 아동에 대한 교육 방식과 위생 습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신세대 며느리들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타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부갈등이 격화된다(郭南南, 2012; 何惠亭, 2014; 陳盛淦, 2014).

또한 재결합을 위한 이주 이후의 가족 간 소외도 문제시 된다. 많은 경우 맞벌이를 하는 성인자녀는 자신의 일과 육아에 몰두하고 있기에 동거하고 있는 이주노인들의 정서를 잘 보살펴주지 못 한다(詹洪波, 2012; 張紅濤·席絹, 2015). 이주노인들은 낮 시간에는 자녀와 손자(녀)를 만날 수 없는데다가 사회활동에도 많이 제약 받기 때문에 매일 집에 갇혀 산다. 따라서 함께 동거하지만 사실 세대 간 교류가 매우 적고 노인은 방치와 소외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郭南南, 2012).

아동 돌봄을 위해 노인이 이주했을 때 아동이 출산해서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성노인만 이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에 노부부는 자녀와 손자(녀)를 위해 장기간 이별해야만 한다. 이러한 분리로

의해 여성노인은 도시에서 자녀와 손자(녀)를 돌보면서 고향에 남은 남성노인을 걱정하게 되고 고향에 홀로 남은 남성노인은 생활상의 돌봄부재와 심리적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郭南南, 2012).

직계가족의 이주는 인구의 도시화, 도시에서의 아동과 노인 돌봄, 도시에서의 가족의 결합 등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시도이다. 그런데 재결합 가족에 대한 외부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결합 과정에서 봉착되는 제도적, 세대적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특히 가족 내에서 자녀의 위치가 상승하고 노인이 의존적인 위치로 전락하면서 가족 관계가 긴장하고 갈등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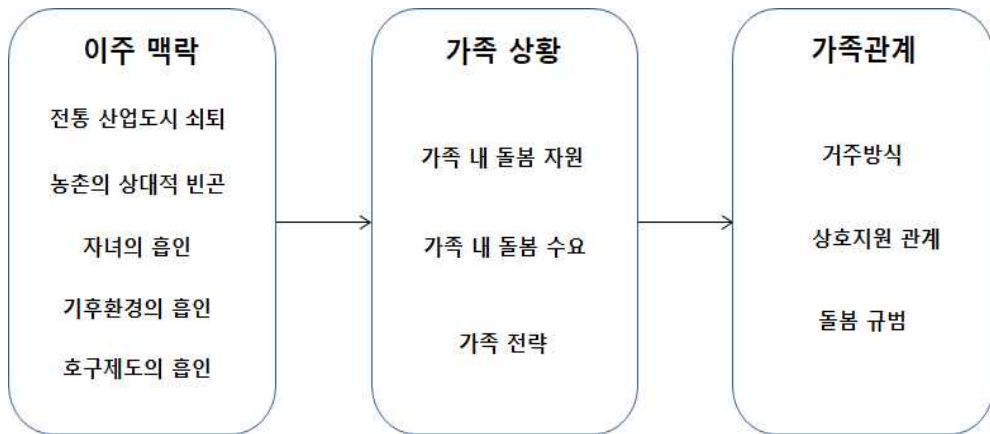
1.3. 연구방법

1.3.1. 분석틀

본 연구는 이주 후의 가족관계는 이주의 맥락과 이주 후의 가족상황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산물이라고 본다. 이주를 유발하는 맥락 요인에는 유출지의 배출요인과 이주지의 흡인요인이 포함되는데 배출요인에는 전통산업도시의 쇠퇴와 농촌의 상대적 빈곤과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이 포함되고 흡인요인에는 자녀의 흡인, 기후환경의 흡인, 호구제도의 흡인 등 요인이 포함된다.

가족관계에 영향 줄 수 있는 가족 상황으로는 가족이 보유하는 돌봄 자원, 가족 내의 돌봄 수요와 가족전략 등이 포함된다. 가족관계는 주로 물리적 접근성을 나타내는 거주방식, 돌봄의 내용·양·질·방향을 나타내는 상호지원관계와 돌봄 가치를 구현하는 돌봄 규범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그림 4>와 같은 분석의 틀로 이주 후의 가족관계에 영향 주는 이주의 맥락과 이주 후의 가족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이주 후에 형성된 가족관계의 특징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그림 4> 분석틀

1.3.2. 용어 정의

1) 노인

노인에 대한 UN의 정의에 의하면 만 65세 이상인 인구가 노인으로 정의되지만 중국에서는 노인권익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만 60세 이상의 인구를 노인으로 본다. 본 연구는 중국 노인에 관한 연구이기에 중국 노인권익 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노인을 만 60세 이상의 인구로 보겠다.

2) 이주

이주(migration)는 거주지의 공간적 이동으로 정의되는 개념으로, 국제기구나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주를 ‘장기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한 지리적 이동’으로 파악하고 있다(박경숙, 2017:41). 국가 안에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국내이주(International Migration)로 정의되고 국경을 넘어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국제이주(International Migration)로 정의된다.

이주는 상주인구로 개념화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법적개념인 호구(호적)의 이전과 연관 지어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소수의 중국 연구에서는 이주(遷移)는 거주지도 이전하고 호구소재지(戶口所在地)도 이전한 경우로 제한하고, 유동(流動)이라는 개념으로 ‘거주지가 변화하였으나 호구소

재지는 변화하지 않은 경우’를 설명한다(周皓, 2002:35). 그러나 현재 대부분 중국의 연구에서 이주(遷移)와 유동의 개념은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 중국의 연구에서 말하는 이주는 법적개념인 호구와 상주인구의 개념을 결합한 것으로, 집계 당시 호적소재지를 떠나 목적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즉 이주인구는 ‘인구집계 당시 현지에서 6개월 이상 상주하한 외지 호구 소지자’이다(黃璜, 2013; 張伊娜·周雙海, 2013; 劉佩瑤, 2015). 이러한 이주 개념을 적용할 경우에는 호구를 이주지에 이전하지 않은 외래인구는 포함되지만 호구를 이주지에 이전한 외래인구는 이주인구로 집계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戶籍人口)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주지에 호구를 이전한 외래인구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이주를 ‘장기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한 지리적 이동’으로 보되, 호구를 목적지로 이전한 경우와 이전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이주를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주소변경을 하고 6개월 이상 목적지에 거주한 경우’로 정의한다.

3) 이주노인

중국에서는 노년기에 국내 이주를 한 노인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유동노인(流動老人), 수천노인(隨遷老人), 노표족(老飄族)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유동노인은 다른 지방에서 이주해 왔으나 현재 호구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외래노인을 설명하는 개념이다(王世斌·申群喜·王明忠, 2015). ‘수천노인’과 ‘노표족’은 이주의 원인이 자녀의 흡인이며 이주의 방향이 농촌에서 도시임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유동노인 중에서 자녀를 따라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 노인을 말하는데 이 두 개념은 구분 없이 사용된다(郭南南, 2012; 何惠亭, 2014; 鄭佳然, 2016). 수천노인, 노표족, 유동노인이라는 개념은 모두 다른 지방에서 이주해 왔으나 현재 호구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외래노인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주 후에 호구를 이전한 외래노인은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주 후 호구를 이전한 노인과 이전하지 않는 노인

모두를 포함한 개념으로 이주노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본 연구는 이주노인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주소변경을 하고 목적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60세 이상 인구’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위해시에 거주하는 이주노인이란 ‘출발지에서 위해시로 주소변경을 하고 위해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60세 이상 인구’로 정의한다.

2) 가족관계

가족관계란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인간관계를 말한다. 가족관계의 개념에 대하여 슈(Hsu, 1959)는 가족관계는 가족의 구조라 지적하고 가족에 있어서의 구조란 가족구성원들 간의 권리와 의무, 행하여야 할 행동과 행하여서는 안 될 행동을 포괄하는 그리고 실제 행하여지는 또한 기대되는 관계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가족관계란 가족이라는 집단 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점유한 자가 분담하는 분업관계, 권리·의무관계 그리고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 유형을 포함한다(유영주·김순옥·김경신, 2008:14-15에서 재인용). 또한 가족관계는 넓은 의미로 가족행동의 총체이며 가족 상호작용의 역동적 과정이다. 가족관계는 결혼에 의해 만들어진 부부관계, 혈연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부모자녀관계와 형제자매관계로 구성된다(유영주·김순옥·김경신, 2008:14-15). 본 연구는 이러한 가족관계의 개념을 받아들여 가족관계를 가족 간의 인관관계에서 나타나는 권력구조, 역할 구조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정서적 구조인 개인적·심리적 관계를 포함한 개념이고, 가족행동의 총체이며, 가족 상호작용의 역동적 과정으로 보고자 한다.

또한 가족관계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개념으로 부계가족일 수도 있고 모계 가족일 수도 있으며 가족구조에 따라 핵가족, 직계가족, 확대가족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본 연구는 가족 돌봄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여 가족관계를 관찰하고자 하기에, 핵가족내의 가족관계 뿐만 아니라 확대가족 의미에서, 아들의 돌봄뿐만 아니라 딸의 돌봄을 포함한 양계가족의 측면에서, 가족들이 맺는 관계 전체를 가족관계로 보겠다. 동시에 가족 돌봄의 근간을 이루는 세대관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3) 가족 돌봄

본 연구에서 가족 돌봄이란 가족 구성원이 노인에게 물질적·도구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족 돌봄은 무급이며 가족 돌봄의 주체는 성인자녀, 성인자녀의 배우자와 노인의 배우자이다(남궁명희, 2009:50).

4) 가족 재결합

가족 재결합이라는 개념은 남북한, 독일 등 이산가족의 재결합, 난민 이주 후의 가족 재결합, 기러기 가족의 재결합 등 다양한 가족연구에서 ‘국제 이주로 인한 공간적인 분리로 가족관계가 상대적으로 단절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의미로 사용되거나(조은숙, 2010; 정재각, 2011; 김선화, 2013) 시설보호 아동의 가족재결합, 수형자의 가족재결합 등 가족연구에서 인구 이동이 아닌 다른 연유로 ‘가족관계가 단절 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의미로 사용 된다(정영순, 2000; 신연희, 2015). 본 연구에서도 ‘가족관계가 상대적으로 단절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의미에서 가족 재결합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의 가족 재결합은 가족관계가 가족구성원의 국내, 국외 이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단절되었다가 다시 같은 도시로 모이게 되면서 친밀성을 회복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1.3.3. 연구방법

1.3.3.1. 근거 이론적 접근

현재 학계에는 도시화로 인한 가족 분리에 대한 양적자료와 질적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가족 분리 후 재결합과정, 재결합 후의 가족관계와 이주 노인의 돌봄에 대한 자료의 축적이나 논의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주제에 대하여 풍부한 이론적 기초를 필요로 하는 양적 연구방법보다 탐색적인 연구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주노인의 경험과 경험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주노인이 이주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족관계를 하나의 미니이론으로 정리하고자 하며, 이주노인이 경험하는 가족관계의 변화과정, 가족관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세대 간의 상호작용, 노인의 전략과 행위 등을 시간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들이 포함된 과정, 행동,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미니이론 개발에 가장 장점이 있는 (Creswell, 1998) 근거이론적 접근 방식을 선택하였다.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 철학적 배경을 두고 있는 근거이론은 Strauss와 Corbin의 체계 질서와 Charmas의 구성주의 접근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더욱 체계적인 질차를 요구하는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분석방식(Strauss & Corbin, 1990)을 취하였다. 근거이론은 현상에 대한 설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직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고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구체화되지 않았을 경우, 이론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는 분야들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Strauss & Corbin, 1990). 근거이론적 연구는 현상에 대한 기술을 넘어서 연구대상이 되는 ‘과정’ 혹은 ‘행동’에 대한 ‘통일된 이론적 설명’, 즉 이론의 생성 또는 발견에 그 목적이 있다(Strauss & Corbin, 2007:107). 근거이론에서 발견된 이론은 현장, 특히 사람들의 행동, 상호작용, 사회적 과정 등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고, 현상에 대한 설명을 돕거나 후속연구를 위한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이론개발은 연구자가 면접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관찰하여 범주를 발전시키고 연결 지어 이론적 가설을 진술하거나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Creswell, 1998).

1.3.3.2. 연구 참여자 선정

근거이론에서 연구 참여자는 특정 주제에 대한 이론을 개발하고자 연구자에게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다

다. 이른바 이론적 표본추출을 통해 선택된다. 연구자가 연구문제의 기술, 연구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고려되는 경험적, 이론적 요소의 확인에 근거하여 연구 집단이나 연구 상황을 특징짓는 일련의 준거를 개발하고 그 준거에 맞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개인, 집단, 상황을 선택 한다(박승민·김광수·방기연·오영희·임은미, 2012:65).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의도적 표집방법(purposeful sampling)에 따라 연구의 목적, 노인과 이주에 대한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정의, 중국 현지의 상황과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선정기준을 세웠다. 우선 연구 참여자는 현재 산동성 위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면서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동시에 연구 참여자는 현재 위해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고 이주 전의 주거지가 산동성 이외의 다른 성에 위치한 노인이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의 설립 이유는 아래와 같다. 우선, 연구지역을 산동성 위해시로 선정한 이유이다. 본 연구는 이주노인을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 도시화 과정 속에서 변화되고 있는 가족 관계에 대한 관찰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가족 이주의 전체 과정(가족의 분산과 재결합)속에서 가족관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며, 기존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는 이촌향도 식의 도시화 과정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에 증가하고 있는 도시 간 이주 현상도 포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적합한 도시는 중국의 압축적인 도시화 과정의 일각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도시이고, 도시 내에 가족 재결합 이주의 마지막 단계인 노인이주를 관찰할 수 있을 만큼 이주노인이 많으며, 도시 내에 농촌 출신 이주자뿐만 아니라 도시 간 이주자도 많이 관찰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 산동성 위해시는 1988년에 연해개방도시로 지정된 도시로 1990년대부터 중국 도시화에서 엔진역할을 한 동남연해 축의 중요한 거점도시인 동시에, 2000년대 이후 세 번째 도시화의 핵심지역인 환발해만지역의 중요한 부분이며, 2010년 이후에 점차 형성되고 있는 산동반도 도시 군에 속하는 중점도시로서, 중국의 도시화과정에서 중요성과 대표성이 있는 도시이다. 또한 위해시는 약 30년간에 도시화 수준이

19.2%(1987년)에서 65.0%(2016년)로 급증한 도시이며, 30년 동안의 급속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 지속적인 생태 보호, 이주자에 대한 선별적 수용 정책, 최근에 실시되는 이주자 정착화 정책들로 하북성, 하남성, 강소성 등 인근 지역으로부터 오는 농촌 노동력, 동북 3성 출신 도시 이주자, 노인이주자들을 대량으로 흡인한 도시이다(威海市統計局, 2000-2017)¹¹⁾. 현재 1990년대, 2000년대에 이주해온 자녀세대를 중심으로 위해시로 이주해 오는 노인들이 증가함에 위해시에서는 이주자들의 가족재결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위해시는 본 연구에 매우 적합한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참여자 선정기준에서 노인의 기준으로 UN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만 60세 이상으로 한 것은 중국의 통계국과 학계에서 대부분 만 60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통계자료와 문헌을 참고하기에 기준일치의 편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중국 남성은 55세에, 여성은 50세에 은퇴하는 실정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 중국인들은 65세 이전에 피부양인구가 된다. 더불어 만 60세를 노인으로 보는 것은 중국노인권인보장법에서 규정된 것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에서 6개월 이상 위해시에 거주한 외래 노인을 연구대상으로 한 것은 본 연구는 위해시에 상주하는 이주노인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 인구통계 관례상 인구조사 시점에서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거주했을 경우에 상주인구(常住人口)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를 이주 전의 주거지가 산동성 이외의 다른 성에 위치한 자로 한정 한 것은 중국의 이주 상황 상 성내이주 노인인구가 성외이주 노인인구 보다 훨씬 많으나¹²⁾ 성내이주인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의 이주이기에 이주 후의 제도적·문화적·사회적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11) 위해시의 도시화 상황과 이주 상황은 <제3장 위해시의 도시화 맥락>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12) 2010년 중국의 이주인구는 총 260,937,942명으로 집계되었는데 그 중에서 60세 이상 고령이주자 수는 15,820,910명에 달하고, 60세 이상 원거리 성외이주자는 2,090,694명에 달한다(中國國家統計局, 2011).

않는다. 그러나 원거리 성외이주의 경우 기존 지인 네트워크에서 벗어나고 기후환경, 언어 환경, 양로보장 체계의 제도적 환경이 크게 달라지며, 귀향의 어려움도 더 커지고 고향에 남아 있는 자원의 관리·유지가 더욱 어렵다. 따라서 이주노인의 이주나 부양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근거리 성내이주 노인들보다는 원거리 성외이주 노인이 더 대표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 기준은 연구자로 하여금 매우 정확하게 ‘위해시에 거주하는 이주노인’을 찾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으로 이주노인들에게 다가갈 경우, 연구 참여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과연 위해시에 거주하는 이주노인들의 다양한 상황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근거이론에서 말하는 범주의 포화(더 이상 새로운 범주를 발견할 수 없을 때까지 추가 정보를 찾는 것)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자는 근거이론에서 사용하는 ‘지그재그’식 자료수집 방식으로 자료수집과 자료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ison)을 응용하였다. 또 눈덩이 표집, 위해시 이주노인과 연관된 당사자들(연구 참여자, 이주노인 커뮤니티의 리더, 양로원 관리자, 요양보호사)에 대한 자문, 노인 연구 전문가와 질적 연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한 삼각검증 등 기술을 동원하여 다양한 이주노인 집단으로부터 연구 참여자를 섭외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자료를 획득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우선 이 연구의 계기가 되었던 D양로원¹³⁾을 방문하여 D양로원에 입소해 있는 노인들을 인터뷰하였다¹⁴⁾. D양로원에서 연구자는 절

13) 2015년에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위치하는 D 양로원을 방문하였을 때 동북 3성에서 위해시로 온 조선족 노인들을 만났다. 어떤 노인은 자녀들이 한국에 있고 혼자 요양원에서 외상배우자를 돌보고 있었다. 어떤 노인은 고향의 집에서 홀로 살다가 위해시에 이주 한 자녀에 의해 바로 위해시 요양원으로 모셔졌다. 어떤 노인은 자녀가 한국에 나가고 고향의 양로원에서 살다가, 자녀가 위해시로 오자 위해시의 양로원으로 모셔졌다. 이에 연구자는 ‘동북 3성에 살던 조선족 노인이 어찌다가 위해시의 요양원에 있는 것일까? 도시화 과정 속에서 가족돌봄은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조선족이 아닌 기타 이주노인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요양원에 살지 않는 재택 이주 노인들의 상황은 어떤지 등 학문적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노인들을 만나 상황을 알아보던 것이 이 연구의 계기가 되었다.

강, 길림, 호북, 흑룡강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이주해온, 60대-70대-80대 연령대의 이주노인들을 인터뷰하였다. 이 노인들 중에는 노후를 즐기기 위해 스스로 양로원에 입소한 노인들도 있었고, 돌봐 줄 사람이 없거나 동거할 수 있는 조건이 부재하여 입소한 노인도 있었으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배우자와 함께 입소한 노인도 있었다. 인터뷰를 위해 D양로원에 방문하는 동안 연구자는 양로원 관리자와 요양보호사로부터 D양로원에 입소한 이주노인들의 상황을 소개받았고, 면접사례와 이러한 소개들을 비교해본 결과 충분히 다양한 사례를 수집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D양로원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 비교해본 결과 D양로원이 위해시에서 비교적 고급적인 양로원인 이유로 표집된 노인들이 자신의 양로수당으로 입소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중, 상층 도시노인이었다. 이에 연구자는 ‘D양로원처럼 중, 고급 양로원이 아닌 비교적 열악한 시설에 입소해 있는 이주노인의 가족관계와 돌봄 상황은 어떠한가? 또한 시설에 입소해 있는 이주노인이 아니라 재택 이주노인의 가족관계와 돌봄 상황은 어떠한가?’라는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한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많이 입소해 있는 요양원을 찾아보는 동시에, 재택 이주노인을 면접하기 위해 주거 단지 중심으로 주거 단지 안에 있는 노인활동중심, 주거 단지 옆의 해변 노천광장에서 재택생활을 하는 이주노인들을 섭외하였다¹⁵⁾. 이렇게 면접

14) 양로원을 방문한 경우에는 양로원의 요구에 의해 우선 민정부로부터 연구 허락을 받고 양로원을 방문하였다. 양로원 관리자들은 자료제공과 연구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었고 연구가 끝날 때까지 양로원에서 자유로이 활동하면서 노인들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었다. 연구자는 노인들의 식사와 낮잠 시간을 피하여 오전 9-12시, 오후 2-5시, 저녁 6-8시 사이에 이주노인들이 거주하는 방을 방문하여 노인들에게 연구를 소개하고 참여의사가 있는 노인들에 한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5) 노인활동중심(老人活動中心)을 방문한 경우 우선 관리자에게 연구에 대해 소개하여 기관의 승인을 받았다. 다음 노인 활동실에 들어가 노인들의 활동들을 관찰, 기록하면서 노인들의 대화를 유심히 들었다. 노인들의 대화 과정에서 현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노인이 발견 될 경우 외지에서 이주해 온 노인임을 알아보고 노트에 기록해 두었다가 노인들의 활동이 끝난 후에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본 연구를 소개하고 연구 참여 의사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노인이 연구 참여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인터뷰 일정과 장소(대부분 노인의 집)를 정해 면담을 진행하였다. 해변 노천 광장에서 섭외된 노인들은 즉시 근처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인터뷰를 진행한 경우도 있고 면담 일정을 약속하고 연구자가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한 경우도 있다.

한 사례들을 비교해본 결과 예상 했던 것처럼 재택 이주노인들의 가족관계와 돌봄 상황은 시설 입소 노인과 많이 달랐다. 그러나 이렇게 면접한 노인들은 대부분 공적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며 건강한 노인들이었다. 이에 연구자는 ‘공적인 노인활동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주 노인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덜 활동적인 노인들의 상황은 어떠한가?’라는 의문이 생겼다.

이러한 의문에 의해 연구자는 다시 가족형 노인 커뮤니티¹⁶⁾를 방문하여 사적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노인들을 면접하였다¹⁷⁾. 또 덜 활동적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주로 집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인들일 경우 연구자가 직접 접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에 면접했던 사례와 지인들을 통해 눈덩이 표집 방법으로 바깥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주노인들을 섭외하였다¹⁸⁾.

이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주노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A 양로원에서 연구를 허락하였기 때문에 A 양로원에서 농촌출신이며 스스로 입소비를 지출하지 못하는 이주노인들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 후 면접 사례들을 비교해본 결과 면접한 이주노인들이 대부분 양로수당과 자녀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는 노인들임을 발견하고 길거리 면접과 눈덩이 표집, 지인들의 소개로 현재 노동소득으로 생활하는 이주노인들의 사례를 확보하였다¹⁹⁾.

또 연구 참여자의 선정과 면담 과정에 관하여 노인연구 전문가(교수)로부터 자문을 구한 결과, 위해시의 이주노인 중에 특수성이 있는 조선족 이주노인의 사례를 증가할 것을 코멘트 받아 조선족 인터뷰 사례를 증가하였다. 그리고 질적 연구 전문가(교수)로부터 연구 집단이 아닌 집

16) 외지에서 이주해온 동향인들이 일상적으로 모임을 갖는 특정 노인의 집.

17) 이주노인들의 모임이 자주 이루어지는 노인의 집을 찾아가 노인들에게 연구를 소개하고 연구 참여의사가 있는 노인을 섭외하여 노인들이 모임을 가지는 장소안의 조용한 곳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8) 지인들의 소개, 연구 참여자들의 추천을 통해 잠정적인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한 후 통화로 연구를 소개하고 연구 참여의사가 있는 노인들에 한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9) 일부는 지인들의 소개, 연구 참여자들의 추천을 통해 잠정적인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한 후 통화로 연구를 소개하고 연구 참여의사가 있는 노인들에 한해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소수는 길거리 표집을 통해 섭외를 진행하였다.

단에 대해 인터뷰 해보는 것도 연구 집단을 선명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조언을 받고 이주 노인이 아닌 현지노인 3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후반에 사례 내에 비슷한 상황들이 중복적으로 등장함이 발견되고 표집된 사례들의 연령, 출신지, 호구, 성별 등 정보들과 위해시 이주자들의 통계자료와 비교해 본 결과 연구 사례에 충분히 다양한 이주노인 집단이 포함되었다고 판단되었다. 또 수집된 정보와 현지에 거주하는 이주노인 커뮤니티 리더, 요양원 관리자,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때 제공받는 정보들과 비교하여 현재 수집된 자료들로 비교적 충분하게 이주노인의 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이론적 포화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고 30명의 사례를 수집한 후 인터뷰를 종료하였다.

1.3.3.3. 연구자료 수집과 분석

1) 연구자료 수집

연구자는 최대한 다양한 자료원을 통해 풍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주제에 관련하여 정부에서 제공한 통계자료와 당안(檔案)자료, 기사자료와 인터넷 자료, 연구 참여자가 소재한 양로원에서 제공한 홍보자료와 내부자료, 연구자가 노인들의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인터뷰 과정에서 기록한 관찰자료,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획득한 녹음자료, 양로원, 참여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진행되었고 인터뷰 자료의 경우에는 총 30명의 참여자에 대해 참여자당 1~3회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회당 소요시간은 약 1.5시간이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인터뷰 과정을 녹음하여 음성파일을 확보하였다. 연구자는 우선 개방적인 질문을 던지고 연구참여자의 답변에 따라 연구 질문을 좁히면서 깔데기(Funnel-like)식 질문방식으로 인터뷰를 이끌어나갔다. 인

터뷰 과정에서 연구자는 준비해 간 반 구조화된 인터뷰질문리스트 중에 이미 대답한 내용들을 체크하고 인터뷰의 마지막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였다. 인터뷰 전에 준비해 간 인터뷰질문리스트는 아래와 같다(<표 4> 참조).

<표 4> 인터뷰 질문 리스트

개방 질문 주제	확인
① 노인의 생애 이야기	
② 1차 이주 전 상황	
③ 1차 이주의 과정	
④ 1차 이주 후의 가족 간 돌봄 상황	
⑤ 재결합 이주의 제기	
⑥ 재결합 이주의 과정	
⑦ 재결합 후의 가족 간 돌봄 상황	
⑧ 재결합 이후의 위기와 갈등	
⑨ 재결합 이후의 위기와 갈등에 대한 대응	
⑩ '가족'에 대한 인식과 기대	

연구 참여자가 60세 이상 노인이기에 연구자는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할 때와 인터뷰의 전반 과정에서 최대한 전문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생활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출신 신분에 상관없이 알아들을 수 있는 중국 표준말(普通話)로 천천히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최대한 노인들의 신체상황을 고려해 노인들이 피곤한 기색이 보이면 연구를 중단하거나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지려 했다. 그러나 노인들은 비교적 긴 인터뷰시간이지만 인터뷰가 끝 날 때 까지 거침없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풍부한 녹음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정부에서 제공한 통계자료의 수집은 연구자가 직접 위해시 통계청을 찾아가서 통계자료를 요청하여 수집하였고 당안 자료는 위해시 당안관(檔案館)의 홈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수집하거나 위해시 당안관을 방문하여 얻을 수 있었다. 양로원의 홍보자료와 내부 자료는 연구자가 위해시

민정국의 연구 허가를 받고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양로원의 관리자들로부터 쉽게 제공 받을 수 있었다. 연구자가 노인커뮤니티를 방문하거나 인터뷰의 과정에 노인들의 거처나,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이나 노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은 모두 참여자의 동의하에 촬영하였다.

2)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개방코딩(open coding)으로 시작하였다. 개방코딩은 연구자가 인터뷰, 관찰, 각종 문서(필드노트, 메모, 관찰 일지, 기타 연구와 관련된 모든 문서)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밝히고자 하는 어떠한 현상에 대해 최초 범주화(categories)를 시키는 과정으로 특정현상에 대해 개념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즉 개방코딩이란 연구를 위해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오픈하고 해체, 검토, 비교 등을 통하여 개념을 형성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수집된 데이터를 개방 또는 해체하여 반복적 비교와 분석을 통해 개념을 도출하고 범주화 작업을 통해 의미 있는 덩어리로 분류하는 과정을 말한다(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 2012:44).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주노인이 경험하는 가족관계의 변화에 관해 60개 개념, 23개 하위 범주, 9개 중 범주를 도출하였다(<표 5> 참조).

다음 단계에서는 축 코딩을 진행하였다. 축 코딩(axial coding)은 개방코딩 이후에 하나의 범주를 중심으로 속성과 차원의 수준에서 다른 하위 범주를 연결시켜 자료를 다시 조합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하는데, 축 코딩단계에는 범주분석과 과정분석이 포함된다(Strauss & Corbin, 1998 박승민 외, 2012:86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우선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범주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중심현상(phenomenon)을 찾아내고 이 현상과 연관된 인과조건(causal conditions), 맥락조건(contextual conditions),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 결과(consequence)에 이르는 범주들의 관계를 밝혀내고 연결함으로써 노인이주 현상을 맥락화 하였다(<표 5> 참조).

<표 5> 개방코딩

축 코딩	범주	하위 범주	개념
맥락 조건	쇠퇴하 는 중공업 도시	국유기업의 민영화	구조적 실업과 은퇴
			국유기업 복지에서 쫓겨남
		자원형 도시의 쇠퇴	취업기회 부족
		중공업 지역의 열악 한 환경	심각한 공기 오염 추운 겨울
	빈곤한 농촌	농업소득의 불안정 성	농산품 가격의 하락
			자연재해의 발생
인과 조건	가족의 분산	가족 구성원의 이주	취업을 위한 국내이주
			양로를 위한 국내이주
			조선족들의 한국 진출
중심 현상	가족의 재결합	가족 구성원의 흡인	자녀의 일·가정 양립난
			노인의 돌봄 부재 상황
		기후 환경의 흡인	근거리 거주에 대한 욕구
		호구제도의 흡인	노후생활에 적합한 기후 주택구매자에 대한 호구 부여
중재 조건	가족안 의 다양한 상황들	노인의 상황	호구에 따른 복지자원
			건강상태
			노동참여 여부
			유배우 상태
		자녀의 상황	경제적 여유
			맞벌이 여부
			성별
		손자(녀)의 돌봄 수 요	돌봄 수요
			연령
		가족이 선택한 전략	상호 의존
			돌봄 부담 분산
			발전 추구
상호 작용	거주방 식의 선택과 조정	이주 초기 거주방식 의 선택	상호의존을 위한 동거
			세대 간 독립을 위한 근거리 거주
			동거 조건 부재로 인한 근거리 거주 및 입소
		이주 후기 거주 방 식 조정	세대 간 격차로 인한 분거 및 입소
			와상 노인 돌봄을 위한 분거 및 입소
			주택 협소로 인한 분거 및 입소
			독거 탈피로 인한 입소
			정착 실패로 인한 자녀의 재이주
			가족네트워크 형성
	상호지 원	의존 발생 전 노인 의 지원	육아와 가사 보조
			경제적 지원
			와상 배우자 수발 전담

	관계의 변화	의존 상황 발생 후 자녀의 지원	자녀의 사업에 대한 노동력 지원		
			가계를 위한 노후 노동		
			소득원이 없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분거(입소) 부모에 대한 정서적 돌봄		
	돌봄 규범의 변화	의존 상황 발생 전 자녀에 대한 지원 역할 강조	비상 상황에 처한 부모에 대한 일시적 돌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강조		
		의존 상황 발생 후 자녀에 대한 민폐 최소화 강조	노인의 헌신을 통한 가족 결속력 강화		
			자녀의 돌봄 행위에 대한 사양		
		의존 상황 발생 전 자녀의 높은 부양책 입감	자녀의 돌봄 부재에 대한 관대한 태도		
			요양원에 대한 수용		
		의존 상황 발생 후 부모 돌봄에 대한 제한된 기여	부모 부양에 대한 결심		
			부모의 민폐 최소화 노력에 대한 거리두기		
			부모 돌봄에 대한 아들의 역할 감소		
			부모 돌봄에 대한 딸의 역할 강화		
		결과	다양한 유형의 자녀 중심적 가족관 계 형성	다세대 동거 가족관 계 형성	동거 동재 가족관계 형성
					동거 분재 가족관계의 형성
다세대 근거리 가족 관계 형성			근거리 분거 분조 가족관계 형성		
			근거리 분거 동조 가족관계 형성		
다세대 원거리 분리 가족관계 형성			노인 근거리 입소 가족관계 형성		
			원거리 분거 가족관계 형성		
			노인 원거리 입소 가족관계 형성		

과정 분석은 자료에서 작용/상호작용으로 표현 된 범주와 하위범주를 시간적 흐름에 따르는 상황적 변화를 추적하는 단계를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박승민 외, 2012:88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에 속한 거주방식의 변화, 상호지원관계의 변화, 돌봄규범의 변화 과정을 병행되는 과정으로 보고 각각 과정 분석하였다. 거주방식의 변화 과정은 이주 초기 거주방식의 선택단계와 이주 후기 거주 방식 조정단계로 나뉘었다. 상호지원관계의 변화 과정은 의존 발생 이전 노인에 의해 지원이 제공되는 단계와 의존 상황 발생 이후 자녀에 의한 지원이 제공되는 단계로 구분하였다. 돌봄 규범의 변화 과정은 의존 상황 발생 이전 노인의 지원 역할이 강조되고 자녀의 부양의무감이 증가되는 단계와 의존 상황 발생 이후 노인의 민폐 최소화가 강조 되고 자녀가 부모 돌봄에

제한된 기여를 제공하는 단계로 구분하였다(<표 6> 참조).

<표 6> 과정 분석 결과

상호작용: 재결합 이후 가족관계의 형성 과정		
거주방식의 변화 과정	상호지원 관계의 변화 과정	돌봄 규범의 변화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방식의 선택단계 ● 거주 방식 조정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에 의해 지원이 제공 되는 단계 ● 자녀에 의한 지원이 제공 되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지원 역할이 강조되고 자녀의 부양의무감이 증가되는 단계 ● 노인의 민폐 최소화가 강조 되고 자녀가 부모 돌봄에 제한된 기여를 제공하는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는 선택코딩을 진행하였다.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은 분석의 차원을 이론의 높이로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련화하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Strauss & Corbin, 1998 박승민 외, 2012:91에서 재인용). 선택코딩은 핵심범주 명명, 이야기 윤곽 기술, 가설적 관계진술, 유형도출 등이 포함된다. 핵심범주(core category)는 본 연구의 중심 주제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핵심적인 단어로 응축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는 모든 범주를 통합시켜 정교화하는 작업이다. 핵심범주는 그 아래에 모든 기타 범주를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며 현존하는 범주들로부터 발전할 수도 있다(Strauss & Corbin, 1998 박승민 외, 2012:92에서 재인용). 본 연구는 기타 범주들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주노인이 이주한 이후에 경험하는 가족관계와 돌봄 양상을 개괄해줄 수 있는 개념으로 핵심범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자녀세대 중심의 거주방식, 상호지원관계, 돌봄 규범의 형성으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자녀 중심적 가족관계가 만들어지고, 노인이 부모의 책임을 다했을 때에는 점차 주변화 되는 과정’으로 도출되었다. 이야기 윤곽기술은 분석된 범주들의 관계를 서술적으로 하나의 이어진 이야기로 엮어 보는 과정으로 이야기 윤곽기술을 개괄했을 때

핵심범주가 된다(Strauss & Corbin, 1998 박승민 외, 2012:92에서 재인용). 본 연구는 개방코딩 단계에서 형성한 범주들의 관계를 서술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통해 이야기 윤곽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이야기 윤곽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전통적 산업도시와 농촌 지역을 떠나 전전하다가 위해시에서 정착하게 된 이주자들은 세대 간의 상호 돌봄을 위해 다시 위해시에 모이게 되었다. 이들은 가족이 보유한 자원, 가족 내의 돌봄 수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거주방식, 상호지원관계, 돌봄 규범을 구성하고 조정하였는데 결국 가족관계는 자녀가 중심이 되고 노인이 소외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거주 방식에 있어서 세대갈등, 주택문제, 자녀의 재이주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노인은 점차 다세대 동거가족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분거하게 된 노인들은 돌봄이 필요하게 되어도 다시 자녀와 동거하기 어려웠다. 세대 간의 상호지원 관계에 있어서는 세대 간 분업을 통해 자녀가 생산 영역을 차지하고 노인은 주로 돌봄 영역을 맡게 됨으로써 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이 형성되고 있었다. 또 노인이 독립능력을 가질 때에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 가사 지원, 육아 지원 등 폭 넓은 지원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자녀에게 의존하게 될 때에는 자녀의 맞벌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한된 도움밖에 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상호지원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돌봄 규범에 있어서는 노인이 독립 능력을 가질 때에는 부모의 책임을 강조 받아 자녀에게 최대의 도움을 제공도록 요구 받고 있으나, 자녀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자녀에게 미치는 민폐를 최소화하도록 요구 받고 있었다. 한편 자녀는 노인으로부터 폭 넓은 지원을 받는 시기에는 노인에게 대한 부양 의무를 강하게 느낄 지라도, 노인이 자신에게 의존하게 될 때에는 맞벌이 등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노인이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족 내 상황과 취한 가족전략에 따라 이주 가족 안에는 다양한 유형의 자녀 중심의 가족관계가 만들어졌다’이다. 가설적 관계진술은 면접 자료와 지속적으로 대조를 통해 현상과 인과적 조건, 맥락,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과 결과 간의 관계를 진술 하는 것을 말하고

유형분석은 가설적 관계진술의 결과와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와 패턴을 유형화하여 도출할 수 있다(Strauss & Corbin, 1998 박승민 외, 2012:93-94에서 재인용). 일반적으로 작용/상호작용 방식에 대해 유형분석을 진행하지만 본 연구는 결과(어떤 가족관계가 형성되는지)가 연구의 핵심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유형분석을 진행하여 동거형 가족관계, 동거 부동재형 가족관계, 근거리 분거형 가족관계, 근거리 분거 동조형 가족관계, 근거리 입소형 가족관계, 원거리 분리형 가족관계 등 6개 유형의 자녀 중심적 가족관계를 도출하였다.

1.3.3.4.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전략들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을 취하였다(유기웅 · 정종원 · 김영석 · 김한별, 2012:31-32). 우선 삼각검정(triangulation)(Denzin, 1970)을 적용하여 다양한 자료원을 확보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주체와 관련된 통계자료와 당안(檔案)자료, 기사자료와 인터넷 자료, 연구 참여자가 소재한 양로원에서 제공한 홍보자료와 내부자료, 연구진행 과정에서 획득한 관찰자료, 녹음자료와 사진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확인기법을 적용하여 연구자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연구 참여자들과 통화하여 연구자가 인터뷰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연구가 마감될 때는 연구결과를 3명의 연구 참여자에게 전송하여 피드백을 받고 연구결과를 보완하였다. 연구자는 장시간 관찰법을 활용하여 현장에 장기간 몸을 담으면서 연구대상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중국 산둥성 위해시의 이주노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연구가 끝날 때까지 평균 3개월에 한 번씩 1회에 7일-30일 기간으로 위해시에 체류하였다. 위해시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연구자는 양로원, 이주노인 커뮤니티, 노인들의 거처, 위해시의 당안관, 통계국 등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주노인들과 사전면담을 진행하며 이론적 민감도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그 후 2016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인터뷰 기간에는 직접 연구 참여자들과 대화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생활상을 근거리에서 관찰하였다. 또한 동료검토법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주제, 질적 연구방법론 및 관련분야에 식견이 있고 연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제공해줄 수 있는 동료들에게 분석 과정과 결과를 검토 받았다. 연구자는 연구주제의 검토, 연구방법의 선정, 인터뷰 문항의 개발과 자료의 분석과 논문의 작성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1, 2주에 한번씩 3명의 박사과정을 수료한 동료들과 만나 연구과정과 분석결과를 검토 받으면서 단독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견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외부 감사법을 활용하여 전문가로부터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검토를 받았다. 연구자는 연구의 주제선정부터 연구가 끝날 때까지 1명의 노인연구전문가(교수)와 1명의 근거이론전문가(교수), 1명의 중국현지의 노인연구전문가(교수), 1명의 현장에 몸담은 양로원관리자에게 단계별 연구과정을 보고하고 검토 받는 과정을 거쳐 연구주제와 관련된 다수의 의견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다.

1.3.3.5. 연구대상 배려와 연구과정에서의 윤리적 고민

본 연구는 사전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연구승인(IRB No. 1602/002-006)을 받았다. 연구자는 서울대학교 교내 연구윤리 워크숍과 CITI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였으며 연구과정은 2010년에 개정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진행하였다²⁰⁾. 연구자는 질적 연구의 윤리적 이슈들을 고려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연구자의 기본 정보를 소개한 후, 연구 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 연구 참여자가

20)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위원회, 2008년 6월 24일에 제정하고 2010년 7월 16일 개정된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http://www.snu.ac.kr/research/ethics>.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 자료의 수집 방법과 사용기간, 개인 정보의 보호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 하였다. 인터뷰와 인터뷰 과정에 대한 녹음은 연구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인터뷰 중에 응답을 원하지 않는 질문에 대해 응답하지 않을 권리, 인터뷰를 수시로 중단할 권리, 인터뷰 이후에도 연구에 대해 수시 문의할 권리, 연구 참여를 철회하고 자료 삭제를 요구할 권리 등 다양한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사후에도 연구에 대해 문의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연락처, 지도교수 연락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락처가 적혀 있고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공동 서명한 연구 참여자 동의서 1부를 연구 참여자에게도 소지하게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익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논문에서 가명을 쓰고 연구정보는 연구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연구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치들은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큰 기여를 했고 연구자의 연구행위를 규범화하는데 매우 유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여전히 일부 윤리적 갈등에 직면했는데 주로 연구가 연구 참여자의 고통이나 불쾌한 기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연구 참여자가 아들 며느리와 함께 다세대 동거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연구 참여자가 같이 사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에 연구자가 ‘어떤 것이 불편하셨나요?’라는 질문에 연구 참여자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한참 고민하다가 인터뷰를 중단 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가족관계와 노인 돌봄을 연구함에 있어서 가족 간의 갈등과 소외도 현 시대 가족관계의 실재를 파악함에 있어서, 향후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질문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은 분명 연구 참여자가 경험했던 불쾌한 기억을 회상시킬 것이다. 이때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취하는 방법은 연구 참여자에게 응답을 거부할 수 있다고 사전에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가 인터뷰 중단할 요구를 할 때 실제적으로 인터뷰를 중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 이것은 과연 윤리적인가라는 질문이 든다. 그러나 불쾌감을 기피하기 위해 연구에서 부정적인 화제를 꺼내지 않는다면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부족하여 필요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할 것은 물론 이런 사회문제에 다가가지도 못할 것이다. 따라서 불쾌감이 예상되는 질문은 과연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항상 연구자의 고민거리이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연구자가 어떤 질문이 연구대상자의 고통을 유발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예컨대 연구 참여자가 71세 여성노인이었는데 연구자의 ‘자녀는 몇 명 있으세요?’라는 일반적인 질문에 울음을 터드린 것이다. 2006년에 연구 참여자는 아들과 함께 딸이 있는 위해시로 이주하였는데 이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이다. 연구자는 즉시 인터뷰를 중단하였고 최대한 연구 참여자를 위로하였지만 아마 연구 참여자의 정서는 인터뷰 장소를 떠나고도 쉽게 진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어떤 질문이 연구 참여자의 고통을 유발할까 하는 것은 연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고 연구 참여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고민이 있었다.

세 번째 문제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사적인 영역에 얼마나 깊이 다가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주노인이 경험하는 가족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기에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질문을 해야 했다. 그러나 중국의 관습 상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적 영역에 속하므로 어떤 연구 참여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질문들은 사적 영역에 대한 침범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사전에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진행되는 인터뷰라고 할지라도 연구 참여자의 사적 영역에 너무 깊이 다가가지 않는 동시에 풍부한 자료를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 보호와 연구의 수요라는 어쩌면 상황적으로 모순되는 두 가지 기준 앞에서 연구보다는 항상 참여자의 보호를 우선시 하고, 연구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해도 여전히 연구자에게 피해가는 부분을 완전히 예방할 수 없는 것이 연구과

정에서 가장 큰 윤리적 고민이었다.

1.3.4. 면접 사례 소개

본 연구는 총 30명의 이주노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도시 노인은 18명, 농촌 노인은 12명으로 위해시에 거주하는 외래인구의 구성 비율과 유사하다. 연령별로 봤을 때 60대가 15명이고 70대가 10명, 80대가 5명이다. 또 성별에 따라 여성이 12명, 남성이 18명이며 출신지는 28명이 동북 3성출신의 이주노인이고 2명이 기타 지역출신 노인이다. 연구 참여자의 호구, 주요소득원, 주거방식, 동거 가족, 상시적 돌봄 관계, 자녀 상황 등은 아래의 표와 <사례 소개>를 참고할 수 있다(<표 7> 참조).

<표 7>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정보

이름 (연령, 성별)	이주 연도	호구	주요 소득원	주거 방식	동거가족	상시적 돌봄 관계	위해시 거주 자녀	외지 거주 자녀
1.엽지영 (65세, 여성)	2012	도시 고향	양로수당	시설			딸	
2.진호창 (83세, 남성)	2003	도시 고향	양로수당	시설	배우자 (와상)	노인→배우 자	아들 2명, 딸	
3.필종구 (77세, 남성)	2011	도시 고향	양로수당	시설			딸 2명	
4.한옥지 (82세, 여성)	1998	도시 고향	양로수당	시설			아들	
5.한경운 (89세, 남성)	2002	도시 고향	양로수당	시설			아들 2명, 딸	딸 2명
6.유수지 (75세, 여성)	2001	도시 고향	양로수당	자택			아들, 딸	아들
7.항현귀 (77세, 남성)	2003	도시 고향	양로수당	자택 (딸)	배우자			아들, 딸 2명
8.추형지 (76세, 남성)	2008	도시 위해	양로수당	자택 (아들)	배우자		아들, 딸	딸
9.가추분 (67세, 여성)	2015	도시 고향	양로수당 노동소득	임대 주택	배우자, 손자	노인→자녀, 손자	아들	아들
10.진항용	2006	도시	양로수당	자택	배우자	노인→외손	딸	

(65세, 남성)		고향				녀		
11.정옥희 (61세, 여성)	2010	도시 위해	양로수당	자택	배우자, 손자	노인→손자		아들
12.사회영 (61세, 여성)	2013	도시 고향	양로수당 노동소득	자택		노인→자녀, 손자	아들	
13.두건국 (68세, 남성)	2007	도시 고향	양로수당	자택	배우자, 딸(미성년)	노인→딸	딸	아들 2명
14.노자향 (70세, 남성)	2002	도시 위해	양로수당	자택	배우자		딸	아들
15.오충진 (62세, 남성)	2008	도시 위해	양로수당 노동소득	자택 (딸)	배우자, 딸, 사위, 외손자	노인→외손 자	딸	
16.풍학귀 (68세, 남성)	2010	도시 고향	양로수당	자택	배우자 (와상)	노인→배우 자		아들
17.장만향 (67세, 남성)	2005	도시 위해	양로수당	자택 (딸)	배우자, 외손녀	노인→외손 녀	딸	딸
18.장홍인 (63세, 남성)	2014	도시 고향	양로수당	임대 주택	배우자	노인→손녀	아들	아들
19.왕학택 (64세, 남성)	2011	농촌 고향		자녀 (딸)	배우자, 딸, 사위, 외손자	자녀→노인 노인→외손 자	딸	아들 2명
20.손건무 (69세, 남성)	2010	농촌 고향		자녀 (딸)	배우자, 딸, 사위, 외손녀	자녀→노인 노인→외손 녀	딸	
21.왕다력 (63세, 남성)	2013	농촌 고향	노동소득	기숙사	배우자			아들 3명
22.한동창 (61세, 남성)	2013	농촌 고향	노동소득	자택	배우자, 아들, 며느리, 손자	노인→자녀, 손자	아들	
23.강부귀 (66세, 남성)	1997	농촌 고향	노동소득	임대 주택	배우자	노인→외손 자	아들, 딸	
24.이기애 (72세, 여성)	2002	농촌 고향		자녀 (딸)	딸, 사위	자녀→노인	딸 4명, 아들	아들
25.김영훈 (74세, 남성)	2007	농촌 고향		자녀	배우자	노인→자녀	아들 2명	
26.정춘자 (73세, 여성)	2002	농촌 고향		자녀	배우자 (와상)	노인→배우 자 자녀→배우 자	아들	
27.최춘옥 (81세, 여성)	2011	농촌 고향		자녀	시설		딸	딸 3명
28.문금화 (77세, 여성)	1998	농촌 고향		자녀	시설			아들 2명, 딸
29.방정희 (74세, 여성)	2011	농촌 고향		자녀	시설		손자	아들, 딸

여성)								
30.오영순 (81세, 여성)	2016	농촌 고향	자녀	시설				아들 3명, 딸

주: 1) 본 연구에서 나오는 이름은 가명이다. 2) 호구 항목이 도시 고향으로 표기된 것은 현재 보유한 호구가 도시호구이며 아직 위해시로 호구를 이전하지 않아 호구가 고향에 있음을 뜻한다. 도시 위해라고 표기된 것은 현재 보유한 호구가 도시호구이며 위해시로 이미 호구를 이전했음을 뜻한다. 농촌 고향으로 표기된 것은 현재 보유한 호구가 농촌호구이며 아직 위해시로 호구를 이전하지 않아 호구가 고향에 있음을 뜻한다. 3) 상시적 돌봄관계는 주로 매일 일어나는 신체적 돌봄 관계를 뜻한다. 4)굵은 글씨는 주 돌봄자나 예비 주 돌봄자를 뜻한다. 중국에서는 돌봄에 있어서 자녀의 출생순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출생순위에 대한 표기는 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상호지원 상황은 아래의 사례 소개와 본문의 제5장을 참고할 수 있다.

사례 1. 엽지영(여, 65세, 한족)

엽지영은 1952년에 절강성(浙江省) 호주시(湖州市)에서 태어났다. 유년기에 기아를 겪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어 상해에서 양약방을 경영했던 아버지가 당시 “주자파(走資派)”로 정치적 탄압을 받으면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엽지영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지식청년들을 농촌으로 파견하는 상산하향(上山下鄉)정책에 의해 19세부터 27세까지 농촌에서 살았다. 그 후 1973년에 다시 도시로 돌아와 농산품 가공 기업에서 출납, 창고 관리, 식당관리를 하다가 1978년에 신용사(信用社, 은행)로 전직하여 일하다가 50세에 은퇴하였다. 2004년에 엽지영은 남편을 잃고 근처에 사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2008년과 2011년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고 독거하게 되었다. 심한 우울증과 신경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딸은 고향에 홀로 남겨진 엽지영이 걱정되어 엽지영을 위해시로 모셨다. 딸은 위해시 출신 남편을 만나서 위해시에 살고 있었는데 2012년에 엽지영이 이주한 초기에는 딸, 사위와 동거하였다. 동거 중 젊은 세대와 생활 습관이 달라 갈등이 생기고 생활이 불편해지자 엽지영의 신경질환은 더욱 심해졌다. 동거가 힘들어졌으나 고향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근처의 양로원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딸의 제안에 따라 엽지영은 위해시의 동발양로원에 입주하였다. 현재 엽지영은 양로원의 1인실에서 사는 삶이 편하고 좋다고 한다. 신경 쓰이는 일들이 없어서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다. 엽지영은 양로원 출입도 자유롭고 매일 취사하지

않아도 되는 양로원에서 사는 것이 자택에 사는 것보다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엽지영은 비교적 넉넉한 양로수당과 저축이 있고 고향에 주택이 있기에 입소비와 용돈을 독립적으로 마련한다. 엽지영은 2, 3일에 한 번씩 딸과 통화하고 매달 한 두 번씩 딸이 양로원을 찾아온다. 엽지영은 딸과의 관계에 만족스러워하고 있지만 “딸의 성격이 남자 같아서 사람을 돌볼 줄 모른다”고 하면서 향후 건강이 악화되어도 계속 입소 돌봄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다.

사례 2. 진호창(남, 83세, 한족)

진호창은 1933년에 길림성(吉林省) 구대현(九台縣)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위만주국(偽滿洲國)의 통치아래 5년간 초등학교를 다니고 신 중국이 건립된 후 3년간 중학교를 다닌 후 다시 3년간 중등 사범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20세에 동북사범대학에 입학하여 졸업 후 길림성 대안현(大安縣) 제1중학교에서 교사직을 맡았다. 정풍운동(整風運動) 당시 잠시 우파(右派)로 몰렸지만 업무에 뛰어나 무난하게 교사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고 특급교사로 평가 받아 명예로운 교직생활을 했다. 60세에 대안 제1중학교에서 은퇴하고 청도(靑島)에 있는 해산대학교(海山大學)에 특별 임용되어 70세까지 교사로 활동하다가 은퇴하였다. 진호창은 아들 2명, 딸 1명이 있는데, 자녀들이 고향인 동북지역이 겨울에 춥고 경제 조건이 낙후된 반면 위해시는 일자리 선택의 폭이 넓고 기후가 좋으므로 위해시로 이주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은퇴 후 위해시에 주택을 구매하여 배우자와 함께 살다가 배우자의 건강이 악화되자 동반 입소하였다. 현재 진호창은 양로원의 조무사와 함께 와상 상태인 아내를 돌본다. 양로원은 청소와 식사 제공, 목욕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빨랫감은 자녀들이 집으로 가져가서 세탁한다. 진호창은 주로 아내의 식사와 투약을 관리한다. 진호창과 그의 아내 모두 양로수당이 있고 주택도 보유하고 있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다. 지출관리는 딸이 대신해주고 있고, 자녀들은 매주 노부모를 방문한다. 진호창은 아내가 와상상태에 있지만 양로원에서 제공하는 신체적 돌봄 서비스, 넉넉한 양로수당과 자녀가 제

공하는 정서적 돌봄으로 만족스럽게 양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사례 3. 필종구(남, 77세, 한족)

필종구는 1939년 길림성 통화시(通化市)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다니고 현지의 공사(公社), 원림관리소, 식당, 농기계 공장 등에서 노동자, 회계, 사무직 등에 다양하게 종사하다가 60세에 농기계국(農機局)에서 은퇴하였다. 필종구는 딸이 2명 있는데 십여 년 전에 위해시로 이주하였고, 필종구는 아내와 함께 고향에서 살았다. 2009년에 배우자가 사망하자 필종구는 1년 동안 고향에서 독거하고 있었는데 딸들이 고향에 돌아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 무슨 일이 생겨도 돌봐드릴 수도 없고, 달려가더라도 너무 멀어서 제때에 손쓸 수가 없다”고 하면서 필종구를 위해시로 모셔왔다. 딸들은 시부모와 함께 살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고 살 수 없어 필종구를 위해시의 고급 양로원으로 모셨다. 필종구는 입소하게 된 것에 대해 “자식이 아들이었으면 동거했을 텐데 딸이니까 동거할 수는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입소비는 필종구의 양로수당에서 지출하고 있고 지출관리는 딸이 해준다. 근처에 사는 딸들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필종구를 부르면 필종구는 버스를 타고 딸들 집으로 가서 식사한다. 딸들은 매주 한 번씩 양로원을 방문하여 간식과 생활필수품들을 사온다. 필종구는 양로원에서 주로 TV시청, 음악 감상, 산책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필종구는 현지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양로원에서 5년 정도 살았지만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고 혼자 시간을 보낸다. 필종구는 “마음을 넓게 먹고 만족해하면 외롭지 않다”고 말하면서 현재의 삶에 순응하고자 하지만 심리적 고독감이 큰 듯하다.

사례 4. 한옥지(여, 82세, 한족)

한옥지는 1935년 북경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공부하고 하북성에 있는 중등 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 졸업 후 국립 상업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55세에 은퇴하였다. 항일전쟁시기 북경은 일제로부터 평화롭게 해방되었기 때문에 한옥지는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고 문화대혁명 시

기에도 학생 관리 업무를 맡았기에 정치적 탄압을 받지 않았다. 노후에는 넉넉한 양로수당 덕분에 일생동안 무난하게 살아왔다.(앞에서는 ‘노후에는’이라고 했는데 ‘일생동안’이 나오면 안 됨) 한옥지는 1998년에 아들이 있는 위해시로 이주하여 남편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8에 남편이 사망하자 아들과 동거하였다. 아들, 며느리와의 관계는 비교적 화목했으나 자녀들이 출근하고 나면 늘 혼자 있어야 하고, 손녀의 교육과 관련하여 며느리와 갈등을 겪었다. 동거하지 않으면 손녀 교육에도 좋을 수 있고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한옥지는 자진하여 1개월간 양로원 입소 체험을 해봤다. 그 결과 한옥지는 양로원에서는 늘 곁에 다른 노인들이 있고 취미생활을 할 여유가(집이나 양로원이나 다 취미생활은 할 수 있는데 양로원에서만 가능하다면 여유가 있어서일 것이라고 추측) 있다고 생각해서 양로원에서 살고 있다. 현재 한옥지의 입소비는 자신의 양로수당에서 지출하고 있고 지출관리도 혼자 하고 있다. 위해시에 사는 아들 부부는 매 주 한 번씩 양로원을 방문하고 필요한 물품도 사온다. 북경에 있는 딸도 자주 한옥지와 통화를 한다. 한옥지는 현재의 가족관계, 경제 상황과 현재 양로원에서의 삶에 매우 만족한다.

사례 5. 한경운(남, 89세, 한족)

한경운은 1928년에 길림성에서 태어나 요녕성에서 성장하면서 고등학교까지 위만주국의 교육을 받았다. 1945년에 공산당에 가입하고 정부기관에서 일하다가 국공내전시기 국민당에게 포로 된 후 고향으로 도주하였다. 그 후 하얼빈공업대학(哈爾濱工業大學)에서 교량(橋梁, 다리) 건축 전공을 졸업하여 흑룡강성 목단강 해림 임업국에서 기술자로 일했다. 문화대혁명시기에는 지식분자(知識分子) 신분 때문에 3년 동안 박해를 당하고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임업 지역으로 보내졌다. 한경운은 줄곧 임업국에서 기술자로 일하다가 1982년에 딸에게 일자리를 물려주고 52세의 젊은 나이에 은퇴하여 72세까지 임업국 건축회사 소속으로 도로와 다리를 건축하는 현장에서 일했다. 한경운은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 둘째 아들이 위해시에서 취직하였다. 둘째 아들은 위해시의 기후가 어머

니의 기관지염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2002년에 한경윤 부부를 위해서로 불렀다. 한경윤 부부는 아들과 2개월 동안 동거하다가 자녀 집에 얹혀사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고 느껴 위해시에 임대주택을 구해서 이사했다. 2012년에 배우자가 사망하자 한경윤은 자진하여 양로원에 입소하였다. 현재 한경윤은 아들 2명과 딸 3명이 있는데 위해시에 아들 2명과 딸 1명이 있고, 다른 딸 1명은 고향에 살고 있다. 나머지 한 명의 딸은 아내가 임종할 때에 오지 않아서 관계를 끊은 상태이다. 한경윤은 자신의 양로수당으로 입소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 한경윤은 평생 고생을 많이 해서 양로원 생활에 아주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한다. 89세의 고령이지만 매일 새벽에 기상하여 2500미터 달리기를 할 정도로 건강하며 청소와 빨래를 혼자 한다. 한경윤은 소비관리를 혼자 하며, 이미 유서, 묘지 등 죽음준비까지 해놓은 상태이다. 한경윤은 매주 주말에 오토바이를 몰고 큰 아들집에 가서 자녀들과 같이 식사하고 마작 놀이를 한다. 자녀들도 자주 아버지를 모시고 외식을 하고 양로원에 방문한다. 한경윤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엄격한 편이며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매우 순종적이고 가족관계가 매우 화목한 편이다.

사례 6. 유수지(여, 75세, 한족)

유수지는 1942년에 산둥성 봉래시(蓬萊市)에서 태어나 1950년에 부모님과 동북 흑룡강성 해림현(海林縣)으로 이주했다. 유수지는 19세 때 농촌의 생산대대(生産大隊)에서 부녀 주임직을 맡아 일하다가 1965년에 양식창고(糧庫)로 이전한 뒤로 1970년에는 양식점(糧店)으로 파견되어 일했으며 1975년에 양식점 주임으로 승진하였다. 1978년에 인민대표로 선발되었고 1984년 양식관리소(糧管所) 부소장직까지 맡았다가 1985년에 양식 공급 회사로 전직하였다. 1981년부터는 국가에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원 신분으로 일하게 되었고, 1990년대에 정부가 공무원 인원축소를 단행할 때 51세의 젊은 나이에 은퇴하였다. 유수지는 나이가 들고 있는 딸의 결혼과 취직을 해결해주기 위해 1997년에 “관계(關係)”를 찾아 딸을 위해시의 외운(外運)으로 전직시켰다. 유수지는 은퇴 후 남편

과 고향에서 살다가 2001년에 노후를 즐기기 위해 기후가 좋고 딸과 친척들이 많은 위해시로 이주하였다. 유수지 부부가 이주한 후에 큰 아들도 위해시로 이주하여 현재 작은 아들만 고향에 남아있다. 유수지는 2004년에 남편과 사별하고 줄곧 독거하고 있다. 유수지는 혼자 있는 것이 더 자유롭고 편해서 동거하자는 자녀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유수지는 넓은 집에서 TV시청도 하고 꽃도 키우고 인터넷 프로그램도 보면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다. 유수지는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여 이불 일상 용품들을 고급적인 것으로 구매하기를 즐긴다. 국가 공무원이었던 유수지는 넉넉한 양로수당과 저축을 가지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자녀들도 모두 공무원으로 잘 살고 있기에 자녀 걱정도 없다. 위해시에 거주하는 딸과 아들은 자주 유수지를 방문하고, 동북에 있는 아들도 자주 연락하며 비상 시에는 자녀가 바로 달려올 수 있다. 유수지는 자신의 삶을 “신선(神仙)과 같은 삶”이라고 말한다.

사례 7. 항현귀(남, 77세, 한족)

항현귀는 1940년에 요녕성 심양시에서 태어나서 항미원조 시기에 징병을 피하는 형님과 가족들을 따라 가목사(佳木斯)로 이주하였다. 1956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1958년에 입대하여 고급 포병 학교에서 공부하고 1959년에 북경의 문화교육 적극분자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병에 걸려 기회를 놓쳤다. 그 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군대에서 활약을 할 수 없게 되자 23세 나이로 제대하고 고향에 돌아가 공장에서 노동자로 평생 지내다가 1997년에 국유기업 개혁 시기에 회사가 망하여 58세 나이로 구조적 실업을 당했다. 항현귀 일가는 모두 가목사(佳木斯)의 국유기업에서 근무했는데 90년대 국유기업 개혁의 영향으로 자녀 세 명이 모두 구조적 실업을 당했다. 실업한 셋째 딸은 일자리를 찾으러 위해시로 왔다. 맞벌이 부부인 셋째 딸이 육아가 어려워지자 은퇴한 항현귀 부부를 위해시로 불렀고, 항현귀 부부는 딸의 집에서 외손자를 돌보면서 지냈고 딸과 사위는 장사를 했는데 2003년에 사스(SARS)의 영향으로 장사가 망하자 딸 부부는 상해, 남경 쪽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러 떠

났다. 부부가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고 외손자의 전학도 순리롭지 않자 항현귀 부부는 위해시에 남아 외손자를 돌보다가 지금은 외손자도 성장하여 독립해 나가서 항현귀 부부만이 딸의 집에 남아있다. 현재 항현귀 부부는 딸 부부와 살던 집에서 넉넉하지 않은 양로수당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옆에 돌봐주는 자녀가 없고 자녀들의 여건이 좋지 않아 자녀로부터 경제적 돌봄도 받지 못하며 자녀와 거리가 멀어 2, 3년에 한번밖에 자녀를 만날 수 없다. 항현귀 부부는 매주 2, 3번씩 통화로 자녀와 정서적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항현귀는 향후 생활이 어려워지면 양로원에 입소할 생각으로 지금부터 양로원들을 살펴보러 다닌다. 항현귀는 일가가 모두 국유기업에서 취직했다가 구조적 실업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개혁개방 전의 80년대가 더 행복했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삶은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다.

사례 8. 추형지(남, 76세, 한족)

추형지는 1941년에 흑룡강 수화(綏化)에서 태어나 자랐고, 3년제 사범학교를 졸업하였다. 1962년부터 15년간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다가 중학교로 옮겼으며, 중학교에서 13년간 주임(主任)으로 근무하다가 60세에 은퇴하였다. 은퇴 후에 2년간 고향에서 지내고 2008년에 위해시로 이주하였다. 추형지의 아들은 원래 고향의 국유기업인 전기기계 공장에서 근무했는데 국유기업 개혁 때 기업이 파산하여 직장을 잃자 위해시로 이주하여 개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5년에 아들이 위해시의 석도에 집을 사서 추형지 부부를 불렀다. 그 후, 2007년에 석도에 집을 팔고 위해시에 집을 샀으며 2008년에 추형지 부부가 입주하였다. 2007년 이후 개인사업이 어려워지자 아들은 다른 도시인 성도로 일자리 찾으러 떠나가고 며느리는 청도로 개인 사업을 하러 떠났다. 추형지 부부는 위해시의 아들 집에서 손녀를 돌보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손녀도 다른 곳으로 유학을 가서 집에는 추형지 부부만 남아있다. 청도에 사는 며느리는 거리가 멀지 않아서 가끔 집에 와서 며칠 씩 머물다 간다. 작년에 큰 딸도 위해시로 이주했고 이제 작은 딸도 노후를 보내면서 연로한 어머니를 돌볼 생각으로

위해시로 이주하여 가족이 위해시에 모이게 되었다. 추형지는 젊었을 때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했기에 매우 건강하여 신체적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현재 추형지의 양로수당은 비상용으로 저축해 놓았고 생활비는 자녀가 보내주는 돈으로 지출하고 고향에 주택 두 채가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다. 보수적인 가족 관념을 가진 추형지 부부는 아들과는 항상 동거하였고 아들에게 노후를 맡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흩어져 버린 데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이런 상황을 추형지는 “가족이 사분오열 되었다”라고 표현한다. 추형지는 향후 건강이 악화되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면 일단 자녀 돌봄을 받고 자녀도 나이가 들어 돌봐주지 못하게 되면 양로원에 입소할 생각을 하고 있다.

사례 9. 가추분(여, 67세, 한족)

가추분은 1950년 요녕성 조양현(朝陽縣)에서 태어나 흑룡강 이촌(宜村)에서 자랐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생산대대(生産大隊)에서 일하다가 25세에 결혼하였다. 출산 후 맥주공장에서 55세까지 일하다가 은퇴하였다. 가추분을 아들 두 명이 있는데 작은 아들은 고향에 있고, 큰 아들 가족은 위해시에 있다. 임업을 위주로 하는 고향에서 목재가 고갈되자 지역경제가 어려워져 가추분의 큰 아들은 위해시로 이주하였다. 큰 아들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기에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 고향에 있는 가추분 부부를 위해시로 불렀다. 현재 가추분 가족들은 위해시에서 살고 있지만 아들이 위해시에서 주택을 구입할 조건이 되지 않기에 2년 뒤에 다른 곳으로 이주할 계획을 하고 있다. 현재 아들부부는 회사 기숙사에 살고 있고 가추분 부부는 손자를 데리고 반 지하 원룸을 세내어 살고 있다. 가추분 부부는 둘 다 양로수당이 있어서 소득은 충분하지만 두 아들을 돕기 위해 가추분은 화장실 청소 용역을 하고 있다. 현재 아들들은 경제적으로 가추분 부부를 돕지 못하며, 손자 관련 지출도 가추분 부부가 부담하고 있다. 가추분의 늘 숙취상태에 빠져있는 둘째아들과는 연락두절상태에 있다.

사례 10. 진향웅(남, 65세, 한족)

진향웅은 1952년에 산둥 덕주시(德州市)에서 태어나 6세 때 대약진운동으로 인한 기아를 피해 부모님과 함께 하얼빈(哈爾濱)으로 이주했다. 그 후 진향웅은 아버지를 따라 목단강(牡丹江)으로 이주하여 목단강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문화대혁명으로 학업이 중단되었다. 그 후 진향웅은 국유 관상기계공장에서 일하다가 2004년에 국유기업 개혁으로 인해 기업이 파산하자 52세에 구조적 실업을 당하고 위해시로 이주했다. 그 후 진향웅은 자녀가 있는 북경으로 가 보았는데 주택 마련 문제 때문에 북경에 정착할 수가 없었다. 마침 위해 은탄에 대규모 주거단지 건설과 분양이 한창인 때 진호창은 고향에 있었던 몇 개의 주택을 팔아서 기후가 노인에게 적합하고 주택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은탄에 주택을 마련하여 2006년에 이주하였다. 그 후 대도시에 정착하지 못하는 딸과 사위가 은탄에 찾아와 진향웅 부부와 동거하였다. 동거의 불편함을 느낀 진향웅은 딸 부부에게 위해시에 집을 사줘서 따로 나가서 살게 하였다. 지금은 딸 딸이로 바쁜 딸을 도와 아이를 돌봐주기 위해 진향웅은 은탄의 주택을 팔고 딸의 집 근처에 집을 마련해서 살고 있다. 지금은 딸 집 근처에 집을 마련해 아이를 봐주고 있다. 딸과 많이 왕래하지만 돌봄을 받기보다는 주는 것이 더 많다. 현재 진향웅 부부는 양로수당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향후 생활이 어려워지면 양로원에 입소할 생각을 하고 있다.

사례 11. 정옥희(여성, 61세, 한족)

정옥희는 1956년에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태어났다. 19세에 고등학교를 졸업 후 ‘상산하향(上山下鄉)’ 정책에 따라 농촌에 내려갔다가 4년 후에 다시 도시로 돌아와 담배 판매 회사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47세에 구조적 실업을 하였다. 아들과 동거하던 정옥희는 은퇴 후 손자를 돌보면서 살았다. 정옥희는 30년 전부터 기후가 좋은 위해시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희망했기에 2010년에 고향의 주택을 팔고 위해시에 집을 사서 이주하였고, 이 때 ‘손자와 떨어져서는 살 수 없다.’면서 일곱 살의 손자를

데리고 위해시로 왔다. 5년 동안 손자와 둘이서 위해시에서 살다가 2015년에 배우자가 은퇴하여 위해시로 합류하였다. 아들은 구정 때 한 번씩 정옥희 부부를 방문하고, 평소에는 2, 3일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한다. 아들이 가끔 용돈을 주고 있고, 정옥희 부부의 양로 수당을 합하면 약 월 7200위안이 지급되지만 손자를 키우고 있어서 생활하기에 빠듯하다고 한다. 정옥희는 손자를 돌보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은 되지만 기쁘다고 하면서 ‘은퇴한 노인이 손자(녀)를 봐주는 것은 중국의 전통이다.’라고 말한다. 정옥희는 경제적 부분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으나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자기가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커서 노후의 의료비에 대한 걱정이 크다. 정옥희는 향후 거동이 불편해 질 경우 자녀가 돌보게 하거나 양로원에 가겠다고 한다.

사례 12. 사회영(여성, 61세, 한족)

사회영은 1956년에 흑룡강성 보청현(宝清縣)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전자기계공장에서 평생 노동자로 일하다가 1998년에 기업이 해체되어 구조적 실업을 당하였다. 은퇴한지 1년 후 배우자와 사별하였고 유일한 아들이 산둥성 위해시에 거주해서 약 4년 동안 고향에서 홀로 지냈다. 2013년에 사회영은 아들 부부가 손자를 돌봐달라고 요청하여 위해시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주 초기에 사회영은 아들, 며느리, 손자와 동거하면서 맞벌이하는 자녀의 가사를 돕고 손자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식당에서 시간제로 일하면서 살았다. 그러나 손자가 성장하면서 독립적인 공부와 생활공간이 필요하게 되어 아들 내외와 손자가 새로운 주택을 사서 분가하고, 사회영은 독거하게 되었다. 현재 사회영은 매일 6시간씩 식당에서 일하고 일찍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가서 식사준비를 한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손자가 수업을 마치면 사회영의 집으로 가고, 아들 내외도 퇴근하면 사회영 집으로 가서 함께 식사를 한다. 식사 후 아들 내외와 손자는 가까이 있는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간다. 사회영은 양로수당도 있고 근로 소득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있고, 자녀에게 돌봄을 주는 상황이다.

사례 13. 두건국(남성, 68세, 한족)

두건국은 1949년에 길림성 유수현(榆樹縣)에서 태어났다. 여섯 살 때 길림시로 이사했으며, 중학교 2학년 때 중퇴하고 사회에 진출하였다. 도시 출신인 두건국은 장춘 제1자동차공장의 길림시 지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다가 1999년에 국유기업 개혁시기에 50세의 나이로 구조적 실업을 당하였다. 은퇴한 두건국은 노후 휴양지로 동생이 살고 있고 기후도 좋은 위해시를 선택하여 2000년에 위해시에 주택을 구매해 배우자를 위해시에 보내놓고 북경에서 8년간 모래공장을 경영하다가 2007년에 일을 그만두고 위해시로 왔다. 두건국은 1982년에 이혼을 했고 현재 두 번째 배우자와 17세의 늦둥이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첫 배우자와 낳은 아들 두 명은 현재 장춘과 북경에서 살고 있는데 한명은 대학 교수이고 한명은 개인사업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다. 두건국도 매월 3000위안의 양로수당을 받고 있고 저축이 있기에 아들들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고 생활에 어려움도 없다. 현재 두건화는 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딸을 중심으로 생활을 조직하고 있고 노후에도 배우자, 딸과 함께 생활할 생각을 하고 있다.

사례 14. 노자향(남성, 70세, 한족)

노자향은 1947년에 요녕성 부신(阜新)시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문화대혁명시기의 상산하향(上山下鄉)정책에 따라 농촌으로 내려가 8년간 중학교 교사직을 맡고 있다가 1977년에 대학교 입시 시험제도가 회복되자 대학교 시험에 합격하여 농촌을 떠나 다시 도시로 복귀하였다. 그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광물관리국(鑛物局)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일하다가 1998년에 51세 나이로 구조적 은퇴를 당하였다. 노자향은 딸 한 명과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는데 딸이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위해시에 남았다. 2002년에 딸이 육아 도움을 요청하며 노자향 부부를 위해시로 모셨다. 노자향 부부는 고향의 주택을 팔고 위해시에 주택을 구매하고 호구를 올렸으며 외손자를 봐주는 2년 동안에는

딸과 동거하다가 독립된 생활의 편리를 위해 딸과 같은 주거단지에 자택을 마련하여 살고 있다. 외손자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노자향 부부가 학교에 데려다주곤 했지만 현재는 노자향 부부의 육아 돌봄이 필요하지 않고 매일 저녁식사만 함께하는 방식의 교류가 진행된다. 노자향의 배우자가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식사 후 가족들은 서로 마사지를 해주면서 친밀하게 지내지만 경제적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노자향 부부는 각각 3000-4000위안 양로수당을 가지고 있기에 자녀로부터 오는 경제적 도움이 필수 사항이 아니며 노자향은 노후에 맞벌이하는 자녀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양로원에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지만 가까이에서 자녀가 한 명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례 15. 오충진(남성, 62세, 한족)

1955년에 흑룡강성 수하현에서 태어난 오충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시의 ‘상산하향(上山下鄉)’의 정책에 따라 5년 동안 농촌에서 생활하다가 1979년에 다시 도시로 돌아와 철도도로공사에 취직하였다. 1995년 40세의 나이로 구조적 은퇴를 당한 후 2005년까지 민영기업에서 일하였다. 오충진의 외동딸은 대학교 졸업 후 위해시의 중학교 교사로 취직하고 위해시에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가까이에서 부모를 돌보기 위해 2008년에 오충진 부부를 위해 주택을 마련하고 위해로 모셨다. 이주 후 배우자는 출산한 딸과 외손자를 돌보기 위해 장기간 딸의 집에서 가사를 전담하고 있고 오충진은 딸이 사준 집에서 독거하면서 한 주거단지의 수위실에서 일했다. 배우자는 매주 토요일에 외손자를 데리고 오충진을 불러 온다. 오충진 부부는 매월 총 5000위안의 양로수당이 있어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지만 아직 젊다는 이유로 매월 2000위안의 봉급을 받으면서 수위실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딸을 위해 오충현부부는 장기간 분거하고 있고 ‘아랫세대를 위한 일’이라며 전혀 개의치 않은 태도를 보이는 반면 노후에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맞벌이하는 자녀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양로원에 입소하겠다고 말한다.

사례 16. 풍학귀(남성, 68세, 한족)

풍학귀는 1949년에 요녕성 안산시(鞍山市)에 태어나 여섯 살 때 산서성(山西省) 대동시(大同市)로 이사하였다. 문화대혁명시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년간 군인생활을 하다가 전역 후 시멘트 공장에서 60세 은퇴할 때까지 일하였다. 광산업 지역인 산서성에는 환경오염이 너무 심하기에 은퇴를 앞둔 2001년에 어머니의 고향 근처이고 기후가 좋고 깨끗한 위해시에 주택을 사서 2010년에 위해시로 이주하였다. 풍학귀는 장남으로서 위해시에서 행동불능 상태인 어머니, 아버지를 사망할 때까지 모셨고 현재 또 행동불능 상태가 된 배우자를 돌보고 있다. 군인시기에 만들어진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강인한 성격과 책임감을 가진 풍학귀는 가족을 돌보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의 생활은 돌봄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혼자서 세 명을 돌보기 어려운 시절에 아들을 위해시로 불러온 적이 있는데, 결과 돌봄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아들 부부(30대)는 돌봄 부담에 못 이겨 10개월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고 현재는 풍학귀 혼자 배우자를 돌보면서 살고 있다. 풍학귀 부부는 총 8000위안 정도의 양로수당이 있고 각자 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 있으며 아직 매우 건강하기에 배우자 돌봄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 풍학귀는 매일 배우자를 돌보는 일을 낙으로 생각하고 있고 3개월 간격으로 배우자를 휠체어에 태워 국내 여행을 다니기도 하며 지금의 생활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 또 이웃과 동사무소의 자원봉사자들이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풍학귀는 자녀가 가까이 없어도 걱정이 없다고 한다. 풍학귀는 지금세대 자녀들은 노인을 돌보지 못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나빠지면 양로원으로 입소 할 생각을 하고 있다.

사례 17. 장만항 (남성, 67세, 한족)

장만항은 1950년 길림성 이통현(伊通縣)에서 태어났다. 여덟 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열두 살에 아버지를 여인 장만항은 가정형편의 어려움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를 지었고 20세에 입대하여 4년

동안 군인생활을 하다가 전역 후 전기업체에서 은퇴할 때까지 근무하였다. 립업지역인 고향에서 벌목을 금지하고 지역경제가 쇠퇴하자 장만항의 배우자는 두 명의 딸을 데리고 하얼빈, 장춘 등 지역에서 장사하면서 떠돌다가 작은 딸과 위해시로 오게 되었다. 고향에 홀로 남은 장만항은 8년 동안 회사 사무실에서 숙식하면서 생활하다가 61세에 은퇴하고 위해시로 와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현재 장만항은 배우자, 그리고 외손녀(7세, 큰 딸의 아이)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외손녀는 태어나서 7년 동안 줄곧 장만항 부부가 돌보고 있는데 장사를 하고 있는 장만항의 큰 딸이 ‘아이를 돌볼 줄 몰라서’ 장만항의 배우자가 돌보고 있다고 한다. 큰 딸은 일 년에 한 두 번씩 위해로 아이를 보러 오고, 올 때마다 만원씩 돈을 내놓고 간다. 가끔 배우자가 외손녀를 데리고 큰 딸이 있는 하얼빈으로 가서 아이를 큰 딸에게 보여주기도 한다. 현재 장만항 부부는 큰 딸이 사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작은 딸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장만항의 작은 딸은 거의 삼시세끼 장만항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저녁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장만항 부부는 딸을 자주 보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현재 장만항 부부는 총 5000위안 정도의 양로수당이 있고 장만항은 주거단지의 수위실에서 일하여 매월 1700위안의 소득도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다. 향후 독립적으로 생활 할 수 없을 때는 ‘자녀가 돌볼 수 없으면 양로원에 가겠다. 자녀에게 돌봄을 요청하는 건 마음이 불편한 일이다.’라고 말한다.

사례 18. 장홍인(남성, 63세, 한족)

장홍인은 1954년 흑룡강성의 탄광도시인 쌍압산시(雙鴨山市)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산하향(上山下鄉)’정책으로 농촌에서 4년 생활하다가 도시로 돌아가 국유기업의 문화교육계통에서 과장급으로 평생 일하다가 60세에 은퇴하였다. 장홍인은 아들이 두 명 있는데 큰 아들은 아직 고향에 있고 작은 아들이 2000년에 17세의 나이로 탄광도시를 떠나 공기가 맑고 새로 개발된 연해도시인 위해시로 와서 이발 기술을 배워 미장원 관련 일을 하였다. 장홍인은 2014년에 은퇴하고 아들의 양육도움

요청 하에 배우자와 함께 위해시로 왔다. 위해시에 와서 아들과 한동안 동거하다가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의 생활방식이 있고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있으니 서로 방해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아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단지의 지하방을 임대하여 분가하였다. 현재 장홍인은 살고 있는 주거단지의 수위실에서 일하고 있고 배우자가 가사와 13세인 손녀를 돌보고 있으며 아들 내외와 동거하지는 않으나 식사를 같이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장홍인 부부는 매월 약 6200위안의 양로수당이 있어 경제적인 부담은 없으며 현재 소비는 독립적으로 지출한다.

사례 19. 왕학택(남성, 64세, 한족)

왕학택은 1953년에 길림성 대안시 외곽의 농촌에서 태어나 문화대혁명시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대학교 입시시험이 취소된 상황에서 농민출신인 왕학택은 대학교 갈 기회가 없었기에 다시 농촌으로 돌아와 농촌의 기층간부로 평생을 지냈다.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한 왕학택은 높은 교육열망으로 아들 두 명과 딸 한 명을 출세시키기에 힘썼고 현재 자녀들은 기층 정부기관과 은행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 아들 두 명 중, 한 명은 북경, 한 명은 고향에 살고 있으며 딸은 위해시에 거주하고 있다. 왕학택 부부는 2011년에 아이를 돌봐달라는 딸의 요청으로 위해시로 와서 딸과 동거하고 있다. 왕학택은 농민신분으로 충분한 양로수당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딸의 지원을 받고 있고, 딸과 동거하면서 왕학택과 배우자가 가사와 외손자 돌봄을 맡고 있다. 아들들은 명절 때 왕학택 부부를 보러 오고 평소에는 매주에 한 번씩 전화로 부모와 교류한다. 왕학택은 양로원은 ‘감옥’이라고 하면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면 도우미를 불러 집에서 지내고자 한다.

사례 20. 손건무(남성, 69세, 한족)

손건무는 1948년에 하북성 고성현(故城縣)에서 태어나 대약진시기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고 문화대혁명시기 15세 나이에 농촌에서 농사

를 짓기 시작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농사를 지으며 음식점을 경영하여 생활이 많이 개선되었는데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둘째 딸이 폐암에 걸려 치료하다가 사망하면서 저축을 모두 소비하고 부족하여 빚더미에 올라 앉게 되었다. 그 후 다시 열심히 농사를 지어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2001년에 배우자가 관절 피사로 아프고 2010년에 손건무 본인도 허리디스크로 수술하게 되어 농사와 농촌에서의 일상생활 모두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손건무 부부가 건강악화로 농촌에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워지자 대학교를 졸업하고 위해시에서 취직하여 생활하고 있던 딸이 손건무 부부를 위해시로 모셨다. 현재 손건무는 배우자, 딸, 사위, 외손자와 동거하면서 외손자 통학을 돕고 있고 배우자가 가사를 맡아하고 있다. 손건무는 부부 모두가 농민 출신이기 때문에 한 달에 약 110위안 정도의 양로수당과 80위안 정도의 한 자녀 보상, 그리고 동생에게 맡긴 땅의 사례비로 1년에 약 1000위안 되는 소득밖에 없다. 딸과 사위가 흔쾌히 약 살 돈을 주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딸에게 부담 주는 것이 미안하여 손건무 부부는 용돈을 달라고 하지는 못하는 형편이고, 현재 손건무의 가족은 화목한 편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사례 21. 왕다력 (남성, 63세, 한족)

왕다력은 1954년 길링성 반석시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에 종사하였다. 1977년에 흑룡강성 칠대하시(七臺河市)로 이사하여 60세가 될 때까지 자기가 도급받은 땅과 외부에서 임대한 땅에서 기계화된 방식으로 농장을 경영하였다. 왕다력은 평생 열심히 일하여 아들들의 결혼과 주택구매에 거액의 경제적 지원을 하였고 아들의 종양제거 수술에도 거액의 의료비를 지불했다. 나이가 많아지자 왕다력은 땅과 기계를 세 놓고 노후를 즐길 겸 2013년에 기후가 좋은 위해시로 이주하여 보다 ‘쉬운 일’을 한다면 도로청결을 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왕다력은 배우자와 같은 도로청결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배우자와 함께 기숙사에 거주한다. 왕다력 부부는 총 매월 3600의 노동소득과 140위안의 농민 양로수당이

있다. 왕다력은 지금까지 열심히 일 하여 아들 세 명의 주택구매, 결혼, 병원비 등에 경제적 지원을 준 것으로 ‘임무를 완성했다’고 말하며, 이제 는 아들에게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도 되기에 돈을 모아 노후를 대비할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아들 세 명 중에 두 명은 북경에 있고 한 명은 고향에 있어 아들과 멀리 떨어져 있으나 왕다력은 ‘아들이 세 명인데 국가를 찾을 수는 없지’라고 하면서 노후에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울 때는 아들을 의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사례 22. 한동창(남성, 61세, 한족)

한동창은 1956년에 흑룡강 해림시의 농촌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다니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그만두고 농업에 종사하기 시작하여 처음에는 집체 농업활동에 참여하다가 개혁개방 이후 토지를 도급 받아 아들 내외와 함께 양식과 기타 담배 등 경제작물들을 경작하면서 소득을 창출해왔다. 2012년 이후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업 소득이 불안정해지자 2013년에 한동창은 아들 내외를 위해시로 보내어 ‘이촌향도’를 계획하였다. 한동창 가족은 농촌에서 저축한 돈과 친척들로부터 꾸는 돈으로 위해시에서 주택을 샀고 2014년에는 한동창 내외와 손자도 위해시로 이주하여 함께 살고 있다. 한동창은 농민 출신으로 노후 보장은 신농업보험 밖에 없기 때문에 위해시에 와서도 도로 청결 등 잡일들을 계속하고 있고 배우자도 일 년 동안 식당일을 했었는데 건강상태가 나빠짐으로 인해 현재 한동창 가족은 한동창, 아들, 며느리 세 명이 출근하고 한동창의 배우자는 집에서 가사를 전담하고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고향에서 농업에 종사할 때는 배우자가 일괄적으로 관리했으나 위해시에 와서는 각각 관리하고 있고 중대한 지출 사항이 생기면 함께 상의하여 지출한다. 한동창은 평범한 농민으로서 도시에서 아파트를 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한동창은 ‘집이 잘 되려면 가정이 화목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배우자는 ‘손자와 며느리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웃으면서 말한다.

사례 23. 강부귀(남성, 66세, 한족)

강부귀는 1951년 길림성 구대시(九臺市) 상하만진(上河灣鎮)의 농촌에서 태어나 문화대혁명 시기에 중학교를 다녔고 졸업 후 농촌에서 농사를 하면서 기름가게, 두부가게를 경영하였다. 1997년에 친구의 요청에 의해 위해시에서 두부가게를 경영하러 왔다. 10년간 친구의 두부가게에서 일하다가 2007년부터 스스로 두부가게를 만들어 배우자와 함께 경영하였는데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악화되자 두부가게를 팔고 2015년부터 비교적 수월한 도로청결 일을 하고 있다. 고향에 아직 땅과 주택이 있지만 최근 자녀도 위해시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생활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현재 강부귀는 ‘자녀와 같이 살면 자녀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서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배우자와 따로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다. 배우자가 딸을 도와 아이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딸과 매일 만날 수 있다. 현재 강부귀는 매월 약 2000위안의 노동소득과 140위안의 농민 양로수당, 그리고 1년에 약 10000위안 되는 토지와 주택 임대 소득이 있어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 생활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향후 건강 상태가 더욱 악화 될 경우에는 ‘양로수당과 의료보장이 없으니까 자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강부귀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게 되면 ‘자녀의 사업에 방해되지 않게 양로원에 가겠다’라고 말한다.

사례 24. 이기애 (여성, 72세, 한족)

이기애는 1945년에 산둥성 린이시(臨沂市)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생활고에 못 이겨 부모님과 흑룡강 해림시(海林市)로 건너가서 생활하였다. 이기애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닌 후 중퇴하고 농업에 종사하여 평생 농민으로 살다가 56세에 중풍에 걸려 16동안 투병 중에 있다. 이기애는 아들 두 명과 딸 네 명을 두고 있는데 그 중 아들 한 명이 대련시(大連市)에 있고 나머지 자녀들은 모두 위해시에 거주하고 있다. 1990년대에 이기애의 작은 딸이 먼저 친척이 있는 위해시에 와서 마트를 경영하기 시작했고 그 후 다른 형제들도 작은 딸의 도움으로 농

사를 그만두고 위해시에 와서 마트 경영을 시작하였다. 그 후 2002년에 이기애의 배우자가 폐암으로 돌아가자 중풍 상태로 홀로 남게 된 노모를 돌보기 위해 자녀들이 이기애를 위해시로 모셨다. 이기애의 자녀들은 몇 년에 한 번씩 교대로 이기애를 집으로 모셔서 돌보고 있는데 현재 이기애는 둘째 딸네 집에서 살고 있고 기타 자녀들도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다. 현재 이기애는 행동이 불편하고 바람을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집안에서만 활동하고 있고 세수, 목욕, 빨래 등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둘째 딸 내외는 가까운 주거단지에서 마트를 경영하고 있어 아침에 7시에 나가서 저녁 9시에 돌아오고 식사시간이 되면 마트에서 음식을 만 들어서 집으로 가져온다. 농민 신분이라 충분한 양로수당과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완전히 자녀에게 의존하는 상황이지만 자녀가 많고 자녀들이 경제적 여건이 괜찮으며 노모를 잘 돌보기 때문에 생활상의 큰 어려움은 없으나 매일 홀로 집안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고독감을 느낀다. 이기애는 건강이 더욱 악화되더라도 자녀들이 집에서 모실 것이라고 말한다.

사례 25. 김영훈(남, 74세, 조선족)

김영훈은 1943년에 흑룡강 목단강시(牡丹江)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중학교 2학년까지 공부하고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공부를 그만두고 농사일을 시작하였다. 1964년에 영안현(永安縣) 와룡촌(臥龍村)으로 이사 가서 1997년까지 줄곧 농사를 짓다가 1998년에 한국으로 나갔다. 2008년에 위해시에서 정착하게 된 아들들의 요청으로 위해시로 왔다. 그 후 큰 아들의 장사가 잘 되지 않은데다가 작은 아들이 다니는 기업에도 문제가 생겨 아들들은 김영훈 부부를 위해시에 두고 한국으로 나가 3, 4년 정도 일하였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아들들은 모두 위해시에서 개인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다행이도 두 아들 모두 장사가 잘 되어 김영훈 가족들은 위해시에 안착하게 되었다. 아직 건강한 김영훈은 현재 작은 아들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다. 아들 며느리는 김영훈에게 감사의 표시로 자주 용돈을 드린다. 현재 아들 둘 모두 개인사업으로 경제적 조

건이 개선되어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으며, 아들 두 명과 모두 같은 도시에 살기 때문에 매 달에 두 세 번씩 모여서 식사도 하고 자녀들도 자주 노인을 방문한다. 김영훈은 튼튼한 노후준비에 아들들에게 주택을 사주고 일손을 도와주고 있기에 아들들의 존경을 받으며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 김영훈은 향후 건강이 악화되면 집에 도우미를 들여서 자식들의 돌봄을 받고자 한다.

사례 26. 정춘자(여, 73세, 조선족)

정춘자는 1944년 흑룡강성 영안현(永安縣)의 농촌마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마치고 열아홉 살에 결혼하였다. 그 후 계속 영안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2002년에 아들의 부름으로 남편과 함께 위해시로 이주하였다. 남편은 은퇴 공인(工人)인데 현재 뇌경색으로 4년째 와상 중이다. 이주 이후 정춘자 부부는 모래공장을 경영하는 아들의 일손을 돕기 위해 위해시의 교외에 있는 아들의 공장에서 7, 8년 동안 거주하면서 수위업무를 맡았다. 최근 경제 위기로 아들의 공장이 무너진 후 정춘자 부부는 공장을 떠나 시내에 있는 임대아파트로 모셔졌다. 현재 정춘자는 아들이 임대해준 아파트에서 와상 환자인 남편을 돌보면서 살아간다. 아들과 동거하지 못한 이유는 아들의 집이 7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남편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노부부가 자녀 집의 근처에 따로 살고 있다고 한다. 생활비는 남편의 양로수당과 아들 두 명의 지원으로 지출한다. 며느리가 자주 식사재료를 사다주고 아들과 손자가 자주 와서 남편의 산책을 도와주지만 건강이 날로 악화되고 외출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정춘자의 삶은 힘들고 답답하다고 한다. 정춘자는 자기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자기가 남편을 돌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 자녀에게 민폐가 될까봐 걱정한다.

사례 27. 최춘옥(여성, 81세, 조선족)

최춘옥은 1936년에 북한에서 태어나 중국 흑룡강성 동영현에서 평생 농민으로 살았다. 최춘옥은 딸 네 명을 두고 있는데 현재 세 명이 한국

에 있고 한 명이 위해시에 살고 있다. 최춘옥은 75세에 배우자를 잃었고 한 마을에 살던 둘째 딸마저 한국으로 나가자 2011년에 75세 고령으로 셋째 딸이 살고 있는 위해시의 조선족 양로원으로 모셔져 6년간 양로원 생활을 하고 있다. 농민 출신으로 노후 경제적 보장이 없기에 입소비는 딸들이 지불한다. 현재 ‘일이 있을 때’ 같은 도시에 사는 셋째 딸에게 전화를 하면 셋째 딸이 양로원으로 찾아오고 ‘일이 없을 때’는 딸의 방문은 비교적 드문 편이다.

사례 28. 문금화(여성, 77세, 조선족)

문금화는 1940년에 북한에서 태어나 지원군으로 간 남편을 만나 24세에 남편과 함께 중국으로 따라왔다. 그 후 평생 흑룡강성 목단강에서 농민으로 살았다. 문금화는 1998년에 천진으로 시집간 딸을 따라가 살다가, 몇 년 후에 딸이 이혼하고 한국으로 나가게 되자 문금화는 한국에서 돈 벌고 있는 아들이 위해시에 사놓은 집을 봐주면서 홀로 1년 살았다. 그 후 독거의 공포로 인해 자녀들에게 양로원에 가겠다고 제기하였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문금화가 양로원에 가는 것을 ‘자식 욕 먹이는 일’이라고 반대했지만 문금화의 건지로 결국 동의하게 되었다. 문금화는 자식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지만 자녀들이 모두 한국에 나가 있고, 농민 출신으로 충분한 양로수당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입소비는 모두 자녀의 지원으로 지불하고 있다. 자식들은 ‘일이 바빠서’ 방문과 통화를 많이 하지 못하지만 비상시에는 귀국하곤 한다. 자식이 셋인 문금화는 ‘홀로 남겨 져’ 양로원에서 8년째 살아가고 있다.

29. 방정희(여성, 74세, 조선족)

방정희는 길림성 연변(延邊) 지역의 농촌 출신 노인으로서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다. 슬하에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을 두고 있는데 현재 모두 한국에 있다. 자녀가 한국에 가고 배우자와 사별 후 혼자 농촌 마을에서 살아가던 중, 뇌졸중에 걸려 이웃들이 병원에 모셔가는 등 위험이 발생하자 한국에 있던 딸이 방정희를 고향의 양로원에 모셔놓고 다시

한국으로 떠났다. 2011년에 딸이 비자 연장 수속을 밟는 중 위해시에 사둔 주택에 일 년간 방정희를 모셔서 같이 살다가 다시 한국에 나가자 방정희는 다시 위해시에 있는 양로원에 모셔졌다. 농민 출신으로 양로수당이 없기에 방정희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고 평소 가족의 방문은 매우 드물지만 비상시에는 위해시에 살고 있는 손자가 달려온다.

사례 30. 오영순(여성, 82세, 조선족)

오영순은 1936년에 북한에서 태어나 열 살 때 부모님을 따라 중국으로 들어와 흑룡강성 보리현에서 평생 농민으로 살았다. 오영순은 1958년에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 세 명과 딸 한 명을 키우면서 평생 어렵게 살아왔다. 약 20년 전에 홍수로 농사가 망하여 살길을 찾아 둘째 아들이 밀항으로 한국으로 건너간 것을 시작으로 자녀들이 하나 둘씩 한국으로 돈벌이를 떠났다. 자녀들이 다 나가고 나서 일 년 정도 고향에서 양로원 생활을 하다가 자녀들이 같이 살자고 한국으로 불러 자녀들과 약 3개월 살았으나 집이 너무 작아서 함께 살기가 매우 불편하였다. 어쩔 수 없이 오영순은 중국에 돌아가서 독방을 제공하는 양로원으로 가겠다고 제기하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며느리의 친정집이 있는 위해시의 조선족 양로원에 들어오게 되었다. 현재 오영순의 입소 수속, 지출 등은 둘째 아들이 관리하고 있다. 평생 농민으로 살아온 오영순은 혜택 수준이 매우 낮은 신 농업보험밖에 없기 때문에 양로원 입소비는 자녀들이 지원하고 있다. 오영순은 아직도 자녀들과 같이 살고 싶어 하고 있으나 주택문제로 멀리 떨어져서 살 수 밖에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가끔 자녀들이 그리워 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자녀들은 한국에서 ‘일이 바빠서’ 자주 방문을 하거나 연락하지 않지만 오영순은 언제 올지 모르는 자녀들의 전화를 기다리느라 매일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다.

1.3.5. 논문의 구성

1장은 문제제기, 문헌고찰과 연구방법으로 구성되었다. 1장에서는 우선

본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다음 중국 도시화 과정과 도시화 과정에서 변화되는 가족관계에 대한 배경지식을 소개하는 것을 통해 위해시 이주노인에 대한 연구가 중국의 도시화와 중국 도시화를 배경으로 하는 노인연구에서 어떤 학문적 위치에 있는지 소개하였다. 연구 방법에서는 분석의 틀, 근거이론적 연구방법, 논문의 구성에 대해 소개하였다.

2장에서는 위해시에서 일어나는 노인이주 현상의 중요한 사회적 맥락이 되는 위해시 지역사회의 도시화 과정에 대해 소개하였다. 위해시의 도시화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도시화의 단계별 특징과 단계별 주요 이주자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현재 위해시로 이주하게 된 이주노인들의 가족이 위해시로 이주하기 전에 어떠한 사회적 맥락에 의해 가족 분리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가족 분리 후 다시 가족 재결합을 이룬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내용은 축 코딩에서의 맥락조건, 인과조건, 중심현상에 해당되는 부분이다(<표 8> 참조).

제4장, 제5장, 제6장은 위해시에서 가족 재결합을 이룬 이주가족들이 위해시에서 어떤 가족관계를 구성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제4장은 가족 재결합 후 주거안배에 대해 설명하였고 제5장은 가족 재결합 후 가족 간의 상호지원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제6장은 가족 재결합 후 세대 간 돌봄 규범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4장, 제5장, 제6장은 축 코딩에서 상호작용에 해당되는 내용과 과정분석의 결과를 포함한다.

제7장은 가족 재결합 후 만들어진 다양한 자녀중심의 가족관계 유형을 설명하였다. 제7장은 축 코딩에서 중재조건과 결과에 해당되는 내용과 유형분석의 결과를 포함한다.

제8장에서는 핵심범주와 이야기 윤곽 기술의 방식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기존연구와의 비교 속에서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본 연구에 대한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기하였다.

<표 8> 논문의 구성

장	축 코딩, 선택코딩	범주
3장	맥락조건	쇠퇴하는 중공업 도시
		빈곤한 농촌 생활
	인과조건	가족의 분리 이주
	중심현상	가족 분리 후 재결합에 대한 갈망
4장, 5장, 6장	상호작용 (과정분석)	거주방식의 선택과 조정
		상호지원 관계의 변화
		돌봄 규범의 변화
7장	중재조건	가족 안의 다양한 상황들
	결과 (유형분석)	다양한 자녀중심의 가족관계 형성
8장	연구결과 요약(핵심범주, 이야기윤곽 기술 제시), 논의, 연구의 한계,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2. 위해시의 도시화

2.1. 중국 도시화 구도에서 위해시의 위치와 역할

“위해(威海)”라는 지명은 “위엄으로 연해지역을 지킨다(威鎮海疆)”라는 의미로 명나라 정부가 洪武31년(1398년)에 중국 연해지방을 침범하는 일본인 해적(倭寇)을 막기 위하여 현 위해시의 시할구(市轄區, 시정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구역) 경내에 군사방어기구인 위해위(威海衛)를 설치한 것으로부터 유래한다(政協威海市環翠區文史資料研究委員會, 2001:1).

위해시는 중국 산둥성의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한 지급시(地級市)로서 북위 36°41′ ~ 37°35′, 동경 121°11′ ~ 122°42′에 위치한다. 위해시는 동, 북, 남 삼면이 황해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서쪽은 산둥성 연대시(山東省煙臺市)와 인접하며 바다를 사이 두고 조선반도와 마주하고 있다(<그림 6> 참조). 현재 위해시의 행정구역은 2개의 시할구(市轄區)로 환취구(環翠區)와 문등구(文登區), 2개의 현급시(縣級市)-영성시(榮成市), 유산

시(乳山市)로 구성되었고 육지면적은 총 5797km²이다(위해시 통계국,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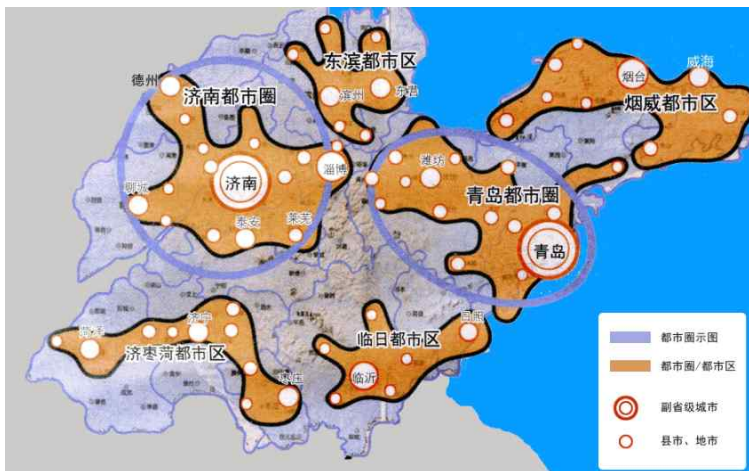


<그림 5> 위해시 지도
자료출처: 두산백과

1987년 이전의 위해시는 작은 현급시(地級市)일 뿐이었지만 중국 사회의 30년간 도시화 과정에서 위해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자체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위해시는 중국에서 가장 일찍 개방된 연해도시의 하나로서 북쪽의 대련으로부터 남쪽의 북해까지 연결되는 중국 연해발전축의 매우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위해시는 1987년에 지급시(地級市)로 승급하고 1988년에 중앙정부로부터 개방도시로 지정되었고 개방도시의 특혜와 한국, 일본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이용하여 대량의 한국과 일본 자금을 흡인하여 중국의 개혁개방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위해시는 한국과의 교류중심으로서 1990년대부터 가장 큰 한국 재중 투자지역이었으며 2015년에는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일체화를 목표로 한국과 한중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인천시와 함께 한중자유무역 시범도시로 지정되었고 2015년과 2016년에 두 차례 관세 하락을 거쳐 자유무역협정을 시동하였다.

위해시는 서서히 형성되는 중국의 20개 도시군 중에 산둥반도 도시군

의 범위 속하고 산둥반도 도시군은 중국의 3대 핵심지역인 환발해만지역에 속한 지역으로 그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산둥반도 도시군은 2개 부성급도시(副省級城市)인 제남(濟南)과 청도(靑島)가 포함되고 위해, 연대 등 11개 지급시(地級市)가 포함되는 도시군이다(<그림 6> 참조). 산둥반도 도시군은 대외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지역과의 교류의 중추이며, 대내로는 중국의 경제중심인 징진지 도시군(京津冀城市群)과 장강삼각주 도시군(長江三角洲城市群)을 연결하는 지역이며, 산둥반도남색경제구(山東半島藍色經濟區), 황하삼각주고효생태경제구(黃河三角洲高效生態經濟區), 성회도시군경제권(省會都市群經濟圈) 등 3가지 국가 전략 실행 지역을 포함한 도시군이다. 위해시는 산둥반도 도시군 내에서 연대시와 함께 연-위성진밀집구(煙威城鎮密集區)를 구성하여 연해 성진밀집지대 형성, 해양산업기지 건설, 해변오락휴가구역 건설, 도농 일체화 신형도시화 시범정책 시행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半島網, 2017).



<그림 6> 산둥반도 도시군

자료 출처: 半島網, 2017-02-15일 기사

2011년 중국 국무원에서는 <山東半島藍色經濟區發展規劃>가 통과 되어 국제 경쟁력을 가진 해양산업집거구과 해양과학기술 핵심구역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산둥반도남색경제구의 건설이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실행

되고 있다있는데 위해시는 또한 그 핵심도시에 속한다. 산둥반도 남색경제구는 산둥반도의 해역 전체와 청도(靑島), 동영(東營), 연대(煙台), 위팡(濰坊), 위해(威海), 일조(日照)와 빈주시의 2개현(濱州市의 无棣縣와 沾化縣)이 포함되고 총 해역 면적은 15.95만 km²에 달하고 육지면적은 6.4km²에 달한다. 산둥남색경제구에서 위해시와 연대시는 주로 한국, 일본과의 대외 무역 편이성을 통해 외향형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해양고기술산업의 밀집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위해시는 산둥남색경제구의 건설을 계기로 동부해빈신성(東部濱海新城), 쌍도만과학기술성(雙島灣科技城), 남해신구(南海新區), 호운각여향휴가구역(好運角旅游度假區), 유산빈해신구(好運角旅游度假區), 이구산풍경명승구역(好運角旅游度假區), 석도관리구역(石島管理區), 위해종합보세구역(威海綜合保稅區) 등 지역을 중점으로 건설하여 해양 신재료, 해양계측계량, 지능 해양 설비 등 해양제조 산업과 해양 관광과 오락 등 해양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威海网·威海日報, 2017).

2.2. 위해시의 도시화 과정

위해시는 개방도시로 선정된 이래 약 30년 동안의 발전을 거쳐 1987년의 9.2%의 도시화율에서 2016년에는 63.18%를 달성하였다. 30년 동안 위해시는 개방도시의 특혜에 힘을 입어 가까운 교외에 경제개발구를 설립하여 도시지역을 건설하는데로부터 먼 교외를 넘어 이제 해변지역까지 개발거점을 확산하고 있다(<그림 7> 참조). 또한 1987년에 1차 산업이 49.4%를 차지하던 산업구조에서 2006년에는 2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2차 산업의 비중이 62.08%에 달성하는 신흥공업도시로 성장하였고 2006년 이후에는 제3차 산업이 크게 발전하여 2016년에는 3차 산업이 2차 산업을 능가하였다. 또한 위해시는 도시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생태환경 보호 정책을 펼쳐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경험하면서도 국내 유명한 관광도시, 양로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그림 7> 1990년대-2010년대 중점 개발 지역(근교→원교→해변지역)

자료출처: 위해시 통계국, 통계연감 2000년-2017년의 자료를 저자가 정리함

2.2.1. 1990년대 위해시의 도시화

1988년에 개방도시로 지정 되어서부터 1990년대까지 위해시는 시관할 구 교외에 2개의 국가급 개발구를 설치하고 외국자본을 대량으로 끌어들임으로서 공업위주의 산업구조를 조성하고 도시화 수준을 1987년의 9.2%로부터 2000년의 36.63%(호적인구 기준)를 달성하였다(위해시 통계국, 2017).

위해시는 최초로 개방된 중국의 연해도시 중의 하나로서 1988년부터 대외경제활동에서 아래와 같은 정책적 특혜를 받았다. 첫째, 외국 자본을 이용한 건설항목에 대한 심사·비준 제한을 완화한다. 둘째, 외국 자본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세, 기업 소득세, 수입공상통일세(進口工商統一稅), 생산계획 수립, 이윤 상납 등 방면에서 특혜를 받는다. 셋째, 중외 합작 기업, 합작 경영 기업, 외국 독자기업에게 특혜를 부여한다. 넷째, 경제기술개발구를 설치하여 중국에서 필요한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중외 합작 기업, 합작 경영 기업, 외국 독자기업과 중외 합작 연구기관의 설립을 격려

한다. 경제기술개발구 내에서 외국 자본을 이용한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비준 제한을 완화하고 제품 수출과 국내 판매에 있어서 경제특구(經濟特區)의 특혜 정책을 실시하며 세금수입에 있어서 우대 한다. 다섯째, 외화의 사용 총액을 증가하고 외화 대출 총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러한 우대정책에 의해 위해시는 1991년과 1992년에 시관할구의 가까운 교외지역에 국가급 고신기술산업개발구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를 설립한다(<그림 7> 참조).

위해시는 이 2개의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대량의 외국자본과 기술 인력을 끌어들이므로써 위해시의 발전에 시동을 걸었다. 결과 1990년의 외국인직접투자는 0.06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2.26억 달러로 급증하였고 수출입 총액도 날로 증가하여 1995년의 9.76억 달러로부터 19.74억 달러로 급증하였다(위해시 통계국, 2017).

1990년대에 위해시는 외자유치로 산업자본을 마련하여 2차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켰다. 위해시의 2차 산업 생산액은 1987년의 11.99억 위안으로부터 2000년에는 286.1억 위안으로 급증하였고 2차 산업의 생산액은 총 생산액의 52.45%를 차지하게 되었다. 1990년대 위해시는 성공적으로 1차 산업 위주인 도시에서 신흥 공업 도시로 발전하였다(위해시 통계국, 2000-2017)(<표 9> 참조).

위해시는 이 때부터 줄곧 높은 수준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수출입 총액을 유지해왔는데 위해시는 한국,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중국 개방도시이자 한국의 재중 제1투자 기지로서 1990년대부터 대량의 한국, 일본 외자기업들이 설립되었다. 한국과 일본 등 외국기업들은 자금과 기술을 위해시로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대량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위해시의 외래인구는 1990년의 3.6만 명에서 2000년에는 12.73만 명으로 증가하였다(위해시 통계국, 2000-2017).

<표 9> 1990년대 위해시의 도시발전

도시화율	1987	9.2%(호적인구)			
	2000	36.63%(호적인구), 49.72%(상주인구)			
집중 개발지역	근교	1991년, 국가급 고신기술산업개발구(高新技術開發區)			
		1992년,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經濟技術開發區)			
산업 발전	연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1987	16.91억 위안 (49.39%)	11.99억 위안 (35.02%)	34.24억 위안 (15.60%)	
	2000	87.00억 위안 (15.95%)	286.1억 위안 (52.45%)	172.33억 위안 (31.60%)	
외국인 직접투자	1990	0.06억 달러	수출입 총액	1995	9.76억 달러
	2000	2.26억 달러		2000	19.76억 달러
호적인구	1990	232.69만 명	외래인구	1990	3.6만 명
	2000	246.95만 명		2000	12.73만 명

자료출처: 위해시 통계국, 통계연감 2000년-2017년의 자료를 저자가 정리함

특히 위해시는 1990년대부터 점차 한국의 재중 제1투자기지로 발전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한국어, 중국어에 능하고 중국현지에 대해 이해가 깊은 관리 층 인재에 대한 욕구가 컸다. 동시에 위해시에 한국인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 가게 등 서비스업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조선족들에게 많은 경제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부터 동북 3성 출신 조선족들이 위해시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는데 1998년부터 현재까지 조선족은 수량 상 위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말 위해시에는 조선족 인구가 2.04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는 위해시의 소수민족 인구 총 수(7.50만 명)의 27.2%를 차지한다(威海市人民政府, 2017). 2015년에 위해시가 중한자유무역구(威海中韓自貿區)로 지정되면서 한국과 위해시의 교류는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이며 조선족인구의 이주는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2.2.2. 2000년대 위해시의 도시화

1990년대의 발전을 기초로 위해시는 2000년대에 원교와 현금시에 2개의 개발구를 추가 설치하고 외국인 투자와 수출입 무역을 유지하면서, 제3차 산업과 부동산개발로 지속적인 도시화 원동력을 얻었다. 이에 2010년대 위해시의 상주인구 도시화율은 2000년의 49.72%에서 2010년의 58.21%로 상승하였다(위해시 통계국, 2000-2017).

2000년대에 와서 1990년대에 근교에 설치한 2개의 경제개발구는 이미 도시 중심 지역으로 발전하였다. 도시의 급속한 확장과 기존 도심지역의 포화, 생태환경을 위한 공업의 교외 분산 수요로 인해 위해시는 2008년에 시관할구의 먼 교외에 공업신구(威海工業新區)를 성립하며 남북 양측으로 도시 공간을 넓혔다. 또한 2000년대에 와서 위해시는 시 관할구뿐만 아니라 발전의 중점을 현금시로 확산하여 2005년에는 영성시의 먼 교외 해변지역에 석도관리구(榮成市石島管理區)를 성립하였다(<그림 7> 참조). 이에 2000년대 위해시는 신설한 2개의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수출입의 큰 발전을 가져왔다. 위해시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0년의 2.26억 달러에서 2010년의 5.55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수출입 총액도 2000년의 19.16억에서 2010년의 139.16억 달러로 증가하였다(위해시 통계국, 2000-2017)(<표 10> 참조). 또한 2000년대 위해시는 도시시설을 근교, 원교로 넓히고 4개의 경제개발구의 기초건설을 확충하면서 고정자산 투자를 2000년의 100.40억 위안으로부터 2010년의 1168.18억 위안으로 증가 시켰다. 동시에 2000년에 17.53억 위안이었던 부동산 투자를 2010년에 269.80억 위안으로 대폭 증가하여(위해시 통계국, 2000-2017) 위해시 전역(특히 경제개발구와 고기술개발구, 유산시 은탄지역, 석도관리구)에 상업주택과 주거주택을 건설하였고, 위해시의 부동산 업체들은 전국 각지, 나아가 외국의 중국계 동포 거주지까지 순회하면서 부동산을 판매하였다. 이와 동시에 위해시 정부에서는 주택구매자에게 호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금과 유산(有産) 인구를 위해시로 흡인하였다.

<표 10> 2000년대 위해시의 도시발전

도시화율	2000	36.63%(호적인구), 49.72%(상주인구)			
	2010	58.21%(상주인구)			
집중 개발지역	원교	2008, 공업신구(威海工業新區)			
	현급시	2005, 영성 석도관리구(石島管理區)			
산업 발전	연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2000	87.00억 위안 (15.95%)	286.1억 위안 (52.45%)	172.33억 위안 (31.60%)	
	2006	116.58억 위안 (8.53%)	849.59억 위안 (62.08%)	402.36억 위안 (29.40%)	
	2010	153.94억 위안 (7.90%)	1087.03억 위안 (55.78%)	707.73억 위안 (36.32%)	
외국인 직접투자	2000	2.26억 달러	수출입 총액	2000	19.76억 달러
	2010	5.55억 달러		2010	139.16억 달러
고정 자산 투자액	2000	100.40억 위안	부동산 투자액	2000	17.53억 위안
	2010	1168.18억 위안		2010	269.80억 위안
호적인구	2000	246.95만 명	외래인구	2000	12.73만 명
	2010	253.61만 명		2010	26.85만 명
관광인수	2000	567.19만 명	관광소비 총액	2000	38.14억 위안
	2010	2149.30만 명		2010	220.00억 위안

자료출처: 위해시 통계국, 통계연감 2000년-2017년의 자료를 저자가 정리함

2000년대부터 위해시는 도시화 발전에 필요한 자금과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선택적 수용을 원칙으로 하는 호구제도를 실시하여 ①위해시에서 소정한 면적과 액수 이상의 주택을 구매한 자, ②정부에서 소정한 투자액이나 고정자산금 혹은 년 납세액을 만족하는자, ③소정한 학력, 전문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 ④위해시에서 취직하여 소정한 기간이상 사회보험금을 납부한 자에게 한해 호구를 부여하였다. 결과 2000년대 위해시의 인구자연증가율은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약 9.8만 명이 위해시 호구를 획득하여 호적인구가 6.66만 명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위해시로 이주하고 부동산 구매를 통해 위해시의 호구를 획득하고 정착하고자 하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위해시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위해시의 꾸준한 생태환경 보호와 관련된다. 위해

시는 연해지역의 114개의 섬과 985.9km의 해안선, 30여 개 항구의 아름다운 풍경과 온화한 북온대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어 타고난 환경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위해 통계국, 2012). 게다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위해시 정부는 도시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도시병’을 예방하기 위한 ‘생태환경으로 도시를 세운다(生態立市)’는 취지로 꾸준히 생태환경 보호 정책을 실시하였다. 위해시는 지속적으로 주택 등 기초시설의 공급을 확대하고 공업을 먼 교외로 이전하며, 삼림 면적을 유지하고 공원을 대량 건설하였다. 결과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국가위생도시(1990년-2016년까지 총 7차 획득)’, ‘국가원림도시(1996년)’, ‘국가환경보호모범도시(1997년)’, ‘중국우수여행도시(1999년)’, ‘거주환경상(the Habitat Scroll of Honour Award, UN 인거서에서 발급)’, ‘국가삼림도시(2009년)’, ‘중국특별매력도시(2012)’ 등 국가급, 국제급 환경상을 받아왔다. 특히 중국의 대기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위해시는 2015년 한 해 동안 공기가 맑은 날 321일, 시 관할 구 내 삼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42.1%, 시 관할 구내 일인당 공원 녹지 면적 25.05 제곱미터로 중국 ‘산소 공급 최상 도시(氧吧城市)’로 선정되었다(新浪山東, 2015).

위해시는 이를 기초로 관광산업을 크게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제 기회보다 주거환경을 더욱 희망하는 중, 고령 중산층 인구를 대량으로 흡인하였다. 결과 위해시에는 은퇴 후 노후를 즐기고자 위해시에서 주택을 구매하고 정착하는 외래 노인이 증가하여 유명한 양로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이외에 위해시는 도시화 과정에서 주변지역, 예컨대 하북성, 하남성, 강소성의 인구들을 흡인했을 뿐만 아니라 동북 3성의 도시 이주자들을 대량으로 흡인했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2000년대부터 위해시에는 대량의 동북 3성 인구가 유입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요녕성 호구를 가진 이주민 11001명, 길림성 구를 가진 이주민 19126명, 흑룡강성 호구를 가진 이주민 66907명이 상주하고 있어(위해시 호구들을 획득한 인구 비 포함), 동북 3성 호구를 가진 이주민이 총 위해시에 거주하는 외래 호구 소유자의 42.1%를 차지한다(위해시 통계국, 2000-2017)(<그림 8> 참조).

2.2.3. 2010년대 위해시의 도시화

2010년대에 들어서 위해시는 국가급 발전전략인 남색경제 개발구 건설 프로젝트를 계기로 기존 공업발전의 기초하에 새로이 해양 제조 산업과 해양 관광 산업을 대거 발전시키고 해변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개발구 7개를 신설하였다. 위해시는 새로운 개발구에 외자의 투입을 적극 유인하고 관광업을 중심으로 한 제3차 산업을 적극발전 시켜 2016년에는 처음으로 3차 사업이 2차 산업 총액을 능가하는 경제구조를 구성하였고 위해시의 도시화율 또한 2010년의 58.21%에서 2016년에는 65.00%로 빠르게 상승하였다(위해시 통계국, 2000-2017).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이 급상승하고 주택 시장의 열기가 빠지면서 위해시는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의 발전이나 2차 산업의 발전으로 더 많은 자금과 인구를 흡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심지어 많은 외자 기업이 위해시를 빠져나갔다. 예컨대 한국 기업의 경우 약 절반이 동남아 지역으로 전이하여 2014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한국 기업이 약 800개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新浪山東, 2015).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에 남색경제 개발구 건설 프로젝트가 국가 발전전략으로 승급하면서 위해시는 새로운 발전 동력을 획득하였다. 위해시는 남색경제 개발구 건설 프로젝트를 계기로 해양 신재료, 해양계측계량, 지능 해양 설비 등 해양제조 산업과 해양 관광과 오락 등 해양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위해시는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동부해빈신성(東部濱海新城), 쌍도만과학기술성(雙島灣科技城), 남해신구(南海新區), 호운각여행휴가구역(好運角旅游度假區), 유산빈해신구(乳山濱海新區), 이구산풍경명승구역(里口山風景名勝區), 석도관리구역(石島管理區), 위해종합보세구역(威海綜合保稅區) 등 지역을 중점 개발 지역으로 지정하여 대량의 기초시설과 주거단지들을 조성하고 있다(<그림 8> 참조). 이에 힘을 입어 위해시의 고정자산 투자액은 2010년의 1168.18억 위안에서 2016년에 2879.35억 위안으로 급증하고 동시에 새로 개발된 지역

으로의 외국인 직접 투자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12.11억 달러에 달하였다(위해시 통계국, 2000-2017)(<표 11> 참조).

<표 11> 2010년대 위해시의 도시발전

도시화율	2010	58.21% (상주인구)			
	2016	65.00% (상주인구)			
집중 개발지역	해변 지역	남색경제구 프로젝트 (2011년)	동부해빈신성(東部濱海新城)		
			쌍도만과학기술성(雙島灣科技城)		
			남해신구(南海新區)		
			유산빈해신구(乳山濱海新區)		
			위해종합보세구역(威海綜合保稅區)		
			석도관리구역(石島管理區)		
산업 발전	연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2010	153.94억 위안(7.90%)	1087.03억 위안(55.78%)	707.73억 위안(36.32%)	
	2016	229.34억 위안(7.14%)	1463.35억 위안(45.56%)	1519.51 억 위안(47.30%)	
외국인 직접투자	2010	5.55억 달러	수출입 총액	2010	139.16억 달러
	2016	12.11억 달러		2016	177.70억 달러
고정 자산 투자액	2010	1168.18억 위안	부동산 투자액	2010	269.80억 위안
	2016	2879.35억 위안		2016	215.07억 위안
호적 인구	2010	246.95만 명	외래인구	2010	26.85만 명
	2016	255.86만 명		2016	26.07만 명
관광인수	2010	2149.30만 명	관광소비 총액	2010	220.00억 위안
	2016	3909.98만 명		2016	519.35억 위안

자료출처: 위해시 통계국, 통계연감 2000년-2017년의 자료를 저자가 정리함

더불어 위해시가 개방도시로 지정된 이후 우월한 자연환경과 지속적인 생태환경 보호, 여행자원 개발로 인해 위해시는 국내에 유명한 관광도시로 성장하였고 2007년 금융위기 이후 2차 산업의 발전이 늦어지면서 위해시는 관광업을 중심으로 3차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 이에 2010년 한 해에 위해시의 관광인수는 총 3909.98만 명에 달했고 관광소비 총액은 519.35억 위안을 이룩하였고 위해시의 3차 산업의 생산 총액은 1519.51 억 위안으로 크게 성장하여 위해시 생산총액의 47.30%를 차지함으로써 3차 산업이 2차 산업을 제치고 주요산업이 되었다(위해시 통

계국, 2000-2017).

외래인구의 경우 2007년 이후 위해시의 2차 산업의 발전 속도가 늦어지고 주택 시장이 포화되는 상황이었고 현재 남색 경제개발구 지역의 개발이 아직 기초시설 건설 단계에 있기 때문에 2000년대에 2차 산업 발전을 통해 제공한 일자리 확대 효과와 주택 판매 전략의 효과가 약화되었다. 따라서 2010년대에는 외래인구 증가를 통한 도시화가 동력을 잃게 되었고 위해시 정부는 외래인구를 위해시에 정착 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이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위해시에서는 위해시 호구를 가진 노인에게 제공되는 혜택, 예컨대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교통과 문화활동 할인, 70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의료 우대, 80세 이상 빈둥지 노인에게 제공되는 주거단지단위의 재택 돌봄 등 노인우대정책을 외지 호적 소지 노인에게도 적용되게 조정하였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위해시에 상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주민기본의료보험(居民基本醫療保險)’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분 제한 없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뿐만아니라 2015년부터 위해시는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國家發展改革委)에서 지정한 신형도시화 시범도시로서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외래인구의 호구이전을 완전히 개방하고 외래 농업인구에게 주택, 의료, 양로 등 사회보장을 평등하게 제공하고자 한다. 동시에 농촌지역의 물, 가스, 전기, 난방 제공을 도시지역과 동등하게 제공하고 도시 내의 ‘성중촌(城中村)’을 재건하면서 ‘성향일체화(城響一體化)’와 ‘전역 도시화(全域城市化)’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들로 인해 외래인구들이 위해시에서 호구를 획득하고 정착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0년에 비해 2016년의 외래인구는 0.78만 명이 감소한 반면 호적인구는 9.91만 명이 증가하였다. 현재 위해시에는 여전히 약 26.07만 명의 이주자들이 호구를 취득하지 못한 채 위해시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제도적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향후 더욱 많은 외래인구가 위해시에 정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노인이주의 맥락

본 연구는 이주노인에 대한 연구인만큼 연구자는 이주노인들을 연구대상으로 섭외했고 인터뷰는 ‘어떤 계기로 이주를 하게 되었나요?’라는 질문부터 시작되었다. 연구자는 이 질문으로부터 다양한 노인들의 생애 사건이나 노후 요양지에 대한 취향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노인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우리 애가...’부터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노인에 앞서 먼저 이주해서 떠난 가족이 있었고 이는 대부분 자녀였으며 노인의 이주는 먼저 이주한 자녀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다. 이로서 연구자는 노인 이주의 맥락이 되는 기타 가족구성원들의 ‘앞선 이주’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연구자의 질문은 ‘가족들이 함께 고향에 살다가 누가 먼저 이주하셨나요?’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먼저 이주한 사람이 자녀세대일 경우 다수가 경제적 이유로 인해 이주한 것이고 먼저 이주한 사람이 노인일 경우 경제적 원인과 환경적 고려에 의한 것이다²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응답자들의 기술에서 ‘경제이주’와 ‘환경이주’의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거시 구조적 결정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족 분산이 만들어지는 ‘앞선 이주’는 어떠한 개인의 사건에 앞서 중국 사회의 사회구조와 밀접히 맞물려 있다. 중국 사회의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된 구조’, ‘개혁개방시기의 국유기업 민영화’, ‘자원형 중공업으로부터 산업구조 조절’, ‘동남연해 도시들의 우선 발전 전략’ 등 개혁개방 시기의 사회구조와 가족 분산을 유발하는 앞선 이주가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가족의 분산과 향후에 이루어질 가족 재결합의 시초가 거시구조가 개인과 가족에 가하는 압박에 기인한 것임을 깨닫고 정치경제학적 관점으로 이주 현상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더불어 인터뷰를 통해 개혁개방 이후에 활발히 진행되었던 도시화는 단지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노동력 이전뿐만이 아닌 내륙지역의

21) 먼저 이주한 사람이 열악한 환경을 피해 이주할 경우 다른 도시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위해서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먼저 이주한 사람이 경제적 이유일 경우, 다른 지역을 경유하여 위해서로 이주해 오는 경우도 매우 많았다. 예컨대 북경 등 대도시에 갔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위해서로 오는 경우가 있다. 또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진출하여 충분한 저축을 마련한 후 위해서에 와서 정착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통 산업도시에서 연해지역의 신흥 도시로의 인력 이전도 포함되어 있음을 재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가족재결합을 농촌에서 도시로의 흐름뿐만 아니라 전통 산업도시에서 신흥 산업도시로의 흐름을 포함하여 조명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3.1 가족의 분산

3.1.1. 산업 도시의 쇠퇴로 인한 이주

3.1.1.1. 국유기업 민영화로 인한 동북 3성 출신 실업자들의 이주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자가 ‘어떤 계기로 이주를 하셨나요?’라고 질문했을 때 많은 경우 ‘당시, 그 때, 그 시기’라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이 단어들은 198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국유기업 개혁 시기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중국은 전국을 휩쓰는 국유기업 민영화로 경제구조의 거시적인 변동을 겪었다.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주로 석유, 석탄, 림업(林業), 방직 등 전통적 산업에서 이루어 졌고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현재 노공업기지(老工業基地)라고 일컬어지는 동북 3성 지역이었다. 동북 3성지역의 경제기반은 주로 자원 의존형 중공업과 노동력 밀집형 경공업의 국유기업이었는데 이들이 민영화의 주요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유기업 민영화는 계획경제시기 국가가 기업을 책임 졌던 것으로부터 기업이 스스로 생존하게 함으로써 자주권을 기업에 돌려주는 대신 책임도 기업에게 돌리는 과정이다. 국가의 지원이 중단되자 일부 국유기업들은 빠르게 도산하였고, 일부 기업들은 시장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계획경제시기 국가의 일자리 분배를 통해 만들어진 기업의 과잉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결과 대량의 국유기업들이 민영화 과정에서 정원축소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국유기업 민영화 시기 구조적 실업을 당한 총 인수에 대한 보고는 없으나 구조조정이 가

장 심각한 1998년에서 2004년 사이 에 누계 구조적 실업자 수는 약 2818만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孫立平, 2010).

당시 구조조정은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에 따라 진행되었지만 기업행위인 만큼 기업의 상황에 따라 실업자에 대한 지원과 실업자들의 재취직 상황이 달랐고 희생상황도 달랐다. 중국 자동차 산업의 선두기업인 장춘 제1자동차 공장에서 근무했던 두건국은 당시 제1자동차 공장에서는 ‘단칼로 베어버리는 정책(一刀切)’에 근거하여 여자 45세 이상, 남자 50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를 위주로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에 약 7만 명을 해고하였다고 한다. 두건국은 기업 민영화 당시 고령자들이 위주로 해고된 원인을 이렇게 설명한다. 해고(下崗)를 당한 실업자들은 매월 1000위안의 생활비를 지급 받고 기업 밖으로 쫓겨났다고 한다. 두건국도 바로 이 시기에 구조조적 실업을 당하여 고향을 떠나 위해시로 이주하였다.

두건국(남성, 68)

나는 1965년에 취직해서 장춘 제1자동차 공장에서 길림지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 1999년에 샤강(下崗)했어요. 남자는 만 50세, 여자는 만 45세에 샤강해야 하는 내부은퇴 (内部退岗) 라는 정책이 있었는데, 매달 1000여 위안의 생활비를 지급해주는 대신 일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사회에 나와서 뭘 해서 살아갈 건지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때 우리랑 같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7만 여명 될 거예요. 제1자동차 공장 안에서 7만 명 넘는 사람들이 나가게 됐어요. 제1자동차의 기업개혁이었죠. 우리 같이 나이트 노동자들은 옛날 일들만 할 줄 알지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할 줄을 몰라요. 자동차 기업을 전반적으로 개혁하면서 독일, 미국, 일본에서 새로운 장비들을 들여왔는데 우리는 전혀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그 시기에 많은 유학생들을 배양하여 미국, 독일, 일본으로 실습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우리시대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나도 만 49세도 안되서 샤강했어요. 그래서 위해로 왔죠. (중략) (그 당시 사람들은 기꺼이 나가려 했나요?) 당연히 나가고 싶지 않았지요. 나가기 싫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단칼로 베어버린(一刀切)것처럼 당신이 나가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죠.

계획경제시기 중국의 도시 주민들은 평생고용을 기초로 소속된 국유기업에 평생 근무하는 대가로 노동하는 동안 임금과 복지혜택을 받고 은퇴 후에는 양로수당을 지급 받았다. 단위에서 양로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 개인이 양로 보험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고 양로금은 재직연수에 따라 증가하였다. 계획경제 시기의 단위 보장에는 기본적인 임금, 평생고용(심지어 자녀의 고용까지), 의료, 퇴직 후의 연금뿐만 아니라 주택까지 포함되었다. 따라서 국유기업 직원들은 평생직장(鐵飯碗)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요람부터 무덤까지’의 완전 복지를 향유하였다(김병철 2010). 이들은 단위를 ‘가(家)’처럼 생각했고 낮에는 단위에서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단위 소속 주거단지로 돌아왔다. 이들에게 직장동료는 동료이자 친구이며 이웃이었고 이들의 삶 자체가 단위라는 집체(集体)에 의해 조직되어 있었다.

그런데 국유기업 민영화로 이들은 단위에서 쫓겨난 실업자가 되었고 단위 복지 체제에서도 배제되었다. 단위는 해고를 당한 개인에게 근속연수(工齡)에 따라 일정한 보조금을 지불한 후 더 이상 노동기회도 복지혜택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당시 중국에서는 이런 제도를 마이판(買斷)이라고 불렀다. 마이판을 당한 실업자는 스스로 양로보험 가입비와 의료보험 가입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국유기업직원으로서 양로수당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부터 가입비를 스스로 납부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

진항웅은 흑룡강성 목단강시의 국유 광산기계 공장에서 30년 이상 일하다가 2004년에 52세 나이로 실업 당하고 근속연수를 마이판하게 되었다. 진항웅의 경우 30년 이상 근무하였는데 마이판하여 받는 보조금은 2만 위안밖에 되지 않았다. 마이판한 이후 진항웅은 ‘그 때부터는 매년마다 돈을 못 벌 뿐만 아니라, 매년마다 양로 보험비를 납부’해야 했고 그 후 60세까지 사회보험과 의료 보험비로 3만 위안이상 납부하였다고 한다. 진항웅이 납부한 사회보험과 의료비는 마이판할 때 근속연수 보상으로 받은 돈보다 훨씬 많았고 은퇴 후 받은 양로수당은 기대수준보다 훨씬

쥔 낮았다(매월 약 2100위안). 국유기업에서 60세까지 일하고 은퇴한 풍학귀의 경우에는 보험비 납부 없이 은퇴 후에 4000위안 정도의 양로수당을 받고 있다. 지역경제와 입사시기에 따른 양로수당의 차이를 감안한다고 해도 국유기업에서 구조적 실업을 당한 고령자가 사회양로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양로수당은 국유기업에서 은퇴한 고령자가 받는 양로수당에 비해 매우 적은 양일뿐이다.

진항웅(남성, 65세)

국가 정책에 따라 처리됐어요. 내 근속연수에 따라서 계산해서 2만원 좀 넘게 받았어요. 이 돈으로 나의 근속연수를 팔아버리게 된 셈이죠. 그 후에 나는 이제 사회노동보장국(社会劳动保障局)으로 넘겨졌죠. 그 때부터 나라는 사람은 기업에서 책임지지 않고 사회가 책임진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사회노동보장국에서 관리하게 됐죠. 그 곳으로 넘겨진 뒤로는 매년마다 내가 내 자신의 양로보험비랑 의료보험비, 이 두 가지 보험, 두개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어요. 그니까 뭐냐면 내가 나의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해야 하지요. 이때부터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지요. 그때부터는 매년마다 돈을 못 벌 뿐만 아니라 매년마다 양로 보험비를 납부해야 했지요. (중략) 여하튼 내 기억으론 내가 은퇴할 때 까지 아마도 3만 원을 냈을 거예요. (그럼 현재 어르신께서 한 달에 얼마씩 양로수당을 받으시나요?) 지금, 지금은 2000, 2100위안 조금 더 되요.

한편 국유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은 45세에서 60세 사이의 고령 노동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예컨대 항현귀, 김영훈, 추형지의 자녀도 그 시기에 실업을 당했다. 국유기업 민영화 시기 구조조정은 어느 기업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반내지 전국 범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에 일부 가정에서는 여러 명의 가족구성원들이 동시에 실업을 당하여 가족의 생존이 위협 받았다. 김영훈의 경우에는 1990년대에 아들 두 명이 같은 대형 전자기기제조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1996년에 업체가 도산하자 두 아들이 동시에 실업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아들은 다른 살 길을 찾아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김영훈(남성, 74)

(그때 어떻게 위해에 오셨어요?) 아들이 위해 왔으니까 왔죠. (아들들은 어떻게 위해에 왔나요?) 우리 큰아들은 2000년 전에 왔소. 그어째 그런가하면, 하얼빈에서 쌍태(双太)란 전자회사가 있었단말이, 그래 거기서 있다가, 우리 아들 군대 나갔다가 제대 해가지고 와서 농촌 노미 일자리 분배를 못 받았단말이. 그래가지고 제 친구 따라 하얼빈 쌍태에 거기 출근해가지구, 그다음 그 쌍태가 제일 큰 전자회사 큰 거인데, 그래 거기서 쌍태회사가 그담에 잘못되다나니까, 몇 천명 둔 큰 전자회사란말이, 잘못되다나니까 쌍태에 있던 조선 사람들이 막 갈라졌단말이. 산지사방 또 딴 곳으로 뭐 북경, 상해 산지사방으로 갈라지다나니까, 아마 제 친구들이 있단말이, 그 친구 따라 오다니까 청도 왔다가, 그다음 청도에서 또 위해에 와서 또 하니까 위해에 이사하게 됐지. (중략) 96년도 그때, 우리 작은 아들 하얼빈에 있다가, 그다음 우리 큰아들이 위해에 자리 잡게 되니까, 그담에 제 동생 데려왔지. (그럼 쌍태라는 회사에 있었던 아들이 작은 아들 인거예요?) 둘 다 쌍태 있었지.

흑룡강성 가목사(佳木斯)시에서 살던 향현귀 가족에서는 국유기업 민영화시기 향현귀 뿐만 아니라 3명의 자녀 모두 일자리를 잃었다. 향현귀는 원래 트럭부품을 제조하던 대형 국유기업에서 출근하는데 1980년대 말부터 농촌에 가정별 토지 도급제가 실시되어 농장 단위의 농업생산체제에서 가족단위의 개인 농업으로 변화되면서 산업화 경영에 쓰이는 농업용 트럭의 수요가 대폭 감소되었다. 결과 기업의 이윤이 대폭 감소하였고 1990년대 기업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향현귀는 23세부터 일했던 기업으로부터 구조적 은퇴(1997년)를 당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업도 해체되었다.

향현귀(남성, 77)

우리는 농업용 트럭의 부속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농촌이 개혁을 하니까 농업용 트럭이 팔리지 않으니까 부품 사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우리 공장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정확히 기억하는데 1979년 그 때 우리 공장의 생산액이 1500만이었었는데 1980년이 되니까 우리가 받은 계약이 300만도 안됐어요. 300만이 전부 이윤이라 해도 직원 봉급 지급 하기에다 부족하죠. (중략) 그러다가 민영화할 때 망했지, 완전히 망해서 공장 입지도 없어졌어요. 97년에 공장이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을 때, 생산은 이미 안했어. 바로 그 국영에서 민영으로 변할 때 그 때 내가 샅강했어요. 내가 58세 였나 그때...

항현귀가 구조적 은퇴를 당한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직종에 종사하던 3명의 자녀도 민영화의 물결 속에서 기업 내 비리로 해고되거나 회사가 해체되어 실업하거나 봉급을 받지 못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 국유기업 민영화시기에는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규범화 된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기업 내부의 깊은 곳에서는 일반 노동자가 피해 받는 상황은 매우 흔한 것이었다.

항현귀(남성, 77)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딸 다 그 때 샅강했어요. 원래는 모두 기업에서 일 했어요. 같은 직장은 아니고, 아들은 방직 공장이고 가목사시(佳木斯)에서 직원이 가장 많은 공장인데 직원이 4만여 명이나 있었어요. 뭐라 할 이유도 없이 해고 당했어요. 지금은 공장도 망했지만 망하기 전에 사람들을 막 해고 시켰어요. 한사람이라도 더 해고 시키면 한 사람한테 돈을 덜 줘도 되니까 사장이 돈이 덜 들잖아요. 그 시대의 공장장의 권리는 총리 권리보다도 커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지각했다면 얼마만큼 벌금 내라고 하면 그만큼 벌금을 물어내야 되요. 돈이 목적이예요. 관리자들 치고 부자 안 된 사람 얼마 없어요. 둘째 개는 공장이 망했죠. 화학제약공장인데 망했어요. (모두 국유 기업 개혁 그때 망한 거죠?) 맞아요, 개가 다니던 제약 공장은 늦게 망한 편이에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망했어요. 셋째 개는 공장이 아니고 가게였죠. 뭐냐면 사무기기를 판매하는 건데 역시 망했어요. 직원한테 봉급을 못 주니까 봉급을 안 주는데 누가 일을 하겠어요. 사람이라면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요? 그래서 개가 이곳으로 왔어요. 지금 다른 사람 밑에서 옷 파는

일을 해요.

두건국과 항현귀의 사례뿐만 아니라 도시 출신 노인의 면접 사례들에서 교사, 공무원, 은행기관 등 국유기업 민영화의 피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례들(4개 사례)을 제외한 제조업 노동자(工人) 출신의 이주노인 14명 중에 9개의 사례들에서 본인이나 본인 자녀가 구조적 실업이나 구조적 은퇴를 당한 사실이 보여 진다. 농촌 출신 김영훈의 아들 2명도 그 시기에 구조적 실업을 당했다. 더불어 구조적 실업이나 은퇴를 당한 나이는 대부분 40세에서 55세 사이로 아직 노동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노동소득을 창출해야만 하는 나이였다(<표 12> 참조). 당시 지역경제를 지탱하던 대형 국유기업과 전통 산업이 흔들리면서 동북 3성의 전역의 취업기회가 크게 부족해진 반면 실업자가 급증하여 지역 내에서의 취직이 매우 어렵게 되었기에 직장을 잃은 노동력 인구는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표 12> 국유기업의 민영화로 인해 피해 받은 사례

사례	피해 대상	구조적 실업/은퇴	구조적 은퇴 시 연령
1	항현귀(남) 본인/항현귀의 3 자녀	구조적 은퇴/구조적 실업	58/45세 미만
2	추형지의 아들 1명	구조적 실업	40세 미만
3	김영훈의 아들 2명	구조적 실업	20대
4	진항웅(남) 본인	구조적 은퇴	52세
5	두건국(남) 본인	구조적 은퇴	50세
6	오충진(남) 본인	구조적 은퇴	40세
7	노자향(남) 본인	구조적 은퇴	51세
8	한경윤(남) 본인	구조적 은퇴	52세
9	정옥희(여) 본인	구조적 은퇴	47세
10	사귀영(여) 본인	구조적 은퇴	42세

3.1.1.2. 취업기회 감소로 인한 자원형 도시 거주자들의 이주

국유기업 민영화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 사회에는 립업(林業)부분의 조정이 있었다. 1998년의 장강(長江),嫩江(嫩江), 송화강(松花江) 등 유역에서 일어난 특대홍수로 전국의 29개 성(구, 시)의 2.23억 인구가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천연 삼림 자원의 과도 소모로 인한 생태환경 악화의 현실을 체감하고 ‘천연자원보호공정(天然林資源保護工程)’정책을 실시하였다. ‘천연자원보호공정’은 장강 상류, 황하 중상류, 동북지역과 내몽골 지역의 17개 성(구, 시)의 734개 현(縣)과 163개 삼림 공업 관리국에서 진행되었고 10.23억 묘(畝)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의 임업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土流網, 2016). ‘천연자원보호공정’은 중국의 천연림의 회복을 목표로 벌목과 상품 목재의 생산량을 줄이고 립업 구역의 노동자들을 적절하게 안치하는 정책이다.

국가 전략 측면에서 천연림에 대한 보호를 실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지만 립업 구역에서 생활하고 목재공업 부문에서 취직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일정한 현금 보조를 보상으로 한 구조적 실업이나 지역 경제 쇠퇴로 인한 취직난으로 이어진다. 립업 도시인 흑룡강성 해림(海林)시, 길림성 이통(伊通)시에서 살았던 가추분 가족과 장만항 가족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정든 고향을 떠나 전전하다가 결국 위해시로 오게 되었다.

가추분(여성, 67세)

(아드님은 어떻게 위해에 오게 되셨나요?) 동북에는 이제 나무를 못 베게 하잖아요. 나무가 이제 고갈됐대요. 그니까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 친구들이 아들보고 거기서 뭐하겠냐고 여기로 오라고 했어요. 그 말 듣고 이제 아들이 여기 친구들이 있는데로 왔죠. 고향에 있던 친구들이 여기 30, 40명 나와 있나 봐요.

장만항(남성, 67세)

(어르신은 어떻게 위해에 오게 되셨나요?) 나는 애가 여기 있어서 왔죠. 그리고 또 아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아내가 오고 나는 고향에서 혼자 출근하면서 있다가 왔어요. 30평 되는 사무실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혼자 8년 있었어요. (그럼 아내는 왜 옆에 안계셨나요?) 아내가 애들 데리고 여기 저기 다니면서 일 찾아하고 했죠. 처음에는 장춘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하얼빈, 다 있었됐어요. 몇 년 있은 후에 위해에 오게 됐어요. (그분들은 왜 고향을 떠나셨어요?) 돈 벌라고 나왔죠. 살던 데가 임업구역이라 발전 희망이 없었어요. 공업이 없고 공장도 다 없어지고 단위들도 적어지고, 그니까 이제 혼자 나와서 창업하거나 일거리 찾아야 되는 거죠. (당시 임업 구역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 때 당시 더 이상 벌목을 못하게 했어요. ‘천연자원보호 공정’으로 먹고 살아야 되요. ‘천연자원보호 공정’이라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산에 가서 나무 베서 파는 거 못하게 하고 국가에서 보조금 줘서 이 도시를 먹여 살리는 건데, 대충 이런 거예요. 공업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돈 줘야지 어찌겠어요. (중략) 이런 곳에는 외딴 곳이라서 다른 공업이 없어, 거의 없어. 예전에는 다 림업으로 먹고 살았는데. 예전에는 괜찮았어요. 기업들이 나무 팔아서 돈 벌고 했으니까, 이 지방에 경제 상황도 괜찮고 하니까 사람들이 먹고사는 걱정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 자녀가 고향에서는 취직할 곳이 없다는 건가요?) 네, 네, 네. (그럼 아내분이랑 자녀들이 고향을 떠날 때가 언제쯤이었나요?) 음~97년도였던 것 같아. 그 때 큰 딸이 22살이고 작은 딸이 20살이었어.

현재 중국에서는 림업 자원 이외에도 석탄, 석유, 금속자원 등 자원에 의존하는 자원 의존형 도시들이 129개가 있다(張耀軍, 2005:38-45). 그런데 대부분 자원 의존형 도시들은 몇 십 년의 자원 개발로 인해 자원 매장량의 감소함에 따라 도시가 쇠퇴되고 있다(張耀軍·陳紅·張正峰, 2007).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아 떠나가게 되었다.

3.1.1.3.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중공업 도시 거주자들의 이주

노년기 이주에 대한 기존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이주를 유발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거주환경이 거론 된다(Wilian H. Walters, 2002; Chen, Y. and S. Rosenthal, 2008). litwak와 Longino가 1987년에 제기한 생명주기 모델(the life - cycle pattern)에서는 노인의 이주를 더 나은 자연 환경으로 이주하는 단계, 성년자녀와 기타 친지를 향해 이주하는 단계, 양로시설로 이주하는 단계로 나뉘었다. 생명주기 모델에서는 신체적으로 비교적 건강하고 배우자가 있으며 경제적 조건도 비교적 우월한 노인이 더 나은 거주 환경을 위해 이주한다고 한다(litwak & Longino, 1987). 위해시로 온 이주노인들 중에도 고향의 열악한 환경을 피해 이주한 경우가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중공업 밀집지역의 공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많아져 사람들의 이주의 발걸음이 더 빨라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사례로는 산서성 대동시(山西省大同市)에 살았던 풍학귀와 하북성 한단시(河北省邯鄲市)에 살았던 오숙평 가족이 심각한 스모그를 피해 고향을 떠났다. 풍학귀의 경우에는 고향이 시멘트 공업으로 인해 공기오염이 심각하고 내 몽골에서 출발한 풍사(風沙)가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먼지가 매우 많아져서였다. 한옥지의 경우에는 폐암으로 앓고 있는 딸이 먼저 스모그를 피해 고향을 떠났는데 딸의 투병이 고향의 심각한 공기오염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풍학귀(68세, 남성)

여기서는 생활이 참 좋아요. 공기가 좋잖아요. 우리 거기는 공업구업 이라서 지금은 석탄 탄광을 예전보다는 많이 안열어도 아직 오염이 매우 심해요. 우리 그 기업은 왜 도산했냐면, 지금은 다른 기업이 사서 신식 기업을 만들었는데, 우리 옛날 공장은 1956년쯤에 독일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장 두 개를 만들었는데 우리 대동시에서 하나 만들고 은천(銀鉤)에서 하나 만들었어요. 생산량은 아주 높는데 오염이 너무 심해요. (중략) 내 몽골 쪽에서 날아오는 먼지가 금방 우리 거기에

도착해요. 장가구(張家口)를 지나서 호화호특(呼和浩特)지나면 바로 와요. 너무 더럽고 겨울에는 또 굉장히 춥고, 너무 안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집 사기로 했어요.

오숙평(여성, 80세)

(어르신의 따님께서 이곳에서 노후를 보내기로 결정하신건가요?) 네. 하북(河北)에 스모그가 너무 엄중해요. (그럼 따님께서 위해에 이주할 당시 어르신께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따님께서 가서 요양만 할 거라 하셨나요) 개는 별일 없으면 이곳에서 살겠다고 말했어요. 한단(邯鄲)에 살면 스모그 때문에 견딜 수 없다고요. 지금도 스모그가 아주 심하지요. (오... 따님 건강도 좋지 않나 봐요?) 개도 앓고 있어요. 현재 입원 중이에요. 치료한다고 폐에 앞서 구멍 2개를 났어요. 그것이 폐에서 생기는 건데...뭐냐면...폐암이에요. 수술 후에 방사선치료랑 화학요법을 또 써야 돼요.

3.1.2. 농촌의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이주

도시지역에 거주했던 주민들이 민영화로 인한 경제기회의 감소, 공업 오염, 기후의 열악 등 이유로 날로 쇠퇴하는 전통 산업지역을 떠나갈 즈음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개혁개방 이후 날로 증가하는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때문에 농촌지역을 떠나왔다. 중국의 도시와 농촌 소득격차는 1978년에 2.47배에서 가정별 생산도급제(家庭聯產承包責任制)의 실시, 생산방식의 개선으로 1985년에 1.86배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개혁의 중심이 도시로 이전되고 물가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농산물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1994년에 2.86배로 다시 증가하였다. 그 후 식량 생산량의 증가와 가격의 하락, 향진기업의 발전의 둔화로 인해 2011년에는 소득 격차가 3.13배로 대폭 증가하였다(지성태, 2013).

이처럼 개혁개방 이후 도-농간 소득격차가 상승하는 가운데 호구를 통한 인구이동통제가 약화되자 많은 농민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도시로 이주하였는데 중국에서는 이들을 농민공(農民工)이라고 부른다. 2015년

에 중국 사회에는 이와 같은 농민공이 2.77억 명이 있다. 그들 중 0.5%는 이주 이후에 도시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고 55.1%는 2차 산업에서 종사하고 44.5%는 제3차 산업에 종사한다(中國國家統計局, 2016).

본 연구에서 관찰된 농촌 출신의 이주 가족 12사례는 모두 농촌의 상대적 빈곤 때문에 고향을 떠난 것이다. 예컨대 위해시로 이주한 한동창은 1983년에 가정별 생산도급제가 실시된 후로 가족이 도급 맡은 땅과 타인이 도급 받은 땅을 임대 하여 열심히 농사를 짓고 담배 재배 등 부업으로 소득을 올리면서 열심히 살아왔다. 그러나 2012년부터 곡식의 가격과 담배 등 경제작물의 가격까지 크게 하락하여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한동창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아들이 먼저 위해시로 이주하였다.

한동창(남성, 61세)

(2013년에 아드님은 어떻게 위해시로 오기로 결심하게 되셨나요?)
1983년에 땅을 나누고 나서, 동북에서 가정별 생산 도급제를 실시했잖아요. 그 후에 따로 농사짓고, 담배 재배하고 다른 사람 땅도 좀 더 도급 받고 해서 내가 열심히만 하면 좀 더 벌 수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꽤 괜찮게 지냈어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좀 더 벌 수 있었으니까, 담배 재배할 때 괜찮을 때, 국가에서 보조금을 줄 때에는 좀 더 많이 심고, 그 때는 담배 가격도 괜찮았어요. 2012년, 2013년 그때부터 담배가 경기가 안 좋았어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았어요. 12년 가을 때 가을하고 나서 위해에 왔죠.

한동창은 도시에서는 ‘어차피 하루 일하면 하루 돈 버니까’ 걱정이 없는데 농사를 지으면 ‘가물어도 안 되고 침수되도 안 되고, 자연재해 있어도 안 되기에’ 농업소득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농산물 가격의 하락 이외에 자연재해 등 농업 소득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들도 농민들로 하여금 도시로 떠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한편 1990년대부터 개혁개방으로 농촌지역의 상대적 빈곤이 날로 심각해질 즈음에 한족 출신 농민들은 주로 연해도시로 이주하여 ‘농민공’의 신분으로 도시에서 삶의 기회를 찾았다. 그러나 조선족 출신 농민들은

한족 출신 농민들보다 선택폭이 넓었다. 조선족들은 언어가 통하고 친지가 있어 입국과 입국 후의 취직, 적응이 보다 수월 하는 한국으로 이주하여 탈 농화와 탈 빈곤화를 시도할 수 있었다(박광성, 2007; 김관준, 2014; 이매화, 2015; 김화선, 2016). 그리하여 1990년대부터 많은 조선족들은 장기 체류 유형인 산업연수생제도와 같은 합법적인 경로나 밀항, 위장 결혼 등 불법의 방식으로 탈 농화, 탈 빈곤을 꿈꾸면서 한국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찰되는 6명의 조선족 사례에서 6사례는 모두 노인이나 자녀가 한국으로 진출하여 가족이 분산된 것이다. 예컨대 오영순 가족 중에 가장 먼저 이주한 막내아들은 홍수재해로 농사가 망하자 밀항으로 한국으로 떠난 것이다.

오영순(여성, 82세)

(막내아들은 어떻게 한국으로 가게 되셨나요?) 군대 갔다 와서 집체에서 논을 줬어. 논을 줬는데 그 때 논을 두 쌍을 줬는데 논을 했는데 비가 와서 싹 떠내려가고 형편이 없지 뭐. 군대는 갔다 왔지, 농사는 안됐지, 기분은 상했어. 이 때 한국으로 사람들이 밀항으로 나갔단 말이야. 한국에서 사람을 받았어. 그러니까 애가 ‘아이고, 엄마 여기 아무리 있어봐야 농사져서 돈 벌 것 같지 않아’, 내가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 내가 애를 만날 주고 있겠어? 내가 맡겼어. 그때 밀항해서 한국에 나갔어. 그때부터 버는 게 한국에서 그냥 벌었지.

2007년부터는 방문취업제²²⁾가 도입되어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경로가 넓어지면서 한국에 진출한 조선족이 크게 증가하다.²³⁾ 이로 인해 가족의 연쇄이주가 점점 많아지면서 가족 구성원 중에 노동력을 보유한 구성원 전체가 한국에 나가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만 홀로 남는 경우도 있었다.

22)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에게 해당된다(무연고 동포 포함). 유효기간 5년 의 복수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36개 단순노무직에 한정하여 취업활동이 허가된다.

23) 한국에 체류하는 조선족 동포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2007년에는 310,485명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626,655명에 이르렀다. 법무부, “2007년 - 2015년도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사이트에서 제공함 <http://www.immigration.go.kr/> 검색일 2017-1-30.

최춘옥(여성, 81세)

큰 딸이 한국 간지 한 7,8년 됐는지. 그 다음에는 막내딸이 또 가고, 그 다음에 또 둘째 딸이 가고, 딸들이 다 먼저 갔어요. 그리고 사위들도 따라 가고.

방정희(여성, 74세)

아들 둘에 딸 하나. 다 한국에 있어요. 다 한국 나가버렸어요. 날 혼자 남겨놓고 가버리데...

요형순(여성, 82세)

(지금 자녀들은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 다 있어. 몽땅 나왔어. 몽땅 나와서 다 한국에서 버오. 맨 처음에 나온 게 우리 작은 아들이지. 먼저 나와서 형님을 하나씩 하나씩 다 데려갔어.

이처럼 가족 구성원 중의 ‘선구자’들은 경제적 이유나 환경의 원인으로 고향을 떠났고 가족은 분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주는 다른 지역의 경제기회와 좋은 생태환경에 의해 흡인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개혁개방 이후의 거시적인 구조적 변동으로 인해 날로 쇠퇴되고 있는 고향의 생존 환경과 암울한 경제적 현실의 배출작용에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2. 노인이주를 통한 가족의 재결합

3.2.1. 가족 구성원의 흡인

3.2.1.1. 자녀 세대의 일 가정 양립난

대부분 중국인들은 가족 간 매우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끈끈한 가족 간 유대를 가지고 있다. 계획경제시기 중국의 도시 공간은 단위를 중심으로 한 여러 작은 사회의 물리적 결합과 같은 모습이었다. 대형 국유기업에서는 노동자의 자녀와 배우자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였기에 가족 구

성원들이 같은 기업에 취직해 있는 것도 비교적 보편적인 현상이었고, 주택도 복지재로 단위에서 분배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같은 주거단지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았다.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국유기업이 민영화되고 거주하던 단위소유의 주택이 개인소유의 자택으로 바뀌었지만 가족 간의 물리적 거리는 여전히 매우 가깝고 핵가족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화 된 가족이 주를 이루고 있다(김수한, 2011:156). 농민일 경우에는 집체에 소속된 토지를 가정단위로 도급 받음으로써 가족들은 토지의 숙박으로 같은 집체 내에 생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가족 간의 접근성에 의해 중국의 가족은 외형적으로 핵가족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농업생산, 가사, 육아, 돌봄 등 측면에서 서로 활발한 상호지원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에는 도시화로 인해 일부 가족 구성원(특히 젊은 층)이 고향을 떠남에 따라 가족 간의 상호지원의 가능성이 크게 약화 되어 세대 간의 돌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 구조적 원인으로 고향을 떠나 위해시로 이주한 젊은 세대일 경우 대부분 도시에서 소득이 비교적 낮고 노동시간이 길며 노동 강도가 높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출산과 육아를 맞으면 경제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아동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위해시의 경우 대부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셔틀버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를 다녀오는 길에서 동반해줄 사람이 없으면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 때 노부모가 맞벌이하는 성인자녀와 같은 지역에 거주할 경우 성인자녀를 대신하여 아이를 동반해줄 수 있으나, 자녀세대가 고향을 떠나 새로운 도시에 도착했을 때에는 양육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사귀영의 경우 맞벌이를 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퇴근 시간은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사이인데 손자의 방과 시간은 3시 30분에서 4시 30분 사이이다. 따라서 8살의 손자를 배웅하고 맞이해줄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사귀영(여성, 61세)

애들은 둘 다 출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젊은이들도 생활해야 하잖아

요? 애가 학교 끝나면 데려올 사람이 없어요, 데려오지를 못해요, 퇴근이 둘 다 늦어서. 꼭 누군가가 데려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애는 3시 30분에 수업이 끝나요, 지금은 4시 30분이고 겨울에는 3시 30분이에요. 아들, 며느리 퇴근은 5시 30분, 6시, 퇴근이 늦어요. 지금 손자가 8살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들과 며느리 중 한사람이 출근을 포기해야 하지만 새로운 도시로 이주한 자들은 삶의 압력에 의해 맞벌이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부분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고향에 있는 노인들이 와서 아이를 봐주기를 요청할 수밖에 없고, 은퇴하여 한가하게 있는 노인들은 자녀들을 도와 ‘이 시기를 무사히 넘기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

진항웅(남성, 65세)

지금은 말이에요. 다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들이 어디 있으면, 늙은 이들이 나이 들어서 은퇴하면 어디로 간다고. 이게 어떤 이유가 있냐면, 나이가 들면, 그렇지? 지금 애들은 출근하단다고 정말 바쁘고 애들이 아이가 있으면 누군가가 도와서 애를 봐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가까이에 안 있으면 불러갈 수밖에 없죠, 안 부르면 안 되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애가 있으면 어찌겠어요, 누군가는 도와서 이 일을 넘겨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바쁘게 되면 가정생활, 애 보는 일이 해결이 안되니까, 거의 다 이런 상황이지요.

진항웅(남성, 65세)

사위는 롯데마트 안에 있는 영화관에 관리직인데요. 만날 집 안 있고 전국 각지에 출장 다녀요. 그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녀일은 신경 쓸 시간이 없는 거죠. 전국을 여러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데 이 구역, 저 구역 다니느라고. 우리 딸도 얼마나 바쁜지,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면 하루 종일 일해도 밤에도 끝이 안나요. 특히 여름이 되면 여행 성수기가 되면 손님이 많으니까 하루 종일 완전 정신이 없어요. 그니까 자기 자식 일을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한편 부모세대는 자녀세대가 육아에서 객관적인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거절을 하지 못한다. 또한 현재 중국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육아를 돕는 것이 암묵적인 규범처럼 되어 있기에 노인들은 의무감에 의해서 자녀가 있는 도시로 이주하여 손자(녀)를 돌봐주기도 한다. 더불어 노인들은 자녀에게 양육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노년기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하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사귀영(남성, 61세)

(아이를 돌봐주지 않으려는 어르신들도 계시죠.)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거절하나요. 대부분 기꺼이 승낙하지요. 지금은 다들 애가 하나 뿐이 아닌가요. 젊은 애들이 당신더러 애를 마중 다녀라는데 당신이 거절 해봐요. 그럼 이후에...아닌가요? 아들이 하나뿐인데 거절 못하지요. 아닌가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래도 개를 의지해야 되는데, 아닌가요. 이것은 임무지요. 꼭 해야 되는 거로 의무지요. 지금 노인들은 다 이렇게 살죠 뭐.

이처럼 맞벌이를 하기 위해 젊은 세대는 노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고 노인들은 기꺼이 자녀를 돕고자 이주를 한다. 중국의 이주 노인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고 자녀들과 가까이 살면서 노후를 즐길 뿐만 아니라 손자(녀) 돌봄에 있어서 자녀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孟向·姜向群·宋健, 2004).

3.2.1.2. 노인세대의 돌봄 부재 상황

중국에서 자녀들이 떠나가고 농촌에 홀로 남은 유수노인들은 생존자녀가 있기에 사회구제 대상자인 “5보호(五保戶)”에 속하지 않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녀밖에 없는데(王全勝, 2007) 자녀는 천리 밖에 있다. 2008년 호남사범대학 인구연구소에서 호남지역의 유수노인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46.0%의 유수노인은 한 가지 이상의 중병을 가지고 있는데 52.4%

의 노인이 투병기간에 자녀의 수발을 받지 못한다(陳鐵錚, 2009). 뿐만 아니라 유수노인들은 자녀의 보호가 없기에 사기와 강탈에 더 많이 노출된다(王全勝, 2007). 더불어 자녀가 외출취업하면 노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교류는 주로 자녀의 귀가와 전화통화를 통해 이뤄지는데, 외출한 자녀의 귀가는 대부분 설연휴에만 가능하다. 통화의 경우 통화요금이 비싸고 서로 통화시간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자녀가 노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통신 수단으로서 전화자체의 한계로 인해 유수노인들은 자녀와의 자유로운 정서적 소통이 어려워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杜鵬 외, 2004; 王全勝, 2007; 葉敬忠 외, 2009; 方菲, 2009). 성인자녀의 외출취업으로 인해 노인들은 더 많은 생산노동 및 가사노동, 손(자)녀 양육 노동에 시달리기도 한다(王全勝, 2007; 鄒曉娟 외, 2011). 대부분 노인들이 농업생산(73.1%) 식사준비(83.8%), 세탁(72.3%), 야채심기(79.8%), 가축사육하기(50.9%) 등 가사를 담당하고 있고, 64.7%의 유수노인이 손자(녀)를 돌보고 있으며 13.3%의 유수노인은 그들의 노부모까지 돌보고 있다(國家人口和計劃生育委員會流動人口服務管理司, 2012). 이처럼 성인자녀가 이주하고 홀로 남은 노인은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더불어 자녀들이 옆에 없으면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매우 큰 위험에 처한다. 방정희의 경우에는 자녀가 모두 한국에 나간 후에 전기나 수도의 고장, 땀 나무 마련 등 모든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매우 큰 스트레스로 다가와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 갑작스럽게 기절했을 때에는 이름도 모르는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병원에 갈 수 있었고 중국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진찰과정에서도 이웃이 번역해 줘야만 했다.

방정희(여성, 74세)

혼자 있으니까 막 애가 쓰여서, 농촌에 있으니까 1년에 전기 부셔져도 걱정, 수도 부셔져도 걱정, 나무 때문에도 걱정, 신경질 나가지고...양로원에 가니까 낫더라고요. (아플 때 중국 사람²⁴)들이 병원에 모셔갔어요?) 응, 병원에 데리고 가서 입원하고 그랬지. (중국 사람들

24) 조선족들은 한족을 중국 사람이라고 부른다.

이 누구예요?) 중국 사람? 몰라...허허허, 쇼마이땡(매점) 사람들이라, 성도 몰라 나는. (그냥 이웃들인가요?) 예, 이웃들이지. 그때 내가 뇌졸중이 걸렸던지, 어땀던지, 그때 내 돈 많이 썼어. 병원에 가는데 진찰하는데 내 (중국어) 말도 못하고 한 사람 조선사람 한 사람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번역하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왔어, 그래가지고 길림 양로원에 보내고 그리고 또 한국으로 갔어.

홀로 남은 도시 노인의 경우 농촌노인들처럼 땀 나무를 직접 마련하여 취사를 하지 않고 전기 가마 등 편리한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가전제품의 사용이 많음에 따라 전기 접촉 등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다. 오숙평의 경우, 배우자를 사별하고 한단시(邯鄲市)에서 독거하던 시기에 전기가마를 사용하는 과정에 전기 접촉 사고가 발생하여 손가락을 크게 다친 적이 있었다.

한옥지(82세, 여성)

내가 혼자 살 때, 한번은 이게...감전이 됐어요. 그것이 그...전기밥솥이요, 내가 전기를 끊어야 하는데 끊지 않아 감전됐어요. 감전 되서 손에 피부가 다 벗겨지고, 넘어지기까지 해서 골절, 골절까지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에 입원 한 후 또 절단하고, 아이고 얼마나 견디기 힘들던지, 매일매일 몸 전체가 아렸어요.

이처럼 독거노인들이 사고가 나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기에 자녀가 바로 부모 곁으로 달려갈 수가 없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국토 면적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자녀와의 거리가 멀어 노인이 비상상황에 처할 때 바로 노인 곁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녀들은 사별하고 혼자 있는 노인들을 가까이에서 모시려고 한다. 엽지영의 경우 정신적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엄마(사별)의 상황을 걱정하는 딸이 ‘반드시 와야 한다’고 요구하여 위해시로 이주하였다. 필종구는 필종구는 배우자와 길림성 통화현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사망하고 1년 정도 지나자 위해시에 거주하는 딸들이 위해시로 모셨다.

엽지영(여성, 65세)

에그, 나는 아픈 곳이 많아요. 주로는 정신적 질환이에요. 정신질환이 또 심장질환을 일으키고요, 가끔 기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딸애가 반드시 와야 한다고, 떨어져 있으면 자기가 돌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사했지요.

필종구(남성, 77세)

(따남들이 당시 어떻게 어르신을 설득해서 어르신을 위해로 모셨나요?) 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아빠를 돌보냐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빠가 뭘 일 있으면 우리가 돌보지 못한다고. 일 생겼을 때 돌아간다고 해도 너무 늦잖아, 너무 늦어.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래 가자. 너희들 따라 가련다. 어쨌든 그때 가서 너희들이 날 책임져야 된다. 지금은 여하튼 이러한 상황이지요.

3.2.1.3. 근거리 거주에 대한 욕구

자녀가 욕아로 노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친리 밖에 홀로 남은 노부모가 걱정되어 노부모를 가까이에서 모시기를 원하는 한편 노인들도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과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 노년기 이주의 3단계 패턴에 대한 논의에서 노년기 이주의 첫 단계는 기후환경이 좋은 곳으로의 이주하는 것을 선호하고 노년기의 이주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가족이 있는 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한다. litwak와 Longino는 성인자녀와 기타 친지를 향해 이주하는 두 번째 단계에 처한 노인은 건강상 문제나 사별,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을 목적으로 이주한다고 한다. 이 단계의 이주는 가족 지향적인 이주이기에 대부분 가족과 친지의 거주지 쪽으로 이주를 하게 된다고 말한다(litwak & Longino, 1987). Wiseman은 노인이주동기모델에서 노인의 이주를 결정하게 하는 요소로 주거환경, 사회관계, 양로서비스, 경제요소 4가지 요소를 제시하였고 사회관계 측면에 있어서 노인이 신체기능이 악화되어 생활이 불편해지면 자녀의 근처로 이주하여 도

움을 구한다고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기존연구들에서 노인이 가족과 가까이 사는 것을 갈망하는 원인은 주로 돌봄 받을 수요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Wiseman, 1980).

본 연구의 응답자 중에도 돌봄 받는 입장에서 노후에 성인자녀와의 지리적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녀와 가까이 살고 싶어 하는 사례들이 있다. 진향웅은 가까이 사는 것은 성인자녀의 육아에도 도움이 되고 노인이 돌봄 받는 데도 유리하며 자녀와 가까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다고 한다. 필종구와 한경윤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비상상황이 생길 때 자녀가 즉시 도움을 주지 못하기에 가까이에 살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진향웅(65세, 남성)

서로 가까운 쪽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거죠. 노인이 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편할 때가 되면요, 혹은 노인이 자녀의 곁으로 가거나, 자녀들이요, 시름이 놓이지 않고 걱정이 되니까 자녀도 노인 곁으로 오려하지요. 서로 이렇게 생각하지요. 이 일은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젊은이들이 일이 바쁠 경우에 자기 애를 돌보지 못하니까 늙은이가 곁에서 도와주기를 바라지요. 이는 그들의 수요이지요. 그리고 늙은이가 거동이 불편할 경우에 역시 자녀들과 가까이 살려고 하지요. 그래야 마음이 든든하지요. 비상상황이 생길 때 자녀가 곁에 살고 있으면 하나는 즉시 달려와 줄 수 있고 돌보기 편리하지요. 아주 현실적인 일이 아닌가요?

필종구(남성, 77세)

근처에 있어야 되지요.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돼요. 너무 멀면 일이 있어서 불러도 바로 달려오지 못하죠.

한경윤(남성, 89세)

아들이랑 좀 가깝게 있고 싶죠. 왜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늙으면 의지할 곳(靠山)이 없잖아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뭘 일 있으면 자녀가 옆에 있어서 편하게 해결할 수 있죠.

한편 일부 노인들은 도구적 필요성 보다는 정서적인 수요로 인해 자녀와 가까이 살고자 한다. 자녀에 대한 그리움, 자녀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에 의해 자녀와 같이 살거나 가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경우도 많다. 노인들은 자녀가 주는 어떤 실질적인 도움보다 ‘자녀를 볼 수 있다’는 것에 매우 큰 정서적인 만족을 느낀다. 두건국의 경우에는 늦둥이 딸에게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 있어 딸이 가는 곳으로 따라다니면서 살겠다고 한다.

두건국(남성, 68세)

나는 딸을 따라 다니려고... 딸이 결혼하면 딸이랑 같이 안 살고 그냥 좀 가까이에서 살거나 같은 주거단지에 살든가 하려고, 아니면 위, 아래 층으로 살든가, 안되면 도우미를 찾아서 살고, 그냥 딸이 퇴근해서 매일 날 보로 한번만 와주면 되. 그냥 이런 마음이지 뭐.

이처럼 이주가족이 분리한 후 자녀는 노인들로부터 육아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동시에 천리 밖에 홀로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걱정과ห่วง에 휩싸여 있고, 손 내밀 곳 없는 노인은 자녀의 부재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수요와 애정으로 자녀와 가까이 살기를 갈망하고 있다. 이러한 세대 간의 도구적 필요성과 정서적 필요성이 가족 재결합의 동력이 된다.

3.2.2. 기후환경의 흡인

앞서 위해시의 도시화 과정에서 설명한 것처럼 위해시는 북위 36°41' ~ 37°35', 동경 121°11' ~ 122°42'에 위치한 해변도시로써 온화한 북온대 해양성기후를 가지고 있다. 위해시의 날씨 특징은 같은 북온대 내륙지역에 비해 시원한 여름과 따듯한 겨울을 가지고 있다. 또 114개의 섬과 985.9km의 해안선, 30여 개 항구를 가진 도시로서 풍경이 매우 아름답다(위해 통계국, 2012). 게다가 위해시 정부가 ‘생태환경으로 도시를 세운다(生態立市)’는 취지를 가지고 꾸준히 생태환경을 보호하였기 때문

에 압축적인 도시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청신하여 ‘산소 공급 최상 도시(氧吧城市)’로 불린다. 꾸준한 삼림유지와 녹지 건설로 인해 시 관할 구 내 삼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42.1%이고, 시 관할 구내 일인당 공원 녹지 면적 25.05 제곱미터를 차지하여 ‘국가원림도시(1996년)’, ‘국가환경보호모범도시(1997년)’, ‘국가삼림도시(2009년)’로 평가받는다. 또한 도시의 청결 유지에 힘써 일곱 번 ‘국가위생도시’ 상을 받았다. 따라서 위해시는 노인들이 노후를 보내기에 매우 적합한 기후환경과 위생환경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양로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해시의 기후환경의 흡인도 가족재결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한경운의 가족의 가족재결합은 배우자 질병에 더 나은 기후환경을 찾아주기 위한 것이다.

한경운(남성, 89세)

(어르신은 어떻게 위해시로 오시게 되었나요?) 나는요, 2002년에 왔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여기서 일자리를 찾아서 살았는데 우리 아들이 위해로 오라고 불렀어요. 엄마가 기관지염으로 아픈데 동북은 춥고 여기는 온도가 적합하니까 여기 오면 엄마 몸이 더 나아질 거라고. 그래서 내가 좋다고 하고 왔죠.

3.2.3. 호구제도의 흡인

앞서 위해시의 도시화 과정에서 설명한 것처럼 위해시는 1990년대에 경제기술개발구와 고기술개발구를 설치하였고 2000년대에는 또 공업신구와 석도관리구를 설치하여 근교지역을 집중 개발하였다. 위해시는 이러한 집중 개발구역을 중심으로 대량의 기초시설과 주택건설을 진행하였고 위해시의 부동산 개발업체(炒房團)들은 전국 각지, 나아가 외국의 중국계 동포 거주지까지 순회하면서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였다. 한편 위해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자극하는 동시에 위해시에 유산자(有産者)를 흡인하기 위해 주택구매자에게 호구이전을 허용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한편 중국사회에서 농업호구소유자와 비농업호구소유자는 60여개 종류

의 복지항목에서 차별이 있고(人民網, 2013) 거주지를 도시로 이전해도 호구를 바꾸지 않을 경우 많은 농촌 신분이 유지된다. 또한 원래 도시주민이라 할지라도 호구를 이주지로 옮기지 않을 경우 원주민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지 못한다. 따라서 주택구매자에게 호구이전을 허용하는 제도는 이주자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주지의 흡인력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예컨대 추형지의 경우에는 위해시로 이주하는데 자녀의 흡인과 기후의 흡인도 중요했지만 호구를 이전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추형지(76세, 남성)

(어르신은 어떻게 위해시로 오게 되셨나요?) 우리 아들이 먼저 왔어요. 2007년에 우리 아들이 오고 한 1년 있다가 우리가 왔죠. 아들이 위해에 가고 나서 그 때 우리 고향에 부동산 판매업체(炒房團)들이 와서 위해시의 주택 팔려고 홍보를 많이 했어요. 위해는 겨울은 안 춥고 여름에는 안 덥고 밤낮 기온 차도 작잖아요. 주택 판매업체들이 교통비 내주고 위해 주거 단지 구경시켜주는데 따라서 위해에 와봤어요. 자식들도 여기 있고 하니까. 근데 위해에 집 사면, 뭐 면적 얼마나 이상의 집사고, 가격 얼마이상 집 사면 호구도 올려준다고 해서 위해로 왔죠. 우리 아들이 사놓은 집에다가 호구를 올렸죠.

추형지처럼 위해시의 주택을 구매한 것을 통해 위해시에 호구를 이전한 사례는 총 5사례로 추형지 이외에도 정옥희 사례, 노자향사례, 오충진 사례, 장만향 사례가 있다.

4. 이주 후의 거주 방식

가족 재결합은 주로 자녀들의 일·가정 양립난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에 대한 걱정과 노인들의 자녀 돌봄 욕구와 피 돌봄 욕구가 맞물려 제기된다. 그러나 이주가족이 대부분 구조적 실업과 은퇴를 당한 도시 빈민 계층이거나 도시로 진출한 농민계층이기에 이주 이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상당히 결핍 할 수 있다. 이들은 제한된 경제적 조건 안에서 이주 전의 가족관계, 가족 재결합의 목적, 가족구성원의 돌봄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주 후의 거주방식을 선택하고 세대 간의 갈등, 가족 재결합 후 일어나는 가족구성원의 생애 사건 등을 고려하여 거주방식을 조정한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바에 의하면 대부분 이주가족은 가족 재결합을 이룰 때 일차적으로 동거를 선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다시 분리한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30사례 중 20사례가 이주 초기에 동거를 하였는데 이주 후기에까지 동거로 남은 사례는 6사례뿐이었다. 또한 분리되는 방식은 주로 노인이 다세대 동거 방식 분리해 나가는 방식이었다.

4.1. 이주 초기 거주방식의 선택

4.1.1. 상호 의존을 위한 동거

초기의 동거는 이주목적과 이주 초기의 의존 관계에 따라 노인이 자녀를 의존하기 위한 동거, 자녀가 노인을 의존하기 위한 동거, 상호의존을 위한 동거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1) 노인이 자녀를 의존하기 위한 동거

노인이 자녀를 의존하기 위해 동거하는 경우는 대부분 노인의 건강악화나 사별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여 자녀를 의탁하러 이주하면서 발생한 다. 본 연구에서 노인이 자녀를 의존하기 위해 이주초기에 동거를 선택한 사례는 한옥지, 한경운 등 20사례가 있다. 예컨대 농촌 출신인 손건무의 가족의 경우에는 손건무 부부가 지병으로 앓고 있어 일상생활이 불편한 농촌에서 생활할 수 없어서 2010년에 위해시에서 거주하는 딸의 집으로 왔다.

손건무(남성, 69세)

(어르신께서 어느 해에 이주하셨나요?) 2010년에 마누라랑 같이 이주

했어요. 지금은 딸애랑 같이 살아요. 이제는 이주할 수밖에 없어요. 고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왜냐면, 2001년에 마누라는 대퇴골수 괴사였고요. 저는 어느 해냐면 2010년에 제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어요. (중략) 2010년에 수술 한 뒤로는 집에 가지 않았어요.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시골의 생활은 여기와 다르지요, 제가 이런 말하면 개의치 마세요. 우리 노인들로 말하자면 여기서 화장실 볼 경우 물만 내리면 끝이지만 시골집에 가면 이것부터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지요. 도시에서는 살기가 편리하잖아요. 제 아내가 대퇴골수 괴사인데 시골에 있으면 땀나무로 밥을 지어야 되는데 앉아서 쭉크리고 해야 되죠. 여기서는 전기밥솥을 쓰니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되고 하니 문제가 없죠. 물론 아이들의 부담은 더해지지요.

그러나 넉넉한 경제적 소득이 없이 자녀와 동거 할 경우, 노인은 의존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되고 경제적인 의존 관계는 소비자유와 부모로서의 권위를 상실케 한다. 손건무의 경우 평생 열심히 농사하고 음식점을 경영하여 저축도 하여 생활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둘째 딸이 1997년에 폐암에 걸려 사망한 후로 거액의 치료비로 인해 모든 경제적 자원이 소진되었고 아직도 부채가 남아있다. 게다가 농촌 출신으로서 매월 신 농업보험 수당으로 월 55위안, 한 자녀 보조금 월 80위안, 토지 임대비로 월 67위안, 월 소득이 200위안 미만이다. 따라서 손건무는 일상생활에서 돈이 필요하면 일일이 자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고 용돈도 전혀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손건무(남성, 69세)

저와 아내는 수입이 없기에 모두 애한테 의지해야 되죠. 우리 고향에서 60세 이상이 되면 주는 보조금이 월 55위안이 되고 아이가 외동인 경우 한 사람당 월 80위안씩 주는 보조금이 있고요. 제 발은 남동생에게 농사를 짓게 내주어서 남동생이 저한테 일 년에 800위안을 주지요. 딸 사위가 효도한다하지만 우리 노인은 분수를 알아야 되요. 왜냐면 저희는 수입이 없고 병까지 있죠. 아내는 아내대로 아프고 저도 항상 진통제를 먹어야 되요. (중략) 돈이 필요할 때 자녀한테 달라고

해야 해요. 평소에는 손에 돈이 하나도 없고 용돈도 없어요. 제가 담배를 피는데 해마다 시골에 한번씩 다녀 올 때 시골에서 담배 잎을 사와요. 고향에는 싸거든요 한 근에 십 몇 위안 하죠. 이곳에서는 한 근에 50 위안이나 되요. 시골에서 2근이나 3근을 가져오죠. 이곳에 온지 여러 해 되지만 담배를 한 갑도 산 적이 없어요. 제가 돈을 벌지 못하니깐 술도 마시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술을 꽤 좋아했는데 애들더러 술까지 사게 살 수는 없지요.

손건문 부부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미안함으로 인해 신체적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더라고 해도 할 수 있는 한 가사를 담당하고자 한다. 이는 자원이 부족한 가족의 젊은 층이 소득 창출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노인 세대가 가사, 육아 등 돌봄 역할을 분담하는 생존전략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손건무(남성, 69세)

다른 가사는 할 수가 없어요. 바닥만 쓸어도 일 분이면 일어나지 못해요. 전부 아내가 하지요. 저는 손녀의 치마나 양말을 씻는다거나 밥을 한다거나 해요. 저는 허리만 굽히면 일어나지 못해요. 4층까지 오르고 5층은 못 올라 가요. 잠시 쉬어야 되요.

손건무의 사례에서는 자녀와의 동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동거 중에 의존감이 매우 크고 매사에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세대 동거는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노인 세대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의를 입증해 주는 사례이다(김혜숙·김은희·김향원·유철인, 2005). 또한 노부모가 자녀양육을 통해 노후에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공로(social credit)를 이미 갖춘 상태이고, 효라는 규범에 의해 자녀로부터의 일방적인 부양이 규범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노부모 입장에서 자신들이 받는 지원에 대해 되돌려 줄 수 없는 상황은 죄의식과 창피 감정 등으로 심리적 저하를 낳으므로 상호호혜적인 교환관계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정석·김익기, 2000).

자녀가 단 1명인 손건무와 달리 자녀가 많을 경우 노인이 장기적 의존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 자녀들이 교대로 노인과 동거하며 돌보는 경우도 있다. 교대 동거 돌봄은 돌봄 인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가족에서 노인 돌봄 부담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노인을 돌보면서 형제자매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기애의 경우 평생 농민으로 살다가 56세에 중풍에 걸려 현재 17년 동안 투병 중이다. 처음에는 막내딸이 이기애를 위해시에 모셔와 돌봤는데 현재는 위해시로 모인 자녀 5명이 2-3년씩 교대로 이기애와 동거하면서 모시고 있다.

이기애(여성, 72세)의 둘째 딸²⁵⁾

(그럼 어머니는 누가 모셔왔어요?) 왕도에 있는 막내 여동생이 모셔왔어요. 우리 엄마 모셔올 때 우리는 아직 안 왔어요. 우리 엄마가 아픈지 17년이 됐고 여기 온지 17년 됐어요. 엄마가 이 병 걸린걸 알고 모셔왔어요. 우리 엄마가 금방 왔을 때는 좀 심각했어요. 금방 병 걸렸을 때라서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그냥 매일 누워있고 앓는 것도 겨우 앓고 그랬어요. 후에 치료 받고 앓을 수 있게 되고 처음에는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후에 침구도 하고 약 쓰고 해서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조금씩 단련해서 걸을 수 있게 되고 당시에는 지팡이를 썼는데 후에 천천히 지팡이도 버리고 이제는 몇 년 동안 지팡이도 안 쓰고 살았어요. (중략) (아주머니 댁에 오기 전에 어르신은 어디에 계셨나요?) 우리 집에는 형제자매가 6명이에요. 큰 오빠 남동생 자매 네 명이에요. 우리 집에는 자녀가 많잖아요. 울 큰 오빠는 대련에 사는데 우리 엄마는 오빠한테서는 안 살았어요. 어떤 때는 여동생이 모셔가고 어떤 때는 또 남동생이 모셔가고 그래요. 나는 작년에 모셔왔어요. 이 몇 집에 다 있어봤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돌보나요? 엄마는 중풍에 걸려서 아무 일도 못하는데... 일상생활 자립은 할 수 있어요. 의료보험, 양로수당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어느 집에 가서 있으면 어느 집에서 돌봐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의료비는 많지 않아요. 그냥 봄에 침 10번 맞고 가을에 침 10번 맞고 이 몇 년에는 병

25) 이기애가 중풍환자로 언어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이기애에 대한 인터뷰를 끝내고 잠깐 이기애와 동거 중인 이기애의 둘째 딸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 안 도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중풍 걸리면 자주 도지고 하잖아요.
우리 엄마는 안 도졌어요. 잘 유지됐어요.

2) 자녀가 노인을 의존하기 위한 동거

대부분 경우 노인이 경제적 자원의 결핍으로 의존적 동거를 선택하지만 부득이 하게 자녀가 노인을 의존하여 사는 경우도 존재한다. 최근 젊은 세대의 독립난, 특히 대도시로 진출한 젊은 층이 대도시의 높은 소비와 주택가격, 생활스트레스 때문에 대도시에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부모가 있는 곳으로 와서 부모에게 의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항웅의 사례가 이런 경우이다. 진항웅은 2004년에 국유기업 민영화로 근무하던 광산기계공장이 해체되어 52세의 나이로 구조적 은퇴를 당하고 위해시로 이주하였다. 그 후 북경으로 진출했던 딸과 사위가 높은 소비수준과 육아난에 못 이겨 북경을 떠나 진항웅을 의탁하러 위해시로 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해시에서 3세대가 진항웅의 집에서 동거하였는데 주택이 협소하여 3세대 동거가 불편하게 느껴지자 진항웅은 딸에게 집을 사줘서 분가를 시켰고 의존적인 다세대 동거 관계는 길게 지속되지 않았다.

진항웅(65세, 남성)

(당시 딸은 혼자 어르신을 찾아 온 건가요?) 딸이 결혼했어요. 같이 왔어요. 식구 셋이서 같이. 북경에 있으면요, 주택 임대료도 너무 비싸고 봉급도 높지 않죠. 그래서 북경에서 여기로 왔죠. 애들이 북경에 있을 때 우리가 위해로 왔으니까 애들은 다시 동북으로 못 돌아가죠.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죠.

3) 상호의존을 위한 다세대 동거

자녀가 육아도움을 요청하여 이주한 노인의 경우 노인은 자녀의 가사와 육아를 돕는 동시에 자녀가 노인을 동거하면서 부양하는 다세대 동거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다. 돌봄 자원이나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가족은 동거를 통한 자원집중과 세대 간 협력을 통해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도

한다. 예컨대 농촌 출신의 한동창 가족은 2013년에 가족 재결합을 위해 다세대 동거가 가능한 넓은 주택을 마련하여 3세대 동거 생활을 시작하였다. 한동창 가족은 주택도 노인세대와 성인자녀 세대가 함께 농사지어 모아둔 돈으로 구매하였고 주택구매로 인해 생긴 빚도 두 세대가 함께 노력하여 갚았다. 한동창 가족은 세대 간의 의존과 협력을 통해 농촌에서 올라와 성공적으로 위해시에 정착할 수 있었다.

한동창(남성, 61세)

(이 집이 110 평이면 방이 몇 개, 거실이 몇 개 인가요?) 방 세 개에 거실이 하나 주방 하나 화장실 하나죠. (그 당시 돈은 빌리셨나요?) 모아둔 저축에 지금까지 아들이랑 같이 살면서 모아둔 돈에... 같이 사니까 돈 모으기 쉽잖아요, 갈라지면 돈이 안 모이고. 그럭저럭 30, 40 만을 저축했고 여기 저기 친척들이랑 빌렸지요. 빌린 것들은 요 두해에 다 갚았어요. (어르신께서는 현재 아드님과 함께 지내시지요?) 네. (집을 사고 나서 빚을 갚을 때, 어르신과 어르신의 아드님이 함께 벌이해서 함께 갚았나요?) 그렇죠, 함께 벌고 함께 빚을 갚았죠.

이처럼 이주가족의 장기 동거는 대부분 상호지원의 필요성에 의해 선택된다. 과거 동거 여부는 부모부양의 핵심적인 지표였지만 이주가족의 다세대 동거는 동아시아 사회의 전통적 부모부양을 위한 동거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노인이 자녀에게 의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는 부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부양의 의미보다 자원결핍의 의미가 더욱 강하다. 도시 노인의 경우 독립적인 삶을 위해 스스로 주택을 구매하여 자녀와 근거리 분거를 하거나, 대부분 동거하다가도 세대 간 갈등이 생기면 스스로 독립해 나갈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 현재 의존적 다세대 동거를 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경제적 능력이 없는 농촌 노인이며 동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피동적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기혼자녀와 노부모 세대 간 동거를 부양의 지표로 보기 전에 먼저 노인의 경제적 자원이나 건강상태의 결여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는 것이 정확하겠다고 판단된다(한

경혜, 유순덕, 2001). 또한 자원 집중을 위한 동거는 부양을 위한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하기 보다는 제한 된 자원을 더욱 집중하여 세대 간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4.1.2. 독립 유지를 위한 근거리 거주

앞서 언급했듯이 농촌 출신 이주노인이 돌봄이 필요할 때는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 의존적인 장기 동거를 선택해야만 했다. 그러나 자립적인 수입원이 있는 노인들이 그렇지 못한 노인에 비해 별거할 확률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박현정·최혜경, 2001:10). 수입원이 있는 노인은 자유로운 삶에 대한 추구, 세대 간 생활습관 차이, 세대간의 갈등 등을 고려하여 별거를 선호한다.

본 연구에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도시출신 이주노인들은 도시양로수당, 일정한 저축, 고향의 주택을 처분하여 마련한 정착금이 있어 위해시에서 따로 주택을 구매할 경제력이 있다. 특히 위해시의 경우 주택을 구입한 자에게 현지 호구를 부여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해시에서 정착할 의지가 있는 자들은 주택 구매에 매우 적극적이다. 중국의 경우 현지의 호구를 취득해야 만 현지 시민권을 향유 할 수 있고 현지인으로 인정되고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허락할 경우 이주민들은 최대한 위해시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통해 위해시의 현지 호구를 취득하여 정식 위해시 시민이 되기를 원하기도 한다. 따라서 경제력이 있는 도시 출신 이주가정은 자녀세대와 노인세대가 각각 주택을 구매하여 근거리에서 분거상태로 생활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관찰된다. 진향웅, 유수지, 강부귀, 김영훈, 추형지 등 5개 사례가 이러한 맥락에서 근거리 분거를 취한 것으로 관찰하다. 예컨대 진호창(남성, 83세)의 경우 70세에 아들 2명이 생활하고 있는 위해시로 이주하였는데 아들과 동거하지 않고 따로 아파트를 구매하여 거주하고 있다. 진호창의 경우에는 동거할 경우 음식이나 생활패턴의 차이로 인해 매우 불편할 것을 예상하여 따로 주택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진호창(남성, 83세)

(그럼 어르신께서 위해에 오신 그때에 아드님과 함께 지냈나요?) 혼자 아파트를 사서 따로 살림을 차렸죠. (자녀들로부터 돌봄을 받으려고 60세 이후로 같이 살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없어요,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왜 없으신가요?) 따로 사는 게 편해요. 애들과 함께 살면 불편해요. (어떤 점이 불편하신가요?) 불편한 것이야 많지요. 예를 들어, 나는 아침에 운동을 나가니까 5시 좀 되면 기상해야 되요. 애들은 밤에 TV를 보거나, 뭘 서류를 작성한다든지 하면 11시, 12시가 되요. 저는 8시가 되면 취침을 해요. 음식도 불편하지요. 우리 노인들은 연한 음식을 좋아해요. 딱딱하면 먹지를 못해요. 그렇죠? 식사도 불편하고 여러 방면에서 모두 불편해요. 그래서 애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애들과 역시 친하게는 지내야지요. 혈액의 정이 없어서는 안 되지요. 하지만 함께 생활하면 불편해요. 서로 불편해요. 지금 시대에 현명한 노인들은 자녀랑 함께 살겠다고 고집 부리는 게 몇이나 되나요. 그러면 인지상정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미안한 거지요. 아이도 가정도 꾸리고 안정도 필요하지요.

더불어 노인이 스스로 주택을 구매할 경제력이 없을 때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노인을 모시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자신의 명의로 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여 노인들에게 거주하도록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의 경우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간의 경제적 일체감이 매우 높다. 중국 노인들은 노후에 향락성 소비를 하지 않고 최대한 절약하기 때문에 자녀가 노인들에게 사드린 주택은 노인 손에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것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주택의 명의를 선택함에 있어서 정책상 주택처리에 가장 유리한 쪽을 선택한다. 따라서 재산의 명의소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택을 구매한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경제능력이 있는 자녀가 간혹 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여 노인들에게 거주하게 하였다고 해도 주택의 증여의 의미보다 주거를 제공하는 의미가 더욱 크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여전히 자녀에게 있

다. 본 연구에서 자녀가 주택을 사서 노인에게 거주하도록 하는 사례는 고향에 있는 큰 딸 대신 위해시에서 외손녀를 돌보는 장만항 사례(남성, 67세), 오충진 사례(남성, 62세)가 있다.

이렇게 다세대 동거 주택을 마련하여 함께 거주할 경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세대 동거보다는 가까이에 독립적 거주를 견지하는 것은 서로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고 마찰을 감소하며 자녀의 핵가족에 대한 방해를 감소하기 위한 것이다.

4.1.3. 동거 조건 부재로 인한 근거리 거주 및 입소

1) 노인이 지하실을 임대하여 거주

경제적 조건이 있는 이주가족들에서 동거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거하는가 하면 경제적 조건이 없어서 동거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세대 근거리 분거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경제적 조건의 제약으로 주택을 임대하여 근거리에 분거하여 생활하는데 주택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하실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위해시의 주택구조상 옛 주택의 특성을 보유하여 아파트에 지하실(草厦子)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지하실은 일반 주택보다 저렴하여 이주자들의 선호를 받는다. 본 연구에서 이렇게 자녀와 가까이에 거주하면서 지하실을 임대하여 생활하는 사례는 가추분 사례와 장홍인 사례가 있다.

림업지역의 쇠퇴로 일자리가 없던 가추분 부부는 아들, 며느리와 손자가 위해시로 이주한 후 자녀부부를 도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위해시로 왔다. 아들은 위해시에서 음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현재 아들을 돕기 위해 위해시로 온 가추분 부부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 손자의 학교 근처의 지하방을 임대하여 살고 있다. 가추분 부부는 손자를 돌보고 며느리를 위해 저녁 식사를 해주고 가게를 위해 노후 노동도 하고 있다.

가추분(여성, 67세)

우리는 이곳에서 집을 임대했어요, 지하방을 임대했지요. 아파트는 임대할 엄두를 못 내고요. 우리 아들 며느리가 우리 둘을 모셔 와서 아이를 돌보게 했어요. 아침에 유치원에 데려주고 점심은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저녁에 가서 데려와요. 개 할아버지가 집에서 애를 데려주고 데려오고 하고요. 나는 일하러 가요. 우리 집 아들은 개 사장이 아파트를 임대 해줬어요. 개네 같이 일하는 일군들에게 아파트를 임대 해줬어요. 나는 우리 영감이랑 손자랑 함께 지하방에 살고 있어요. (중략) (그럼 어르신은 며느님은 어르신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나요?) 아들과 함께 살아요. 우리랑 함께 살 수 있겠나요? 사장이 임대해준 거구요. 사장이 돈을 내줘요. 개네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침실 3개 방이 3칸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랑 며느리가 방 하나 쓰고, 그다음 다른 2사람이 방 2개 쓰고, 그러니까 공동으로 임대한 기숙사인데, 사장이 돈 절반을 대주고, 이 큰 방 쓰는 사람은 얼마 내고, 중간 방이 얼마, 작은 방이 얼마, 이렇게 개네들 스스로도 돈을 내요. ... 며느리는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해요, 저녁을요. 아침은 자기 절로 대충 사먹고 점심은 회사에서 먹고 저녁은 우리한테 와서 먹지요.

노인이 지하방을 임대한 사례는 가추분의 사례 이외에 장홍인의 사례(남성, 61세)가 있는데 장홍인은 ‘서로 방해 받지 않는 삶’을 위해 아들과 같은 주거단지의 지하방을 임대하여 살고 있다. 현재 장홍인의 가족은 매일 같이 식사 하고 장홍인의 아내가 아들의 가사와 육아를 돌보고 있고 장홍인은 거주하고 있는 주거단지의 수위실에서 일하고 있다.

2) 자녀가 있는 도시의 양로원으로 입소된 노인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는 도시로 이주할 때 자녀와 동거를 원하지 않거나 동거할 여건이 부족한 유배우 노인들은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하여 자녀 근처에 분거해서 산다. 그러나 배우자를 사별하고 홀로 남은 노인은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자녀가 살고 있는 도시에 위치한 양로원으로 모셔진다. 자녀들은 노인과 동거할 수도 없고 노인을 독거하게 두는

것도 걱정스럽기 때문에 항상 옆에 돌보는 사람이 있는 양로원으로 모시는 것을 선호한다. 예컨대 필종구의 경우에는 사별한지 1년 된 후 위해시에 살고 있는 딸 두 명이 멀리 계시면 돌봐드릴 수 없다고 하면서 필종구를 위해시로 모셨지만, 동거할 여건이 부족하여 필종구를 양로원으로 모셨다.

필종구(남성, 77)

(위해에 오시기 전에 따님들이 이미 양로원을 찾아 놓으신 건가요?)
위해시에 도착하니깐 바로 이곳으로 보내더군요. 애들이 이 방까지 다 봐두었더라구요. (따님들이 안배를 다 한 다음 어르신들 모셔왔군요. 그렇죠?) 네. (그럼 그 당시 어르신께서 위해에 오시기 전에 여기 오면 양로원에 계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근데 여하튼 애들과 같이 살지는 못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모르셨군요?) 네, 몰랐지요. (오기 전 양로원에 입소 한다는 건 모르셨지만 어르신께서 자녀와 함께 살지는 못한다고 생각하셨네요. 그죠?) 네네. (그럼 당시 어르신께서 집을 임대하거나해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아, 네, 나는 집을 임대하고 싶었어요. 집을 임대하고 싶었고 스스로 밥도 해먹고 싶었지요. (그럼 당시 어르신께서 따님들과 함께 사시려고는 하지 않았나요? 왜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불편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는데 어떻게 저랑 살수 있겠어요.

전통적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진 노인인 필종구는 아들이 있었으면 ‘당연히’ 같이 살았다고 한다. 동거 조건이 없는 것을 ‘딸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들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면서 양로원에 입소한 것은 ‘갈 곳이 없어서’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양로원 입소 후에 실질적으로 출입이 자유롭고 매주 딸의 집을 방문하고 딸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긴 하지만 자신의 노후가 이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필종구는 노인은 나이 들면 ‘자식의 안배를 따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기에 양로원에 안배된 것에 불만은 없으나 양로원에 들어올 때 관리원에게 갈 곳이 없어서 왔기 때문에 죽어도 이 양로원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필종구(남성, 77)

(그러니까 만약 아들이라면 어르신께서는 함께 사신다는 거네요?) 그건 당연하지요. (아들이라면 틀림없이 함께 사신다?) 당연히 함께 살아야지요. (자식들이 딸이기 때문이군요. 그럼 어르신께서 후회되지 않으세요? 내가 왜 아들을 낳지 못했는지 서운하지 않으세요?) 서운하죠. 당연히 서운하다만 하지만 그래도 쓸데없지요. 그런 서운함이 있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지요. (어르신께서는 정말 서운해 하시는군요.) 서운하죠.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아쉬움은 있지요. (그럼 따님들이 어르신을 양로원으로 모셨을 때 당황하지 않으셨나요? 나를 양로원에 보낼 거라곤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이러한 생각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별 불만이 없었어요. 그때도 이미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고려했고요. 어떻게 안배하고 어떻게 살지는 그대로 따라야 되지요. 나이가 들면 자기절로 무엇이나 결정하려 하면 안 되지요. 자식이 어떻게 안배해주면 그것을 따라야 해요. 반드시 어떻게 안배해주든지 따라야 하지요. (때문에 양로원에 온 것에 별로 불만이 없겠네요?)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반드시 와야죠. 반드시 이곳에 있어야지요. 제가 그때 이곳에 왔을 때 양로원 관리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죽어도 이 양로원에서 죽어야 되요, 왜냐면 갈 곳이 없으니까. 반드시 이곳에 있어야 되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죽는다 해도 죽는 그 날까지도 이 양로원에서 죽어야 되요. 아무런 생각도 없고, 양로원을 집이다 해야죠. 집이지요.

노인이 돌봄이 필요하여 가까이로 모셔 와야 하는 상황에서 동거조건이 부족하여 양로원으로 모시고자 할 때 모든 노인들이 필종구처럼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양로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강하게 거부할 수도 있다. 최춘옥의 경우에는 양로원 입소가 자녀들의 강한 의지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최춘옥은 ‘불잡혀서’ 양로원으로 왔다고 말한다. 최춘옥은 딸이 네 명이 있는데 노인과 한 마을에 살던 둘째 딸이 한국에 나갔다. 노모가 농촌 마을에 홀로 생활하는 것이 걱정되어 딸들은 셋째

딸이 있는 위해시의 양로원에서 모시기로 했는데 최춘옥이 강하게 거부하였다. 결국 반 강제로 위해시의 조선족 양로원에 입소하게 되었다. 다행히 양로원에 입소한 후 최춘옥은 양로원 생활을 잘 적응하고 있었다.

최춘옥(여성, 81세)

나는 동북에서 둘째 딸이랑 살다가 둘째 딸이 한국 가니까 내가 혼자 남게 됐지. 그니까 그 다음에 우리 막내딸이 한국에서 ‘언니 엄마 거기 혼자 놔뒀다가는 죽겠다고 엄마 빨리 데려가라’고 그래서 그래 나를 나오라는 거를 처음에는 ‘난 절대 안 간다. 난 양로원에 갈 나이가 안됐다’고 안 간다고 했지. 안 간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차표까지 사서 자기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내하고 세 사람 비행기 표 사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 때 붙잡혔지. 그래가지고 왔지. 와보니까 처음에는 좀 스산하던 게 하루, 이틀 지내보니까 사람이 마음도 들고 원장이 나이 어린데 참 처사를 잘한단 말이. 그래 나도 마음에 들더라 말이. 그래 여기 마음 붙여서 사는 게 지금까지 살았지.

이처럼 가족 재결합의 초기에 이주가족들은 주로 상호의존을 위해 동거를 하거나, 세대 간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근거리 분거를 하거나 동거 조건이 부재할 경우에는 근거리에 분거하거나 입소하는 거주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거주방식은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건강상태, 세대 관계, 자녀의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이주 후기에 다시 조정하기도 한다.

4.2. 이주 후기 거주방식의 조정

4.2.1. 세대 간 격차로 인한 분거 및 입소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오늘날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경험하는 삶의 양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세대 간 경험의 차이는 의식·가치

관뿐만 아니라 행동양식·언어·생활습관 등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며, 세대 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이동원·조성남, 1991). 특히 이주로 인해 장기간 분리한 경우, 이러한 차이가 더욱 선명한 측면이 있다(趙婕, 2013; 鄭佳然, 2016). 대부분 동거가족은 세대 간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통해 가족의 화목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장기간의 동거과정에서 세대 격차가 세대 갈등으로 격화되는 경우들도 있다. 엽지영이 배우자와 사별하고 우울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딸이 엽지영을 위해시로 모셔왔다. 이주한 후 엽지영은 딸, 사위와 동거하였는데 장기간 동거하면서 딸과 사위의 생활습관에 대해 많은 불만이 쌓였다. 엽지영은 건강상의 이유로 딸의 집에 살고 있지만 딸이 결혼할 때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을 전담하고 40만 원의 거액의 혼수를 지원했기 때문에 딸과의 관계에서도 불만을 당당하게 제기했다고 한다. 결과 불만이 잔소리가 되고 잔소리가 말다툼이 되어 동거를 지속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자 엽지영의 딸은 먼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엽지영을 위해시에 있는 양로원으로 모셨다.

엽지영(여성, 65세)

그러니까 예전에 같이 살 때도 우리는 자주 말다툼했는데, 그 이유가, 그니까 함께 개네 집에서 지낼 때, 나는 못마땅하면 잔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개는 또 내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싫어하고. 나이도 많지 않는데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고, 이것도 못마땅 저것도 못마땅해 한다고 그러죠. 못마땅한데 어찌라고요? 나는 집이 지저분하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네가 거뒤틀라는 건데, 네가 거두지 않으면 나더러 정리하라는 거냐. 내가 거두면 내가 몸이 너무 힘들니까, 네가 거뒤틀라고 하고, 늘 이런 일로 일들로... (중략) 나는 딸애랑 사위가 너무 못마땅해요. 정말 못마땅해요. 이것도 내가 떠난 원인이에요. 지금 젊은이들이 너무... 너무 게을러요. 만날 빈둥거리면 아무것도 안하고. 매일 위챗만 놓고 있고, 놓고 있고, 폰 게임이나 하고 있고 마음에 들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세대 간의 격차는 세대 간의 양보와 존중을 통해 해결

된다. 그러나 육아에서만은 옛 습관에 물들어 있는 노인과 현대적 교육 방식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특히 며느리)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 현대 사회의 며느리들은 다른 일에서는 양보할 수 있어도 아동교육에 있어서 견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이념의 차이가 고부갈등으로 격화되기 쉽다(郭南南, 2012; 何惠亭, 2014; 陳盛淦, 2014). 한옥지의 경우에는 아들과 동거할 때 서로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하면서 매우 화목하게 지내왔다고 한다. 그러나 손녀 교육에 대한 세대 간의 인식 차이는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 한옥지는 손녀가 걸을 때 잡아주고, 식사할 때 먹여주고, 손녀가 하고자하는 것을 대신해주는 반면, 아들, 며느리는 손녀가 더욱 독립성이 강한 아이로 성장하기를 원했다고 한다. 한옥지도 아들, 며느리의 관점을 따르려고 하지만 습관이 되어 고쳐지지 않자 손녀와 떨어져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는 나중에 한옥지가 아들집에서 떠나 양로원을 찾아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한옥지(여성, 82세)

나랑 며느리, 나랑 아들은 그러니까 집에서 다툼은 없었어요. 근데 어떤 모순이 조금 있었냐면 바로 손녀이예요. 손녀가 아직 5살도 안됐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아이를 교육하는 방법이 우리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애들은 너무 많이 터치 안하고 뭐든 손녀 스스로 하게 해요. 밥도 혼자 먹게 하고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는 것 같은 거는 걱정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내가 집에 있으면 그게 안 돼요. 그게 눈에 보이기만 하면 아이고~~ 그러면 며느리가 저한테 한마디 해요. 어머님 그냥 놔둬요. 넘어지면 넘어지고, 식사는요, 애가 안 먹으면, 나는 한두 숟가락이라도 먹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며느리는 또 어머님 먹여주지 마요. 애가 안 먹으면 배고프고 배고프면 알아서 먹는다고. 나도 며느리 교육방법을 찬성해요. 근데 그게 잘 안돼요. 무엇이라도 손녀를 도와 대신 해주고 싶고 손녀랑 같이 놀아주고 싶고. 그러면 또 아들이 말해요. 엄마 놀아주지 마요. 개 독립성을 키워야 돼요. 개가 혼자 놀고, 혼자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맞는 말이죠. 나도 옳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참지를 못해요. 집에 있으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

내가 알아서 해라. 나는 참견을 말아야지, 방해도 되지 말고. 내 생각엔 내가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편 한경운은 2002년에 배우자의 기관지염을 고려하여 기후가 좋고 아들이 있는 위해시로 이주하였다. 이주 초반에는 아들과 동거하였으나 2개월이 지나 바로 임대주택을 찾아서 나갔다. 1928년에 태어나 만주지역에서 일본 교육을 받고 성장한 한경운은 매우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장이었기에 자녀 집에 얹혀사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여 자신의 양로수당으로 임대주택을 찾아 독립해 나갔다.

한경운(남성, 89세)

(어르신께서는 위해에 이주한 뒤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아내분과 함께 살았던 거네요?) 네, 마누라와 함께 있었어요. (아내분과 셋집에서 지내셨어요?) 내가 집을 임대했어요. 셋집에 있었죠. 아들이 집이 있는데 같이 살자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 불편할 것 같았어요. 아들도 배우자가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이러해요. 자존심이 비교적 강한 편이에요. 아들은 동의하지만 며느리는 동의 하는지, 며느리가 동의해도 손자가 동의할 지, 이런 생각 다 해요. (중략) 근데 두 달 살아보니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런 노후 생활은 어떡하나 싶었죠. 그때가 내가 이미 70이 넘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 아니다 싶어서 집을 찾아 임대하여 나와서 살았어요.

이처럼 세대 간 독립하여 생활할 경제능력을 가진 이주가족들은 대부분 세대갈등이 나타나면 동거를 중단하고 근거리 분거형태를 취한다. 분거 이후 두 세대는 가까이에 살면서 서로 돕고 의지하는 동시에 자유와 독립을 향유한다. 그러나 독립할 경제능력을 가지지 못한 이주가족은 모순과 갈등이 심각할 경우에도 의존적인 동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4.2.2. 와상 노인 돌봄을 위한 분거 및 입소

일반적으로 거주방식의 변화는 가족 내의 특정한 사건의 발생이 계기가 된다. 위에서 언급한 세대갈등의 발생도 그 중의 한가지이다. 그 외에도 거주방식의 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노인의 신체 건강의 악화가 제기 된다. 노인의 신체 건강이 악화될 경우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때 돌봄 자원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주방식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사례 중에 와상 노인 돌봄을 위해 거주방식을 조정한 경우는 정춘자와 진향웅의 사례가 있다. 정춘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건강악화하기 전에 아들의 공장에 거주하면서 공장 수위를 맡고 있었다. 그 후 4년 전에 배우자가 뇌경색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아들의 공장이 망하여 공장을 떠나 다른 거주방식을 선택해야 했다. 아들의 집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 7층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 산책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엘리베이터가 있는 임대주택에 정춘자가 와상배우자와 따로 거주하고 있다.

정춘자(여성, 73세)

(어르신 몸은 어떠세요?) 위하수(胃下垂)에 걸려서 위가 답답하단 말 이야, 머리도 아프고 정신이 헹~하지 뭐. (이런 상황에서 할아버지 보살필 수 있으신가요?) 안그러면 어쩌겠어? (할아버지 보살펴줄 사람이 없나요? 아들 있지 않아요?) 아들도 다 지금 제 밥벌이하느라고. 아들 집이 7층이란 말이야. 그니까 이 영감이 그 올라 못 가고 우리 따로 이렇게 와 있지. (아들 집 엘리베이터 없어요?) 아들 집, 엘리베이터 없어. 엘리베이터 있음 일 없지. 엘리베이터 없단 말이며. (엘리베이터 있으면 아들 집에 가실건가요?) 그렇지 뭐. 아들이 자꾸 와 들여다 보지 뭐. (중략) 그래도 요기는 이렇게 엘리베이트니까. 휠체어해서 밀고 나갈 수도 있는데, 7층이니까 불편하다 말이야. 엘리베이터면 일 없는데 엘리베이터가 아니니까.

진호창의 경우에는 위해시에 이주한 초기에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주택을 구매하여 자녀와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 후 배우자의 건강이 악화되어 와상상태가 되었는데 자녀들은 맞벌이를 하고 있어 돌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호창은 아들의 제안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위해시에서 가장 좋은 양로원인 D양로원의 스위트룸에 입주하였다. 진호창은 ‘집에 가면 대책이 없다’라고 하면서 양로원의 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진호창(남성, 83세)

(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어서 입소하신 건가요?) 네, 안 사람 몸이 많이 아파서 경제 개발구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15일 정도 입원했을 거예요. 아이구, 이걸 어떡하나 그랬죠.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매일 병원으로 밥 나르기도 힘들고. 원래는 다 좋았는데 작년의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더니 양로원에 입소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다고 했죠. 양로원에 가면 내가 매일 밥 안해도 되고 이것저것 신경 안써도 되고 좋잖아요. 그랬더니 아들이 위해시에서 제일 좋은 양로원 D양로원을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먼저 와서 구경해보고 구경해보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는 스위트룸이잖아요. 이 양로원에서 제일 좋은 방이에요. 다른 방은 다 작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걸 그냥 이사하는 거라고, 새 집에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로, 거주 조건이 집보다 못지않다고 그러죠. (어르신은 여기를 집처럼 생각하시나요?) 집처럼 생각하지요. 나랑 배우자는 죽어도 여기서 죽기로 했어요.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요? 집에 가도 대책이 없어요. 여기는 2시간 마다 요양사가 와서 들여다보고 대변이랑 소변이랑 씻어주고 말려주고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대단히 규범적으로 다 돌봐주죠. 아무튼 저는 애들의 돌봄이 필요 없어요. 애들 도움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곳에 지내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청소든 뭐든 할 필요가 없어요. 빨래도 할 필요가 없어요. 빨래도 때가 되면 씻어줘요. 이곳에서 지내는 것이 집과 같아요. 집보다도 편해요. 만약 집이면 제 마누라는 진작 세상을 떴을 거예요. 애들이 수발을 한다 해도 요양사만큼 수발을 할 수 있겠어요? 애들이 다 출근하는데 어떻게 돌봐요? 할 방도가 없죠.

이처럼 자녀와의 분거상태에서 노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수발이 필요할 때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자녀가 맞벌이를 하는 등 객관적인 이유로 분거상태의 유지가 합리화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자녀와의 동거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들은 와상노인을 동거하여 돌보고자 객관적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제약을 이유로 분거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돌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관찰된다. 노인은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 앞에서 자녀와의 동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4.2.3. 주택 협소로 인한 분거 및 입소

다세대가 함께 동거할 경우 노인 부부, 성인자녀 부부, 손자(녀) 3세대가 함께 거주하게 되는데 자유, 독립,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현대인으로서 이들은 독립적인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다세대 동거형태로 가족재결합이 진행되는 경우 대부분 노인이 성인부부의 핵가족으로 들어가거나, 자녀가 노인의 핵가족으로 들어오게 되어, 핵가족을 위한 주택안에 다세대가 함께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이루어진다. 이는 1인당 주거공간을 협소하게 만듦으로써 많은 생활상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동거의 만족도를 낮춘다. 다세대 동거를 위해 다세대주택(3거실)을 마련한 한동창 가족은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 노인, 맞벌이 부부, 등교 준비하는 손자가 공동으로 하나의 화장실을 쓰는 것이 불편하다고 한다. 사별 후에 아들의 요청으로 자녀의 육아를 도우러 이주한 사회영도 이주 초반에 아들 부부, 손자와 함께 2거실의 주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주택의 협소로 인해 다시 분가하였다고 한다. 사회영은 원래 사회영이 방을 하나 쓰고 아들, 며느리와 손자 세 명이 방 하나를 쓰고 있었는데 손자가 성장함에 따라 독립적인 공부, 휴식 공간이 필요하게 되어 분가가 강제되었다고 설명한다.

사회영(여성, 61세)

(그럼 어르신도 분가하고 싶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좁아서 분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2거실은 너무 좁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사서, 개들이 분가했죠. (아드님이 분가한 원인이 집이 작기 때문이라고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집이 작으면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으신가요?) 방이 모자라요. 아이고, 손자를 봐요. 개네 셋이 침대 하나를 쓰고, 제가 저 방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지금 손자도 컸고 학교에 다니는데 손자도 자기의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아닌가요. 손자도 컸으니까 지금 아이들은 공부를 한다거나, 여러 방면에서 자신의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늘 어른과 함께 같은 방을 쓸 수는 없죠. 집은 너무 작고, 너무 좁고, 사람은 많고, 방은 작으니까 이사해야만 했죠. 다른 원인이 아니고요. 만약 집이 큰 집이고, 100평 정도에, 3거실이면 개네들도 이사를 하지 않죠.

이주지가 대도시일수록 주택가격이 높기 때문에 동거를 희망할 때 주택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경제적 원인으로 자녀가 모두 한국 나가고 1년간 고향에서 양로원 생활을 하던 오영순은 자녀들의 같이 살자는 요청으로 서울로 건너갔다. 그러나 경제력의 제한으로 마련할 수 있는 주택이 너무 협소했다. 오영순은 ‘집이 없어서 못 살겠어. 늙은이들은 다 독 칸 있고 그래야 되는데 집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라고 한다. 결국 자녀들과 3개월 살고 1인실을 제공하는 중국의 양로원으로 입소하겠다고 제기하여 위해시(아들이 위해시 근처에 집을 사놓음) 근처에 있는 양로원에 입소하였다.

오영순(여성, 81세)

한국에도 어째 있다가 왔는가 하면 가 있다 나니까 애들이 집을 차지한 게 다 단칸 작은 거란 말이야. 여기처럼 집이 크면 얼마 좋겠어. 조그마한 거 어떻게 있어. 나는 못 있겠다고. 우리 둘째 며느리가 여기 집이 있어서 여기 양로원을 알아서 소개했단 말이야. 내 소개해서 왔지. (한국에서 몇 년 살았어요?) 1년도 못 살았어. 그저 가서 동삼 지나서 왔어. 설썰에 가서 겨울 지나서 그저 왔어. 인차 왔지 뭐. (못

살겠어요?) 집이 없어서 못 살겠어. 늙은이들은 다 독 칸 있고 그래야 되는데 집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 그래 우리 아들이 ‘엄마 그럼 어디 가게’, ‘여기 양로원 건립하는 거 한 사람에 한 칸씩 주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이란다.’ 그래 오니까, 우리 둘째 네가 데려왔어, 여기로 나를. 총 책임진 게 우리 둘째요.

이처럼 주택 문제는 가족 재결합을 다시 분리로 유도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가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주택문제가 심각할 경우 다세대 가족은 결국 자녀가 분가해 나가거나 노인이 입소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동거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가족관계에서 노인이 주변화 되는 상황이 만들어 진다.

4.2.4. 독거 탈피를 위한 근거리 입소

앞서 설명한 것처럼 경제적이 있는 이주가족에서는 세대 간의 독립, 세대갈등, 주택 협소, 건강악화 등 문제들이 발생할 때 근거리 분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동거를 중단하고 근거리로 분거해 나가는 것은 가족 내의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지만 소득보장이 없는 노인들보다는 분리의 가능성을 소유하였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문제는 동거를 하던 중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분거를 선택한 노인은 건강이 악화될 경우에도 다시 동거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미 부득이한 이유로 분가한 이주노인들은 동거로 돌아가지 못하고 양로원에 입소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두 달 동안 동거하다가 자존심이 상하여 분거한 한경윤의 경우는 배우자가 사별한 후에 1년 동안 임대주택에 살다가 ‘죽어서 안에서 썩어도 누구도 모를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양로원으로 가게 되었다.

한경윤(남성, 89세)

2002년에 마누랑 둘이 왔어요. 마누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뜬 그 해가 2012년이고 그 동안 제가 마음이 많이 불안했어요. 그

라서 고향에 갔다가 이곳저곳 다니며 기분전환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
간 1년 남짓 돌아 다녔더라구요. 돌아와서는 위해에 있었어요. 셋집
에서 저 혼자 지냈어요. 1년이 안 되어 생각해보니 이러면 안 되겠
더라고요. 이 집에서 죽어도 집주인은 커녕 가족도 알지 못하고 이
방에서 썩겠다고. 이래서야 되나요? 그 뒤로 생각해 보다가 자식들한
테 말했어요, 나는 D양로원에 가야겠다고. D양로원은 설립 된 지 꽤
되고 설립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올해가 설립한지 육칠년이 된다고,
D양로원 그곳이 괜찮다고 말했어요. 마누라가 세상 뜬 이듬해 쯤에
이곳에 입소했죠. 이곳에서 몇 년 동안 잘 지냈어요.

4.2.5. 정착 실패로 인한 자녀의 재이주

일반적으로 이주자일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한 위치로 위해시에서
이상적인 직장을 구하기가 현지인보다 어렵다. 고용 업체들은 현지 방언
에 익숙하고 현지에 인맥이 있으며 안정적으로 현지에 체류하면서 장기
간 노동할 수 있는 직원을 더 선호한다. 따라서 이주자들은 대부분 서비
스업, 제조업 등 노동 강도가 높고 임금이 낮은 업종에서 취직하거나 자
영업에 종사한다. 그런데 이주자들의 취약한 직업 안정성은 또 주택 구
매의 어려움을 유발하여 이주자들의 정착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위해시
에서 오랜 기간동안 안정적인 직장과 주택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가족
재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젊은 세대들은 다시 위해시를 떠나 새
로운 이주지를 찾아가야 한다. 이럴 경우 자녀를 찾아 온 노인은 다시
돌봄 부재의 상황으로 돌아간다. 예컨대 향련귀는 국유기업 때 구조적
실업을 당하고 위해시로 온 딸이 육아 돌봄을 요청하여 위해시에 이주했
다. 그러나 딸과 사위가 사업에 실패하여 2003년부터 취직기회가 더 많
은 남방 지역으로 가버렸기에 노부부가 홀로 위해시에 남아 손자를 키웠
다. 결국 아직도 향련귀 부부는 자녀와 천리밖에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
다.

항련귀(남성, 77세)

개네들은 그곳으로 일자리 구하러(打工) 나갔어요. 예전에는 기업에서 일하면 엄청 안정적이었잖아요. 지금 하는 품팔이는 다르지요. 만날 임시 직원이고 지금의 품팔이는 죄다 임시 직원이 아닌가요? 그것도 자영업 하는 사람한테 가서 임시 직원 노릇해야 되잖아요. 여기 온 후에 개네가 자기 개인 장사도 했어요. 잘 되지가 않아서 밀렸어요. 원래는 장사가 꽤 잘 됐는데 그 해 사스 때문에 2003년인가 2004년에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장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다른 항목으로 바뀌가지고 다른 것 또 시작했어요. 개가 또 차를 하나 사가지고 광차(板斗车)를 사가지고 외지 황도(黃島, 지명) 그 곳에 가가지고 일 했어요. 결국 그것도 밀렸어요. 남은 다 돈을 버는데 개는 큰 차, 몇 십만 되는 것까지 다 때웠어요. 그럼 뭘 또 할 수 있겠어요? 장사를 하기만 하면 밀지는 게 어디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개네는 또 남방으로 가서 상해, 남경 쪽에 품팔이를 나갔어요, 아이고.

추형지도 국유기업 때 구조적 실업을 당하고 위해시로 이주한 막내아들이 불러서 위해시로 오게 됐는데 추형지도 아들이 자영업을 하기 위해 청도, 성도 등 여러 지역을 다니고 있고 며느리는 청도로 발 마사지 샵을 경영하러 가고 집에는 늘 노부부만 있다.

추형지(남성, 76세)

음식점도 해보고 민박도 해보고 발 마사지 샵도 해봤어요. 그 후에 작년에 우리 아들이 위해에 돌아와서 인테리어 하는 회사에서 일했어요. 아마 다른 사람과 동업했을 거예요. 작년에 총 18만 위안을 벌었는데 5만 위안만 받고 13만 위안은 아직까지 못 받고. 올해는 거기서 일 하지 않고 또 어디로 갔냐면 성도(成都, 지명)에 갔어요. 성도에 가서 작은 삼촌이랑 중국 철도 제35국에서 일했어요. 그 고속철도(高铁), 고속철도 선로를 건설하는 거예요. 개가 하는 부분은 전문 배수로 개발(涵洞开发) 이랑 산에 동굴을 뚫는 거예요. 지난 주에 갓 돌아왔어요. 겨울이어서 잠시 일을 쉰 것일 거예요. 며느리는 또 청도(靑島)로 갔어요. 또 자기 발 마사지 샵을 경영하러 갔어요. 아무튼 다들 밖에서 따로 떨어져 있고 지금 집에는 우리 노부부만 남아있어

요.

이처럼 젊은 층의 직업 불안정으로 인해 이주노인들은 가족과 재결합했어도 자녀가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돌봄 부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젊은 세대가 다시 이주해 갈 경우에는 위해시 보다 경제기회가 더 많은 북경, 상해 등 대도시로 가기에 노인들은 따라가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일부 자녀가 재이주해 간 이주노인들은 노후에 고향도 아니고 자녀도 없는 위해시에 남겨져서 홀로 지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4.2.6. 가족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타 가족구성원의 후속이주

본 연구에서 관찰 된 사례를 살펴보면 이주가족들은 한명의 가족구성원이나 하나의 핵가족이 먼저 이주를 한 다음에 먼저 이주를 한 사람을 중심으로 직계 가족들의 후속 이주가 이어져 점차 이주지에서 다세대 가족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관찰된다. 가족 구성원들은 날로 증가하는 가족 네트워크의 역량을 통해 서로 지원하고 의지하면서 이주지에서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해 간다. 어쩌면 새로운 도시에서 가족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정착이 공고화되어 진정 정착을 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경윤의 경우 목공인 둘째 아들이 우선 위해시로 이주하였고 그 후 변호사인 큰 아들이 동생을 따라 위해시에 와서 정착하였다. 2002년에는 둘째 아들의 요청으로 한경윤 부부가 위해시로 이주했으며 그 다음해에 한경윤의 배우자(2014년 사망)를 돌보기 위해 호사출신인 큰 딸이 위해시로 이주하였다. 결국 한경윤의 가족은 위해시에서 4쌍의 부부로 구성된 대가족을 이루었다.

한경윤(남성, 89세)

우리 큰 딸이 간호사예요. 개가 간호 대학을 졸업했어요. 개 엄마가 몸이 안 좋아 내가 위해로 왔어요. 우리 큰 딸이 이듬해에 왔거든요.

돌보려고 자기 엄마가 몸이 안 좋은 것을 아니깐. 우리 큰 딸은 효녀예요. 지금도 이쪽에서 살아요. 집도 옮겼어요. 큰 딸이 집을 이곳에 마련했지요. (그럼 지금 큰 따님도 위해에 계신 거네요?) 아직도 위해에 있어요. 계속 위해에 있죠. (중략) 나는 지금 두 아들과 딸 하나 세 아이가 이곳에 있어요.

이기에 사례의 경우 막내딸이 위해시로 먼저 이주하여 동네마켓을 꾸렸다. 그 후 농촌에서 농사짓는 형제 네 명을 위해시로 데려나와 마켓을 경영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현재 다섯 형제 모두 풍요롭게 살고 있고 중풍으로 투병 중인 이기애도 위해시로 모셔졌다. 든든한 가족 네트워크 덕분에 이기애는 16년 동안 반신불수 상태로 있었지만 자녀들의 돌봄을 받으며 건강이 호전되고 있다.

이기애(여성, 72세)의 둘째 딸:

(아주머니 형제들 중에 누가 먼저 위해에 왔나요?) 망도(望島, 지명)에 사는 여동생이요. 여동생이 오고 나서 우리 형제자매 다 데려나왔어요. 우리 막내 동생이 처음에 문등(文登, 지명)에 왔어요. 문등에 먼 친척이 있어서 처음에는 문등에 방직 기업에 있었다가 위해 시내로 왔어요. 우리 고향은 농촌이라서 일자리도 없어요. 우리 남동생이랑 자매들이랑 네 명을 우리 동생이 데리고 나왔어요. 우리 집은 농촌에 있었어요. 우리 그 쪽에는 출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우리는 다 농사꾼이에요. 이제는 위해에 와서 생활이 참 좋아졌어요. 우리 몇 집 다 살만해요. (그럼 어머니는 누가 모셔왔어요?) 왕도에 있는 막내 여동생이 모셔왔어요. 우리 엄마 모셔올 때 우리는 아직 안 왔어요. 우리 엄마가 병 든지 17년이 됐고 온지 17년 됐어요. 엄마가 이 병에 걸린지 알고 모셔왔어요. (중략) (아들도 있으시잖아요. 왜 딸이 모셔 오신거예요?) 아들도 모시죠. 우리 큰 오빠는 최근 몇 년에는 안 모셨던 거 같아요. 가까이에 안사니까. 오빠는 대련에 있어요. 대련에 있으니까. 이쪽에 형제자매가 많잖아요. 최근 몇 년에 남동생 집에서 1, 2년 있었어요. 그리고는 우리 이 몇 집에서 교대로 돌봤어요.

김영훈의 사례(남성, 74세)에서는 김영훈과 아들 2명이 1990년대에 경제적 원인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위해시에서 3쌍의 부부가 이루어진 가족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1996년에 흑룡강성 할빈시의 쌍태(雙太)라는 전자기업에서 일하던 김영훈의 두 아들이 쌍태기업의 해체로 동시에 실업하게 되었다. 실업 후 김영훈의 큰 아들이 먼저 위해시를 이주하였고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을 따라 위해시로 이주하였다. 2009년에 김영훈이 한국에 나간지 12년 되던 해에 아들들은 한국에서 일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부모님을 위해시로 모셨다. 그러나 위해시에서 아들들의 장사가 어려워지자 아들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한국에 나가게 된다. 그 후 작은 아들이 한국에서 위해시로 돌아와 아버지 김영훈과 힘을 모아 정육점을 경영하였다. 장사가 잘 되자 작은 아들은 또 큰 아들을 한국에서 불러 들여 샤브샤브 음식점을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현재 김영훈의 아들 두 명은 모두 자영업에 성공하여 위해시에서 잘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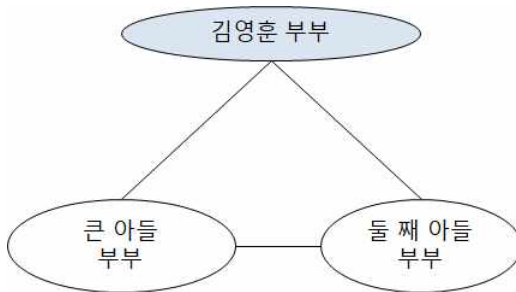
김영훈(남성, 74세)

(어르신은 어떻게 위해 오게 되셨어요?) 아버지, 엄마 고생하지 말라고, 한국에서 고생하지 말구, 자식들 하고 같이 살자고, 그래 큰 아들, 작은 아들 이래 말을 해가지고, 우리 큰 며느리하고 큰 아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데리러 왔소,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왔지. 우리 큰 아들도 여기 와서 고생했소. 그때만 해도 우리 들어오니까 무슨 뭐 그저 엄마, 아버지 벌어서 집 사준 것 뿐 이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소. 그래 뭐 와서 뭐 정말 집은 있어도... 혼자서 그저 애비, 어미 그 집을 사준 거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살았지. 돈도 저금 한 것도 없고 가난하게 살았지. 그러다 우리 큰 아들, 큰 며느리 데려온 다음에 그다음에 큰 아들이 여기서 아무 직업도 없고 하니까, 저기 채소 장사 하다가 채소 장사도 못 하구 안 되니까, 큰 며느리하고 큰 아들 하고 또 한국에 또 나갔단 말이. 부모들 여기서 데려다 놓고는 자기네 또 살겠다고 한국에 나갔지. 그래 한국에 나가서 한 3,4년 있다가 또 동생도 그때 한국에 나갔단 말이. 우리 작은 아들도 한국에 나가가지고, 한국 가서 동생 거기 정육점 그런데 출근해서 고기 파는 걸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3년

배우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3년 제절로 해봤지. 해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한국 사람도 많고 조선족도 많으니까 그때 잘 됐소. 그러니까 한국 가서 제 형 고생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 형수 하고 제 형을 오래가지고 지금 정육점하구, 샤브샤브 가게를 꾸려가지고, 우리 아들 잘 나가요,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 정말 잘 나가요. (작은 아들 잘 나가니까 형님을 부른 거네요.) 네. (그럼 이제 큰 아들이 샤브샤브 가게를 차렸을 때 작은 아들이 돈도 보태주고 도와주셨나요?) 한국에서 제 번 돈이 있단말이. 또 몇 년 번 돈 번걸 가지고 아주 작게 꾸렸지 그저 작은 거 해가지고. 그 다음 작은 아들이 샤브샤브 가게에 쓰는 기계 같은 거는 그거는 도와 줬지. 기계 같은 거 좀 준비해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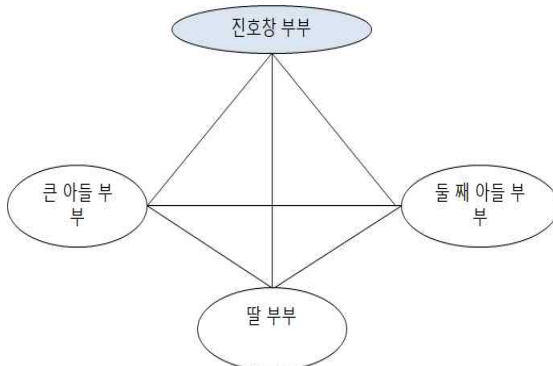
이 사례들처럼 한 쌍의 부부가 위해시로 먼저 이주하여 현재 세 쌍이상의 부부(세 쌍 포함)로 구성된 가족 네트워크를 형성한 사례가 매우 보편적이다(10사례). 가족네트워크는 규모가 클수록 정착이 확고할뿐더러 그 힘도 크고 노인돌봄이 수월해질 뿐만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발전하는데 더욱 도움이 된다. 한명의 가족 구성원이 증가할 때마다 그의 또 다른 가족과 지인들이 가족네트워크의 조력이 됨으로써 가족 네트워크의 역량은 빠르게 증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외동자녀를 가진 노인과 자녀가 조기 사망한 경우 가족네트워크를 형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족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위해시에서 세 쌍의 부부로 구성된 가족 네트워크를 구성한 사례는 총 다섯 개로 김영훈(김영훈 부부-아들 부부-아들 부부)(<그림 9> 참조), 필종구(필종구-딸 부부-딸 부부), 엽지영(영자영-딸 부부-사위의 부모부부), 강부귀(강부귀 부부-딸 부부-아들 부부), 한동창(한동창 부부-아들부부-딸 부부) 등 사례가 있다. 세 쌍의 부부로 구성된 가족 네트워크 중 네 사례가 노인과 노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지고 엽지영의 경우에는 엽지영-딸 부부-사위의 부모님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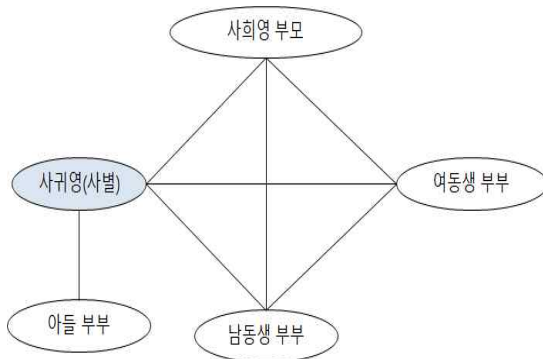
<그림 9> 김영훈의 가족 네트워크

네 쌍 이상의 부부로 구성된 가족 네트워크는 세 개 사례로 진호창(진호창 부부-아들 부부-딸 부부-아들 부부, <그림 10> 참조), 한경윤(한경윤-딸 부부-아들 부부-아들 부부), 유수지(유수지-유수지의 언니부부-딸 부부-아들부부)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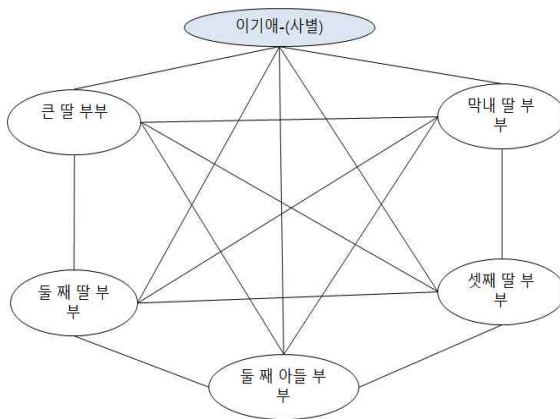


<그림 10> 진호창의 가족네트워크

다섯 쌍의 부부와 여섯 쌍의 부부로 구성된 가족 네트워크는 각각 하나로 사회영(사회영 부모-사회영-남동생 부부-여동생 부부-아들부부, <그림 11> 참조)과 이기애(이기애-딸 부부-딸 부부-아들 부부-딸 부부-딸 부부)가 있다(<그림 12> 참조).



<그림 11> 사회영의 가족 네트워크



<그림 12> 이기애의 가족네트워크

이러한 가족 네트워크의 형성은 이주가족의 정착 정도를 말해주는 지표이기도 하면서 이주가족이 새로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중국 사람들의 가족 유대의 강렬함을 대표하기도 한다. 정보 교환, 물질적 지원, 정서적 지지, 노인의 돌봄 등을 공유하는 가족네트워크는 전통적인 확대가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종합해 보면 이주가족이 가족 재결합 이후 구성하는 거주방식의 특징을 관찰 해본 결과 이주 가족의 거주방식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에 지남에 따라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 초기

에 대부분 이주가족은 경제적 조건 등 제약조건에 의해 동거를 선택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거의 고통 발생, 노인의 건강 악화, 자녀의 정착실패 등 다양한 생애사건과 가족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가족은 점차 다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때 대부분 후에 합류한 노인들이 동거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나가는데 이는 이주가족 안에서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다른 한편 노인이 가장 희망하는 가족구조는 서로 돕고 의지 할 수 있는 동시에 자유와 독립성을 향유할 수 있는 근거리 분거가족형태라는 것이 관찰되기도 한다. 장기적인 동거는 돌봄의 다소를 대표하는 지표가 아니라 신체적·경제적 조건 제약의 지표이다. 그러나 노인이 분거해 나가게 된 이유가 자발적인 선택인지에 상관없이 분거 된 후에는 사별, 건강악화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게 될 때도 다시 자녀와의 동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다른 한편 가족구성원들의 후속이주, 특히 여러 명의 자녀의 후속 이주로 확대가족 성격의 가족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경우 노인 돌봄에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인구통제정책에 나이가 젊은 노인 일수록 자녀수가 적은데다가 모든 자녀가 위해시로 이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방대한 가족네트워크를 가진 가족은 일부에만 그친다.

5. 이주 후의 상호지원관계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가족의 재결합은 주로 가족구성원의 흡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경우 가족 간의 상호지원이 가족 재결합의 목적이 된다. 따라서 가족 재결합이후 가족 구성원 간에는 매우 밀접한 상호지원관계가 만들어 지는데 노인이 비교적 건강한 시기에는 주로 노인이 아랫세대를 돕는 하향적 지원관계가 만들어지고 노인이 건강 악화로 인해 의존단계에 들어설 때에는 아랫세대가 노인을 돕는 상향적 지원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시간차를 가진 상호지원관계는 세대 간의 돌봄 교환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돌봄 교환은 평등하지는 않다. 노인이 아랫세대를 돌볼 때에는 육아와 가가 보조,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와

상 배우자 수발 전담, 자녀의 사업에 대한 노동력 보조, 가계를 위한 노후 노동 등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폭 넓게 이루어진다. 노인이 자녀에게 주는 지원들은 매우 많은 시간, 체력, 정신력을 소모하는 것으로 매우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며 노동 강도가 매우 높다. 노인들은 자녀들을 쉽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심지어 일부 노인들은 아랫세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건강과 노후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랫세대를 돕고자 한다. 그러나 노인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아랫세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돌봄은 매우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며 단일하다.

5.1. 의존 상황 발생 전 자녀에 대한 지원

5.1.1. 육아와 가사 보조

성인자녀가 맞벌이를 할 경우 일과 가사, 육아를 양립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이때 조부모는 성인자녀를 돕거나 대리부모역할을 맡아 아동을 돌본다. 즉 핵가족의 지원체제로서 조부모가 제1양육자 역할을 맡아 아동 돌봄에 큰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성인자녀와 노인이 동거할 경우 가족 내의 역할 분업으로 대부분 성인자녀가 맞벌이를 하고 노인부부가 가사와 육아를 거의 전담한다.

최근 주택의 문제나 세대 간 독립으로 인해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가 맞벌이를 할 경우에 노인들은 자녀의 근처에 살면서 자녀에게 식사준비를 해주거나,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학교에서 데려오는 일을 도와준다. 이러한 상호지원을 위해 자녀나 노인이 주택을 마련할 때 지리적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예컨대 사회영의 경우 위해시로 이주하여 자녀와 동거했을 때 매일 6시간씩 음식점에서 일하면서도 가족의 식사준비와 가사, 아이를 학교에서 데려오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 후 손자가 성장하면서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여 아들이 분가 할 때도 손자의 돌봄을 고려하여 사회영의 거처와 매우 가까운 곳에 주택을 마련하였다. 현재

사회영은 동거할 때와 마찬가지로 3시쯤에 퇴근하여 아이를 학교에서 데려오고 식사준비를 한다. 아들과 며느리는 약 6시쯤에 퇴근하여 사회영의 집을 들러 저녁식사를 하고 아이를 데려간다.

사회영(여성, 61세)

애들은 둘 다 출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젊은이들도 생활해야 하잖아요? 애가 학교 끝나면 데려올 사람이 없어요. 데려오지를 못해요. 퇴근이 둘 다 늦어서. 꼭 누가 데려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애는 3시 30분에 수업이 끝나요. 지금은 4시 30분이고 겨울에는 3시 30분에요. 아들 며느리 퇴근은 5시 30분에서 6시, 퇴근이 늦어요. 지금 손자가 8살인데 혼자 다닐 수는 없잖아요. (중략) 아들, 며느리는 매번 퇴근하면 우리 집에 들러 저녁 먹은 다음에 운전해서 집에 가요. 아주 편리해요. (그리고 아이를 다시 데려가나요?) 저녁을 먹고는 함께 집에 가죠. 아이를 데려가죠. (아침은요?) 아침엔 아들이 직접 차로 데려다 줘요. 지금은 제가 데려다주지 않아도 되요.

진향웅의 경우에는 위해시의 은탄(銀灘, 지명)에서 3세대가 함께 살다가 동거의 불편함을 느끼고 진향웅 부부가 딸에게 위해시의 환취구(環翠區, 지명)에 주택을 사줘서 분가시켰다. 그 후 환취구로 이사한 자녀의 육아를 도와주기 위하여 자녀의 집 근처에 다시 노부부가 살 주택을 구매하여 이사하였다. 현재 진향웅 부부는 맛벌이를 하는 자녀를 도와 매일 외손자를 학교에서 데려와서 식사를 챙겨주고 저녁에는 다시 딸 네 집에 데려다 준다.

진향웅(남성, 65세)

(집 살 때 일부러 아이들이랑 가까운데 샀나요?) 네, 네, 네. (왜 꼭 가까운데 사려 하셨나요?) 편리하잖아요, 애기 데려다 주기가. (손자는 지금까지 두 분이 학교에 데려가고 하셨나요?) 네. (그럼 점심 식사는요?) 그것도 해줘야죠. (그럼 밤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나요?) 저녁에는 제 집에 데려다 줘야 해요.

진항웅처럼 근처에 거주하면서 성인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현상은 이주노인들 속에서 매우 보편적이다(<표 13> 참조). 대부분의 이주 노인들은 자녀에 대한 애정으로 자발적으로 성인자녀의 돌봄에 참여한다. 돈독한 조손관계는 가족의 결속력을 증가시키고 가족원의 정체감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은 손자손녀를 통해 생의 연속성을 느끼고 손자손녀를 가르치는 것을 통해 생의 성취감, 생산감, 의미를 획득할 수도 있다(이미숙·조병은·강란혜, 2004; 조병은, 2007).

<표 13> 노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한 돌봄

번호	이름	출신	거주형태	돌봄 지원
1	엽지영	도시	동거→입소	동거 시 가사지원
4	한옥지	도시	동거→입소	동거 시 가사 지원, 육아지원
5	한경운	도시	동거→분거→입소	와상 배우자 돌봄 전담
7	항현귀	도시	동거→자녀 재이주	동거 시 가사 지원, 육아지원
8	추형지	도시	동거→자녀 재이주	동거 시 가사 지원, 육아지원
9	가추분	도시	분거	손자 양육 전담
10	진항웅	도시	동거→분거	육아 지원
11	정옥희	도시	분거	손자 양육 전담
12	사회영	도시	동거→분거	가사, 육아 지원
14	노자향	도시	동거→분거	가사, 육아 지원
15	오충진	도시	분거	가사, 육아 지원
16	풍학귀	도시	분거	와상 배우자 돌봄 전담
17	장만향	도시	분거	손녀 양육 전담(큰 딸의 아이), 작은 딸에게 식사 제공
18	장홍인	도시	동거→분거	가사, 육아 지원
19	왕학택	농촌	동거	가사, 육아 지원
20	손건무	농촌	동거	가사, 육아 지원
22	한동창	농촌	동거	가사, 육아 지원
23	강부귀	농촌	분거	가사, 육아지원
24	이기에	농촌	동거	가사 지원
25	김영훈	농촌	분거	자녀 장사 도와줌
26	정춘자	농촌	동거→분거	와상 배우자 돌봄 전담

그러나 일부 사례들에서는 성인자녀를 돌보고 육아를 돕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강제된 노동으로 노인에게 많은 양육부담과 고통을 준다는 것이 발견된다. 고향에 있을 때 작은 아들의 아이를 돌보주고 18세까지 교육비를 대주다가 현재 큰 아들의 아이를 키워주고 있는 가추분은 아이를 보는 것이 ‘질리고 질린 일’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추분은 매일 며느리에게 저녁식사 준비를 해줄 뿐만 아니라 회사의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아들, 며느리 대신 손자가 다니는 학교 옆의 지하방을 임대하여 손자를 돌봐주고 있다. 가추분은 작은 아들이 이혼한 경험에 비추어 ‘애 보는 것도 진짜 질리고 질려도 방법이 없어요. 힘들어 늘어지죠’, 그래도 ‘지금 젊은 사람들 좀 봐요. 아들 며느리 이혼 하는 것도 그렇게 많고 이런 일 저런 일 만들어 내는데, 우리가 양보 안하면 어찌겠어요?’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손자를 키워주면서 버티고 있다.

가추분(여성, 67세)

힘들어도 어쩔 수 없지 뭐. 둘 다 몸도 건강한데 애들을 안도와주면 어떡해. 지금 젊은 사람들 좀 봐요. 아들 며느리 이혼 하는 것도 그렇게 많고 이런 일 저런 일 만들어 내는데 우리가 양보안하면 어찌겠어요. 그때 가서 이혼해서 애를 우리한테 던져놓으면 어떡해요. 애가 엄마 아빠도 없고 안 그래요? 내가 힘들어도, 만날 힘들어도 그래도 봐줘야 돼요. 억지로 버티고 봐줘야 돼요. 왜 안 힘들겠어요. 애들은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아이구 말도 마세요. 얼마나 분주한지, 애 보는 것도 진짜 질리고 질려도 방법이 없어요. 힘들어 늘어지죠.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와 아들, 며느리와 함께 다세대주택을 구매하여 살고 있는 한동창의 경우에도 한동창과 배우자는 동거의 화목을 위해 항상 더 많이 양보한다. 한동창은 배우자가 ‘손자와 며느리를 중심’으로 생활한다고 말한다. 한동창의 배우자는 매일 12시간 음식점에서 일할 때도 매일 4, 5시에 일어나 맛별이하는 아들, 며느리에게 아침식사를 준비해주었다. 식사 준비할 때도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만들고

가사도 전담한다.

한동창(남성, 61세)

제 마누라는 밥상을 차릴 때 항상 물어요. 너희들 뭘 먹고 싶냐? 특히는 손자에게 물어보죠. 그리고는 따로 애한테 만들어 먹이지요. 감자전을 부친다거나 지지거나 하지요. (손자가 중심이네요.) 당연하죠. 손자와 며느리가 중심이죠. ㅎㅎ. 안 그러면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다들 이러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며느리와 딸은 다르니까요. (그렇다면 어르신이랑 배우자님은 가족의 화목을 위해 희생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네. 네. 네. 특히 우리 마누라는 한 치의 원망도 없어요. ㅎㅎ. 애들만 좋아하면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대요. 우리 마누라가 음식점에서 서빙 할 때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해도 아침 4시, 5시에 일어나서 아들, 며느리한테 밥 해줬어요. 6시에 깨워서 밥 먹이고, 만날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빠짐없이 해줬어요.

한동창은 자기의 가족은 동거하고 있지만 매우 화목하다고 한다. 가족이 동거하면서도 화목할 수 있는 비법은 ‘서로 양보하는 것’, ‘며느리를 받들어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가사도 며느리한테 시키는 것보다 ‘늙은이가 더 많이 하면 모순이 없다’고 한다.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한 가족 전략으로서 노인이 더 많이 헌신하고 있는 것이다.

한동창(남성, 61세)

(어르신의 이 화목의 비법은 무엇인가요?) 비법은 뭐가 있겠어요. 서로 양보하는 것이지요. 늙은이로서 자녀들한테 늘 이 트집 저 트집을 잡으면 안 되죠. 며느리는 필경 며느리이니까. 우리가 받들어 주고 달래면서 일을 하게 해야 되죠. 그래야 가정이 유지가 되지요. 노인이 늘 트집을 잡아 봐요. 며느리도 답답할 것이고 아들과도 자주 다투겠죠. 아닌가요? 인과관계가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묵묵히 가사를 더 많이 하고 며느리더러 적게 하게 하면 나이가 많은데도 이렇게 가사를 하는 것을 보면 며느리도 마음에 미안함을 느끼게 되고 늙은이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하지 못하게 되지요. 여하튼 우리 부부는 집에

있으면 대체로 가사를 더 많이 해요. 이런 건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중요한 건 가정화목이지요.

사회영의 경우에는 아들이 육아 돌봄을 위해 사회영의 이주를 요청했을 때 매우 달갑게 이주를 하였고, 그 후 주택의 협소함으로 인해 자녀가 다시 근처로 분가했을 때도 손자의 등교, 방과 배웅과 저녁 식사를 적극 지원했다. 사회영은 ‘젊은 애들이 당신더러 애 마중 다녀라는데 거절 해봐요. 그럼 이후에…’이라고 하면서 현재의 육아지원이 향후 자녀로부터 오는 있는 노후 돌봄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자녀에 대한 육아 돌봄이 노후를 위한 투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영(여성, 61세)

(아이를 돌봐주지 않으려는 어르신들도 계시죠.)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거절하나요. 대부분 기꺼이 승낙하지요. 지금은 다들 애가 하나 뿐이 아닌가요. 젊은 애들이 당신더러 애를 마중 다녀라는데 거절 해봐요. 그럼 이후에…아닌가요? 아들이 하나뿐인데 거절 못하지요. 아닌가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래도 개를 의지해야 되는데, 아닌가요? 이것은 임무지요. 꼭 해야 되는 거로 의무지요. 지금 노인들은 다 이렇게 살죠 뭐.

이처럼 이주가족의 경우 자녀는 맞벌이를 통해 생산부분에 종사하고 노인이 동거하거나 근처에 살면서 육아를 돕고 있다. 결국 세대 간의 분업을 통해 육아는 노부모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부모가 제공하는 가사와 육아의 돌봄은 자녀의 맞벌이에 대한 부모의 배려로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의 핵가족의 화목과 자녀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강제 노동의 성격도 갖는다. 또한 현재의 가사, 육아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자녀의 부양 보답을 기대하는 측면도 있다.

5.1.2.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개혁개방이후 시장경제의 도입과 함께 일자리, 주택, 의료 등 계획경제 시기 국가와 집체가 개인에게 분배했던 복지재들이 시장경쟁을 통해 획득해야 함에 따라 젊은 층들은 삶을 영유해나갈 자원을 구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많은 젊은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게 되면서 ‘노부모를 갇아 먹는(啃老, 켁거루족)’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사회에서 젊은 층이 노부모를 갇아 먹는 현상은 특히 결혼식을 하거나 결혼용 주택을 구매할 때 많이 발생한다. 결혼 시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는 중국사회의 보편적 인식으로 인해 결혼 적령기에 있는 젊은이들은 대부분 주택 보유 압력을 가지고 있으나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스스로 주택을 구매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결혼 준비를 앞둔 자녀에게 부득이하게 노인이 거액의 주택 구매를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보편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위해시의 호구제도상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호구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주자일 경우 새로운 지역에서 정착하고자 할 때 가급적 주택을 구매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성인자녀가 스스로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부재할 경우 자녀들의 결혼과 정착을 돕기 위해 노인이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유수지, 추형지, 진항웅, 사회영, 한동창, 강부귀, 왕다력, 김영훈 등 8사례가 자녀의 주택구매에 거액의 지원금을 제공한 경우이다(<표 14> 참조).

<표 14> 노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

번호	이름	출신	지원 상황	현재 생활수 준
1	엄지영	도시	딸 결혼 50만 위안(주택 대신)	고
7	유수지	도시	큰 아들에게 주택 사줌	고
8	추형지	도시	아들 주택 구매 7만 위안	중
9	가추분	도시	큰 손자 교육비 전담, 작은 손자 소비 상시 지원	하
10	진항웅	도시	딸의 주택 구매, 20만 위안	중
11	정옥희	도시	손자 양육비 전담	중
12	사회영	도시	아들에게 주택 사줌. 새 집 인테리어시 지원 2만 위안	중
18	장홍인	도시	아들 사업 투자 10만 위안	중
20	손건무	농촌	둘째 딸의 의료비 18만 위안	하
21	왕다력	농촌	큰 아들의료비 20만, 작은 아들 주택 구매 10만 위안	하
22	한동창	농촌	다세대주택구매에 평생 저축 소모	하
23	강부귀	농촌	아들 주택 구매 2-3만 위안	하
25	김영훈	농촌	큰 아들, 작은 아들 주택 하나씩 사줌	중

그러나 노인이 자녀에게 주택을 사줄 때는 단지 자녀에 대한 애정에 기인한 것만은 아니다. 노인들은 자녀들에게 주택을 사줄 때 노후에 자녀에게 의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녀도 노인들의 노후 준비나 노후 비상금이 될 수 있는 거액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노인의 노후에 대한 책임감도 더욱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자녀를 위한 주택구매에는 암묵적인 노후 돌봄 계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김영훈(남성, 74세)

난 자식들하고 같이 있자고 사줬지. 자식 있게 되면, 내가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일체 자식을 위한단 말이.

추형지(남성, 76세)

아무튼 저의 돈은 어떻냐면요. 저축해 놓고 급히 쓸데가 있으면 꺼내 놓아요. 아들이 작년에 이 집을 사는데 돈을 보태줬어요. (중략) 제가 첫 두해에 저축한 7만 위안을 내줬어요. 비상금으로 저축한 거죠.

자녀가 딸일 경우에는 결혼하는 남자 측에서 주택을 제공하고 주택의 인테리어와 가구, 전자제품의 구매를 여자 측에서 전담하는 위해시의 토종 풍습에 따라, 주택 대신 신혼집의 인테리어와 가구, 전자제품, 혼수금을 지원해주는 사례도 있었다. 예컨대 엽지영은 위해시의 결혼 풍습에 따라 딸의 신혼집에 약 10만의 고급가구와 전자제품으로 채워주고 40만원의 거액의 혼수금을 지원해줬다.

엽지영(여성, 65세)

(따님이 결혼하실 때 어르신께서 혼수금을 지원해주셨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지원해주셨나요?) 40만 위안이요. (거액이네요. 따님한테 주택을 마련해주신 건가요?) 40만뿐만 아니에요. 40만 현금에, 그리고요. 위해사람들이 하는 말이 남자 측에서는 주택만 구입하고 그 안의 물건들은 죄다 여자 측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이러한 풍습이 있나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집은 남자 측이 구매하고 가구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여자 측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나! 모든 가구, 침대랑 젓가락 한 개라도. 빗자루 하나까지요. 그래서 여기에도 돈이 많이 들었어요. 게다가 개네들의 전자제품도 모두 고급적인 것으로 했어요. 전자레인지도 무슨 브랜드를 사겠냐. 에어컨은 무슨 브랜드를 사겠냐... (모두 어르신께서 장만해주신 건가요?) 모두요. 모든 것을 다 제가 사줬어요. (그럼 이 부분은 얼마 들었나요?) 아마 10만은 넘었을 거예요. 내 생각엔. 맞아요. 10만이 들어갔을 거예요. (중략) 저도 제 노후는 생각해야죠. 근데 어차피 나중에도 개한테 줘야 되지 않나요. 내가 다 쓸 수가 없는데. 매달 퇴직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다가 저축도 있고. 내가 다 쓸 수가 있나요? 내가 쓸 수 없으니 주는 거죠.

인터뷰 과정 중에 엽지영처럼 ‘노인이 얼마나 소비하겠는가, 내가 죽으

면 다 자녀 것이 아닌가?’이라는 관점을 가진 노인들이 매우 보편적이었다. 이는 중국 노인이 망설임 없이 자녀에게 거액을 지원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주택 구매 이외에 노인들은 상황에 따라 성인자녀에게 사업 투자금, 손자(녀) 양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활발한 경제적 지원은 가족 간의 친밀감을 설명하고 있는 한편 자원이 부족한 자녀들의 노동시장과 결혼 시장에서의 경쟁에 노부모가 말려들어 강요된 부분도 없지 않다. 또한 노인이 자녀에게 거액의 경제적 지원을 할 때 노후에 자녀를 의지하겠다는 암묵적인 돌봄 계약 하에 자신의 노후 준비를 희생하는 측면도 있다.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거액을 지원한 8명의 노인 중에 단 2명이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이라는 점을 유의해보면 중, 하층 경제수준의 노인은 노후자원을 자신의 노후 삶의 질을 희생하여 자녀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효 규범과 가족주의 등 전통적인 규범들의 구속력이 약화되고 실질적으로 자녀의 돌봄 행위를 통제할 수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노인들이 자신의 노후 준비 기회를 자녀의 생존과 발전 기회로 바꿨을 때 과연 자녀로부터 노후 돌봄을 보장 받을 수 있을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된다.

5.1.3. 와상 배우자 수발 전담

노년기의 배우자는 동반자이자 최우선의 가족부양자로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이혜자, 김윤정, 2004:208). 최근 자녀에 대한 동거희망과 부양기대가 저조해지면서 항상 가까이에서 도구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자로서 배우자의 중요성이 한층 더 증가하고 있다. 노년기 부부는 애정과 우정,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된다. 젊어서 남편과 부인으로서의 상호 도구적 역할로부터 노년에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관계의 심화에 이르게 된다. 사회와 일에서 은퇴하고 자녀 양육에서까지 물러선 노년기 부부는 배우자에게 정서적·심리적으로 한층 더 의존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배우자와

같이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부부간의 동반감이 더욱 증대한다고 한다(홍숙자, 2010:140). 또한 건강을 상실할 때 배우자가 일차적 가족부양자로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와상 노인이 발견된 사례는 진호창 사례, 풍학귀 사례, 정춘자 사례로 총 세 개 사례가 있는데 세 사례 전부 와상 노인의 주요 돌봄자는 배우자였다. 그러나 연로한 장기적인 수발자는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인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정춘자와 풍학귀는 와상 배우자와 둘이서 살면서 전일제로 와상 노인의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 정춘자의 경우 아들이 불러 위해시로 이주한 후 배우자와 함께 공장을 경영하는 아들의 일손을 도우면서 살아왔다. 4년 전에 배우자가 뇌경색으로 반신불수 상태가 되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의 7층에 사는 아들 집에서는 배우자 산책이 불편하여 정춘자가 임대주택에서 따로 살면서 와상배우자를 돌보고 있다. 현재 73세인 정춘자는 건강상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어서 와상배우자 돌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춘자(여성, 73세)

(어르신 몸은 어떠세요?) 위하수(胃下垂)에 걸려서 위가 답답하단 말 이야, 머리도 아프고 정신이 험~하지똥. (이런 상황에서 할아버지 보살필 수 있으신가요?) 안그러면 어쩌겠어? (할아버지 보살펴줄 사람이 없나요? 아들 있지 않아요?) 아들도 다 지금 제 밥벌이하느라고. 아들 집이 7층이란 말이야. 그니까 이 영감이 그 올라 못 가고 우리 따로 이렇게 와 있지. (아들 집 엘리베이터 없어요?) 아들 집, 엘리베이터 없어. 엘리베이터 있음 일 없지. 엘리베이터 없단 말이어. (엘리베이터 있으면 아들 집에 가실건가요?) 그렇지 뭘. 아들이 자꾸 와 들여다 보지똥. (중략) 그래도 요기는 이렇게 엘리베이트니까. 휠체어 해서 밀고 나갈 수도 있는데, 7층이니까 불편하다 말이야. 엘리베이터면 일 없는데 엘리베이터가 아니니까.

정춘자는 농민 출신으로 노후 소득이 없고 배우자는 매월 3000위안의 양로수당이 있다. 생활비와 주택 임대비는 아들이 납부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아들들이 ‘보태주고’ 아들과 며느리도 ‘자주 들여다본다’고 한다.

며느리(53세)는 현재 자기 집에 와 있는 외손자를 봐주느라고 ‘꿈쩍 못하고 묶여있다’고 한다. 결국 배우자 돌봄은 정춘자가 거의 전담하고 있다.

산서성 대동시(山西省大同市)에서 공기오염을 피해 위해시로 이주한 풍학귀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양로수당(합계 약 8000위안)이 있기에 경제적으로 자녀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한다. 현재 반신불수로 와 상상체인 배우자를 풍학귀는 집에서 홀로 돌본다. 세수, 목욕, 화장실 가기, 식사 등 배우자의 모든 돌봄을 풍학귀가 해야 하기 때문에 풍학귀의 삶은 완전 배우자 돌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풍학귀(남성, 68세)

(어르신께서 매일 부인을 돌보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돌봄 방식이신가요?) 돌봄 방식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누라한테 옷을 입히고 세수 시키고 화장실 가는 거 도와주지요. 식사를 마치고 TV를 좀 보다 그다음에 장 보러 가요. 마누라가 만약 아침 6시에 화장실을 갔으면 아침에 아침시장에 가서 장을 봐요. 마누라가 자고 있으면 그럼 방법이 없죠. 마누라를 기다려야 해요. 감히 나가지 못해요. 나간 후에 소변을 이불에 해버리면 어떡해요. 자기가 침대에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요. 이때는 이제 작은 마트에서 장을 봐요. 매일 이러하지요. 지금 마누라가 자고 있잖아요. 2시반, 3시에 일어나서 3시가 조금 넘으면 일어나 TV를 봐요. 과일을 좀 먹여주고, 저녁에 또 수박을 좀 먹이죠. 저녁은 보통 적게 먹어요. 많이 먹으면 안 되요. 오후에는 과일 위주로 먹어요. 매일 한 그릇 수박, 무화과, 여하튼 과일마다 철이면 어김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냉장고 안에 복숭아, 배 뭐든 다 있어요. 1주일에 2번 목욕을 하죠. 반드시 깨끗하도록 하여야 욕창이 쉽게 생기지 않지요. 마누리가 뒤척이질 못하니, 뒤척이지 못하고 늘 침대에 몸을 붙이고 있어요. 제가 기저귀형 매트를 구매했어요. 큰 매트를 구매했어요. 이불에 소변을 볼까봐. 지금 그 침대매트가 2000위안 정도 해요. 태국의 매트인데 마누리가 매트에서 아주 편안히 잠을 자요. 근데 너무 더워서 반드시 옷을 자주 갈아입히고 목욕을 자주 시켜 땀이 나지 않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요. 욕창은 생기기만 하면 잘 낫지 않으니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장남으로서 아버지, 어머니를 직접 수발한 경험이 있고 6년간 군인 생활로 평생 규칙적인 삶을 살아오던 풍학귀는 아직 비교적 건강한 편이기에 배우자를 수발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 풍학귀는 두 사람의 양로수당으로 2, 3개월에 한 번씩 반신불수 된 배우자를 휠체어에 앉혀서 여행도 다닌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풍학귀도 점점 연로해지면서 배우자 돌봄이 날로 힘들어지고 있지만 ‘지금은 계속 이렇게 견지, 견지, 견지해서 10년, 20년 견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 때 풍학귀 혼자서 아버지, 어머니와 배우자 세 명의 와상 상태인 가족을 돌볼 때 아들을 불러 오기도 했지만 고부갈등도 나타나고 아들 부부가 수발에 묶여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결국 배우자의 돌봄은 아직도 전적으로 풍학귀가 전담하고 있다.

풍학귀(남성, 68세)

(어르신은 자녀분들은 병수발을 도와주러 오지 않으세요?) 아이고, 그들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기를 먹여 살리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안되면 제가 그들까지 부담 해야지요. 예전에 와서 여기서 1년 조금 넘게 있었어요. 안돼요. 중국은 고부갈등이 심해요. 입으론 말하지 않지만 여전히 갈등이 있어요. (아드님은 이곳에서 직장을 다시셨던 건가요?) 아니요. 개가 휴가를 내고 무급휴직 했어요. 여기서 1년 넘게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금방 여기로 이사했잖아요. 어머님을 홀로 두면 안 되니까 어머님도 모시고 있었어요. 아들이 와서 1년은 안 되고 아마 10개월 정도 있다가 갔어요. 와서 안 되니까 아들이 ‘너무 힘들어 안 되겠어요.’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 되면 집으로 가거라.’ 아들이 그 당시 아직 서른이 조금 넘은 나이니까 나가 놓고 구경 다닐 생각만 해요. 어린 손녀도 놀고 싶어 하죠. 일요일만 되면 놀러 나갈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때는 나가지 못하게 집에서 저를 돕도록 했어요. 정말 안되니까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젊은이더라 늙은이 수발을 들게 하면 못해요. 힘들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사실은 너무 힘든 것도 아닌데 너무 시간이 드니까 견디지를 못하죠.

이처럼 성인자녀들이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인들이 배우자 수발을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노 케어는 수발자인 노인이 매우 건강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일부 경제조건이 좋은 노인들은 와상 배우자와 함께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의 도움을 받으면서 배우자를 돌보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진호창 부부는 위해시에 이주한 후에 자녀와 동거할 경우 ‘서로 불편하다’고 주택을 구매하여 배우자와 따로 살았다. 후에 배우자의 건강이 악화되자 아들이 위해사에서 가장 좋은 양로원에 입소할 것을 제안하였다. 진호창은 매우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이고 배우자를 데리고 스위트룸으로 입주했다. 진호창은 매일 신체 단련하는 시간 외의 모든 시간을 배우자 옆에 있어주면서 식사와 약을 챙겨 준다. 83세인 진호창이 감당하기 어려운 청소, 배우자의 위생관리 등은 요양사가 맡는다. 진호창은 요양원을 ‘집’처럼 생각하고 배우자 돌봄에 요양사와 자기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진호창은 ‘애들 도움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곳에 지내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자녀가 돌봤더라면 배우자가 ‘진작 세상을 떴을 거예요’라고 말한다. 진호창은 자녀가 출근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돌보기도 어렵다기도 하지만 자녀가 돌볼 수 있다고 해도 자녀의 돌봄이 기술적으로 전문 지식을 가진 요양사보다 못할뿐더러 요양사처럼 ‘꼼꼼하게’ 정성들여 돌보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진호창(남성, 83세)

집처럼 생각하지요. 나랑 배우자는 죽어도 여기서 죽기로 했어요.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요? 집에 가도 대책이 없어요. 여기는 2시간 마다 요양사가 와서 들여다 보고 대변이랑 소변이랑 씻어주고 말려주고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대단히 규범적으로 다 돌봐주죠. 아무튼 저는 애들의 돌봄이 필요 없어요. 애들 도움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곳에 지내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청소든 뭐든 할 필요가 없어요. 빨래도 할 필요가 없어요. 빨래도 때가 되면 씻어 줘요. 이곳에서 지내는 것이 집과 같아요. 집보다도 편해요. 만약 집이면 제 마누라는 진작 세상을 떴을 거예요. 애들이 수발을 한다 해

도 요양사만큼 수발을 할 수 있겠어요? 애들이 다 출근하는데 어떻게 돌봐요? 할 방도가 없죠.

이처럼 젊은 세대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는 노인 돌봄 수요가 자녀의 맞벌이 중단이유나 자녀들의 삶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노인이 와상 배우자 돌봄을 전담하는 노-노 케어 방식이 위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노-노 케어는 성인자녀에게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정신력을 제공하지만 노인에게, 특히 사회적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된다.

5.1.4. 자녀의 사업에 대한 노동력 지원

노인들은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가사, 육아와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자녀가 자영업할 경우에는 자녀들의 사업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노후 삶의 가치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새로운 지역에서 자영업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노인들이 제공하는 무상노동은 소중한 자원이기도 하다. 예컨대 정춘자(여성, 73세)와 배우자는 아들이 가까이에서 모시겠다고 하여 위해시로 이주한 후 아들과 1년 정도 동거하다가 아들이 교외에 모래 공장을 경영하자 아들의 인건비를 줄여주기 위해 7, 8년 동안 공장 옆에 셋집을 맡아 살면서 공장 보안을 맡아줬다. 74세 고령인 김영훈은 아들과 따로 살지만 매일 풀타임으로 아들 내외가 경영하는 정육점에 나가서 일손을 돕고 있다. 노인들은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자신의 가치 실현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춘자(여성, 73세)

(근데 일 도와주러 가고 싶으셨나요?) 가고 싶었지 뭐. 그렇잖으면 우리 영감 노친 뭐하겠어.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그렇지 않으면 문 지키는 사람 또 대신 봉급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겠다고 했지. 우리 영감, 노친이. 거기 가면 공장 돌아가

지 식당 있지 한니까 해준 밥 먹고 그저 그 집에서 그냥 자면 되는데 뭐. 큰 부담도 없었던 말이야. 불편한 것도 없이. 이제 공장 남한테다 임대하니까 남이니까 우리가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 작년 10월에 우린 다시 여기로 왔단 말이야.

김영훈(남성, 74세)

(그러면 위해시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아들들 기업하는데 거기서 계속 있었지, 작은 아들하고 같이. 작은 아들도 한국에서 3년 동안 정육점, 그 고기하는 기술 배워 와가지고 그래 여기서 정육점 꾸려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했소. 우리는 그냥 있고, 아들은 아들대로 살고. (집은 따로 살고 같은 정육점 꾸려요?) 예, 내가 방조해 주지 뭐, 아들 거를 방조해 주지 뭐. (지금도 아직 일하고 계시네요. 그럼 아들이랑 같이 하면 봉급 받으시나요?) 안줘요. 줘도 안 받지만은. 또 며느리가 뜨문뜨문 있잖아요, 아버지 용돈 하세요. 그러면서 며느리 용돈 주지 뭐.

5.1.5. 가계를 위한 노후 노동

중국에서 대부분 농촌 노인들은 노후에도 몸이 허락할 때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간다. 반면 도시에서는 노인 노동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에서 거주하는 대부분 중국노인들은 노후노동에 종사하지 않는다(中國老齡科學研中心, 2010:342).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표집된 이주노인들의 노후 노동 참여율은 상당히 높았다. 도시에서 노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노동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의 수위, 도로 청결, 환경 미화, 음식점 서빙 등 단순노무직이고 봉급도 약 1500-1800로 낮은 편이지만 이주노인들은 ‘놀이보다는 일 한다’, ‘운동 삼아 일 한다’라는 생각으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다. 노후 노동은 대부분 비교적 젊고 건강할 때에 진행하는데 현재 60대인 오충현(남성, 62세)과 장홍인 사례(남성, 63세)은 아파트단지의 수위실에서 일하고 사회영(남성, 61세)은 음식점에서 하루에 6시간 서빙을 한다. 일부 현재 70세 이상인 노인들도 지금은

쉬고 있지만 노년 초기에는 은퇴 전에 했던 직종을 이어 가치 실현을 위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고등학교 특급 교사였던 진호창은 은퇴 후에 민영대학에서 70세까지 교사로 활동했고, 도로 공정에 종사했던 한경윤은 은퇴 후 72세까지 민영기업에서 도로 공정 감독 일을 했다.

일부 이주노인의 경우 본인이나 자녀의 소득문제, 주택문제, 노후준비 등 경제적 압력으로 가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후 노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농촌에서 위해시로 이주해서 다세대 주택을 구매한 빗을 1년 내에 갚았던 한동창(남성, 61세)과 그의 배우자는 도로청결과 식당 서빙 일을 했고 아들의 주택구매와 종양제거 수술에 거액을 지원한 왕다력(남성, 63세)과 그의 배우자는 현재 도로청결 일을 하고 있으며, 농촌 출신으로 양로수당이 없는 강부귀(남성, 66세)는 노후에 자녀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자 도로청결 일을 하고 있다. 이주 전에는 이혼하고 홀로 사는 둘째 아들의 아이의 교육비를 전적으로 지원했고 이주 이후에는 큰 아들의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 가추분(여성, 67세)은 화장실 위생청결 일을 하고 있다.

가추분(여성, 67세)

처음에는 아들이 계속 내가 일하러 오는 것을 반대했어요. ‘한평생 일 하고는 또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죠. ‘집에만 있으니까 갑갑하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벌어야지. 지금 우리는 집도 마련해야 하고 아이가 학교 다니는데 다 돈이 들지 않냐?’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정 일 나가기를 원하면 일 나가 보세요. 아빠더러 아이를 배웅 다니게 하죠.’ 실은 아들은 개 아빠가 애를 돌보는 것을 믿지 못해 해요. ‘정 원하면 일 나가세요. 아빠더러 애를 돌보게 하세요. 아이를 데려가고 데려오고 할 때 아빠더러 오가는 차들을 잘 살펴 피고 조심하시라고 하세요.’ 그러죠. (결국 어르신이 지금도 일하는 거는 돈 쓸 일이 많이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가계의 경제적 압력으로 인해 하는 단순 노무직 노후 노동은 본인이

원해서 행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 제약에 있기에 여전히 ‘반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노인의 가치실현보다는 행복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가추분 같은 경우에는 노부부 두 명이 매월 4000위안 이상의 양로수당이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지만 아들 대신 손자를 키우면서 지출이 많았고 아들의 주택 구매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 스스로 경제적 압력을 느끼는 사례이다. 아들의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한동창, 노후에 자녀의 부담을 들어주고자하는 강부귀, 아들 두 명을 위해 주택을 사준 왕다력, 이들의 노후노동은 자녀의 경제적 상황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노인의 경제적 압력은 노인의 스스로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2. 의존 상황 발생 후 부모에 대한 지원

5.2.1. 소득원이 없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노인에게 있어서 독립은 곧 존엄과 자유이기 때문에 노인들은 최대한 경제적·신체적 독립을 추구한다. 경쟁사회에 생존하는 자녀들의 힘든 삶에 부담이 아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노인들이기에 더욱 경제적·신체적 독립을 원한다. 본 연구의 30명 이주노인들 중 반수 이상이 경제적으로 자녀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원을 가지고 있다. 도시 출신 노인의 경우 전수가 월 2000위안 이상의 양로수당을 가지고 있고 농촌 출신 노인의 경우 대부분 1500-2000위안 사이의 노동소득이 있다. 본 연구에서 소득원이 없어 전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는 사례는 8개로 주로 농촌 출신 노인들에게 집중된다. 예컨대 농촌 출신이면서 16년간 반신불수로 살아가는 이기애(여성, 72세), 농촌 출신이고 둘째딸의 폐암치료로 평생 저축을 소진했으며 현재 건강악화로 홀로 농촌에서 살아갈 수 없어 딸에게 의존하는 손건무(남성, 69세), 농촌출신이고 딸과 동거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왕학택(남성, 64세), 그리고 농촌 출신 조선족 고령노인 정춘자(여성, 26세), 최춘옥(여성, 81세), 문금화(여성, 77세), 방정희

(여성, 74세), 오영순(여성, 81세) 사례가 양로수당 없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례이다(<표 15> 참조).

<표 15> 자녀가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

번호	이름	출신	거주형태	경제적 지원 상황
17	장만항	도시	분거	주택 제공
19	왕학택	농촌	동거	자녀와 동거 중에 자녀가 소비함
20	손건무	농촌	동거	자녀와 동거 중에 자녀가 소비함
24	이기에	농촌	동거	자녀와 동거 중에 자녀가 소비함
26	정춘자	농촌	동거→분거	주택제공, 생활비 부분 지원
27	최춘옥	농촌	입소	입소비 제공
28	문금화	농촌	분거→입소	입소비 제공
29	방정희	농촌	동거→입소	입소비 제공
30	오영순	농촌	입소	입소비 제공

이기에의 경우 위해시의 거주하는 다섯 명의 자녀가 교대로 동거하면서 서 모시고 있고 손건무의 경우 딸이 동거하면서 거처, 의료비, 생활비를 제공해주고, 정춘자의 경우에는 자녀가 주택임대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왕학택도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고, 최춘옥, 문금화, 방정희, 오영순은 현재 시설에 입소해 있는데 자녀가 입소비를 제공해 준다.

자녀의 경제적 지원은 주로 노인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다. 노인이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들은 더 많이 노인에게 거처나 금전 등 생존수단을 제공하고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다(Suiter & Pillemer, 1988). 또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부모를 둔 자녀의 경제적 부양 부담정도, 도구적 부양 부담정도가 가장 높다(이윤정, 1994; 민무숙, 1995). 그런데 소득원이 없는 노인은 주로 농촌 출신 노인이기에 그들의 자녀들도 농촌에서 도시로 온 사람들로 대부분 도시 진출 이후에도 취약계층에 속해있다. 따라서 자녀들은 노인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못하

고 단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한다. 손건무의 경우에는 ‘돈이 필요하면 자녀한테 달라고 해야 한다. 평소에는 손에 돈이 하나도 없다. 용돈도 없다’라고 한다.

한편 노인들은 자녀세대에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고 자녀가 당연하게 무조건적으로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박경숙, 2003). 따라서 자녀에게 의존하는 살기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쓸모 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자리매김하면서 자녀에 대한 미안함으로 자녀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동거하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보상으로 최대한 가사와 육아를 돕고자 하며 소비를 줄이고자 한다. 예컨대 손건무의 경우에는 손건무와 배우자가 모두 지병으로 생활이 불편한 농촌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딸의 집에 와있다. 농촌 출신으로 인해 손건무와 배우자가 소득이 매우 적기 때문에 5명의 가족구성원이 딸과 사위의 봉급(합계 약 7000위안)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손건무와 배우자는 딸네 집에 살면서 아픈 몸을 끌고도 최대한 식사 준비, 외손녀 돌보기 등 가사를 한다. 또 소비를 줄이기 위해 손건무는 술도 끊고 담배도 농촌에서 저렴하게 담배 잎을 사와서 피운다.

손건무(남성, 69세)

지금 딸은 월 3000위안정도를 받으면서 회사에서 회계를 해요. 회계 사면 임금이 높을 수 없죠. 사위는 서비스 쪽인데 월 4000정도이구요. 저와 아내는 수입이 없으니까 모두 애한테 의지해야 되죠. 우리 고향에서 60세 이상이 되면 주는 보조금이 월 총 55위안이 되고 아이가 외동 인 경우 한 사람당 월 80위안씩 주는 보조금이 있고요. 제 딸은 남동생에게 농사를 짓게 내주어서 남동생이 저한테 1년에 800 위안을 주지요. 딸, 사위가 효도한다하지만 우리 노인은 분수를 알아야 되요. 왜냐면 저희는 수입이 없고, 병까지 있죠. 아내는 아내대로 아프고 저도 항상 진통제를 먹어야 되요. (중략) 허리 때문에 다른 가사는 할 수가 없어요. 바닥만 쓸어도 1분이면 일어나지 못해요. 전부 아내가 하지요. 저는 손녀의 치마나 양말을 씻는다거나 밥을 한다거나 해요. 저는 허리만 굽히면 일어나지 못해요. 4층까지 오르고 5층

은 못 올라 가요. 잠시 쉬어야 되요. (중략) 돈이 필요할 때 자녀한테 달라고 해야 해요. 평소에는 손안에 돈이 하나도 없고, 용돈도 없어요. 제가 담배를 피는데, 해마다 시골에 한번씩 다녀 올 때 시골에서 담배 잎을 사와요. 고향에는 싸거든요. 한 근에 십 몇 위안 하죠. 이곳에서는 한 근에 50위안이나 되요. 시골에서 2근이나 3근을 가져오죠. 이곳에 온지 여러 해 되지만 담배를 한 갑도 산 적이 없어요. 제가 돈을 벌지 못하니깐 술도 마시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술을 꽤 좋아했는데 애들더러 술까지 사게 살 수는 없지요.

부득이하게 자녀에게 의존할 경우 노인은 완전히 종속적인 위치에 처해있다. 효과적인 외부 통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노인의 상황은 전적으로 자녀에 의해 결정된다. 손건무는 ‘자기의 행복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전적으로 애들한테 달렸다. 애들이 부양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손건무(남성, 69세)

중요한 것은 제가 연금이 있어야 발언권이 있고 자주권을 가진다는 거죠. 이런 도리가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 꿈쩍을 못해요. (어르신께서는 어르신의 행복은 누구에 의해 결정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엔 제가 결정을 할 수가 없고, 애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부양을 해야 하니까요.

이처럼 자녀가 노인에게 주는 경제적 도움은 경제적 독립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한해 제공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농촌 출신 이주노인이 노후에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농촌 출신의 노인들은 그들의 자녀 또한 농촌 출신으로 도시에 진출한 후에도 경제적 상황이 신속히 개선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가 노인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도움은 거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 노인들은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의존적 위치에 대해 강하게 인식하여 자녀에게 민폐를 최소화하는 다양한 전략을 취해 의존감을 감소하고자 한다.

5.2.2. 분거 및 입소한 부모에 대한 정서적 돌봄

최근 중국 사회의 분위기는 조건이 있는 가족들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 노인세대와 성인자녀세대가 서로 동거를 기피하는 동시에 일상적인 도구적 돌봄과 정서적 돌봄, 비상시의 효과적인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 최대한 가까이에 살아가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도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사례는 단 3개뿐이고 대부분 사례들은 처음부터 노인이 분거나 입소를 선택했거나 동거 중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시 분거한 사례들이다. 또한 자녀와 동거한 사례들을 보더라도 객관적 여건의 부족으로 반강제적으로 동거하는 상황에 처한 사례들이다. 예컨대 반신불수에 걸려 여러 명 자녀들과 교대로 동거하는 이기애의 사례, 농촌에서 올라와 제한된 자원으로 도시에 정착하고자 두 세대가 뿔뿔 뿔쳐 살아가는 한동창 사례, 건강악화로 농촌에서 살기 어려워 딸의 집에서 살고 있는 손건무 사례가 그러하다.

노인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분거 상태를 유지하거나 노인이 입소한 가족은 노인을 수발하면서 생기는 갈등과 모순, 정신적 소진이 거의 없는 반면 노인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자녀들은 신체적 돌봄을 제공하지 못한 대신 더욱 정성스럽게 정서적 돌봄을 제공한다. 정서적 돌봄은 주로 방문과 함께 식사 등 직접적인 접촉이나 통화를 통한 간접적인 접촉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노인이 경제적으로 독립할수록,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이나 신체적 돌봄을 적게 제공할수록 자녀들은 더욱 많은 양과 더욱 질 높은 정서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 스스로가 자신의 양로수당으로 양로원에 입소한 8개 사례들에서는 자녀가 매우 빈번하게 노인과 통화하고 양로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예컨대 진호창의 경우 70세에 은퇴하고 위해시로 이주하여 따로 주택을 구매하여 살다가 배우자 건강이 악화하자 배우자와 동반 입주하였다. 자녀들은 매주 요양원으로 와서 진호창을 모셔나가서 ‘영양 보충’을 해드린다. 진호창의 자녀들은 와상상태인 어머니와 진호창을 양로원에 보낸

대신 충분한 정신적 위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호창(남성, 83세)

(그래도 어르신께서는 역시 가까운 곳에 자녀가 계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나도 정신적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죠. 아이들도 꾸준히 문안 올수 있고 나도 애들이 보고 싶어요. 바로 운전하고 와서 나를 자기네 집으로 데려가요. 우리 애들은 참 괜찮아요. 매주 꼭 문안 와요. 일요일만 되면 나는 거의 여기서 식사 안 해요. 모두 외식했어요. 샐러드샐러드를 먹거나 하면서 몸보신하죠. 제가 괜찮다고 일요일에 물만두 먹으면 된다고 하면 개들은 물만두는 누구나 먹는 거라고 하면서 또 데리러 오죠.

한경운은 2002년에 둘째 아들이 불러서 위해시로 이주하여 배우자와 함께 임대주택에 살다가 배우자가 사망하자 자진하여 양로원에 입소하였다. 한경운의 자녀들은 격주마다 89세인 한경운을 모시고 ‘마작’게임을 한다.

한경운(남성, 89세)

(그럼 어르신의 자녀분들은 자주 어르신을 찾아뵙나요?) 애들이요, 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요. 큰 아들은 직장 다니고요. 개는 변호사예요. 작은 아들은 인테리어를 하죠. 인테리어 하는 애는 사장처럼 자유예요. 개가 현장에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일꾼들이 일을 하니까. 아예전에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큰 아들네 집에 가서 개네 집에서 쉬었거든요. 가서 뭘 노냐면. (마작이요?) 맞아요! 음, 제가 뇌를 단련하는 거죠. 마작 놀 때 누구랑 하나면 남은 아니고 제가 아들 둘에 딸 하나이니 네 사람이 딱 한 테이블이 되거든요. 하하, 나중에는 시간이 많이 드니까 매주 이렇게 다들 바쁘니까, 제가 애들과 격주로 두 주일에 한 번씩, 격주로 한 번씩, 하루나 이틀 많아서 이틀까지 적어도 하루는 이렇게 마작하자고 애들과 말했어요. 내가 기분 좋게 다들 모여 놀자고 했죠. 나를 위해.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다들 각자 타지에서 바쁘고 하니까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일주일에 지나 한 번씩, 격주에 한 번씩 이런 방식으로 놀러가요.

필종구의 경우에는 2009년에 배우자가 사망하자 1년 뒤에 딸들이 위해시의 요양원으로 모셨다. 그 후 딸들은 매주 주말에 노인을 방문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요양원에 있는 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한다. 그럴 때면 필종구는 요양원을 떠나 버스를 타고 자녀의 집으로 간다.

필종구(남성, 77세)

(자녀분들은 종종 어르신을 찾아뵙나요?) 자주 와요. 방금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어제는 막내딸애가 전화가 와 나더러 자기네 집으로 식사하러 오라고 하고 방금 전에는 큰 애가 식사하러 오라고 전화 왔어요. 곧 나가봐야 되요.(그럼 어르신은 이곳에 계시고 자녀분들은 근처에 집이 있는 거죠?) 제왕궁(帝王宮, 지명) 그쪽이요. 여기서 20여리 길이 되요. (그럼 어르신은 버스로 이동하나요?) 공공버스, 버스를 타고 가지요. (그럼 자녀분들의 집으로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버스 타고 가면 되겠네요?) 네, 그냥 편할 대로요. (그럼 자녀분들의 집 열쇠도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 개들이 전화로 저를 집으로 부르면 전화가 오면 제가 가죠. (그럼 이렇게 한 달에 따님 네 집에 가서 식사하는 경우가 몇 번쯤 되시나요?) 그건 확실하지 않죠. 가끔은 세 번, 네 번, 다섯 번, 설 그때에 제일 많이 가요. 연말에도 많이 가구요. 개네가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저를 부르죠. (따님들은 종종 문안오세요?) 와요. 자주 와요. (자주라면 따님들은 한 달에 몇 번 정도 올 수 있나요?) 일주일에 한번은 와요.(어르신께 좋은 것 많이 가져오겠네요?) 그래요. 올 때면 들고 와요. 과일이라 이것저것 사와요.

단 이와 같이 자녀가 활발하게 정서적 돌봄을 제공하는 사례는 노인이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에 한해 나타났다²⁶⁾. 이는 노인의 소득상황이 높을수록 자녀와 함께하는 빈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다(Kivett, 1984). 본 연구에서 관찰된 바에 의하면 노인들이 경제적 독립과 입소,

26)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여 입소한 노인일 경우 가족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보다 낮은 수준의 요양원에 입주해 있다. 또한 노인이 경제적 독립을 못하는 경우 가족의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자녀들의 노동 시간이 더 길고 삶의 스트레스가 더욱 막중하여 노인에 대한 정서적 돌봄 수준이 더 낮은 편이다. 양로원에 방치된 농민의 상황은 논문의 뒷부분에서 논의할 것이다.

노-노 케어로 자녀에게 도구적 지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 자녀로부터 극진한 정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의 동거 돌봄을 받는 경우(한옥지, 이기매 사례)에는 가내 방치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자녀의 경제적 지원으로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일 경우에도 자녀가 한국에 있거나(문금화 사례, 방정희 사례) 자녀(손자녀)가 근처에 살고 있어도 일이 없으면 연락하거나 방문하지 않는다(최춘옥 사례, 방정희 사례). 따라서 현재 이주노인이 자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은 경제적 도움, 신체적 돌봄, 정서적 지원 중에 한가지로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5.2.3 비상 상황에 처한 부모에 대한 일시적 돌봄

이주 가족이 가족재결합을 이룬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노인이 비상상황에 처했을 때 가족이 ‘즉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가족 재결합 이후 노인의 거주방식에 상관없이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노인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비상 상황에 닥쳤을 때 노인은 즉시 자녀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예컨대 정춘자는 와상 배우자를 돌보면서 따로 임대주택에 살고 있기만 아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기에 비상상황이 있으면 바로 전화여 아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요양소에서 생활하는 최춘옥의 경우에도 아플 때는 딸이 달려와서 병원으로 모신다고 한다.

정춘자(여성, 73세)

(그럼, 아프고 하면 아들에게 알리시나요?) 전화해주면 데리고 병원가고 그라우. (아이고,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참 좋네요.) 그래. (가까이 사는 게 맞네요.) 응. 그냥 전화로. 전화하면 이내 달려온단 말이야.

최옥순(여성, 81세)

(어르신 많이 아프시면 누가 돌봐주세요?) 그럼 또 셋째 딸이 달려오

지 뭐. 달려오게 되면 또 병원에 데려가지 뭐. 요전 날에 셋째 딸이 와서 병원에 가자 그래서 검사를 하니까 자꾸 기침이 나서 병원에 데려가니까 후두염이라나, 지금도 계속 약을 달고 있는데 다른 거는 아무 일 없어요.

노인의 경우 급변하는 사회에서의 비상 대처능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은 필수이다. 평소에 노인에게 대한 도구적 돌봄과 정서적 돌봄이 극히 적은 가족이거나 심지어 한국에 있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노인이 비상상황에 처하면 달려온다. 한편 자녀에 대한 돌봄 기대가 극히 낮아진 지금에도 노인들은 비상상황에 대한 돌봄은 자녀의 기본 도리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하지 못해도 매우 관용적이지만 비상상황을 외면한 자녀에 대해서는 크게 실망을 한다. 예컨대 한경윤의 경우 아내가 사망할 때 둘째 딸에게 알렸으나 둘째 딸이 입원한 손녀를 간호하기 위해 달려오지 못한 것에 대해 크게 상심하며 딸과 연락을 끊고 살고 있다.

한경윤(남성, 89세)

(어르신께서는 자녀에게 어떤 기대를 하나요? 자녀에게 요구하는 게 있으신가요?) 기대라...요구는 없어요. 음...아까 내가 둘째 딸이 죽었다고 했는데 사실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왜 죽었다고 했냐면 애 엄마가 세상 뜰 때 둘째 딸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자기 딸 돌보느라고. 그 때 자기 딸이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둘째 딸이랑 연을 끊었어요. 엄마가 죽어 가는데도 안 와보고 자기 딸 돌보겠다고. 아무리 그래도 자기 딸은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 안 그래요? 지금도 속이 내려가지가 않아요. 영원히 내려가지 않을 거야. 내가 잘못 생각했나요?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딸은 없는 걸로 하는 게 맞아요. 아버지는 외면해도 될지 몰라도 엄마는 똥, 오줌 받아주면서 고생스럽게 키워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처럼 현재 경제적 돌봄, 정서적 돌봄, 신체적 돌봄은 자녀가 처한 상

황에 따라 도덕적으로 양해 받을 수 있지만 비상상황 시 돌봄은 자녀로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최저 수준의 돌봄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족 간의 상호지원 상황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세대 간의 상호지원은 일정한 시간차를 두고 진행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악화로 의존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자녀에 대한 노인의 돌봄이 가족 간의 상호지원관계의 주요내용이 된다. 그 후 노인이 의존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노인에 대한 자녀의 지원이 가족 간 상호지원 관계의 주요내용이 된다. 두 번째 특징은 이주가족 내에서 세대는 세대 간 분업이라는 규칙을 가지고 상호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자녀세대는 주로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맡아 소득이 없는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분거하거나 입소한 노인에게는 정서적 돌봄을 제공하고, 노인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돌봐주고 있는 형태이다. 반면 노인은 가사, 돌봄과 경제적 보조를 맡는다. 주로 성인자녀의 가사와 육아 보조, 와상 배우자 돌봄을 전담하고, 자녀의 주택구매, 결혼, 육아비용, 사업투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자영업 하는 자녀의 일손을 무급으로 도와주고 가게를 위한 노후 노동에 참여한다.

세대 간 분업의 특성을 보면 자녀가 제공하는 돌봄은 함께 동거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하는 소비, 그리고 거처를 제공하는 것, 일주일에 한번 정도 분거한 노인을 방문하는 것,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돌봐주는 것 등이다. 이러한 돌봄의 특징은 상시적이지 않으며, 부모의 수요에 따른 것으로 부모가 독립적이거나 부모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 돌봄을 제공하지 않을 여지가 매우 크다. 반면 노인이 제공하는 돌봄은 거의 모든 영역이 포함되고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많은 경제적, 신체적 소모가 따른다. 세대 간 분업을 비교했을 때 부모가 제공하는 지원이 ‘노동적 성격’이 더욱 크며 노동 강도도 또한 훨씬 높다. 또한 이러한 분업에 의하면 자녀들은 맞벌이를 이유로 신체적 돌봄 영역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사별 노인의 신체적 돌봄의 공백은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세대 간의 상호지원관계에 있어서 노인과 자녀세대는 일정한

시간차를 두고 자녀편향적인 불균형한 상호지원이 이루고 있다.

6. 이주 후의 돌봄 규범

6.1. 노부모의 돌봄 규범

6.1.1. 의존 상황 발생 전 자녀에 대한 지원 강조

6.1.1.1.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강조

자녀가 성인이 될 때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서구의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최근 중국 사회에서는 성인자녀의 부모의존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요즘 중국에서는 성인자녀가 노인에게 경제적 돌봄, 가사 지원, 육아 도움 등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 있다. 한편 노부모는 개혁개방이후 사회적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을 기꺼이 돕고자한다. 대부분 중국 노인들은 자녀와 운명공동체적 정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인된 자녀의 인생을 쉽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부모의 본분(本分)으로 인식하는데 이와 같은 본분에는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의무, 육아 보조의 의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외상 배우자 돌봄을 전담할 의무 등 여러 가지가 포함 된다.

1)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의무 강조

중국 노인이 성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은 매우 다양한데 이들이 특히 의무로 여기는 것은 자녀의 인생대사(人生大事)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생대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주로 결혼, 출산, 주택구매, 투자 등이 있다. 자녀의 인생대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관습’의 형식으로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기에 부모 된 의무를 노후에 까지 연장시키는 동시에 노인에게 강요되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딸이 결혼할 때 딸에게 40만 위안을 주었고 약 10만 위안에 달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엽지영은 부모의 책임은 자녀가 성인된 후

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딸이 ‘결혼하여 애기 낳을 때까지 헌신해야 한다’고 말한다. 딸의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을 감당한 것은 남성 측에서 주택을 사고 여성 측에서 인테리어와 가구마련 등을 맡는 현지의 결혼관습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말한다. 단지 딸이 인테리어할 돈이 없기 때문에 엽지영이 대신 지출한 것이다. 엽지영은 이러한 중국의 관습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결혼은 보편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여 진행하는 현황이기 때문에 따랐을 뿐이다.

엽지영(여성, 65세)

(어르신께서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의무가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세요?) 결혼하여 애 낳을 때까지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미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요. 전에는 직장이 생길 때까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다니게 되면 그럼 독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정작 경험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직 헌신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죠. 개가 결혼하고 애 낳으면 이제 다 됐죠. (왜 전에는 직장 다니면 끝난다고 생각하셨다가 결혼해서 애 낳을 때까지로 생각을 바꾸셨나요?) 왜냐면 경제적 원인 때문이지요. 개가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했어요. 개가 결혼 할 때 개 시어머니가 빈 집을 하나 장만해주었어요. 개가 뭘 돈이 있어서 인테리어를 하겠어요. 개가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지요. 개입을 해야지요. 그러면 이 일은 제 몫으로 넘어 오게 되지요. 아닌가요. 이 일은 원래 제가 해야 할 몫은 아닌데 말이죠. 이건 추가로 늘어난 몫이지요. 근데 중국은 보편적으로 이러해요. 결혼을 부모한테 의지해서 하지요. 저는 이 점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해요. 결혼을 왜 부모한테 의지해야 되나요? 본인이 책임져야 되지요. 아닌가요?

농촌 출신인 한동창의 경우에는 매우 당연하게 아들의 결혼은 노인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아들 결혼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감당하였다. 한동창은 농촌의 결혼 시장에서 경제적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돈이 있어야 마음 드는 상대를 만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결혼 적령기에 처한 아들이 아직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부모로서 당연하게 지원을 했다

고 말한다.

한동창(남성, 61세)

(어르신 아드님이 결혼 하실 때 어르신께서 돈을 대주신 건가요?)
인민공사가 해체된 후에 따로 일하면서 매년마다 조금씩 저축을 했어요. 아들의 결혼은 원래부모의 의무잖아요, 제가 전부 전담 했어요. 그 때 개가 일한지 몇 년밖에 되지 않았고, 24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 때 일한지 3, 4년밖에 안되었으니까 그 당시 10만 위안정도 돈을 썼지요. 다 자녀를 위한 것이지요. 색시 얻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색시를 얻어요? 돈 있으면 여기 저기 들어오는 중매 중에서 마음껏 고를 수 있잖아요.

이처럼 노부모가 성인자녀의 인생대사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매우 보편적인 상황이다. 소수의 노인들은 든든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자녀에게 거액을 지원하고도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노후에 대한 걱정도 없다. 예컨대 딸의 결혼에 인테리어 비용 10만 위안, 혼수 40만 위안을 지원한 엽지영은 은행 종업원 출신으로 충분한 저축과 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매월 4000위안 이상의 양로수당이 있어 노후 걱정이 없다.

그러나 중·하위 소득 계층에 속하는 이주 노인들의 경우 자녀에 대한 거액의 경제적 지원은 현재의 삶과 노후 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사회의 전통적 가족 돌봄 방식을 대표하는 개념인 ‘養儿防老(아들을 양육하여 노후에 대비한다)’가 ‘養儿防老(노후를 준비하려면 아들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바뀐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딸 대신 아이를 키워주고 있는 정옥희의 경우 손자의 소비 때문에 노부부가 매월 7200위안의 양로수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한다. 농촌 출신인 왕다력은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 ‘허우적거리느라고’ 노후준비는 하나도 못했다고 한다. 왕다력은 ‘예전에는 다 아이들 일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색시 없으면 같이 색시 찾는 거 걱정하고 결혼하게 도와주고 이제는 뒷근심이 하나도 없어

서 이제부터는 돈 벌어서 노후준비 해야지'라고 한다. 왕다력은 아들 주택구매로 인해 진 빚을 작년까지 겨우 다 갚고 63세 나이가 되어서 부부가 함께 도로 청결 일을 해서 노후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왕다력(남성, 63세)

(어르신은 노후를 위해 저축 좀 해야겠다는 생각 해보신적 있으세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죠. 이전에는 다 아들 셋을 위해 허우적거리고, 이제 끝났는데. 이제 작은 아들까지 집 사주고, 이제 다 했어요. 이제는 내가 신경 안써도 돼요. 작년까지 겨우 빚 다 갚았어요, 집 사주느라고 생긴 5만 원 빚. 우리 큰 아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알아서 집 샀고, 막내아들 집은 우리가 사줬어요. 10만 원 넘게 썼는데 먼저 빌려 쓰고, 아들이 3명이니까 그 때 그 때 생각해야지면 계획 같은 거는 못해요. (중략) 예전에는 다 아이들 일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색시 없으면 같이 색시 찾는 거 걱정하고 결혼하게 도와주고 이제는 뒷근심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부터는 돈 벌어서 노후준비 해야지, 일 할 수 없을 때까지 해서, 하루 일 할 수 있으면 하루 일해서.

그러나 농촌 출신으로 충분한 양로수당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데다가 노후 준비가 늦어졌기 때문에 왕다력의 경우 노후 생활은 자녀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왕다력은 건강이 악화되어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지 못할 때에는 ‘아들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 ‘우리는 선택할 권리가 없다’, ‘양로원에 가라고 하면 가야 한다’, ‘늙어서는 아들이 안배하는 대로 따라야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라고 말한다.

왕다력(남성, 63세)

(어르신께서 몸이 안 좋아지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때 되서는 아들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일이죠. 우리가 선택하거나 할 권리는 없죠. 독립을 못할 때는 양로원에 가라고 하면 가야 되죠. 그래도 설마 양로원에 가게 하겠어요? 아들이 3명인데 양로원에 보내겠어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쪽

팔리잖아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들 3명인데도 양로원에 간다고. 다른 사람들이 비웃겠죠. 진짜 늙어서는 아이들이 안배하는 대로 따라야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아들이 양로원에 보내든가 어찌하든가 애들 일이죠. 애들 3명이 상의해야죠. 우리 둘은 그 때 그 때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대부분 농촌 출신의 노인의 경우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노후준비 기회를 대가로 한 것이고 노후준비의 지원은 매우 수동적이며 의존적인 노년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효 규범과 가족주의 등 전통적 돌봄 규범의 구속력이 크게 약화되고 자녀의 돌봄은 도덕적 자율성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 노후에도 호혜적인 관계가 강조되는 현황에 비추어 볼 때 노인들의 미래는 결코 낙관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손자(녀) 대리 양육의 의무 강조

일반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돌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조부모가 양육을 돕는 현상은 한국, 대만 등 여러 지역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추형지의 말로 표현한다면 ‘자녀 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 하고 또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것(管完這一代, 管下一代)’이다.

특히 여러 동아시아 나라 중에서 여성 취업률이 비교적 높은 중국에서는 노인이 손자(녀)를 돌보는 것이 특히 보편적이며 거의 노인의 ‘의무’나 내려온 ‘전통’으로 당연시 되고 있다. 사회영은 아들이 아이 돌봄을 요청할 때 노인이 받아들이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의무’라고 강조한다. 더불어 더 늦은 노후에 자녀의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는 더욱 ‘반드시 완성해야 하는 의무’라고 말한다.

사회영(여성, 61세)

(어르신께서 위해로 이주 하시게 된 것은 아드님의 요청 때문인가요?) 네, 손자를 마중 하고 보살피기 위해서지요. 여기서 돈 버는 것

보다 손자를 돌보고 마중 다니는 게 주된 거죠. 손자가 어리니까 마중 다녀야 되요. (그럼 어르신께서는 달갑게 오신건가요?) 달가웠어요. 달갑지 않아도 어떡해요. 이렇게 아들이 하나뿐인데 손자를 보살피고 달라고 하는데 안 오고 되나요? 와야죠. 아닌가요? 이걸 당연한 거예요. 허허허. (아이를 돌봐주지 않으려는 어르신들도 계시죠?)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거절하나요. 대부분 기꺼이 승낙하지요. 지금은 다들 자식이 하나뿐이잖아요. 젊은 애들이 당신더러 손자 마중 다녀라 하는데 당신이 거절 해봐요. 그럼 이후에...아닌가요? 아들이 하나뿐인데 거절 못하지요. 그죠?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래도 개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죠? 이것은 임무지요. 꼭 해야 되는 의무지요. 지금 노인들은 다 이렇게 살죠 뭐.

아들과 딸이 노인에 대한 부양은 노인과 장기간의 직접적인 접촉에서 오는 애착, 부모 양육의 은혜에 대한 감사, 자녀 된 책임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며느리의 경우 노인과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지각으로 출발하고 가부장제로부터 오는 의무감에 기초한다. 그러나 남녀평등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 사회에서 특히 도시사회에서는 가부장제도의 영향은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며느리와 노인의 돌봄계약은 더 이상 ‘아들 양육-노후 아들과 며느리의 은혜 갚기’ 시스템이 아니라 ‘며느리에 대한 육아 도움-노후 며느리의 돌봄’으로 변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며느리와 노인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교환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육아 도움이 노인의 의무로 고착화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대리양육이 노인에게 신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다. 가추분은 아들이 육아를 도와주기를 요청하여 위해시로 이주하여 손자의 학교 근처에 거주하면서 자녀 대신 손자를 돌보고 있는데²⁷⁾ 육아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가추분은 대리양육에 대해 ‘진짜 질리고 질렸다’, ‘힘들어 늘어진다’, ‘힘겨워 죽겠다’라고 표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으면 개네가 출근을 못하니 어떻게

27) 아들과 며느리는 아들이 종사하는 업체의 기숙사에 거주한다.

돌보기 싫다 하겠어요'라고 한다.

가추분(여성, 67세)

돌보지 않으면 개네가 출근을 못하니 어떻게 돌보기 싫다 하겠어요. 애가 어린데, 나는 5개월 때부터 돌봤는데 지금 8살이에요. (그러면 힘들진 않으세요?) 힘겨워요! 힘겨워 죽겠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방법이 없죠. 어쨌든 돌봐줘야 되지요. 내가 힘들어 죽겠다 해도 어떡해요. 애를 돌봐주지 않으면 아들, 며느리가 출근을 못해요. (중략) 내가 힘들어도, 만날 힘들어도 그래도 봐줘야 돼요. 억지로 버티고라도 봐줘야 돼요. 왜 안 힘들겠어요. 애들은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아이구 말도 마세요. 얼마나 분주한지, 애보는 것도 진짜 질리고 질려도 방법이 없어요. 힘들어 늘어지죠.

자녀를 돌보기 위한 일상적인 신체적 소모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돕는 과정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과도한 신체적 소모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가추분은 아이의 등교를 배웅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3개월 와상 상태로 있었지만 완쾌하자 다시 손자를 돌보게 되었다.

기존연구에서는 손자(녀) 돌봄이 노인과 가족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Bowers & Myers, 1999), 노인의 생활방식과 음식 습관을 개선하고 심리건강 수준을 향상하는데 도움 되며(Gattai & Musatti, 1999),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Waldrop & Weber, 2001). 그러나 본 연구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은 노인이 건강하고 대리 양육의 노동 강도가 약할 때에만 유효하다. 가추분처럼 대리 양육의 시간이 매우 길거나 강요되었을 때에는 대리 양육이 노인의 신체적 자원 소모를 앞당기고 있다.

3) 와상 배우자에 대한 수발 의무 강조

노년기의 배우자는 동반자이자 최우선의 가족 부양자이다(이혜자, 김윤정, 2004). 최근 자녀에 대한 동거희망과 부양기대가 저조해지면서 노

인에게 있어서 항상 가까이에서 도구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줄 수 있는 배우자의 중요성이 한층 더 증가하고 있다(정경희, 2011). 노인이 건강을 상실할 때에는 배우자가 일차적 가족부양자로서 수발에 참여한다. 본 연구에서 와상노인이 발견된 사례는 총 3사례가 있는데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배우자가 주요 돌봄자였다. 노인들은 와상 배우자를 돌보는 것은 자녀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자기의 의무라고 강조한다.

예컨대 홀로 와상배우자를 돌보고 있는 풍학귀는 배우자를 돌보는 것을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풍학귀는 ‘내 아내를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나요? 젊어서 나한테 시집와서 내가 노파로 만들어 놓았는데 책임을 지지 않으면 되나요?’라고 말한다. 다른 한편 노인들이 배우자 돌봄을 전담하는 것은 자녀의 삶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풍학귀는 ‘자식들도 자신의 삶이 있고 내가 아직 수발 하지 못할 정도로 나이 든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와상배우자를 자녀에게 돌보게 할 경우에는 자식세대 더 나아가서 손자세대의 삶까지 영향을 끼치기에 스스로 배우자를 돌본다고 한다.

풍학귀(남성, 68세)

내 아내를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나요? ‘남편한테 시집가서 먹고 산다(嫁汉, 嫁汉, 穿衣吃饭)’는 말이 있잖아요, 젊은 색시로 나한테 시집와서 내가 노파로 만들어 놓고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 되나요? 현재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요. (중략) (어르신들 자녀분들이 10개월 정도 수발 도와드리다가 수발이 힘들어서 다시 집에 돌아갔을 때 어르신께서는 상심하지 않으셨어요?) 상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식들도 자신의 삶이 있고 내가 아직 수발 하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든 것도 아니고요. 나는 내 부모를 돌볼 책임이 있고, 개네들도 나를 돌볼 책임이 있지만 그건 내가 노동능력을 상실 하였을 때, 개네가 그때에 와준다면 저는 기뻐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노동능력이 있고, 뭐든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럴 필요가 있나요? 개네 세대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개네 자식 세대의 삶까지 영향을 끼치지요.

와상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임대주택에 노부부가 따로 살고 있는 정춘

자는 ‘어쨌든 이 영감 세상 뜰 때까지 내가 쓰러지지 말아야지. 그래야 자식들한테도 부담도 덜 주지.’라고 말하면서 배우자 돌봄을 본인이 전담하고 있다.

이처럼 자녀에게 부담주지 않기 위해 노인이 배우자 돌봄을 전담하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애정과 애착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자녀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자녀들의 무책임과도 연관이 있다. 풍학귀의 경우에는 아들 며느리와 손녀가 돌봄을 도와주러 왔다가 10개월을 버티고 ‘힘들어서 안되겠다’고 하여 풍학귀가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정춘자의 경우에는 며느리가 와상상태인 시아버지를 돌보지 않지만 자신의 딸을 도와 아이를 돌봐주고 있다. 성인자녀가 노부모에게 기울이는 정성보다 자신의 자녀에게 기울이는 정성이 훨씬 많은 것도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다(王鵬飛, 2008; 江傳月, 2009). 다시 말해 와상 배우자 돌봄이 노인의 의무가 되는 배후에는 노인 돌봄에 대한 자녀의 기피와 무책임과 이런 자녀들에 대한 노인들의 무대책도 중요한 원인이다.

6.1.1.2. 노부모의 헌신을 통한 가족 결속력 강화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가족 간 결속력은 전통적인 가부장제 하의 가족에서처럼 자녀가 노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성인자녀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강화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30개 사례에 대하여 가족 간 결속력의 강도와 가족 간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유형분석을 해본 결과 30개의 사례 중에 가족 간 결속력이 높은 사례는 22개이고 가족 간 결속력이 낮은 사례는 8개의 사례였다(<표 16> 참조).

<표 16> 가족 간의 결속력

가족 간 결속력	유형	결속력 강화 방식	사례 수
높음	돌봄 획득형	주로 자녀가 돌봄을 제공	3
	돌봄 제공형	주로 노인이 지원을 제공	14
	민폐 최소화형	노인 입소(분거)로 민폐 최소화, 자녀가 정서적 지원을 제공	5
낮음	독립 추구형	-	2
	원거리 분리형	-	6

가족 간의 결속력이 높은 22개의 사례를 살펴보면 자녀가 적극적인 돌봄(동거, 의료비제공, 정서적 돌봄)을 제공하는 사례는 세 개 밖에 되지 않는다. 다수의 사례들은 노인이 적극적인 돌봄을 제공하거나, 노인이 민폐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소(분거)한 사례이다(<표 17> 참조).

노인이 현신을 통해 가족 간의 결속력을 높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은 전 사회적으로 자녀의 돌봄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노인이 어쩔 수 없이 ‘부모 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자녀들의 노후 부양 가능성을 높여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김영훈(남성, 74세)

(어떤 생각으로 아들들에게 집을 사주셨나요?) 난 자식들하고 같이 있자고 사줬지.

사회영(여성, 61세)

(아이를 돌봐주지 않으려는 어르신들도 계시죠?)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거절하나요. 대부분 기꺼이 승낙하지요. 지금은 다들 자식이 하나뿐이잖아요. 젊은 애들이 당신더러 손자 마중 다녀라 하는데 당신이 거절 해봐요. 그럼 이후에…아닌가요? 아들이 하나뿐인데 거절 못하지요. 그죠?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래도 개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죠? 이것은 임무지요. 꼭 해야 되는 의무지요. 지금 노인들은 다 이렇게 살죠 뭐.

<표 17> 가족 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방식

	사례	노인이 제공하는 지원			자녀가 제공하는 지원	
		민폐 최소 화	경제적 지원	돌봄 지원	경제적 지원	돌봄 지원
주로 자녀가 돌봄을 제공	19.왕학택 (농촌)	-	-	가사, 육아	동거	-
	20.손건무 (농촌)	-	둘째 딸의 의료비 18만	가사, 육아	동거	-
	24.이기에 (농촌)	-	-	가사	동거	-
주로 노인이 지원을 제공	9.가추분 (도시)	분거	큰 손자 교육비 전담 작은 손자 상시 지원	육아 전담	-	-
	10.진향웅 (도시)	분거	딸 주택 20만	육아	-	-
	14.정옥희 (도시)	분거	손자 양육비 전담	육아 전담	-	정서적 지원
	16.사회영 (도시)	분거	아들 주택 사줌. 세 집 인테리어 2만	가사, 육아	-	-
	14.노자향 (도시)	분거	-	가사, 육아	-	정서적 지원
	15.오충진 (도시)	분거	-	가사, 육아	-	-
	16.풍학귀 (도시)	분거	-	와상 배우자 돌봄 전담	-	-
	17.장만향 (도시)	분거	-	육아 전담, 식사 제공	주택 제공	-
	28.장흥인 (도시)	분거	아들 사업 투자 10만	가사, 육아	-	-
	21.왕다력 (농촌)	분거	큰 아들 의료비 1.5만 작은 아들 주택 구매 10만	-	-	-
	22.한동창 (농촌)	동거	다세대 주택구매에 평생 저축 소비	가사, 육아	-	-
	23.강부귀 (농촌)	분거	아들 주택 구매 2-3만	가사, 육아	-	-
	25.김영훈 (농촌)	분거	큰 아들, 작은 아들 주택 하나씩 사줌	장사 도움	-	정서적 지원
노인 입소(분거) 로 민폐 최소화 , 자녀가 정서적 지원을 제공	1.엽지영 (도시)	입소	딸 결혼 50만	동거 시 가사 지원	-	정서적 지원
	2.진호창 (도시)	입소	-	-	-	정서적 지원
	3.필종구 (도시)	입소	-	-	-	정서적 지원
	4.한옥지 (도시)	입소	-	동거 시 가사, 육아지원	-	정서적 지원
	5.한경윤 (도시)	입소	-	와상배우자 돌봄 전담	-	정서적 지원
	7.유수지 (도시)	분거	아들에게 주택을 사줌, 15만	-	-	정서적 지원
	26.정춘자 (농촌)	분거	-	와상 배우자 돌봄 전담	주택입대 료, 생활비 부분 지원	정서적 지원

이처럼 노인들은 효 규범이 약화되고 자녀의 돌봄을 받기가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헌신과 지원을 성인자녀에게 부여함으로써 돌봄 계약의 효력을 높이려고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아랫세대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강화하고 노인들의 자원의 소모를 앞당김으로써 노인들의 노후 돌봄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종합해 보면 가부장적 친족제도를 사회적 기초로 하고 전통사회의 농업과 토지 개인 소유제를 물질적 기초로 한 효 규범이 물질적 기초를 상실한 중국 사회에서 효 규범은 의식으로 존재할 뿐 구속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다. 반면 개혁개방이후 젊은 층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생산가치가 가장 중요시 되면서 자녀에 대한 지원을 통한 노인의 ‘도구적 가치’가 날로 강조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은 ‘부모 된 책임’과 생산영역에 종사하는 자녀에 대한 관용과 배려만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효 규범을 통한 세대 간 결속력이 날로 약화되는 현재 노인들은 부득이하게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폐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족 결속력을 강화하고 노후의 자녀 돌봄의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아랫세대 중심의 가족 돌봄 관계를 강화하는 문제점이 있다.

6.1.2. 의존 상황 발생 후 자녀에 대한 민폐 최소화 강조

6.1.2.1. 자녀의 돌봄 행위에 대한 사양

건강상황과 경제조건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자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노인은 당연히 자녀가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자녀를 의존하는 것이 큰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박경숙, 2003). 심지어 자녀의 돌봄을 회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공선희, 2013). 노인들은 최대한 자녀에 대한 민폐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한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바에 의하면 이주노인들은 자녀들의 힘든 삶을 배

려하여 자녀들의 효행을 사양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들은 자기가 필요한 돌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무리가 간다고 판단할 경우 자녀의 방문 요청, 자녀의 방문, 물질적 지원 등을 거절한다. 최춘옥은 양로원에 6년간 살면서 한국으로 간 세 명의 딸을 각각 한번밖에 보지 못했고 늘 자녀들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세 번 가봤다는 이유를 대면서 ‘자식들 돈 팔면서 한국에 놀러가지 못하겠다’고 한다. 문금화도 ‘돈이 든다’는 이유로 딸의 방문을 거절했다. 한동창의 경우에는 가족의 경제형편을 고려하여 질병치료도 사양했다.

최춘옥(여성, 81세)

(자녀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지 뭐. 보고 싶지만 아까도 막내 딸이 전화 와서 ‘엄마 비행기 표를 사 보낼게. 한번 나오시오’ 그래서, 내가 ‘한국에 세 번이나 놀러 갔는데 또 가겠니? 자식들 돈 팔면서. 내가 안 간다, 내가 그 돈 가지고서 먹고 놀겠다.’ 그랬는데, 또 모르지 어찌겠는지.

문금화(여성, 77세)

(그럼 일 년에 한 번씩 오시나요? 아드님들이?) 우리 딸은 내가 작년에 오지 말라 그랬지. 올해도 설에 오겠다는 거. ‘오지마라. 니 돈만 판다. 니 오자겠으면 여기 또 난방비 물어야 되지. 안 오는 게 괜찮다. 돈이 많이 든다. 난방비를 3천원 물어야 되는데. 그 어간에, 사람 오래 못 있고 와 있어야 한 열흘 있고.’

한동창(남성, 61세)

내 눈에 삼차신경에 병이 있는데 며느리가 수술을 받으라고 하는데요. 내가 먹고 마시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자고 했어요. 나이가 들면 주기적으로 발병해서 며느리도 수술을 받으라고 권해요. 제가 수술이 1만 위안이 든다고 하니 며느리가 ‘돈이 들면 들고요, 병만 나으면 되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또 그랬죠. 괜찮다고 치료하고 하려면 일에도 지장주고 하니까.

노인들이 자녀의 효행에 대해 사양하는 것은 한편 자녀에 대한 배려에서 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친밀성의 취약성을 반영하기도 한다고 판단된다. 가족 간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세대 간의 친밀성이 점점 희박해진 이주가족 내에서 노인들은 친밀성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높은 기회비용을 대가로 하는 돌봄은 친밀성을 소모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무리’해 보이는 자식들의 효행을 스스로 거부하게 된 것이다. 다른 한편 자녀의 효행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점점 조심스러워 하는 노인들의 태도는 세대관계에서 노인이 처한 약자의 위치를 보여주기도 한다. 객관적으로 노인들의 이러한 효행거절은 자녀들의 효행을 감소시키고 노인에 대한 자녀의 무관심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

6.1.2.2. 자녀의 돌봄 부재에 대한 관대한 태도

효 규범은 가부장적 친족제도를 사회적 기초로 하고 전통사회의 농업과 토지 개인 소유제를 물질적 기초로 한다. 그러나 20세기 초의 신문화 운동과 문화대혁명 시기의 조상숭배와 가부장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중국 사회의 효 규범은 가부장적 친족 제도의 사회적 지지를 상실하였다. 또한 건국 이후 토지의 국가(집체) 소유제로 토지의 개인상속 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효 규범은 물질적 기초를 잃게 되었다(孟憲范, 2008).

아직 국가와 주류사회가 적극적으로 효 규범을 권장하고 있지만 현재 효 규범은 단지 중국인이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문화 관성과 사회적 정서일 뿐 실제적인 도덕적 구속력은 매우 약화되었다. 심지어 노인들마저도 자녀에게 엄격하게 효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주노인들의 경우 자녀가 효심(孝心)이 있을지라도 현실적으로 돌보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자녀가 돌보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매우 관대하다. 연구사례 중에서 자녀의 돌봄에 대한 태도가 분명한 21개 사례 중에 자녀의 돌봄 책임을 강조하거나 자녀가 돌보지 못하

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사례는 4개뿐이다(<표 18> 참조).

<표 18> 돌봄에 대한 자녀의 책임 강조

사례	자녀가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노인의 생각
8.추형지 (도시)	자녀들은 의무가 있죠. 노인을 봉양할 의무, 양노임종의 의무요.
17.장만향 (도시)	아이들 태도에 달렸죠. 양로원을 가거나 애들이 돌봐야죠. 애들이 돌볼 수 있으면 애들이 돌보고 애들이 돌보지 못하면 양로원 가야죠. 양로원 가고 싶지는 않죠. 그런데 생활 자립도 못 할 때 자녀들더러 돌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안 좋고. 애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 것 같고. (어르신 자녀들도 지금 다 출근하는데 돌볼 수 있을까요?) 돌볼 사람이 없으면 출근을 못하죠. (애들이 돌보려고 할까요?) 하려고 할 거예요.
18.장홍인 (도시)	중국은 원래 삼강오상을 지키잖아요. 자녀와도 서로 책임을 다 해야죠. 아들 키우는 건 원래 노후 보장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움직이지 못할 때는 자식들이 보살펴야죠. (요즘 자녀들이 그렇게 바쁜데 보살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진짜 못 움직이면 보살펴야죠. 어찌겠어요? 부모가 없으면 자기가 없잖아요. 어느 집이나 똑같죠. 다 돌봐야죠. 자기가 못 돌보면 사람 고용해서라도 보살펴야죠. 중화미덕에 그렇게 써어 있잖아요.
29.문금화 (농촌)	지금 돈 대주니까 그러지 새끼 없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 같아. 같이 못 있는데 안 그렇소? 같이 못 있으니까...

대부분(17명)의 노인은 자녀가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이해와 관용을 표시한다(<표 19> 참조). 진향웅은 ‘어떤 경우에는 돌보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라고 하면서 자녀들이 노인을 돌보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들이 있다고 설명한다.

<표 19> 돌봄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관용

사례	자녀가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노인의 생각
1.엽지영 (도시)	딸은 손녀가 아직 어려서 매우 바빠요. 딸은 효도해요. 근데 개는 효도해도 쓸데가 없어요. 개는 남자 같아요. 개는 머슴아예요. 개가 나를 하나도 닮지 않았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엄마를 다 다 모시고 아주 잘 모셨는데. 나는 이런 것을 잘하지만 우리 딸은 이런 것을 못해요. 잘 보살피는 사람도 있고 보살필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개는 보살필 줄 모르는 쪽에 속해요. 나도 방법이 없어요. 딸을 키워 무슨 쓸모가 있나요. 사람은 참 착한데 말이죠.
2.진호창	애들이 다 출근하는데 어떻게 돌봐요? 돌볼 방법이 없죠. 이후에는 다 이렇게 될 거

(도시)	예요. 중국은 이제 다 이 길로 갈 거예요. 아이 하나가 양측 부모를 모시는 것이 그리 쉽나요? 어떻게 다 돌볼 수가 있나요? 그건 불가능해요.
3.필종구 (도시)	어떻게 장기간 돌보나요? 다들 집에 일이 있고 집에 노인이 있고 개네 각자들 집에 다들 자기 생활이 있고 아이가 있는데...
4.한옥지 (도시)	애들 어릴 때는 잘 키워야죠. 근데 아이의 보답은 우리가 생각해야 게 아니고 노인이 생각할 일이 아니고 노인은 이런 거 기대하면 안 되고 애들이 생각해야 할 일일 뿐이죠. 보답하고 효도하고 이는 그들의 일이지 노인이 요구해서는 안돼요. 요구하는데 돌봐주지 못하면 실망하게 되고 그렇죠, 상심하고, 요구하지 않아도 애들은 효도 할 거 하고 나도 기분이 좋고. 나는 여태껏 애들한테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요구한 적이 없어요. 내가 요구를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안 해도 애들은 효도할 건 해요.
5.한경윤 (도시)	어떤 노인들은 자녀가 곁에서 보살피고 있으면 기분 좋아하죠. 아, 내가 참 애를 잘 키웠구나하면서. 근데 나는 아니예요. 나는 마음이 도리어 불편해요.
6.유수지 (도시)	나는 애들 돌봄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집 딸애가 저를 도와 바닥청소를 하는 걸 제외하고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아들도 아무것도 안 시켜요. 와도 좋고 오지 않아도 좋고 화도 안내요. 각자 자기 삶을 살면 되죠. 불만할 게 뭐가 그렇게 많아요. 안 그래요? (중략) 자기 살림을 하느라 돌볼 겨를이나 있겠어요? 애들 부부 둘 다 출근하니까 나를 돌볼 겨를이 없어요.
9.가추분 (도시)	애들이 우리를 돌볼 수가 있나요? 우리가 돌봐주는 거면 몰라도.
10.진향웅 (도시)	우리 이 세대 사람들은 외동자녀를 많이 두잖아요. 애들이 사업이 이렇게 바쁜데 개네들더러 양측의 노인들을 보살피라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요. (중략) 만약 애들보고 돌보라고 하면 그러면 애들이 출근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이 경제상황에서 만약 출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이 문제되죠. 아닌가요? (중략) 어떤 경우에는 돌보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히 이 문제이긴 하죠. 지금 봐서는 만약 자녀가 그때 가서 일이 생겼을 때 와서 처리해주거나 하고 그때 가서 돈을 조금 부조한다거나 그러면 괜찮은 거죠. 아주 괜찮죠. 아닌가요? 직장을 그만두고 돌보는 것이 가능하나요?
11.정옥희 (도시)	애들도 다 출근하니까...
12.사회영 (도시)	아들도 출근하고 며느리도 출근하는데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그들더러 당신을 돌보도록 하다니요. 가능하나요?
13.두건국 (도시)	언제까지나 애들 사업을 중심으로 해야죠.
14.노자향 (도시)	애들보고 일도 하지 말고 노인들한테 맞추라고 하면 너무 이기적이지요.
15.오충진 (도시)	이건 어느 집에 가져다 놓아도 난제예요. 양쪽에 다 애 한명이고 애들은 또 다 출근하니까 노인을 돌보느라고 일 안하는 거는 이 사회에서도 허용이 안 되죠.자기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다 자기가 하면서 살고 정 안되면 양로원 가야죠. 지금 사회는 아들 키워서 양로한다는 거는 말이 안돼요. 자녀가 많으면 몰라도 지금은 애들 하나 밖에 없는데 어떻게 돌봐주고 관심해주고 하겠어요. 애들은 애들의 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회에 돈이 없으면 살지를 못하는데 돈 벌어야죠. 애들은 자기 애 키워야죠. 이걸 이 사회의 난제죠. 당연히 나는 양로원에 가고 싶진 않지만 방법이 없으니깐 어쩔 수 없죠.
16. 풍학귀 (도시)	애들은 또 애들 일이 있죠.
21. 왕다력 (농촌)	자식들도 그들의 가정이 있고 식구가 있죠.
22. 한동창 (농촌)	젊은이는 생각이 많아요. 까놓고 말해서 돌볼 틈이 없지요. 우리도 그들 나이를 겪어 봤지요. 개네는 돈 벌 궁리랑 뭘 한다거나 하느라 늙은이한테 신경을 못 쓰죠...
30. 오영순 (농촌)	애들이 지금 살겠다고 그렇게 뺨뺨거리면서 버는데...

<표 19>가 보여주는 것처럼 노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자녀들은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고 맞벌이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노부모를 돌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객관적으로 자녀가 돌보기 어려운 이유로 중국사회의 ‘4-2-1’ 가족 구조를 이야기 한다. 심지어 일부 노인들은 자녀들이 부모 돌봄보다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노인을 돌보기 위해 자녀의 사업에 지장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일일 뿐 더러 사회적으로 허용되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노인들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노인 돌봄에 집중하게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로 자녀는 자녀의 삶이 있기에 돌보지 못하는 것도 인지상정이라고 말한다.

중국의 현실에 비추어봤을 때 분명히 맞벌이, 치열한 경쟁, 삶의 스트레스 등 객관적인데 의해 노부모 돌봄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어려움을 핑계로 돌봄을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에게 있어서 ‘자녀가 돌봄을 소홀히 하고 있다’거나 ‘자녀가 불효한다’라는 인식은 엄청난 실망감, 좌절감 등 심리적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노인들은 돌보기 어려운 객관적인 측면들을 확대하여 해석하면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측면이 있다. 더불어 효 규범이 약화되어 노인들 손에는 실제로 성인자녀의 불효 행위에 대해 효과적

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다. 결과적으로 자녀에 대한 과도한 관용은 노인의 돌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데 불리할 것이고 자녀의 무책임한 행위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6.1.2.3. 양로원에 대한 수용

최근 자녀수의 감소, 자녀의 맞벌이 상황, 자녀의 생활 스트레스 증가, 자녀의 재이주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가족 돌봄의 가능성이 감소되면서 양로원 돌봄을 필요 하는 노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30명의 노인 중에 현재 요양원 돌봄을 받고 있는 노인이 9명이고 노후에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못할 때 입소 돌봄을 받고자 하는 노인이 9명이다. 현재 입소 돌봄을 받고자 하는 노인들은 거의 도시 노인이라는 것이 관찰된다.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는 농촌 출신 이주노인일 경우 대부분 조건이 비교적 열악한 양로원에 입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로원 입소는 자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의미가 더욱 강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 노인일 경우 충분한 양로수당이 있기 때문에 쉽게 중, 상급의 양로원에 입소하여 비교적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고급 양로원에서도 과학적인 식단, 정기적인 의료순찰, 다양한 오락시설, 쾌적한 주거환경, 취미활동 지원, 무장애 시설, 부부 2인실 등 다양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돌봄의 질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입소 돌봄이 자녀 돌봄 보다 더욱 나은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관찰된 바에 의하면 노인들의 높은 입소 욕구는 노후를 즐기는 의미 보다는 자녀 돌봄의 부재에 대한 대안으로써의 의미가 더욱 강하다. 대부분 노인들은 ‘자녀가 맞벌이를 해서’, ‘자녀가 바빠서’, ‘자녀 시대가 경쟁이 심해서’, ‘자녀의 사업을 위해서’, ‘자녀 2명이 4명의 노인을 돌봐야 해서’ 등 자녀가 돌보지 못하는 객관적인 현실에 비추어 노후에 양로원에 입소하고자 한다. 다수 노인들은 여전히 양로원을 최선의 선택지로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돌볼 수

없거나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차선으로서 보고 있다(<표 21> 참조).

<표 20> 독립생활 능력을 상실했을 때의 계획: 입소

이유	사례	독립적으로 생활할 능력을 상실 했을 때의 계획
자녀가 돌볼 수 없어서	7.항현귀 (도시)	자녀가 못 돌보면 실버타운 (老年公寓) 에 가야지요. 지금 노인들은 다들 실버타운에 가려 해요.
	10.진향웅 (도시)	우리 이 세대 사람들은 외동자녀를 많이 두잖아요. 애들이 사업이 이렇게 바빠뎌 개네들더러 양측의 노인들을 보살피라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요. (중략) 만약 애들보고 돌보라고 하면 그러면 애들이 출근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이 경제상황에서 만약 출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이 문제되죠. 아닌가요?
자녀에게 부담주 기 싫어서	11.정옥희 (도시)	부부 둘이서 양로원가야죠, 애들 에먹이지 않게. 이후에는 추세가 양로원 이잖아요.
	12.사회영 (도시)	나중에 늙으면요. 늙어서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되고, 독립할 수 없으면 양로원에 가야지요. 아들네는 출근도 하고 살림도 해야지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반드시 양로원에 가야 돼요. 자녀들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지요. 아닌가요? 지금 애들은 다 애들의 사업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양로원에 가기 싫어하잖아요.) 아이고, 참말로. 가면되죠, 뭐가 싫어요! 아들도 출근하고 며느리도 출근하는데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그들더러 당신을 돌보도록 하다니요, 가능하나요? 아이고, 우리 이후의 추세는 양로원이에요. 뭐가 그렇게 싫어요. 사람은 마음을 넓게 먹어야 해요.
	13.두건국 (도시)	늙어서 돈 있으면 고급 양로원에 가고 돈이 없으면 안 좋은 양로원에 가야죠.
	14.노자향 (도시)	일단 우리 둘이 동시에 똑같이 아프지는 않을 거니까, 누구하나가 덜 아픈 사람이 있겠죠. 덜 아픈 사람을 주력으로 일단 유지를 하고 집에서. 왜냐 하면 내 집이 있고 근처에 애들도 있으니까. 근데 혼자 남으면 어쩔 수 없이 양로원에 가야죠. 근데 이후에 주거단지에서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집에서 있으면 될 것 같고. 이게 안되면 양로원으로 가야 되죠. 애들보고 일도 하지 말고 노인들한테 맞추라고 하면 너무 이기적이지요. (중략) 자녀는 의지하려고 해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출근하니까 출근 하지 말고 나를 수발하라고 하면 너무 도리에 어긋나죠. (중략) 옛날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양로수당도 없고 저축도 없으니까 늙어서 노동능력이 없고 생활 능력이 없으면 자녀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소득이 있고 주택도 있고 애들이 정말 바빠뎌 양로원에 가도 되고 자녀한테 의지할 정도로 피동적이지 않죠. 자녀를 의지할 생각 해본적도 없거니와 정말 또 자녀한테 의지해도 즐거울 것 같지도 않고요.
	15.오충진	이건 어느 집에 가져다 놓아도 난제예요. 양쪽에 다 애 한명이고 애들은

	(도시)	또 다 출근하니까 노인을 돌보느라고 일 안하는 거는 이 사회에서도 허용이 안 되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다 자기가 하면서 살고 정 안되면 양로원 가야죠. 지금 사회는 아들 키워서 양로원한다는 거는 말이 안돼요. 자녀가 많으면 몰라도 지금은 애들 하나 밖에 없는데 어떻게 돌봐주고 관심해주고 하겠어요. 애들은 애들의 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회에 돈이 없으면 살지를 못하는데 돈 벌어야죠. 애들은 자기 애 키워야죠. 이걸 이 사회의 난제죠. 당연히 나는 양로원에 가고 싶진 않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16.풍חק귀 (도시)	저는 양로원에 갈 거예요. 마누라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제가 느끼기에 제가 더는 마누라 병 수발이 힘겹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나라에서 특히 우리 산동에서는요, 재택 돌봄이 곧 실현될 거예요. 주거 단지마다 재택 돌봄을 시행할 거예요. 재택 돌봄이 없으면 집에 있을 수가 없죠. 아이들도 60이 넘어 가는데, 누구도 환자를 병수발하기가 싫어하겠죠. 누가 병 수발 하려 하나요? 누구라도 바람 쐬러 나가고 싶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러한 경우는요, 사회에 의지해서 돌봄 받아야 돼요. 사회발전이 우리한테는 유리해요.
	26.정춘자 (농촌)	누구라든지 한 사람만 남게 되면 아이들 고생시키지 말고 양로원에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하긴 하죠.

이처럼 자녀들이 자기의 삶을 감당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자녀가 돌볼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고 생각하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양로원 돌봄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관찰된 바에 의하면 노인의 입소 욕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의 양로원 이용은 입소와 적응, 양로원 입소 후의 가족 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예컨대 문금화의 사례에서는 자녀의 돌봄 부재로 입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체면을 위한 자녀의 거부가 입소를 방해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문금화의 경우 자녀들이 모두 한국에 나가고 아들이 사농은 ‘집을 지키면서’ 위해시에 독거하던 중에 독거의 공포로 양로원에 입소하겠다고 제기 했다. 그런데 딸과 며느리는 ‘모시지도 못하면서’ ‘어머이 우리를 욕먹이자고 양로원에 가겠는가’라고 하면서 반대해 나섰다. 결국 문금화가 자식이 보내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혼자 선택한게다’라고 견지해서야 겨우 입소할 수 있었다.

문금화(여성, 77세)

(아들은 어떻게 위해시에 오게 되었나요?) 아들은 위해에 안 왔어. 한국에 나가 돈 벌어가지고 위해에다가 집을 샀지. 목단강에서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와서 여기다 집을 샀지. (중략)개네는 한국에 가고 그냥 여기 집을 사놓고 나를 오라고 해서 그제 여기 왔지. (그럼 할머니는 여기 집 지키러 오신거예요?) 그래 집 지키러 왔지. 집에 1년 있다가 혼자 무서워 못 있겠더라고. 내 혼자 집에 있다가 뭐 온데 자꾸 아프지 뭐 자꾸 문을 두드리지, 꼭대기에서 무스게 탕 내리 떨어지는 것 같지, 이게 안 되겠다고, 혼자 못 있겠다고 내 양로원에 가겠다고 그래서 양로원으로 온겁니다. 내가 양로원 오겠다고 하니까 우리 딸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지. ‘야, 양로원은 죽는데야? 양로원도 잘하고 있는데’ ‘내 혼자 선택한게다’. 며느리도 그래지, ‘어머이 우리를 욱 먹이자고 양로원에 가겠는가고’ ‘그게 아니다. 내 혼자 선택한게다.’ 자식들 욱 먹일 게 있어? 내가 집에 있기 싫어서 양로원에 들어왔는데. (근데 자녀분들이 양로원이 안된다고 하셔도 모시지는 못하는 거죠?)그래! 개네들이 모시지도 못하면서 자꾸 양로원 들어 온 거 반대하고, 그래 내가 혼자 여기 오니까 좋지 뭐.

입소 후 적응의 어려움에는 언어적 장벽으로 현지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어서 양로원에서 다른 노인들과 교류하지 못하고 늘 혼자 있는 문제(필종구의 사례), 양로원의 음식에 대한 부적응(엽지영), 양로원 내의 종교 강요(오영순의 사례), 자녀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 현재 노인들로부터 보고 된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되거나 적응됐으나 자녀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은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에 사는 자녀들과 함께 살고자 한국으로 갔다가 주택 협소로 자녀와 살지 못하고 위해시의 양로원으로 입소한 오영순은 자녀에 대한 그리움으로 심리적 고통이 매우 크다. 오영순은 자녀가 너무 그리워 아직도 가끔 혼자 숨어서 울기도 하고 1개월에 1번 정도 걸려오는 자녀의 전화를 받고자 어디가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닌다.

오영순(여성, 81세)

처음 와서는 자식을 몽땅 한데다가 놔두고 자식이랑 살다가 이렇게 와놓으니까 아우~ 애들이 보고 싶어서 말도 못함다. 혼났어. 애들이 보고 싶어서 하니까 사방에서 그러니까. 돈을 벌지 않고 엄마 불러 오겠는가고 무슨 게 자꾸 아들, 아들 한다고. 내가 핸드폰도, 저 성경 학습하면 저 또 가지고 다닙니다. 전화 올까봐. 전화 오면 받자고. 지나칠까봐. 계~속 가지고 댕긴다고 옆에서 자꾸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해도 어찌겠소. 내 보고 싶은 거, 계속 건사해야지, 누가 건사하겠소. 그래서 지금 건사해서 가지고 다니고, 오늘 아침에도 가지고 가고. (중략) 그리워서 어떤 때는 내 혼자 울지 뭐, 그저 내 혼자 숨어서, 난 남 앞에서 조만 안 울고, 남 없는데서 그래 눈물 흘리지 뭐.

노인이 경험하는 입소 후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은 주로 가족의 방치와 무관심이다. 일반적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양로원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자녀들로부터 입소비와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방문과 연락은 일상적인 정서적 교류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이 있을 때’ 필요에 한해 진행되고 있다. 가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 상황이 없을 경우 노인들은 거의 양로원에 방치되어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옥순(여성, 81세)

(따님 집은 위해시 어디에 살시나요? 따님이랑 사위가 자주 여기 어르신 보러 오세요?) 고기술개발구, 개도 또 목사 여자가 되서 그런지 일이 바빠 가지고 자주 못 오고 일이 있으면 오고, 저번에는 5월 달에는 한번 여기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서, 양로원에 무슨 일이 있어서 왔겠는지. (평소에는 많이 오세요?)아니, 바빠서 그러지 못해. (전화는 자주하세요?) 전화는 필요하면 내가 또 하고, 저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전화하고. (전화는 얼마 동안에 한번 하세요?) 전화는 뭐 자주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주 안하지. 내가 또 건강하니까. 아픈데 없어요. 무릎이 가끔 아픈데 따뜻하게 하면 일 없어요.

특히 자녀가 한국에 있는 조선족 노인일 경우 물리적 거리가 멀기 때문에 노인이 방치에 가까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더욱 많다. 오영순의 사례에서 오영순은 4명의 자녀가 그리워 매일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만 자녀가 전화하는 회수는 반년에 3, 4회 밖에 안된다. 양로원을 방문한 자녀도 1명밖에 되지 않았다. 문금화는 1개월에 전화 1회, 1년에 방문 1회가 어려운 아들들의 방치를 ‘새끼 없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 같애’라고 말한다.

오영순(여성, 81세)

(전화 자주 오시나요?) 못 온단 말이오. 거기 일이 하는 게 바빠서 하나도 지금 여기 못 왔어. 아들들이 누구도 못 오고. 하나 딱 왔다가 나를 들여다보고 갔어. 그 다음에는 하나도 못 왔어. (한 달에 전화 한 번씩 오시나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얼마 좋겠소. 못 오오, 이제는. 우리 개들은 집 짓는 일을 하지 뭐. 그런데 집 짓는 일이 떨어지면 안되오, 떨어도 못 지고. 어찌나 꾸준히 해야 되지. (그럼 얼마동안에 전화 한번 받아요?) 와서 한 반년에 서, 너 번.

문금화(여성, 77세)

지금 돈 대주니까 그러지, 새끼 없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 같애. 같이 못 있는데 안 그렇소? 같이 못 있으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네요) 그래, 같이 있고는 싶지. 그러나 개네 한국 있는 게 언제...아이구. (전화는 자주 오시나요?) 전화는 옴다. (한 달에 몇 번씩 오나요?) 한 달에 몇 번씩은...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다행입니다. 우리 딸은 한 달에 한 닷 번씩도 오고하는데, 개네는 일이 바쁘다고 맨날... (그럼 일 년에 한 번씩 오시나요? 아드님들이?) 일 년에 한번씩? 일 년에 한 번씩은 힘드오. 저번에는 일 년에 한 번씩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오는 것 같지 않습다. 일이 너무 바빠서.

이처럼 자녀가 돌보지 못하는 현상이 보편화되자 점점 많은 노인들이 양로원 입소를 수용하고 있으나 양로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도 많은 문제들이 있다. 예컨대 양로원에 입소하고자 할 경우 체면을 위한 가족의 반

대, 양로원에서의 적응, 경제적 의존 노인에 대한 가족의 방치 등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 따라서 이주노인들이 자녀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입소 돌봄이 필요로 하는 경우를 고려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6.2. 자녀의 돌봄 규범

6.2.1. 의존 상황 발생 전 자녀의 높은 부양 책임감

노인들의 구술을 통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자녀의 부양 의무감은 자녀의 부양행동과 별개로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의존 상황 발생 이전에는 노인으로부터 오는 폭 넓은 지원을 받고 있는 동시에 부모 돌봄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부모의 노후에 대한 부양 책임감은 더욱 높게 나타난다. 예컨대 가추분의 사례에서 가추분 부부는 쇠퇴하고 있는 림업 지역에서 위해시로 이주한 큰 아들의 육아 도움 요청에 의해 위해시로 이주하였다. 현재 위해시에서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가추분의 아들 부부는 회사의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고 가추분 부부가 손자가 다니는 학교 근처의 지하실을 임대하여 손자를 돌보고 있다. 가추분의 아들은 건강하고 충분한 양로수당이 있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지만 손자를 돌보면서 화장실 청결노동까지 하고 있는 노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노후에 잘 돌볼 것을 약속하고 있다.

가추분(67, 여성)

(어르신께서는 아드님이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서는 그래요.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것을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둘째 아들은 어떨지 모르는데 지금 이 아들은 큰 아들이에요. (어떻게 큰 아들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드님이 뭐라고 말씀 하셨나요?) 큰 아들이 그래요. ‘엄마 걱정 마요, 엄마, 아빠 늙으면 내가 모실게요. 아내랑 이런 일로 싸우면 내가 아내를 버리더라도 엄마, 아빠 모실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내

버리고 부모 모시는 게 어디 있냐?’ 그랬더니 큰 아들이 ‘두고 보라고’ 그래요. 개가 이렇게 말하는데 안 믿어 줄 수 없죠. 더 논쟁 할 필요도 없죠.

이처럼 노부모들의 지원을 통해 결혼, 주택, 육아 등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성인자녀들은 ‘양심’에 의해서라도 부모에 대한 높은 부양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효심과 효행의 불일치는 있을 수 있으나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인식은 아직도 중국인의 일반적인 정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6.2.2. 의존 상황 발생 후 부모 돌봄에 대한 현실적 한계

6.2.2.1. 노부모의 민폐 최소화 노력에 대한 거리두기

이주노인들은 성인자녀를 위해 노후에도 폭 넓은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자녀에게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녀들의 효행을 사양하며 자녀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입소를 선택한다. 이에 자녀들은 노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에는 강한 부양책임감을 느끼지만 노인들이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오면 매우 제한된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녀들은 노인이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사양하거나 양보하거나 배려할 때 자녀 된 책임이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했다가 노인들이 양보 결정을 내리면 부모의 ‘뜻’을 따르기만 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주 노인들은 노후에 자녀의 안배에 상당히 순종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녀들의 의견을 잘 따른다. 예컨대 자녀의 입소 건의에 거부하다가 결국 순응한 최준옥 사례와 자녀의 안배에 따라 입소한 필종구 사례, 자녀의 요구로 인해 양로수당 관리를 자녀에게 넘긴 한옥지 사례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자녀의 효행을 사양하거나 자녀에게 민폐를 끼칠까봐 입소하고자 할 때 자녀가 강력하게 반대하면

자녀의 뜻을 따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녀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노인들의 배려 결정이 자녀의 이익 최대화에 부합되기 때문에 자녀들은 노인들의 뜻에 반대를 하지 않고 순순히 따를 뿐이다. 예컨대 앞에서 언급한 자녀의 효행에 대해 노인이 사양한 사례를 살펴본다면 최춘옥은 양로원에 6년 동안 있는 동안 한국으로 간 세 명의 딸의 방문을 각각 한 번 밖에 받지 못한 상황에서 딸이 한국으로 놀러오라는 요청을 거절하였다. 결과 딸은 놀러오라는 요청을 견지하지 않았고 최춘옥의 한국 방문은 없는 일로 처리되었다. 또 문금화가 딸의 설날 방문을 사양했을 때 딸은 문금화의 뜻에 따라 설날에 연로한 어머니를 방문하지 않았고 한동창이 경제적 이유로 며느리의 눈병치료 제안을 사양했을 때 며느리도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견지하지 않았다.

노인의 자녀배려 결정에 거리두기하면서 그 결정에 따르기만 하는 현상은 노인의 양로원 입소 과정에서 특히 분명히 들어난다. 한옥지의 경우 자녀가 맞벌이를 하여 늘 혼자 집에 있기 때문에 외로워서 요양소 입소를 제기하였다. 이때 한옥지의 자녀들은 노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증가하거나 정서적으로 노인을 더 돌보기로 한 것이 아니라 한옥지의 입소결정을 받아 들었다. 사별 후 홀로 임대주택에서 사는 한경윤은 자기가 죽어서 집안에서 썩어버려도 누구도 모를 것 같다고 생각하여 요양원에 입소하기를 결정하였고, 한경윤의 자녀들은 아무런 반대의견도 제기하지 않았다. 한옥지는 자녀가 반대하지 않은 것은 세대 간의 존중과 자유라고 해석하고 한경윤은 자녀의 가부장적 권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자녀들이 노인의 입소결정을 반대하지 않는 이면에는 노인에 대한 돌봄의 개선 노력의지가 없음이 들어난다.

한옥지(여성, 82세)

(어르신께서 이곳으로 입소할 당시 자녀분들이 동의하시던가요?)

음... 나랑 애들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애들이 뭘 하고 싶으면 뭘 하게 해요. 나는 애들을 구속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런다고 애들이 위법행위는 하지 않을 거고.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우리 애들도 나를 구속하지 않아요. 제가 입소생활을 경험해 보겠다고 말하였어요. 한 달

을 있어보니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죠. 음, ‘우리 며느리가 그래요. 어머니님 돌아오시고 싶으면 돌아오셔서 지내시고요. 이곳에서 지내고 싶으면 이곳에서 지내시세요.’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있고 싶다고 말했어요.

한경윤(남성, 89세)

(어르신께서 양로원에 입소하실 때 아드님 따님께서 동의하시던가요?) 개네요. 제가 어떻게 하자고 하면 개네는 누구도 '가시면 안 되요, 이러세요, 저러세요' 이러지 않아요. 좋거나 나쁘거나 전부 저의 의견을 찬성해요. 좋지 않아도 복종하여야 되고 좋은 것도 복종해야 되지요. (전부 어르신 스스로 결정하시는 거네요?) 네, 노인도 권위가 서야지요. 우리 집안을 보면 어릴 때부터요, 내가 아이들을 엄격하게 키웠어요. 내가 훈육이 좀 엄했어요. (중략) 내가 어릴 때부터 일본 교육을 받아 가지고 낡은 봉건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교육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하.

가추분의 경우 소득을 늘이기 위해 67세 나이로 화장실 청결 일을 하겠다고 제기 했을 때 처음에는 아들의 반대를 받았지만 가추분이 객관적으로 가정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아들은 가추분의 뜻을 따랐다.

가추분(여성, 67세)

처음에는 아들이 계속 내가 일하러 오는 것을 반대했어요. ‘한평생 일하고는 또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죠. ‘집에만 있으니까 갑갑하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벌어야지. 지금 우리는 집도 마련해야 하고 아이가 학교 다니는데 다 돈이 들지 않냐?’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정 일 나가기를 원하면 일 나가 보세요. 아빠더러 아이를 배웅 다니게 하죠.’ 실은 아들은 개 아빠가 애를 돌보는 것을 믿지 못해 해요. ‘정 원하면 일 나가세요. 아빠더러 애를 돌보게 하세요. 아이를 데려가고 데려오고 할 때 아빠더러 오가는 차들을 잘 살피고 조심하시라고 하세요.’ 그러죠.

최근의 성인자녀들은 노인이 경제적 돌봄이나 가사, 육아 돌봄을 제공하면 흔쾌히 받아들이고 노인이 자녀에게 부담될 까봐 효행을 사양하거나 양보결정을 하면 역시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자녀에 대한 노인의 배려에 대해 거리두기 하면서 순응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노인은 독립 능력이 있을 때도 자녀를 위해 온갖 헌신과 양보를 다하고 의존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자녀에 대한 민폐최소화를 위해 자신의 욕구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자녀들은 노인들의 도움도 순순히 받아들이고 노인들의 배려와 양보에도 순응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있다.

6.2.2.2. 노부모 돌봄에 대한 아들의 역할 감소

중국은 가족주의와 효 규범의 전통을 가진 나라로써 예로부터 자녀가 노부모를 돌보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최근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한 자녀수의 감소, 자녀 이주로 인한 세대 간의 공간적 분리, 보편적인 맞벌이 상황 등으로 인해 자녀 돌봄의 객관적 어려움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자녀 돌봄의 법적 책임은 여전히 <혼인법>, <노인권익보장법> 등 법규에 의해 강력하게 규정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돌봄의 개선이 욕구의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주류사회에서는 가족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효’ 규범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노후보장의 부족, 양로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자녀에 대한 믿음과 애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많은 노인들은 ‘養儿防老(아들을 양육하여 노후에 대비한다)’의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30명의 노인 중에 노후에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못할 경우 자녀의 돌봄을 받겠다고 한 노인이 8명을 차지하는데 이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독립적으로 생활할 능력을 상실했을 때 자녀(특히 아들)에게 돌봄을 받고자 한다. ① 자녀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중에 소수지만

삼강오륜의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근거로 자녀들의 돌봄을 당연하게 기대하는 경우가 있다. 장흥인은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없다’는 보은 논리로 자녀 돌봄을 기대하고 있다. ② 일부 노인들은 자녀가 돌본다고 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자녀를 믿고 자녀 돌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녀 돌봄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양로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우선 한번 믿어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믿음의 근거는 자녀들의 돌봄 약속이나 평소의 돌봄 행위일 수도 있고(가추분, 이태성, 추형지 사례), 아들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고(왕다력 사례), 그냥 막연히 믿는 것일 수도 있다. ③ 일부 노인들은 양로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자녀들의 돌봄을 받고자 한다. 김영훈은 양로원에 가면 ‘10년 살 사람도 5년도 안 살고 죽어버린다’라고 생각하고 왕학택은 양로원을 ‘지옥’이라고 생각한다. ④ 일부 노인은 단순히 자녀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기인하여 자녀 돌봄을 희망한다. 한동창은 양로원에서 생활할 때 발생할 외로움을 기피하고자 자녀 돌봄을 희망한다. 독립적으로 생활할 능력을 상실했을 때 자녀돌봄을 희망하는 노인들의 생각은 <표 21>을 참조할 수 있다.

<표 21> 독립생활 능력을 상실 했을 때의 계획: 자녀 돌봄

유형	사례	독립적으로 생활할 능력을 상실 했을 때의 계획
전통적 가족주의	18.장흥인 (도시)	중국은 원래 삼강오륜을 지키잖아요. 자녀들도 책임을 다해야죠. 아들 키우는 거는 원래 노후 보장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움직이지 못할 때는 자식들이 보살펴야죠. (요즘 자녀들이 그렇게 바빠데 보살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진짜 못 움직이면 보살펴야죠. 어찌겠어요? 부모가 없으면 자기가 없잖아요. 어느 집이나 똑같죠, 다 돌봐야죠. 자기가 못 돌보면 사람 고용해서라도 보살펴야죠. 중화미덕에 그렇게 써어 있잖아요.
막연한 기대	9.가추분 (도시)	(어르신께서는 아드님이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그래요.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것을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둘째 아들은 어쩔지 모르는데 지금 이 아들은 큰 아들이예요. (어떻게 큰 아들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드님이 뭐라고 말씀 하셨나요?) 큰 아들이 그래요. ‘엄마 걱정마요, 엄마, 아빠 늙으면 내가 모실게요. 아내랑 이런 일로 싸우면

		내가 아내를 버리더라도 엄마, 아빠 모실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내 버리고 부모 모시는 게 어디 있나?’ 그랬더니 큰 아들이 ‘두고 보라고’ 그래요. 개가 이렇게 말하는데 안 믿어 줄 수 없죠. 더 논쟁할 필요도 없죠. (중략) (아드님과 며느님이 돌보지 못하면 양로원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신 적 있나요?) 생각 해봤죠. 그것도 생각했었어요. (입소하고 싶은 건가요?) 싫어도 어찌하겠어요. 만약 아들, 딸이 잘 대해주면 가지 않겠지요. 이걸 이후에 고려해야 할 문제고. 만약 아들, 딸이 잘 대해주면 가지 않지요. 지금은 우리 둘이 아직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뭐라 단정지을 수는 없죠.
	8.추형지 (도시)	자녀 힘을 빌릴 수 있으면 자녀한테 의지하는 쪽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가 되면 어쩌면 개들도 언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도움을 못 줄 수도 있죠. 자녀가 돌보려고 해도 못 돌보면 그때 되면 나라가 고령 사회가 되면 국가에서 많은 정책이 나오겠죠.
	21.왕다력 (농촌)	그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때 되어서는 아들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일이죠. 우리가 선택하거나 할 권리는 없죠. 독립을 못할 때는 양로원에 가라고 하면 가야 되죠. 그래도 실마 양로원에 가게 하겠어요? 아들이 3 명인데 양로원에 보내겠어요? 부끄러운 일이지 않아요. 쪽팔리잖아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들 3명인데도 양로원에 간다고. 다른 사람들이 비웃겠죠. 진짜 늙어서는 아이들이 안배하는 대로 따라야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아들이 양로원에 보내든가 어쩌든가 애들 일이지. 애들 3명에서 상의해야죠. 우리 둘은 그 때 그 때 생각하는 거예요.
	17.장만항 (도시)	아이들 태도에 달렸죠. 양로원을 가거나 애들이 돌봐야죠. 애들이 돌볼 수 있으면 애들이 돌보고 애들이 돌보지 못하면 양로원가야죠. 양로원 가고 싶지는 않죠. 근데 생활 자립도 못해서 있을 때 자녀들 보고 돌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안 좋고. 애들한테 부담을 많이 준 거 같아서 부담스러울 거고. (어르신 자녀들도 지금 다 출근하는데 돌볼 수 있을까요?) 집에 상황이 돌볼 사람이 없으면 출근을 못하죠. (애들이 돌보려고 할까요?) 하려고 할 거예요.
양로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	25.김영훈 (농촌)	양로원에 안갑니다. 양로원에서는 돈만 돈이고 사람 어떻게 되던지 간에 관계 안 하니까 10년 살 사람도 5년도 안 살고 죽어버린단말이.
	19.왕학택 (농촌)	안되면 도우미 구해서 돌봐야죠. 양로원은 갈 때가 아니에요. 감옥이지, 노인아파트는 괜찮은데 아직 양로원은 너무 안좋아요. 준비 해놓은 게 없으니까 그 때가서 애들이 알아서 하겠죠.
외로움 기피	22.한동창 (농촌)	그때 돼서 봐야죠. 개들이 돌볼 수 있으면 개네 곁에 있고 안되면 조건이 되면 양로원 가야죠. 근데 이것도 조건이 되어야 양로원에 갈 수 있죠. 만약에 경제조건이 안 되면 집에 있어야 되죠. (중략) (만약 조건이 만족된다면 어르신께서는 양로원에 가실 건가요?) 그때 가서 다시 봐야죠. 자녀의 의견을 봐야죠. 노인들은 다 자녀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누구도

		홀로 외롭게 그런 곳에 가서 지내고 싶지는 않겠죠. 아는 사람도 없고.
--	--	---

독립적으로 생활할 능력을 상실했을 때 자녀의 돌봄을 기대하는 노인 8명 모두 최소 1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독립적으로 생활할 능력을 상실한 사례들에서 관찰된 바에 의하면 아들에 의한 돌봄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와상상태가 관찰된 사례 4개 중에서 아들의 동거부양 사례가 하나도 관찰되지 않았다. 대부분 이주하는 성인자녀들은 맞벌이를 해야 만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고 보편적인 맞벌이 상황은 자녀의 돌봄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맞벌이 상황에서 노인이 수발이 필요할 때 대부분 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주 돌봄자가 되었고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이나 노부부가 모두 독립적으로 생활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양로원에 입소했다. 진호창의 경우 자녀와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갑자기 와상상태로 되었을 때 아들은 단지 양로원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진호창(남성, 83세)

(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어서 입소하신 건가요?) 네, 안 사람 몸이 많이 아파서 경제 개발구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15일 정도 입원했을 거예요. 아이구, 이걸 어떡하나 그랬죠.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매일 병원으로 밥 나르기도 힘들고. 원래는 다 좋았는데 작년의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더니 양로원에 입소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다고 했죠. 양로원에 가면 내가 매일 밥 안해도 되고 이것저것 신경 안써도 되고 좋잖아요. 그랬더니 아들이 위해사에서 제일 좋은 양로원 D양로원을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먼저 와서 구경해보고 구경해보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는 스위트룸이잖아요. 이 양로원에서 제일 좋은 방이에요. 다른 방은 다 작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걸 그냥 이사하는 거라고, 새 집에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거주 조건이 집보다 못지않다고 그러죠.

정춘자 노인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와상상태에 처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들 집이 7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산책이 어렵다는 이유로 동거 돌봄을 제공하지 않았다. 와상 배우자의 돌봄은 주로 정춘자가 아픈 몸으로 수행하고 있고 아들, 며느리는 부분적인 경제적 지원과 자주 방문할 뿐이다.

정춘자(여성, 73세)

(할머니 몸은 어떠세요?) 위하수(胃下垂)에 걸려서 위가 답답하던 말 이야, 머리도 아프고 정신이 황~하지 뭐. (이런 상황에서 할아버지 보살필 수 있어요?) 그면, 어, 어찌겠어? (할아버지 보살펴줄 사람이 없나요? 아들 있지 않아요? 아들) 아들도, 다, 지금 제 밥벌이하느라고. 아들 집이 7층이란 말이야. 그니까 이 영감이 그 올라 못 가고 우리 따로 이렇게 와 있지. (아들 집 엘리베이터 없어요?) 아들 집, 엘리베이터 없어. 엘리베이터 있음 일 없지. 엘리베이터 없단 말이여. (엘리베이터 있으면 아들 집에 갈거예요?) 그렇지 뭐. 아들이 자꾸 와 들려다 보지 뭐. (중략) 그래도 요기는 이렇게 엘리베이트니까. 휠체어해서 밀고 나갈 수도 있는데, 7층이니까 불편하다 말이야. 엘리베이터면 일 없는데 엘리베이터가 아니니까.

아들부부가 와상노인 수발을 시도해본 사례도 있지만 결국 아들부부의 신체적 돌봄은 지속되지 못했다. 한 때 풍학귀 혼자서 아버지, 어머니와 배우자 세 명의 와병 상태인 가족을 돌봐야 할 때는 아들을 불러 왔지만 고부갈등이 생기고 아들이 너무 힘들어 해서 아들부부는 10개월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배우자의 돌봄은 아직도 전적으로 풍학귀가 부담하고 있다.

풍학귀(남성, 68세)

(어르신 자녀분들은 병수발을 도와주러 오지 않으세요?) 아이고, 그들이 스스로 돈을 벌어 자기를 먹여 살리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제가 그들까지 부담을 해야지요. 예전에 와서 여기서 1년을 조금 넘게 있었어요. 안돼요. 중국은 이 고부갈등이 심해요. 입으론 말하지

않지만 여전히 갈등이 있어요. (아드님은 이곳에서 직장을 다시셨던 건가요?) 아니요. 개가 휴가를 냈어요. 봉급이 없이 무급휴직 했어요. 여기서 1년을 넘게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금방 이주했잖아요. 어머니를 홀로 두면 안 되니까 어머니도 있었어요. 아들이 와서 1년은 안 되고 아마 10개월 정도 있다가 갔어요. 와서 안 되니까 아들이 ‘너무 힘들어 안 되겠어요.’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 되면 집으로 가거라.’ 아들이 그 당시 아직 서른이 조금 넘은 나이니까 나가 놓고 구경 다닐 생각만 해요. 어린 손녀도 놀고 싶어 하죠. 일요일만 되면 놀러 나갈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때는 개네들을 나가지 못하게 집에서 저를 돕도록 하게 했어요. 안되니까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젊은이더러 늙은이의 수발을 들게 하면 못해요. 힘들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죠. 사실은 너무 힘든 것은 아닌데 너무 시간이 드니까 견디지를 못하죠.

아들들이 많은 돌봄을 제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노인들은 매우 관대하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서운해 하는 노인도 있다. 문금화는 자신을 멀리 양로원에 입소시켜놓고 한 달에 전화 1회, 1년에 방문 1회가 어려운 아들들의 방치를 ‘새끼 없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 같아’라고 말한다.

문금화(여성, 77세)

지금 돈 대주니까 그러지, 새끼 없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 같아. 같이 못 있는데 안 그럴소? 같이 못 있으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네요). 그래, 같이 있고는 싶지. 그러나 개네 거기(한국) 있는 게 언제...아이구(한숨). (전화는 자주 오시나요?) 전화는 옴다. (한 달에 몇 번씩 오나요?) 한 달에 몇 번씩은...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다행입니다. 우리 딸은 한 달에 한 닷 번씩도 오고하는데, 개네는 일이 바쁘다고 맨날... (그럼 일 년에 한 번씩 오시나요? 아드님들이?) 일 년에 한번씩? 일 년에 한 번씩은 힘드오. 저번에는 일 년에 한 번씩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오는 것 같지 않씀다. 일이 너무 바빠서.

6.2.2.3. 노부모 돌봄에 대한 딸의 역할 강화

중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오던 가족 돌봄은 아들과 며느리를 중심으로 한 돌봄이었다. 중국의 경우 오랜 시간동안 재산의 계승은 ‘아들 균등 상속’이었기 때문에 장남뿐만 아니라 모든 아들이 부양의 책임이 있었다. 따라서 아들이 많은 집안에서는 교대로 노인을 모시거나 생활조건이 더 좋은 아들의 집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노인과 동거하면서 돌봐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관찰된 이주가족에서는 주 돌봄자가 아들이 아니라 딸인 경우가 더 많다. 30명의 노인 중에 현재 주 돌봄자가 아들(며느리, 손자)인 노인이 11명이고 주 돌봄자가 딸인 경우가 15명이다. 아들과 딸을 모두 가진 노인 13명 중에 딸이 주돌봄자인 노인이 9명을 차지하고 아들이 주 돌봄자인 경우는 4명밖에 되지 않는다(<표 22> 참조).

<표 22> 이주노인의 주 돌봄자

사례(사례 수)	위해시에 자녀가 있는 노인	주 돌봄자(+예비 주 돌봄자)	
		아들, 며느리, 손자	딸
아들만 가진 사례 10 명	7	7(+예비 3)	-
딸만 가진 사례 7 명	7	-	6(+예비 1)
아들과 딸을 다 가진 사례 13 명	9	4	9
합계 30 명	23	11(+예비 3)	15(+예비1)

이주노인의 딸들은 전통적으로 아들이 했던 것처럼 노인과 동거하면서 노인을 돌보거나, 분거나 입소한 노인을 방문하여 가사를 돕거나, 자주 통화하고 돈과 물품을 보내거나, 노인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간병을 하거나, 노인을 대신하여 경제관리를 하거나, 노인의 생활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형제들 사이에서 모금을 조직하는 등 다양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는 서구에서 가족 돌봄의 지배적인 형태로서

애정을 기초로 한 딸의 돌봄이 부각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면이 있다.

동시에 중국 이주가족에서는 친부모의 애정과 돌봄에 보다 능한 여성적인 기질과 과 다른 맥락으로 인한 딸의 돌봄 역할 강화도 관찰된다. 우선 중국의 경우 1972년부터 ‘한명이라고 해도 적지 않고 두 명이 적당하며 세 명은 많다’는 출산 억제 정책을 실시하였고 1979년부터 강력한 한 자녀 정책을 실시하였다(이경희, 2004). 따라서 60세, 70대 노인들 중 자녀가 1, 2명인 경우가 많고 외동딸을 가질 경우도 상당히 많았는데 외동딸을 가질 경우 자연적으로 주 돌봄자는 딸이 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 중 7명이 딸만 가진 경우로 그들의 주 돌봄자는 딸이었다.

또한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성별 평등 수준이 매우 높은데다가, 이주한 여성들은 거의 도시에서 직업을 가지고 독립적인 소득이 있으며 양육의 영역에서 더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아를 도와줄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하는가에 있어서 여성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이때 여성들은 고부갈등을 우려하여 시어머니보다는 도움 받기 훨씬 편한 친모를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육아도움으로 인해 더 많은 친부모가 이주하게 되고 이렇게 이주한 노인들의 주 돌봄자는 딸이 된다.

다른 한편 이주노인의 입장에서 자녀세대의 육아를 돕는다는 것은 노후에 자녀가 있는 생소한 도시로 이주해야 하며 장기간 육아노동에 시달리게 되며 이 과정에서 가족 갈등 발생의 위험성도 있어 큰 희생이 수반한다. 따라서 노후걱정이 없는 노인의 경우 육아요청을 하는 쪽이 며느리일 경우 보다 자신의 혈육인 딸일 경우에 더욱 기꺼이 도와주는 경향이 있다. 이주노인들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진정 자기 딸을 아끼기 때문에 애들 봐주는 사람은 대부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이다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친정부모가 육아를 도우려 딸 근처로 이주하여 장기간 딸의 육아와 가사를 지원해주고 살게 되면서 노후에는 자연적으로 딸을 의지하게 된다. 항현귀의 경우에도 셋째 딸이 국유기업시기의 구조조정으로 실업하여 위해로 이주한 후 육아난을 겪자 친정부모인 항현귀 부부에게 도움을 청했다. 항현귀 부부는 딸을 아끼는 마음에 10년 동안 외손자를

봐주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노후도 딸과 함께 보내게 된다.

항현귀(남성, 77세)

셋째 딸은 공장이 아니고 가게에서 일했어요. 뭐냐면 사무기기를 판매하는 건데 역시 망했어요. 직원들한테 월급을 못 주니까 봉급을 안 주는데 누가 일을 하겠어요. 사람이라면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요? 그래서 개가 이곳으로 왔어요. 다른 사람 밑에서 옷 파는 일을 해요. 그 때 딸이 애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입학하려고 할 때였어요. 우리 딸이 일하느라고 애들 돌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왔죠. (외손자인가요? 외손녀인가요?) 외손자요. 10년을 봐줬어요. 초등학교 갈 때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럼 지금은 애들이랑 같이 사는 건가요? 딸이랑 같이 사시나요?) 같이 살아요, 딸이랑 사위랑. (따님은 왜 시어머니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은 말이에요. 사회분위기 그렇잖아요. 애들은 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돌보잖아요. 바깥에서 놓고 있는 애들도 보면 입만 열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진정 자기 딸을 아끼죠.

이처럼 이주가족에서 딸들의 돌봄 역할은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 중국 사회의 높은 성별 평등 수준과 여성 취업률, 딸과 친부모 사이 ‘육아 도움-노후 돌봄’으로 나타나는 암묵적인 세대 간의 계약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강화되고 있다. 이는 객관적으로 노인과 아들 사이의 돌봄 관계의 약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공백의 일부를 메워주고 있다.

7. 다양한 유형의 자녀 중심적 가족관계 형성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전통적 산업도시와 농촌 지역을 떠나 전전하다가 위해시에서 정착하게 된 이주자들은 세대 간의 상호 돌봄을 위해 다시 위해시에 모이게 되었다. 이들은 가족이 보유한 자원, 가족 내의 돌봄 수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거주방식, 상호지원관계, 돌봄 규범을 구성하고 조정하였는데

결국 가족관계는 자녀가 중심이 되고 노인이 소외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었다. 거주 방식에 있어서 세대갈등, 주택문제, 자녀의 재이주 등 다양한 이유로 노인이 다세대 동거가족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분거하게 된 노인들은 돌봄이 필요하게 되어도 다시 자녀와 동거하기 어려웠다. 상호지원 관계에 있어서는 한편 세대 간 분업을 통해 자녀가 생산영역을 차지하고 노인은 자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조직됨으로써 자녀 중심의 생활방식이 조직되었다. 또 노인이 독립능력을 가질 때에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 가사 지원, 육아 지원 등 폭 넓은 지원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의존이 필요할 때에는 자녀의 맞벌이 등 이유로 자녀로부터 제한된 도움밖에 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상호지원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돌봄 규범에 있어서 노인이 독립 능력을 가질 때에는 부모책임의 강조 받아 자녀에게 최대의 도움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의존이 필요할 때에는 자녀에게 미치는 민폐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돌봄 규범이 형성되었다. 한편 자녀는 노인이 폭 넓은 지원을 제공해주는 시기에는 노인에게 대한 부양책임을 강하게 느낄 지라도 노인이 정말 의존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맞벌이 등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노인에게 도움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주 가족 안에는 자녀 중심의 가족관계가 형성되었는데 그 유형은 동거형 가족관계, 동거 부동재형 가족관계, 근거리 분거형 가족관계, 근거리 분거 동조형 가족관계, 근거리 입소형 가족관계, 원거리 분리형 가족관계 등이 있다.

7.1. 동거형 가족관계

동거형 가족관계는 노인이 자녀와 같은 지붕아래에 생활하면서 경제관리도 함께하는 가족관계를 말한다. 주로 이주 전에 농촌 호구²⁸⁾를 가졌

28) 중국 사회에서 노인의 양로수당과 의료보장의 혜택수준은 은퇴 전에 종사하던 업종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60세 이후 농촌 호구를 도시 호구로 바꾸어도 양로수당과 의료보장의 혜택 수준은 달라지지 않는다. 도시시민과 같은 양로수당과 의료보장을 받으려면 호구를 도시호구로 전환한 후 개인이 최소 15년의 <성진기본양로보험>과 <성진기본

던 노인이 동거형 가족관계를 구성 한다²⁹⁾. 농촌 출신 노인일 경우 힘겹게 농사일을 하여 자녀의 교육, 결혼, 주택 구매 등에 평생의 저축을 소모하고 나면 약 60세부터 건강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고 경제적 자원도 거의 소진되어 있다. 게다가 농촌 출신으로 신 농업보험의 낮은 수준의 양로수당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상실하는 즉시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자녀도 농촌 출신이기에 위해시에 이주한 후 대부분 저 임금 업종에 종사하게 되어 맞벌이를 하여도 생활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다.

농촌 출신 이주 가족들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택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대부분 다세대 동거를 선택한다. 상호지원 관계에서는 세대 간의 분업을 통해 자녀가 맞벌이로 소득을 창출하여 온 가족의 지출을 책임지고 노인이 가사, 아동양육을 책임진다. 돌봄 규범에 있어서는 자녀에게 의존해서 살고 있는 노인이 자신의 소비와 욕구를 줄이는 방식으로 자녀에 대한 민폐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동거형 가족 안에서 노인은 가사의 지원자이고 손자녀 양육자이면서도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로서 가내 지위가 매우 낮은 상황에 처해있다. 세대 갈등이 일어날 경우 취약한 위치에 처한 노인이 더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노인들은 가족관계에 있어서 최대한 많이 양보하고 불만을 표출하지 않는다. 동거형 가족 안에서 노인의 노후 행복은 완전히 자녀의 경제적 상황과 효심(孝心)에 의해 결정되기에 노인은 매우 피동적인 위치에 처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농촌 출신의 손건무의 경우에는 둘째 딸의 병 치료로 일찍 재산을 소진하고 52세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배우자, 딸, 사위,

의료보험>의 가입비를 납부해만 가능하다. 한편 중국 사회에서 농민들이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근거가 농촌 호구이기 때문에 토지를 보유하고자 한다면 농촌 호구를 유지해야만 한다. 따라서 대부분 이주 전에 농촌 호구를 가진 노인들은 이주 후에도 고향의 농촌 호구를 유지한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주노인의 경제적 상황을 더 잘 반영하는 것은 현재의 호구 종류가 아니라 이주 전의 호구종류이다.

29) 도시 출신 노인들도 대부분 이주 초기에는 동거형 가족을 구성하지만 대부분 다시 근거리 분거나 근거리 입소 등 형태로 전환되어 장기적 동거형 가족을 구성하지 못한다.

외손녀와 함께 위해서에서 다세대 동거가족을 이루어 살고 있다. 딸과 사위는 가구소득을 책임지고 배우자가 가사를 하고 손건무가 외손녀를 돌본다. 딸이 유일한 자녀이기에 어쩔 수 없이 어렵게 사는 딸에게 의존하고 있는 손건무는 딸과 사위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기 위해 술을 끊고 용돈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소비를 낮추고 있다.

손건무 사례 이 외에 딸과 동거가족을 이루는 두건국, 오충진, 왕학택, 이기에 사례와 아들과 동거하는 한동창 사례가 동거형 가족에 속한다.

7.2. 동거 부동재(同居不同財)형 가족관계

동거 부동재(同居不同財)형 가족관계는 노인이 자녀와 같은 지붕아래에 생활하면서 경제는 분리 되어 있는 가족관계를 말한다. 동거 부동재형 가족도 동거형 가족과 유사하게 경제적 제약으로 다세대 동거가 필요한 농촌 출신 이주가족에서 많이 관찰된다. 동거형 가족관계와 동거 부동재형 가족관계의 차이는 동거형 가족에서는 노인이 노동능력이 없어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지만 동거 부동재 가족에서는 노인이 소득원이 있고 독립적으로 소비하는 것이다. 동거 부동재 가족 안에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경제적 분리를 취하는 것은 세대갈등을 감소하고 자녀의 경제적 권리를 존중하며 자녀의 저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동거 부동재형 가족 안에서 생활비용은 노인세대와 자녀세대가 분담하고 맞벌이를 하는 자녀세대를 배려하기 위해 노인이 더 많은 가사 노동, 육아 돌봄을 맡는다. 동거 부동재형 가족의 돌봄 규범은 부모가 도시에 정착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자녀에게 최대한 많은 돌봄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통해 자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거 부동재형 가족 안에서 노인은 자기 부양자인 동시에 가사 노동과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이다. 동거 부동재형 가족 안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경제적 독립 능력을 기초로 자녀와 평등한 가내 지위를 가지지만 일상생활은 자녀를 보조하는 것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 출신의 한동창 가족 한 사례가 동거 부동채형 가족으로 관찰되었다. 한동창의 가족의 이주는 아들 부부가 먼저 농촌을 떠나 위해시에 와서 취직한 것으로 시작된다. 그 후 반년이 지나 가족 전체의 저축을 모아 다세대 동거가 가능한 주택을 마련하였고 한동창 부부가 손자를 대리고 위해시로 합류하였다. 현재 한동창 가족은 다세대가 함께 거주하지만 지출은 세대 간 분리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동창의 아들부부가 맞벌이로 아들부부와 손자의 생활비와 가스, 전기 등 주택 지출을 부담한다. 한동창과 배우자의 소비는 한동창이 도로 청결업에 종사하여 부담한다. 가족 내에 큰 소비항목이 생길 때에는 민주상의를 통해 결정하고 두 세대가 돈을 모아 지출한다. 집안의 가사와 아동 돌봄은 배우자가 맡고 있다. 한동창 가족은 농촌에 있을 때에는 함께 농사를 하기 때문에 함께 벌고 함께 소비하였지만 위해시로 이주한 이후에는 따로 노동을 하고 봉급이 개인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도시로 올라온 후부터 경제 관리를 분리하였다. 한동창은 이렇게 한 이유가 자녀의 경제적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노인이 지출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통해 자녀의 소비를 줄이고 자녀의 저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7.3. 근거리 분거형 가족관계

근거리 분거형 가족관계는 노인과 자녀가 근거리³⁰⁾에 거주하면서 밀접한 상호지원관계를 맺는 가족관계를 말한다. 근거리 분거형 가족관계는 대부분 도시호구를 가진 이주노인들이 형성하는 가족관계로서 세대 간의 독립적인 삶을 원하거나, 동거할 조건이 부족하거나, 동거형 가족이 다시 근거리로 분리했을 때에 만들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도시 호구를 가진 노인들이 위해시에 이주했을 때도 처음에는 자녀와 동거한다. 그러나 세대 간 격차, 주택 협소, 와상노인 발생 등 다양한 이유로 동거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에는 노인이 분리되어 나와 ‘노인 가구-성인 핵가족’ 형태

30) 본 연구에서는 위해시가 비교적 작은 도시임을 고려하여 노인과 자녀가 모두 위해시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근거리’라고 보고 노인과 자녀 중 한쪽이 위해시 밖에 거주하는 경우를 ‘원거리’라고 보고 있다.

의 근거리 분거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부분 근거리 분거형 가족관계 안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도시 출신 노인으로서 충분한 양로수당이 있어 스스로 주택비용을 감당할 수 있고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수는 노인이 자녀와 가까이 살거나, 손자녀의 학교 근처에 살면서 자녀에게 가사와 육아, 일손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상호지원관계가 구성된다. 근거리 분거형 가족관계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세대 간의 접근성이 높아 활발한 상호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주가족들이 매우 선호하는 가족관계이다. 노인들이 근거리 분거형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삶에 방해를 주지 않겠다는 고려도 있고 가까이에서 서로 돌보고자 하는 고려도 있다. 따라서 돌봄 규범은 노인의 부모책임 강조와 자녀에 대한 민폐최소화 노력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 근거리 분거형 가족관계 안에서 노인의 역할은 자기 부양자, 와상 배우자의 돌봄자, 가사 지원자와 손자녀 양육자이다.

전형적인 사례로서 진항웅의 경우에는 진항웅 부부가 먼저 위해시로 이주하였고 북경으로 진출했던 딸 가족이 북경에서 정착 실패로 진항웅을 찾아와 위해시에서 다세대 동거가족을 형성하였다. 그 후 세대 간 격차 때문에 동거가 불편해지자 진항웅은 딸에게 주택을 사줘서 분가를 시켰다. 그 후 진항웅은 외손녀를 돌봐주기 위해 외손녀의 학교 근처에 이사하여 맞벌이하는 딸 대신 외손녀를 돌봐주고 있다. 아침에는 딸 부부가 출근하면서 외손녀를 학교에 대려다 주고 점심에 외손녀는 학교 근처에 있는 진항웅의 집에서 식사를 한다. 딸 부부의 퇴근 시간이 외손녀의 방과 시간보다 늦기 때문에 방과 후에 외손녀는 진항웅의 집으로 와서 쓴다. 딸 부부가 퇴근 할 때가 되면 다시 진항웅 부부가 다시 외손녀를 딸의 집으로 대려다 준다.

진항웅 가족 이외에 본 연구에서 관찰되는 근거리 분거 가족 사례로는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유수지 사례, 육아를 도와주는 가추분과 강부귀 사례, 일손을 도와주는 김영훈 사례, 와상 노인 돌봄을 전담하는 정춘자의 사례, 재결합한 자녀가 사업실패로 떠나가

고 다른 자녀가 위해시로 이주해 와서 근거리 가족관계를 구성한 추형지 사례가 있다.

7.4. 근거리 분거 동조(分居同灶)형 가족관계

근거리 분거 동조(分居同灶)형 가족관계는 노인과 자녀가 근거리에 분거하여 생활하지만 매일 함께 식사하는 형태의 가족관계이다³¹⁾. 특히 노인세대와 자녀가 초 근접³²⁾해서 살고 있는데 자녀가 맞벌이를 할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가족관계이다. 세대 격차나 주택 협소 등으로 다세대 동거가 실패했거나, 다세대 동거가 불편하다고 판단하여 초 근거리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따로 거주하면서 만들어진 가족관계이기도 하다.

근거리 분거 동조형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도시 출신 노인으로서 충분한 양로수당이 있어 스스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비를 감당할 수 있는 노인들이다. 이들은 자녀와 초근거리에 거주하면서 가사와 양육에 있어서 자녀에게 큰 도움을 제공한다. 근거리 분거 동조형 가족은 함께 거주하지는 않고 함께 소비하지는 않으나 매일 만나고 함께 식사하기 때문에 거의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밀접하다. 근거리 분거 동조형 가족관계의 형성 역시 자녀의 삶에 영향 주지 않는 선에서 자녀를 최대한 돌봐주고자 하는 것으로 돌봄 규범은 주로 노인의 부모책임 강조와 자녀에 대한 민폐최소화를 특징으로 한다. 근거리 분거 동조형 가족관계 안에서 노인의 가내 위치는 주로 자기 부양자인 동시에 가사와 양육을 지원하는 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회영의 경우에는 아들의 양육 지원 요청으로 위해시로 이주하여 아들과 동거하였다. 이주 초기에는 3세대가 동거하면서 아들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사회영(사별상태)은 가사, 육아, 파트타임 노

31) ‘분거 동조’라는 용어는 중국 농촌의 가족구조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동거 분조(同居分灶)’라는 용어를 참고하여 만든 개념이다. 중국 농촌에서 분가를 원하지만 주택문제로 분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같은 지붕 아래에서 거주하지만 식사를 따로 하는 방식을 ‘동거 분조(同居分灶)’라고 한다.

32) 초근접이라는 것은 두 세대가 만나는데 필요한 시간이 15분 이내인 거리에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동을 하였다. 그러나 거실 2개인 주택 안에서 3세대가 살기에 협소하였고, 손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개인 공간이 필요하게 되자 아들이 근처에 새로운 주택을 사서 분가해 나가고 사회영은 다시 독거하게 되었다. 분거 이후에도 사회영은 매일 손자가 방과하기 전에 파트타임의 노동을 끝내고 학교에 가서 손자를 데리고 집으로 간다. 집에 도착한 후 식사준비를 끝내면 아들 부부가 퇴근하고 사회영 집에 들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쉬다가 손자를 데리고 집으로 가고 사회영은 홀로 밤을 보낸다.

사회영 사례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 관찰되는 근거리 분거 동조형 가족관계의 사례로는 딸과 같은 주거단지에 사는 노자향, 아들과 같은 주거단지에 사는 장홍인, 딸과 가까이 사는 장만향의 사례가 있다.

7.5. 근거리 입소형 가족관계

근거리 입소형 가족관계는 노인이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위해시의 양로원에 입소하여 형성된 가족관계이다. 근거리 입소형 가족관계는 노인이 사별하거나 건강 악화로 자녀가 근거리에서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녀와 동거할 조건이 부족하거나 자녀와의 동거가 실패하였을 때 노인이 어쩔 수 없이 자녀가 거주하는 도시에 위치한 양로원에 입소하여 형성된다.

중국에서는 양로원 입소비를 공제해주는 사회복지제도가 없기 때문에 양로원 입소비를 자비로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거리 입소형 가족관계는 경제능력이 있는 도시 출신 노인에게서 더 많이 관찰된다. 근거리 입소형 가족관계의 상호지원 방식은 주로 자녀가 정기적으로 양로원을 방문하고 자주 통화하는 것으로 자녀가 노인들에게 정서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대부분 노인들은 자녀에게 주는 민폐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거리 입소를 선택하는데 근거리 입소 후 가족관계는 매우 돈독하다. 근거리에 입소하고 있는 노인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며 신체적 돌봄에서도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기에 자녀로부터 진심어린 정서적 돌봄을 받는다. 근거리 입소형 가족관계 안에서 노인은 자기부양자, 와상배우

자의 돌봄자, 정서적 피 돌봄자의 위치에 있다.

전형적인 사례로서 한경윤의 경우에는 위해시로 이주한 둘째 아들이 부모를 근처에서 모시겠다고 요청하여 위해시로 이주하였다. 아들과 2개월 동거한 후 ‘엿혀사는 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생각하여 아들의 집에서 나와 주택을 임대하여 생활하였다. 2년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자 한경윤은 1년간 독거하다가 자진하여 양로원에 입소하였다. 입소비는 한경윤이 양로수당으로 지출하고 있다. 자녀들은 매주 양로원을 방문하고 격주에 1회씩 한경윤을 모시고 나가 외식도 하고 함께 마작도 즐긴다.

이외에 근거리 입소의 사례로는 세대격차로 딸과 동거하다가 입소한 엽지영, 근거리 분거 중에 배우자의 건강악화로 외상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입소한 진호창, 고향에서 이주해 올 때 동거할 수 있는 자녀가 없어서 입소한 필종구와 최춘옥, 주 돌봄자가 암에 걸려 더 이상 돌봄을 받지 못해 입소하게 된 한옥지 사례가 있다.

7.6. 원거리 분리형 가족관계

원거리 분리형 가족관계는 노인과 자녀가 서로 다른 도시에서 분리되어 거주하는 가족관계이다. 대부분 자녀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여 노인의 돌봄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이주가족에서 관찰된다. 예컨대 위해시에서 재결합 한 후 자녀가 사업에 실패하여 부득이하게 다시 다른 도시로 경제적 기회를 찾아가고 노인만 남은 경우, 자녀가 한국으로 진출하고 노인이 위해시에 남겨진 경우 등이 있다.

원거리 분리형 가족관계에서 노인과 자녀는 서로 다른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있고 건강한 노인은 자택에 거주하고 있고, 사별하였거나 건강상태가 악화된 노인은 자녀와 멀리 떨어져 양로원에 입소해 있다. 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을 수도 있으나, 두 세대가 원거리에 분리해 있기 때문에, 자녀가 노인에게 신체적 돌봄을 제공할 수도 없고 노인이 비상 상황에 처해 있을 즉시 달려올 수도 없다. 원거리 분리형 가족 안의 노

인들은 대부분 원거리에 방치된 자로 분리불안과 고독이 심각하고 가족 재결합을 갈망하고 있으나 자녀의 상황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분리가 지속된다. 노인들은 민폐 최소화의 원칙으로 자녀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질병과 고독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전형적인 사례로 항현귀의 경우에는 딸이 육아 도움을 요청하여 위해시로 이주하여 딸과 동거하였다. 그런데 사스(SARS)의 영향으로 딸과 사위의 장사가 망하자 딸과 사위는 다시 상해, 남경 쪽으로 일 자리를 찾으러 갔다. 그 후 항현귀는 2, 3년에 한번 자녀를 만나고 매주 2, 3번 통화하면서 지냈고 자녀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적도 없다. 항현귀는 도시 출신 노인으로서 양로수당이 있어 경제적 어려움은 없으나 나이가 많아질수록 건강이 악화 되고 있어 위해시에 있는 양로원에 입소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이외에 원거리 분리형 가족관계에 해당되는 사례로는 배우자와 함께 위해시에서 도로 청결일을 하고 있고 아들 3명이 고향에 있는 왕다력 사례, 배우자와 함께 위해시에서 손자를 양육하고 있고 아들은 고향에 있는 정옥희 사례, 위해시에서 홀로 와상 배우자를 돌보고 있고 자녀가 고향에 있는 풍학귀 사례, 자녀가 한국에서 돈 벌이를 하고 홀로 위해시에 입소해 있는 문금화와 오영순 사례가 있다.

8. 결론 및 논의

8.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중국사회의 도시화 과정에서 분산되었던 이주가족이 노인이주를 통해 재결합을 이룬 이후 어떤 가족관계를 만들어 가는지, 노인에 대한 가족 돌봄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목적 위해 중국의 도시화 구도에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자리하여 있는 동시에, 먼저 이주해온 자녀세대를 중심으로 노인이주를 통한 가족재결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위해시(威海市, Weihai)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위해시에 상주하고 있는 이주노인 30명을 표집하

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직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고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이론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는 분야들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근거이론적 접근방식(Strauss & Corbin, 1990)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면담자료를 개방코딩과 축 코딩, 선택코딩을 통해 분석한 결과 60개 개념, 23개 하위 범주, 9개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주노인이 이주한 이후에 경험하는 가족관계와 돌봄 양상을 개괄해줄 수 있는 핵심범주는 ‘자녀세대 중심의 거주방식, 상호지원관계, 돌봄 규범의 형성으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자녀 중심적 가족관계가 만들어지고, 노인이 부모의 책임을 다했을 때에는 점차 주변화 되는 과정’으로 도출되었다.

도시화로 분산되었다가 다시 재결합을 이룬 이주가족의 이주 후 가족관계의 구성 과정을 이야기 윤곽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전통적 산업도시와 농촌 지역을 떠나 전전하다가 위해시에서 정착하게 된 이주자들은 세대 간의 상호 돌봄을 위해 다시 위해시에 모이게 되었다. 이들은 가족이 보유한 자원, 가족 내의 돌봄 수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거주방식, 상호지원관계, 돌봄 규범을 구성하고 조정하였는데 결국 가족관계는 자녀가 중심이 되고 노인이 소외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거주 방식에 있어서 세대갈등, 주택문제, 자녀의 재이주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노인은 점차 다세대 동거가족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분거하게 된 노인들은 돌봄이 필요하게 되어도 다시 자녀와 동거하기 어려웠다. 세대 간의 상호지원 관계에 있어서는 세대 간 분업을 통해 자녀가 생산 영역을 차지하고 노인은 주로 돌봄 영역을 맡게 됨으로써 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이 형성되고 있었다. 또 노인이 독립능력을 가질 때에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 가사 지원, 육아 지원 등 폭 넓은 지원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자녀에게 의존하게 될 때에는 자녀의 맞벌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한된 도움밖에 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상호지원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돌봄 규범에 있어서는 노인이 독립 능력을 가질

때에는 부모의 책임을 강조 받아 자녀에게 최대의 도움을 제공도록 요구 받고 있으나, 자녀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자녀에게 미치는 민폐를 최소화하도록 요구 받고 있었다. 한편 자녀는 노인으로부터 폭 넓은 지원을 받는 시기에는 노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강하게 느낄 지라도, 노인이 자신에게 의존하게 될 때에는 맞벌이 등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노인이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족 내 상황과 취한 가족전략에 따라 이주 가족 안에는 다양한 유형의 자녀 중심의 가족관계가 만들어졌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자녀중심의 가족관계는 노인이 자녀와 같은 지붕아래에 생활하면서 경제관리도 함께하는 동거형 가족관계, 노인이 자녀와 같은 지붕아래에 생활하지만 경제는 분리 되어 있는 동거 부동재(同居不同財)형 가족관계, 노인과 자녀가 근거리에 거주하면서 밀접한 상호지원 관계를 맺는 근거리 분거형 가족관계, 노인과 자녀가 근거리에 분거하여 생활하지만 매일 함께 식사하는 근거리 분거 동조(分居同灶)형 가족관계, 노인이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양로원에 입소해 있는 근거리 입소형 가족관계, 노인과 자녀가 서로 다른 도시에 분리되어 있는 원거리 분리형 가족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8.2. 이론적 합의

본 연구는 위해시에 거주하는 이주노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도시화 과정에서 분산된 이주가족이 노인이주를 통해 세대 재결합을 이룬 이후 어떻게 가족관계를 재구성하고 어떻게 노인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기존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가 가지는 이론적 합의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이주노인은 자녀와 동거하면서 자녀의 가사와 육아에 도움을 제공하거나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다고 한다(陳盛淦, 2014). 그러나 본 연구의 관찰에 의하면 이주노인은 이주 할 때부터 가족의 경제 상황, 주택상황, 주거 선호, 자녀의 성별 등에 따라 근거리에 분거하거나

근거리에 입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한 이주 초기에 동거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세대격차, 세대갈등, 주택문제, 자녀의 재이주 등 이유로 다시 근거리로 분거 혹은 입소하거나 원거리로 분리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세대 동거 방식이 이주노인의 주요 거주방식이 아니라 근거리 분거가 주요 거주방식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30명 중에 다세대 동거가족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7명뿐이었고 자녀와 근거리에 분거하는 노인이 11명, 자녀의 근처에 근거리 입소하는 노인이 6명이었고 자녀의 재이주 등 원인으로 자녀와 원거리로 분리해 있는 노인이 6명이었다. 이는 위해시의 경우에 도시화 과정에서 비교적 낮은 주택가격으로 이주자를 흡인하는 전략을 취하였고, 도시 출신의 노인이주자가 많이 이주하였기에, 근거리에 분거하거나 입소할 경제력을 가진 노인의 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주노인의 주요 거주방식은 다세대동거가 아닐 수 있고 근거리 분거, 근거리 입소 등 매우 다양한 거주방식이 있으며, 이주노인의 거주방식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과정임을 제시한다. 또 이주노인의 거주방식은 이주지의 도시화 특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연구에서는 노인이 이주하는 주요 목적은 세대 간의 상호 돌봄이고, 노인이 이주한 이후 활발한 상호지원관계가 만들어지며, 상호지원 방식은 돌봄을 필요 하는 자녀에게 이주노인이 가사와 육아 도움을 제공하고 돌봄이 필요한 이주노인을 자녀가 부양한다고 한다(靳小怡·劉妍琚, 2017). 이는 가족 내의 돌봄 필요성에 따라 노인이주로 아동 돌봄과 노인 돌봄의 문제의 동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관찰된 바에 의하면 이주 이후 노인들의 현신적인 지원으로 자녀의 육아, 가사 문제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노인 돌봄의 상황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기존연구들은 이주 이후 자녀들의 맞벌이로 인해 노인이 필요한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何惠亭, 2014; 陳盛淦, 2014). 본 연구에서도 성인자녀의 맞벌이로 인해 이주노인이 가내에 방치되어 고독감을 느끼는 문제가 보인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노인 돌봄에 있어서 이주는 단

지 노인의 분리 불안을 제거하고 비상 상황대처에 효과적일뿐 노인 돌봄의 매우 중요한 영역인 신체적 돌봄에 대한 기여가 작다는 것이다. 자녀의 돌봄을 기대하고 자녀의 곁으로 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맞벌이, 주거환경 등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노인의 신체적 돌봄에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 외상노인의 신체적 돌봄은 배우자가 전담하거나 입소 돌봄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또 노인이주가 경제적 돌봄에 대한 기여도 크지 못한 것으로 관찰된다. 위해시의 이주 노인들은 대부분 양로수당이나 노동소득으로 경제적 독립을 유지한다.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이주노인의 경우에도 다만 자녀와 함께 동거해서 살 뿐이지 생활비나 용돈 등으로 받는 현금지원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주노인이 이주 이후 자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제적·정서적·신체적 지원이 모두 매우 제한적이고 이주 이후의 상호지원 관계는 매우 불평등한 관계이며 노인이주에서 이득을 보는 집단은 노인이 아니라 자녀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 노인이주 이후의 가족 간의 돌봄 규범의 변화에 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이후 노인의 돌봄 규범은 자녀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때의 ‘부모책임 강조’로부터 자녀의 돌봄이 필요할 때의 ‘민폐 최소화 강조’로의 전환 과정을 보여주었다. 또 자녀의 돌봄 규범은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을 때의 강한 돌봄 책임감으로부터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해야 할 때에 제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전환과정을 보여주었다. 또 전통적인 돌봄 규범의 구속력 약화로 인해 노인 돌봄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역할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반면 맞벌이로 가내에서 상당한 정치권리와 독립적인 소득원을 가지고 있는 딸의 주 돌봄자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이주노인들은 점차 신체적 돌봄에서 자녀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생각을 포기하고 양로원 입소를 수용하는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기존연구에서는 이주 이후 노인이 자녀의 가사와 손자녀의 육아를 돌보게 되면서 자녀와 손자(녀)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詹洪波, 2012; 郭南南, 2012; 趙婕, 2013; 陳盛淦, 2014). 또 갈등이 발생할 때 대

부분 이주 노인이 참는 것으로 대체된다고 한다(郭南南, 2012). 이러한 발견들은 가족관계의 자녀 중심성의 일각을 보여주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주노인의 거주방식, 상호지원관계, 돌봄 규범 등 가족관계의 전반에서 서서히 형성되고 있는 자녀 중심성을 포착함으로써 이주노인이 경험하는 가족관계의 본질이 자녀중심의 가족관계임을 밝혔다. 또 기존연구에서는 자녀 중심성이 노인 돌봄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노인의 가족 내 권리상실과 심리적 고통에 있다고 설명하지만 본 연구는 이주가족의 자녀 중심성은 가족 돌봄의 약화를 유발하고 노인이 좋은 돌봄을 받지 못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임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바에 의하면 가족관계의 자녀중심성은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유발하여 노인의 신체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의 소진을 앞당기고 노후준비를 지연시켜 노인의 자기부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가족관계의 자녀중심성은 노인 돌봄에 대한 자녀(특히 아들, 며느리)의 참여를 크게 약화시키고, 자녀를 돌봄자의 위치가 아닌 돌봄을 받는 자로 위치지우며, 노인들로 하여금 의존 기에 ‘민폐 최소화’에 주력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가족 돌봄의 정당성을 약화한다. 더불어 가족관계의 자녀 중심성은 노인의 신체적 돌봄에서의 ‘탈 자녀화’를 야기시켜 이주노인들로 하여금 독립능력을 상실했을 때 자녀보다 양로원을 더욱 많이 이용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주노인의 가족관계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이주노인을 유형화한 기존 연구들에서도 부분적으로 제기되었다. 李珊(2010)은 대련시의 4개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대도시로 이주한 이주노인의 유형을 이주의 목적에 따라 자녀 의지형(投靠子女型), 자녀 지원형(支援子女型), 생활품질 추구형(追求生活品質型), 고향 귀환형(葉落歸根)으로 나누었다. 蘆恒과 鄭超月(2016)는 2015년 장춘시, 상해시, 정주시의 노표족 200명을 대상으로 반 구조화한 인터뷰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자녀의 현지 호구 획득여부’와 ‘육아 지원 참여여부’를 기준으로 이주노인을 쌍표형 노표족(雙漂型老漂), 보모형 노표족(保姆型老漂), 민공형 노표족(民工型老漂), 피부양형 노표족(受養型老漂)으로 유형화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가족관

계의 특징을 기준으로 이주노인을 유형화한 것이 아니기에 가족관계의 다양성을 설명하는데 매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주노인의 가족관계(거주방식, 상호지원관계, 돌봄 규범)의 특징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동거형 가족관계, 동거부동재형 가족관계, 근거리 분거형 가족관계, 근거리 분거동조형 가족관계, 근거리 입소형 가족관계, 원거리 분리형 가족관계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가족관계의 특징과 노인돌봄 상황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이주노인의 가족관계와 가족 돌봄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였다.

8.3 정책적 함의

최근 중국사회에서 ‘사람의 도시화’를 핵심으로 한 신형도시화가 제기되고, 도시호구 인구비중을 대폭 증가시키는 것을 도시화의 핵심 목표로 제기함에 따라, 향후 중국에서는 더욱 많은 이주자가 정착되고, 더욱 많은 가족이 이주지에서 재결합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더 많은 노인이 이주에 참여할 것이며 머지않아 이주노인의 부양문제는 각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해야 하는 노인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일찍이 이주자의 정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위해시를 연구지역으로 이주가족들의 재결합 상황, 재결합 이후의 가족관계적 특징, 노인돌봄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이주노인의 부양에 있어서 사회적 돌봄 개입의 필연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이주노인들이 가족관계와 가족돌봄에서 겪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이주노인에 특성에 따라 더욱 정밀한 사회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틀을 제공하였다.

8.4.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이 연구는 가족 간의 돌봄 관계에 있어서 노인을 돌봄 받는 자, 자녀를 돌보는 자로 상정하는 이분법적 관계에서 벗어나 세대 간의 관계는

호혜적이며, 심지어 노인의 헌신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가족 돌봄 관계 속에서 노인의 역할과 노인이 받는 돌봄의 실재를 보여주는데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에 대한 분석은 누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했을 때 이 연구는 노인 이외의 기타 가족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주노인의 가족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후속으로 노인의 배우자, 자녀세대, 손자(녀)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을 포함한 가족 단위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주노인이 경험하는 가족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이주 노인의 가족관계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 굵직하게 짚어보는데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주노인의 연령, 출신지, 성별, 호구 종류 등에 따른 차이를 깊이 다루지 못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집단을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을 통해 이주노인이 경험하는 가족관계를 보다 폭 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시화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서 중국 산둥성 위해시의 구체적인 도시화 맥락 속에서 가족관계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실재에 가까운 기술과 논의를 전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결과의 맥락 의존성에 의해 연구결과를 과도하게 일반화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중국의 기타 지역, 동아시아의 기타 지역과의 비교연구 속에서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문 문헌>

- 공선희, 2013, “노인들의 가족 돌봄에 대한 기대변화와 정책욕구”, 「한국사회학」, 제47권1호 pp.277-312.
- 김병철, 2010,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노인복지제도 비교: 양로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제159권, pp.100-111.
- 김선화, 2013,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적응이슈와 가족복지실천 방안: 가족구성, 가족해체와 재결합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호 pp.1-21.
- 김수한, 2011, “중국 도시 가족의 양로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韓中社會科學研究」, 제9권2호, pp.143-170.
- 김관준, 2014, “중국 동포의 한국 이주 및 체류 유형 변화에 대한 연구”, 「재외한인연구」 제32호, pp.113-114.
- 김혜숙·김은화·김향원·유철인, 2005, “공동거주의 의미와 한국 가족의 변화: 서울지역과 제주도의 도시중산층 가족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17권1호, pp.3-34.
- 김화선, 2016, “조선족 농민의 비농화와 국제이주: 연길시 M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제22호, pp.1-26.
- 남궁명희, 2009, “가족돌봄관계 연구 경향 분석 및 제언”, 「사회과학연구」, 제20권3호, pp.49-79.
- 민무숙, 1995, “노모와 성인 딸/며느리간의 상호원조유형이 부양 부담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15권1호, pp.74-90.
- 박경숙, 2003, “세대관계의 다양성과 구조”, 「한국사회학」, 제37권2호, pp.61-94.
- 박경숙, 2017, 『인구학 방법(인구동태의 측정과 모형)』,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박광성, 2007, “중국조선족의 조국적 인구이동과 경제생활의 변화”, 「재

외한인연구」 제18호, pp.131-164.

박승민·김광수·방기연·오영희·임은미, 2012, 『근거이론을 활용한 상담연구 과정』, 학지사.

박인성, 2009, 『중국의 도시화와 발전축』, 한울.

박인성, 2010, “중국의 도시화 특성과 국토공간구조 형성 동향 고찰”, 「서울도시연구」, 제11권2호, pp.1-13.

박인성, 2016, “개혁기 중국의 도시화 경험”, 「역사비평」, 제115권, pp.77-103.

박종기, 2014, “중국의 도시화 과정과 도시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30권4호, pp.169-180.

박현정·최혜경, 2001, “한국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9권1호, pp.63-75.

백우열, 2014, “현대 중국의 부동산 개발, 사회불안정, 신형도시화”, 「한국정치학회보」, 제48권4호, pp.27-47.

성태제·시기자, 2006, 『연구방법론』, 학지사.

신연희, 2015, “출소준비 수형자의 가정실태와 가족재결합 관련요인”, 「矯正研究」, 제67호, pp.183-205.

안산평, 2007, 『중국의 도시화와 농민공-1억 3000만 인구의 대이동』, 백계문 옮김, 한울 아카데미.

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 2012,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사.

유영주·김순옥·김경신, 2008, 『가족관계학』 교문사.

이경희, 2004, “중국의 산아제한과 낙태”, 「사회이론」, 제26권, pp.42-74.

이매화, 2015, “중국 조선족의 국제이동 연구현황과 전망-중국 학계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61호, pp.501-522.

이미숙·조병은·강란혜, 2004, “학동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 수행: 취업모가족과 비취업모가족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4호, pp.69-84..

이수행·정상은, 2011, “한중간 도시화 과정의 비교연구”, 「한중사회과학

연구」, 제9권3호, pp.218-244.

이윤정, 1994,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분담정도와 부양에 따른 부담감”,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이혜자·김윤정, 2004, “부부관계가 노년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지」, 제24권4호, pp.197-214.

정영순, 2000, “시설보호아동의 가족재결합 촉구방안”, 「한국아동복지학」, 제9권, pp.247-262.

정재각, 2011, “독일의 이주정책과 사회통합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1권3호, pp.79-106.

조병은, 2007, “노년기 가족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현황과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1호, pp.59-75.

조은숙, 2010, “기러기 가족의 분거와 순차적 이민을 통한 재결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관계의 변화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5권3호, pp.91-115.

지성태, 2013, “중국 도농격차 심화의 원인과 해소를 위한 중요 정책”, 「아시아연구」, 제16권1호, pp.77-104.

한경혜·유순덕, 2001, “자녀와의 동·별거가 농촌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21권2호, pp.163-178.

한국국토·도시계획학회, 2010, 『도시계획론』, 보성각.

홍숙자, 2010, 『노년학 개론』, 하우.

<영문문헌>

Bowers, B. F. & Myers, B. J. 1999, “Grandmothers Providing Care for Grandchildren: Consequences of Various Levels of Caregiving”, Family Relations, Vol.48, No.3, pp.303-311.

Chen, Y. & Stuart, S. Rosenthal. 2008, “Local Amenities and Life Cycle Migration: Do People Move for Jobs or Fun?”, Journal of Urban Economics, No. 65, pp.519-537.

- Gattai, F. B. & Musatti, T. 1999, "Grandmothers involvement in Grandchildren's care. Attitudes, feelings, and emotions", Family Relations, Vol.48, No.1, pp. 35-42.
- Goode, William J. 1963, World Revolution and Family Patterns, New York, The Free Press.
- John W. Creswell, 1998,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Publications.(Creswell 지음, 조홍식·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옮김, 학지사.)
- Kivett, V. R. 1985, "Consanguinity and kin Level: Their Relative Importance to the Helping Network of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No.40: 228-234.
- litwak, E. & Longino, C. F. 1987, "Migration patterns among theelderly: a developmental perspective", The Gerontologist, Vol.27, No.3, pp.266-272.
- Silverstein, M. & Angelellim, J. J. 1998, "older parent's expectations of moving closer to their children", Journal of Gerontology, Vol.53, No.3, pp.153-163.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Sage Publications.(Strauss & Corbin 지음, 김수지·신경림 옮김, 한울 아카데미.)
- Corbin, J. & Strauss, A. 2007,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Sage Publications.
- Suiter, J. J. & Pillemer. 1988, "Explaining intergenerational conflcit with adult children and elderly parents live togeth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No.50, pp.1037-1047.
- Van Diepen Albertine M. L, Mulder Clara H. 2009, "Distance to family members and relocations of oder adults",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No.24, pp.31-46.

Waldrop, D. P. & Weber, J. A. 2001, "From Grandparent to Caregiver: The Stress and Satisfaction of Raising Grandchildren Families in society",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Vol.82, No.5, pp.461-472.

Wilian, H. Walters. 2002, "Place Characteristics and Later-Life migration", Research on Aging, No. 24, pp.243-277.

Wiseman, R. F. 1980, "Why older people move: theoretical issues", Research on Aging, Vol.2, No.2, pp.141-154.

<중국어 문헌>

郭南南,2012,“老漂族探究”,「太原城市職業技術學院學報」,2012年5期,pp.70-71.

國家統計局農村社會經濟調查司,“2006年全國農村外出務工勞動力持續增加”,「調研世界」,2007年4期,pp.6-7.

靳小怡·劉妍琚,2017,“照料孫子女對老年人生活滿意度的影響”,「東南大學學報」,2017年3期,pp.119-148.

段成榮·楊舸,2008,“我國農村留守兒童狀況研究”,「人口研究」,2008年3期,pp.15-26.

段成榮·楊舸,2013,“流動人口家庭化過程中子女歲前的阻礙因素分析”,「人口與經濟」,2003年5期,pp.33-40.

唐鈞,2008,“農村‘留守家庭’與基本公共服務均等化”,「長白學刊」,2008年2期,pp.96-103.

陶然·孔德華·曹廣忠,2011,“流動還是留守:中國農村流動人口子女就學地選擇與影響因素考察”,「中國農村經濟」,2011年6期,pp.85-97.

杜鵬·李一男·王澎湖·林偉,2007,“流動人口外出對其家庭的影響”,「人口學刊」,2007年1期,pp.3-9.

呂青,2014,“留守家庭:結構分化,適應與重構”,「西北人口」,2014年2期,pp.50-52.

蘆恒,鄭超月,2016,“流動的公共性視角下老年流動群體的類型與精準治理”,「

- 江海學刊」,2016年2期,pp.227-233.
- 劉佩瑤,2015,“老年人口遷移問題綜述”,「經濟與社會發展」,2015年1期,pp.80-82.
- 劉曉雪,2012,“‘老漂族’的養老問題初探”,「西安財經學院」,2012年11期,pp.110-113.
- 陸益龍,2004,『戶籍制度-控制與社會差別』,商務印書館.
- 李珊,2010,“城市化進程中移居老年人的問題研究”,「濟南大學學報」,2010年6期,pp. 71-74.
- 孟向京·薑向群·宋健·萬紅霞·陳豔·韓中華·何雲燕,2004,“北京市流動老年人口特徵及成因分析”,「人口研究」,2004年6期,pp.53-59.
- 方創琳,2014,“中國城市群研究取得的重要進展與未來發展方向”,「地理學報」,2014年8期,pp.1130-1144.
- 北京青年報,2007年6月7日新聞.“我國究竟有多少農村留守家庭?”,<http://finance.qq.com/a/20070607/000112.htm>
- 孫立平,2010,『制度實踐與目標群體』,社會科學文獻出版社.
- 宋衛芳,2014,“隔代撫養對幼兒社會化的影響及應對策略”,「社會民生」,2014年3期, pp.163-167.
- 新浪山東,2015年7月8日新聞,“山東威海韓企5年來撤离一半”,
<http://sd.sina.com.cn/news/b/2015-07-08/detail-ifxesfuc3592387-p3.shtml>
- 新浪山東,2015年12月11日新聞,“2015中國50大氧吧城市威海高居第二”,
<http://sd.sina.com.cn/news/b/2015-12-11/detail-ifxmpxnx4942323.shtml>
- 新華網,2013年5月10日新聞,http://edu.ifeng.com/gundong/detail_2013_05/10/25166427_0.shtml
- 楊舸·段成榮·王宗萍,2011,“流動還是留守:流動人口子女隨遷的選擇性及其影響因素分析”,「中國農業大學學報」,2011年9期,pp.85-96.
- 楊菊華·陳傳波,2013,“流動人口家庭化的特徵與特點:流動過程特征分析”,「人口與發展」, 2013年9期,pp.2-13.
- 楊菊華·何焰華,2014,“社會轉型過程中家庭的變遷與延續”,「人口研究」,2014年3期, pp.36-51.

- 易丹,2014,“隨遷老人:一个亟需社會關注的群体”,「蘭州教育學院學報」,2014年2期, pp.46-47.
- 吳慧芳·繞靜,2010,“農村留守婦女的社會網絡重構行動分析”,「中國農村觀察」,2010年4期,pp.81-88.
- 王國霞·秦志琴·程麗琳,2012,“20世紀末中國遷移人口空間分布格局”,「地理科學」,2012年3期,pp.273-281.
- 王貴新·潘澤瀚,2013,“我國流動人口的空間分布及其影響因素”,「現代城市研究」,2013年3期,pp.4-12.
- 王世斌·申群喜·王明忠,2015,“比較視角下流動老年人社會參與的實證研究”,「南方人口」,2015年5期,pp.44-80.
- 王躍生,2014,“中國城鄉老年人居住的家庭類型”,「中國人口科學」,2014年1期,pp.20-32.
- 于學軍,2005,“中國流動人口特征,需求和公共政策思考”,「開放導報」,2005年12期, pp.20-24.
- 威海網·威海日報,2017年7月10日新聞,“解讀威海市藍色經濟區發展規劃”,http://www.whnews.cn/news/node/2017-07/10/content_6915126.htm
- 威海市人民政府,2017,“威海市概況:人口民族”,<http://www.weihai.gov.cn/col/col17220/index.html>
- 威海市統計局,2000-2017,『統計年鑑(2000-2017)』<http://www.stats-wh.gov.cn/col/col13261/index.html>
- 人民網,2013年2月26日新聞,“全國人大常委辜勝阻談程占華改革與農民工市民化”,<http://fangtan.people.com.cn/n/2013/0225/c147550-20593215.html>
- 張愛華,2015,“農村中年女性的溫情策略與家庭關係期待”,「婦女研究論叢」,2015年9期, pp.19-29.
- 張耀軍,2005,『資源型城市可持續發展評價及預警實証研究』,知識產權出版社.
- 張耀軍·陳紅·張正峰,2007,“資源型城市人口生存與發展問題分析及對策選擇”,「人口學刊」,2007年4期,pp.9-14.
- 張伊娜·周雙海,2013,“中國老年人口遷移的選擇性”,「南方人口」,2013年3期,p.38-45.

- 張占斌,2013,“新型城鎮化的戰略意義和改革難題”,「國家行政學院學報」,2013年01期,pp.48-54.
- 張紅濤·席絹,2015,“增能視角下城市‘老漂族’的社會工作介入初探”,「老齡科學研究」,2015年6期,pp.31-39.
- 鄭佳然,2016,“流動老年人口社會融入困境及對策研究”,「寧夏社會科學」,2016年1期,pp.112-119.
- 政協威海市環翠區文史資料研究委員會,2001,『威海市環翠區古今大事記略』,政協威海市環翠區文史資料.
- 趙婕,2013,“農村隨遷老人城市融入的社區性機制研究”,「安徽理工大學學報」,2013年9期,pp.45-49.
- 周宗奎·孫曉軍·劉亞·周東明,2007,“農村留守兒童心理發展與教育問題”,「北京師範大學學報」,2007年第4期,pp.71-80.
- 周皓,2002,“省際人口遷移中的老年人口”,「中國人口科學」,2002年2期,pp.35-41.
- 中國國家人口與計劃生育委員會流動人口服務管理司,2011,『中國流動人口發展報告(2011)』,中國人口出版社.
- 中國國家人口與計劃生育委員會流動人口服務管理司,2012,『中國流動人口發展報告「(2012)」』,中國人口出版社.
- 中國國家人口與計劃生育委員會流動人口服務管理司,2016,『中國流動人口發展報告(2016)』,中國人口出版社.
- 中國國家統計局,2010,「第六次人口普查資料」,www.stats.gov.cn/tjsj/pcsj/rkpc/6rp/Index.htm
- 中國國家統計局,2016,「2015年農民工監測調查報告」,http://www.stats.gov.cn/tjsj/zxfb/201604/t20160428_1349713.html
- 中國氣象局公共氣象服務中心,http://www.weather.com.cn/html/cityintro/101121301.shtml
- 中國老齡科學研中心,2014,『2010年中國城鄉老年人口狀況追蹤調查數據』,中國社會出版社.
- 陳東林,2003,『三線建設:備戰時期的西部開發』,中共中央黨校出版社.

陳盛淦,2014,“隨遷老人的城市適應問題研究”,「南京航空航天大學學報」,2014年9期, pp.59-62.

詹洪波,2012,“老漂族:我的孤單你永遠不懂”,「東西南北」,2012年1期,pp.13-17.

土流網, 2016年11月10新聞“天保工程含義, 相關政策, 實施省份和宣傳標語錦集”, <http://www.tuliu.com/read-45694.html>

何惠亭,2014,“代際關係視角下老漂族的城市適應研究”,「前沿」,2014年9期,pp.157-161.

許召元·高穎·任婧玲,2008,“農民工子女就學地選擇的影響因素分析”,「中國農村觀察」,2008年6期,pp.12-20.

黃璜,2013,“老年人口遷移問題綜述”,「人文地理」,2013年4期,pp.27-33.

侯佳偉,2009,“人口流動家庭化過程和個體影響因素研究”,「人口研究」,2009年1期,pp.55 -61.

Abstract

The Family Relation and Family Care Experienced by Migrated Seniors in Weihai, Shandong Province, China

ZHENG LING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to comprehend how family relations are reorganized and how family care is implemented after migrated families who were dispersed in the process of China's urbanization formed reunion through senior immigration for the purpose of family care between generations.

The target area of this study was Weihai, which is an important strategic location in China's urbanization structure and where active family reunion is done through senior citizens' immigration to their children who moved to this area first, and in-depth interviews were done on 30 migration seniors who resides in the city.

In case the concept that could explain the phenomena wasn't

confirmed in the collected data, or there was not enough explanation or concretization on the relation among concepts, a base theoretical access method (Strauss & Corbin, 1990) which can be properly used in fields without theoretical basis was applied.

In the result of analyzing the interview data through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58 concepts, 23 subcategories and 9 categories were deducted. The core category that can summarize family relation and care experiences of migrated seniors after reunion was 'the process of gradual marginalization as various types of child generation centered family relation is formed and parent responsibility fulfilled through reorganization of living methods among generations, mutual support relation and family care norms'.

The following is the reorganization process of migrated families that formed reunion after they dispersed due to urbanization. Migrants who wandered around after leaving traditional industrial cities and rural areas due to China's social structural factors after Chinese economic reform and settled in Weihai gathered in the city for mutual family care among generations. They formed and adjusted living methods, mutual support relation and family care norms diversely according to situations of resources that families own, demand for family care within a family and time flow. Eventually, their family relations were reorganized into children centered and seniors marginalized methods. In the way of living, seniors became alienated in multi-generation families due to a variety of reasons such as generation discord, housing problem and children's re-migration, and it was difficult for seniors who lived separately to live with their children again even though they needed family care. The mutual support relation was organized through division of labor among generations in the methods that younger generations hold

production part and seniors support their children, so the younger generation centered living methods were organized. In addition, although seniors provided wide scope of economic, household and childcare support for their children when they had ability of independence, they could receive limited support from their children due to such reason as husband and wife both working situation when seniors had to be dependent to their children, which is unequal mutual support relation. Regarding family care norms, when seniors had ability of independence, they tried to provide maximum support to their children because they were forced to be responsible as parents. However, after dependence situation occurred, they had to try hard to minimize inconvenience for their children. Meanwhile, young generations felt strong support obligation for their parents while their parents provided wide support, but when seniors needed to be dependent to them, they couldn't provide enough support for their parents due to realistic limitations such as husband and wife both working situation. After this whole process, various types of young generation centered family relations were formed in migrated families.

The young generation centered family relations that were eventually formed are classified into a co-residence family relation that seniors and their children live together and manage their finance together, a co-residence with separate finance management that seniors and their children live together but manage their finance separately, a relation of separate residence in close locations that seniors and their children live in close locations and have close mutual support relations, a relation of separate residence in close locations and having breakfast together, a relation formed as seniors live in nursing home in Weihai and a long distance separate family relation that seniors and their children live in different citie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be provided as a basic resource to understand and theorize the family reunion phenomena experienced by migrated seniors in the urbanization process by systematizing the change of family relations and family support situations after family reunion of China's migration seniors and developing a mini-theory through the base theoretical analysis method. The study is also expected to open a theoretical prospect on the change of families and family support in East Asian society that are in tension and conflict conditions due to urbanization in the perspective of comparison study by comprehending new family strategies of Chinese society suggested to solve senior support problems occurring in the urbanization process.

Key Words: urbanization, family relation, generation relation, family reunion, family support, senior migration, China

Student Number: 2011-31257